

ISSN 3022-1471

# 2024

#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 SEOUL

# MENTAL HEALTH

#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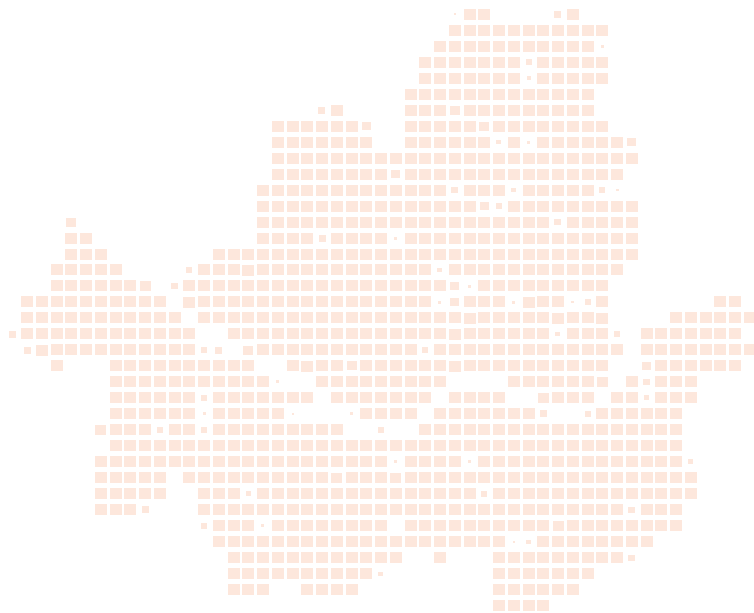




2024

#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동행·매력  
특별서울

서울시 -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케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Contents

## 01

### 개요

---

01. 발간 목적	12
02. 보고서 구성 체계	12
03. 지표 구성 체계	13
04. 이용 시 유의사항	15

## 02

###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01. 행정구역	18
02. 예산	20
03. 인구	26

## 03

###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01. 한눈에 보기	48	
02. 자세히 보기	52	
가. 정신건강 자원		
Indicator 0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52
Indicator 0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54
Indicator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56
Indicator 0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58
Indicator 0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60
Indicator 0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62

나.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dicator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64
	Indicator 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6
	Indicator 0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68
다. 정신건강문제	Indicator 10	우울감 경험률	70
	Indicator 11	스트레스 인지도	72
	Indicator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74
	Indicator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76
라. 정신질환치료	Indicator 14	비자의 입원율	78
	Indicator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80
마. 정신건강서비스	Indicator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82
	Indicator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84
	Indicator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86
	Indicator 19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88
	Indicator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90

## 04

### 정신건강 관련 현황

01. 정신건강자원	94
02.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104
03. 정신건강문제	108
04. 정신질환치료	119
05. 정신건강서비스	123

## 05

###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1. 정신건강자원	132
02.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148
03. 정신건강문제	158
04. 정신질환치료	182
05. 정신건강서비스	191

## 06

### 부록: 참고자료

부록: 참고자료	199
----------	-----

# 표 목차

표1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 구성 및 인구밀도 현황(2024)	18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추이(2020~2024)	20
표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추이(2018~2023)	22
표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추이(2018~2023)	24
표5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추이(2020~2024)	26
표6	서울시 성별 인구 추이(2020~2024)	28
표7	서울시 연령별 인구 추이(2020~2024)	29
표8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추이(2020~2024)	30
표9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2024)	31
표10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2020~2024)	32
표11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 지수 현황(2024)	34
표12	서울시 연령별 1인가구 추이(2020~2024)	36
표13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2024)	37
표1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3)	38
표15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3)	39
표16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4)	40
표17	서울시 장애유형에 따른 등록장애인 연령별 현황(2024)	41
표18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추이(2020~2024)	42
표19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2024)	43
표20	서울시 내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	44
표21	서울시 자치구별 내외국인 인구 현황(2024)	45
표22	서울시 예산 및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5)	94
표2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9~2024)	95
표24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추이(2019~2024)	96
표25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수 추이(2019~2024)	97
표26	서울시 자치구별 설립구분 및 기관구분에 따른 정신병상 수 현황(2024)	98
표27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9~2024)	99
표28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4)	100
표2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 현황(2024)	101
표30	서울시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9~2024)	102
표31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4)	103
표32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5)	104
표33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5)	105
표34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추이(2017~2025)	106
표35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9~2025)	107
표36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2019~2025)	107
표37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2024)	108
표38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2020~2024)	109

표39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현황(2024)	110
표40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2020~2024)	111
표41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112
표42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추이(2020~2024)	113
표43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11~2024)	114
표4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20~2024)	115
표45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16
표46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118
표47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118
표48	서울시 정신질환 진단별 진료 환자수 추이(2020~2024)	119
표49	서울시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추이(2020~2024)	119
표50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3)	120
표51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20~2024)	121
표52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14~2020)	122
표53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1~2024)	122
표54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별 등록자 추이(2010~2024)	123
표55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4)	124
표56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추이(2020~2024)	125
표57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4)	126
표58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4)	127
표59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5~2024)	128
표60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20~2024)	129
표61	시도별 정신건강 예산 추이(2020~2024)	132
표62	시도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추이(2020~2024)	133
표63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	134
표64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0~2024)	135
표65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4)	136
표66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2024)	137
표67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22~2024)	138
표68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4)	138
표69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20~2024)	139
표70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2024)	140
표71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보건 지출 현황(2022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41
표72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 및 비중 중앙값 현황(2024)	142
표7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중앙값 현황(2024)	143
표74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 현황(2024)	144
표75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45
표76	WHO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추이(2017~2024)	146

## 표 목차

표77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증감률 현황(2024)	147
표78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4)	148
표79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2024)	149
표80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4)	150
표81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현황(2024)	151
표82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7~2024)	152
표83	지역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현황(2024)	153
표84	국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4)	154
표85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6~2024)	155
표86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현황(2024)	156
표87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현황(2021~2022)	157
표88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2024)	158
표89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를 현황(2024)	160
표90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162
표91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64
표92	국내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165
표93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165
표94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유병률 현황(2021)	166
표95	국내 정신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현황(2021)	167
표96	시도별 자살 사망률 현황(2024)	168
표97	국내 자살 관련 행동 현황(2021)	170
표98	국가별 우울증 연령 표준화 유병률 현황(2021)	171
표99	국가별 불안장애 연령 표준화 유병률 현황(2021)	172
표100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2~2023)	173
표101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74
표102	GBD 연구에 따른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23)	175
표103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2)	176
표104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77
표105	OECD 및 대한민국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178
표106	OECD 및 대한민국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179
표107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3~2021)	180
표108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1~2022)	180
표109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81
표110	국내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20~2024)	182
표111	국내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20~2024)	182
표112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4)	183
표113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율 추이(2019~2024)	184
표114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율 추이(2020~2024)	185

표115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3~2024)	185
표116	OECD 국가별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86
표117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88
표118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190
표119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190
표120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2021)	191
표121	국내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현황(2021)	192
표122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현황(2024)	193
표123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2024)	194
표124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4)	195
표125	시도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2024)	196
표126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현황(2021)	197
표127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복수 운영 국가 비율 현황(2024)	197
표128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주요 기능 현황(2024)	197

## 그림 목차

그림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밀도 현황(2024)	19
그림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24)	21
그림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현황(2023)	23
그림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현황(2023)	25
그림5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추이(2020~2024)	27
그림6	서울시 성별 인구 추이(2020~2024)	28
그림7	서울시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2020~2024)	29
그림8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비율 추이(2020~2024)	30
그림9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2020~2024)	33
그림10	서울시 자치구별 노령화 지수 현황(2024)	35
그림11	서울시 1인가구 추이(2020~2024)	36
그림12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2~2023)	38
그림13	서울시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4)	40
그림14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추이(2020~2024)	42
그림15	서울시 내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	44
그림16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0~2024)	53
그림17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1인당 정신건강예산 현황(2024)	53
그림18	서울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추이(2017~2024)	55

# 그림 목차

그림19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정신병상수 추이(2017~2024)	57
그림20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정신병상수 현황(2024)	57
그림21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추이(2010~2024)	59
그림2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현황(2024)	59
그림23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추이(2010~2024)	61
그림2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현황(2024)	61
그림25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0~2024)	63
그림2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4)	63
그림27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1~2025)	65
그림28	서울시민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현황(2025)	65
그림29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추이(2011~2025)	67
그림30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응답 분포 추이(2011~2025)	67
그림31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추이(2011~2025)	69
그림32	서울시민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현황(2025)	69
그림33	서울시 우울감 경험률 추이(2010~2024)	71
그림34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2024)	71
그림35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도 추이(2013~2024)	73
그림36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도 현황(2024)	73
그림37	서울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추이(2010~2024)	75
그림38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75
그림39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추이(2010~2024)	77
그림40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현황(2024)	77
그림41	서울시 비자의 입원율 추이(2019~2024)	79
그림4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현황(2024)	79
그림43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추이(2014~2020)	81
그림44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현황(2020)	81
그림45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추이(2010~2024)	83
그림46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4)	83
그림47	서울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추이(2019~2024)	85
그림48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현황(2024)	85
그림49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추이(2013~2024)	87
그림50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현황(2024)	87
그림51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4)	89
그림52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현황(2024)	89
그림53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추이(2021~2024)	91
그림54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직업군 현황(2024)	91
그림55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5)	94
그림56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 현황(2024)	96

그림5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수 추이(2019~2024)	97
그림58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 및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9~2024)	102
그림59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5)	104
그림60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11~2024)	114
그림61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현황(2021)	117
그림6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적 입원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20~2024)	121
그림63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4)	126
그림64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4)	127
그림65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5~2024)	128
그림66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	134
그림67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0~2024)	135
그림68	국내 정신건강인력 현황(2024)	139
그림69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 현황(2024)	142
그림70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중앙값 현황(2024)	143
그림71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 현황(2024)	144
그림72	WHO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추이(2017~2024)	146
그림7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현황(2024)	147
그림74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4)	148
그림75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4)	150
그림76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7~2024)	152
그림77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2024)	159
그림78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현황(2024)	161
그림79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163
그림80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64
그림81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2024)	169
그림82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2~2023)	173
그림83	GBD 연구에 따른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23)	175
그림84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2)	176
그림85	OECD 및 대한민국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178
그림86	OECD 및 대한민국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179
그림87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1~2022)	180
그림88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9~2024)	184
그림89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190
그림90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190

# 이

## 개요

- ① 발간 목적 12
- ② 보고서 구성 체계 12
- ③ 지표 구성 체계 13
- ④ 이용 시 유의사항 15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four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 beige color,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of the same color extend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ending just before the text.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 01

## 개요

### 01

#### 발간목적

- ◆ 서울시는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자원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종의 통계를 선정하여 정신건강지표로 활용 중입니다.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관련 정책 및 사업 수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지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02

#### 보고서 구성 체계

- ◆ 본 지표집은 서울시의 정신건강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기반 현황, 정신건강 지표,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국내외 비교자료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이는 이용자가 서울시의 구조적 환경을 먼저 이해한 뒤, 정신건강 관련 지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체계를 따릅니다.
- ◆ 1장에서는, 지표집의 발간 목적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표 분류 체계 및 보고서의 전체 흐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표의 정의, 구성요소 등을 소개하고,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 2장에서는, 서울시 지역사회의 구조적 기반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구역별 현황, 예산 규모, 인구 구조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수록함으로써, 정신건강 지표 해석을 위한 지역적 맥락을 제공하였습니다.
- ◆ 3장에서는, 서울시의 정신건강지표를 요약과 세부 해설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한눈에 보기’에서는 서울시의 주요 정신건강 지표 20종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어지는 ‘자세히 보기’에서는 각 지표의 정의, 산출 기준, 수치 및 그래프 등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 4장에서는,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신건강 현황을 영역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와 인프라, 지원체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5개 영역(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정신건강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국 또는 지역의 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 정신건강 실태를 다양한 맥락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본 지표집에 수록된 정신건강지표는 서울시 정신건강 현황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표는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 지표는 크게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핵심 지표 20종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지표명
정신건강 자원	예산	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기관	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인력	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율
정신건강 문제	우울	10.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11. 스트레스 인지율
	중독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자살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정신질환 치료	의료적서비스	14. 비자의 입원률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률
정신건강 서비스	서비스제공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서비스결과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19.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 ◆ 또한 지표의 기능에 따라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의 기획-집행-성과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아울러 각 지표는 지표의 변화 방향에 따라 상향지표, 하향지표로 구분하였습니다. 상향지표는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태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며, 하향지표는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로 해석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 ◆ 일부 지표는 정책 방향, 사업 목적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재해석되어 기존 분류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 ◆ 각 지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 지표목표: 상향지표, 하향지표
  -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 지표정의: 지표의 해석 방향과 분석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 개념 제시
  - 측정산식: 지표값을 산출하기 위한 방식으로, 분자·분모 구조나 백분율 등 산출 논리 제시
  - 산식설명: 측정산식에 사용된 항목들의 의미와 적용 기준 등을 제시
  - 지표현황: 지표 수치를 제시하며, 시계열 추이, 주요 집단 간 차이 등 핵심 분석 결과 요약
  - 자료출처: 지표 산출에 사용된 통계자료 또는 조사명, 조사연도 등을 명시
  - 그 외 시각화자료(도표, 그래프 등) 및 자치구별 세부현황 제시
- ◆ 이와 같은 지표 구성 체계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 다양한 측면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시계열 비교, 지역 간 격차 분석, 정책 효과 추적 등 다양한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 및 통계 데이터는 2024년 12월 31일 또는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내외 자료 활용의 한계로 일부 과거 통계를 활용하였습니다.
- ◆ 통계 수치의 단위 미만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 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표 및 통계 데이터 산출 기준은 과거에 발간한 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과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정한 것으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 응답 수가 '0'인 경우 '-'로 표시하였습니다.
- ◆ 본 보고서는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https://seoulmentalhealth.kr/>)에서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 및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① 행정구역 18
- ② 예산 20
- ③ 인구 26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four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 beige color,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of the same color extend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ending just before the text.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 01

## 행정구역

### 1) 면적, 구성 및 인구밀도

- ◆ 서울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605.21km<sup>2</sup>이며, 25개의 자치구와 467개의 법정동, 42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됨.
- ◆ 인구밀도는 단위 면적당 거주 인구를 나타내며, 지역 내 인구 집중도를 보여줌으로써 서비스 수요와 접근성, 과밀 또는 고립 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됨.
- ◆ 2024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전국 인구밀도는 515.7명/km<sup>2</sup>인 반면 서울특별시 기본통계에 따른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15,858명/km<sup>2</sup>으로 큰 차이를 보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25,226명/km<sup>2</su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로구가 6,256명/km<sup>2</sup>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 구성 및 인구밀도 현황(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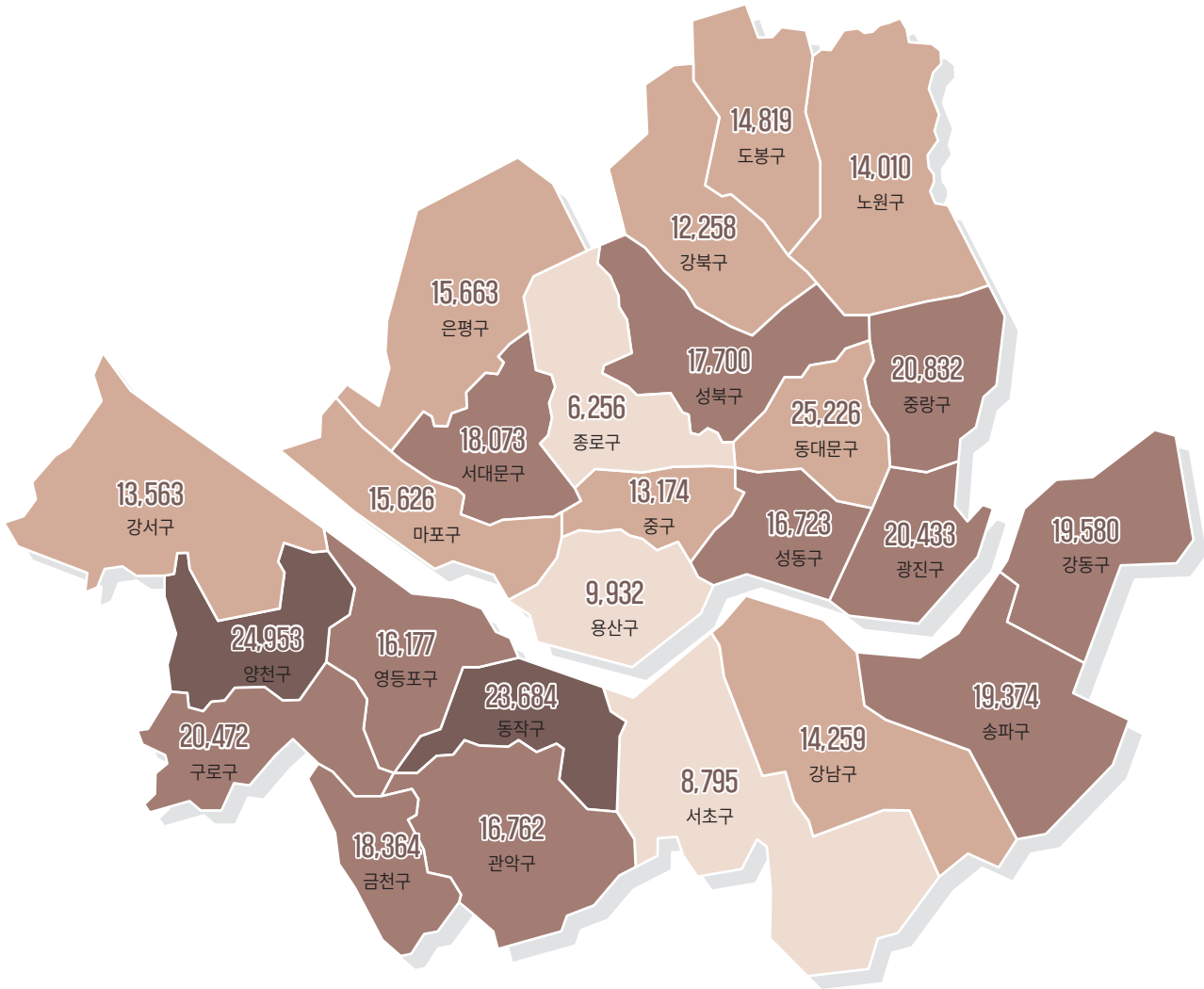
(단위: km<sup>2</sup>, %, 개, 명, 명/km<sup>2</sup>)

구분	면적	구성비	법정동 <sup>1)</sup>	행정동 <sup>2)</sup>	인구수	인구밀도
서울시	605.21	100.00	467	426	9,597,372	15,858
종로구	23.91	3.95	87	17	149,608	6,256
중구	9.96	1.65	74	15	131,214	13,174
용산구	21.87	3.61	36	16	217,194	9,932
성동구	16.82	2.78	17	17	281,289	16,723
광진구	17.06	2.82	7	15	348,652	20,433
동대문구	14.22	2.35	10	14	358,603	25,226
중랑구	18.50	3.06	6	16	385,349	20,832
성북구	24.58	4.06	39	20	435,037	17,700
강북구	23.60	3.90	4	13	289,374	12,258
도봉구	20.65	3.41	4	14	306,032	14,819
노원구	35.44	5.86	5	19	496,552	14,010
은평구	29.71	4.91	11	16	465,350	15,663
서대문구	17.63	2.91	20	14	318,622	18,073
마포구	23.85	3.94	26	16	372,745	15,626
양천구	17.41	2.88	3	18	434,351	24,953
강서구	41.45	6.85	13	20	562,194	13,563
구로구	20.12	3.32	10	16	411,916	20,472
금천구	13.02	2.15	3	10	239,070	18,364
영등포구	24.55	4.06	34	18	397,173	16,177
동작구	16.36	2.70	9	15	387,352	23,684
관악구	29.57	4.89	3	21	495,620	16,762
서초구	46.97	7.76	10	18	413,076	8,795
강남구	39.50	6.53	14	22	563,215	14,259
송파구	33.88	5.60	13	27	656,310	19,374
강동구	24.59	4.06	9	19	481,474	19,580

주: 1) 옛부터 전래되어온 동명으로 개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행위시 주소로 사용되는 동명칭

2)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적절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동명칭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주민등록인구 통계



# 02

## 예산

### 1) 재정자립도

- ◆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 ◆ 2024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른 전국 재정자립도는 43.3%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함.
- ◆ 2024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74.0%로 전국 43.3%보다 30.7%p 높은 자립수준을 보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북구가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수준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시	76.1	75.6	76.3	75.4	74.0
종로구	47.0	47.2	47.5	46.7	42.0
중구	53.5	55.3	55.3	55.8	53.6
용산구	39.3	41.7	41.9	41.7	39.4
성동구	32.7	33.2	34.2	34.5	30.2
광진구	26.2	26.1	25.0	26.1	23.2
동대문구	23.2	24.5	23.7	23.8	21.6
중랑구	17.5	18.2	18.2	21.6	15.4
성북구	20.0	20.6	19.9	20.7	18.7
강북구	16.8	17.2	17.1	17.2	15.3
도봉구	18.4	18.9	19.4	20.0	17.3
노원구	15.8	15.9	16.7	16.5	16.6
은평구	17.9	18.4	18.0	18.1	16.0
서대문구	23.4	23.5	25.1	25.2	20.3
마포구	31.6	32.0	32.6	33.0	28.0
양천구	25.2	25.2	25.4	25.3	21.6
강서구	21.1	21.9	20.8	21.1	19.4
구로구	22.2	22.5	21.9	22.1	19.9
금천구	24.7	26.3	25.1	23.6	22.0
영등포구	36.0	36.5	37.3	37.4	35.2
동작구	26.4	29.1	28.1	27.4	28.4
관악구	19.3	19.7	19.6	19.9	17.7
서초구	54.7	58.2	57.8	57.3	53.2
강남구	52.3	54.9	58.9	60.4	56.1
송파구	37.6	39.8	40.0	37.4	31.9
강동구	26.3	26.7	25.4	25.6	21.9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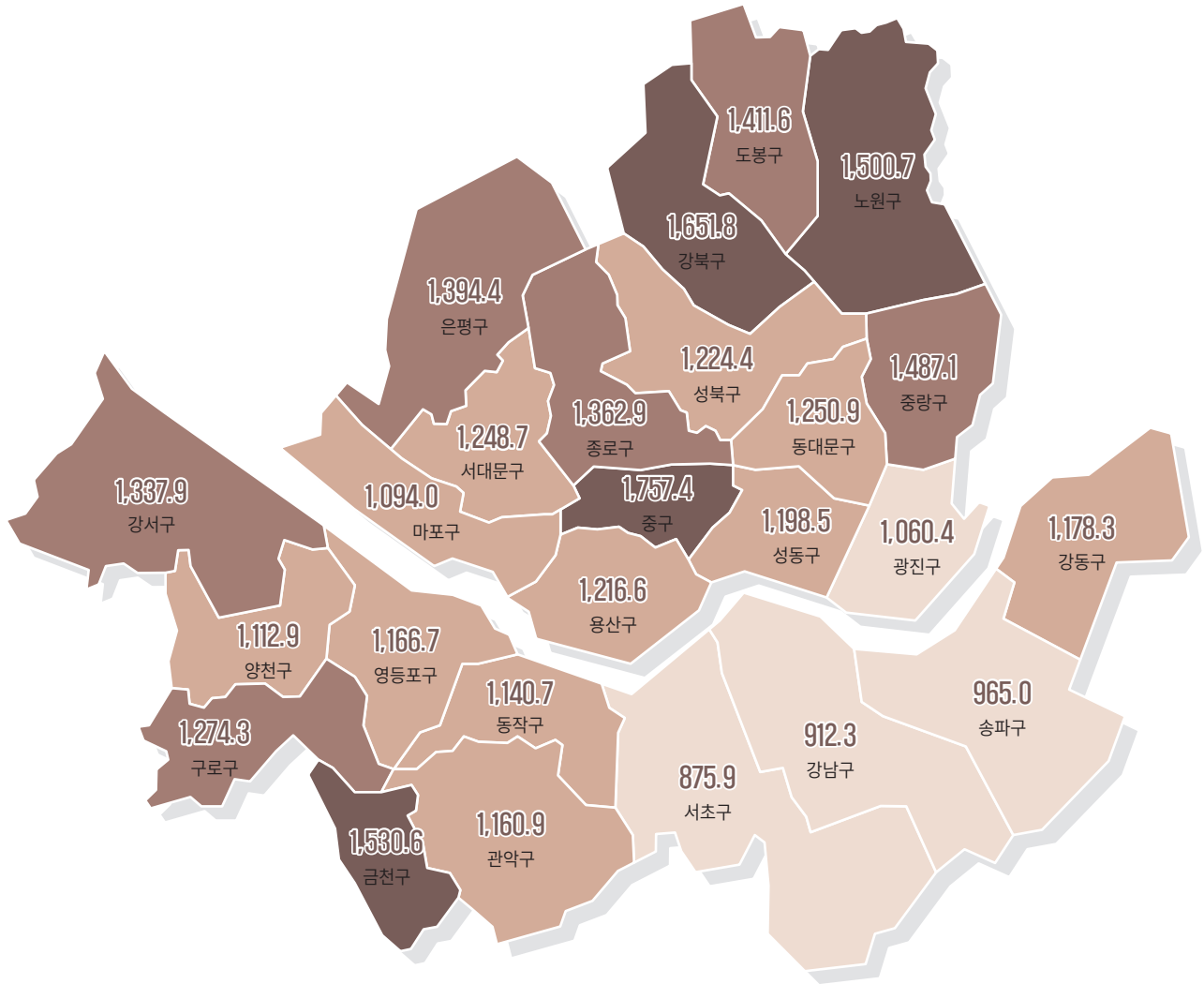
## 2) 사회복지예산

- ◆ 2023년 기준 서울시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1,224.9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중구 1,757.4천원, 강북구 1,651.8천원, 금천구 1,530.6천원 순으로 많았으며 서초구 875.9천원, 강남구 912.3천원, 송파구 965.0천원 순으로 적었음.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추이(2018~2023)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754.5	816.9	918.9	1,000.6	1,110.2	1,224.9
종로구	861.5	893.8	1,053.4	1,155.5	1,239.7	1,362.9
중구	1,018.0	1,198.8	1,341.4	1,419.2	1,663.5	1,757.4
용산구	739.9	751.0	863.2	949.3	1,066.9	1,216.6
성동구	700.2	775.6	883.4	982.2	1,097.9	1,198.5
광진구	619.7	692.0	787.0	871.3	985.9	1,060.4
동대문구	862.7	873.0	1,006.0	1,072.1	1,175.8	1,250.9
종랑구	815.0	927.1	1,056.7	1,165.8	1,309.5	1,487.1
성북구	781.4	836.9	923.0	998.6	1,082.1	1,224.4
강북구	963.5	1,081.1	1,210.1	1,330.3	1,506.5	1,651.8
도봉구	827.1	923.1	1,051.6	1,150.7	1,256.7	1,411.6
노원구	917.9	1,021.1	1,127.7	1,236.5	1,354.1	1,500.7
은평구	833.1	913.4	1,035.4	1,122.8	1,257.8	1,394.4
서대문구	726.3	831.9	941.7	1,074.4	1,134.5	1,248.7
마포구	735.5	793.7	887.0	942.8	1,001.4	1,094.0
양천구	706.4	740.9	818.7	904.3	1,016.4	1,112.9
강서구	805.0	916.5	1,017.5	1,087.0	1,202.1	1,337.9
구로구	805.1	868.5	949.4	1,042.8	1,168.4	1,274.3
금천구	900.6	995.2	1,155.8	1,210.8	1,386.7	1,530.6
영등포구	732.4	757.3	844.7	917.1	1,035.6	1,166.7
동작구	731.5	765.7	886.7	935.8	1,033.8	1,140.7
관악구	675.2	762.4	875.0	924.4	1,054.0	1,160.9
서초구	570.2	578.1	694.8	759.1	828.3	875.9
강남구	654.7	657.3	738.1	794.6	853.6	912.3
송파구	557.9	607.9	698.5	766.3	838.5	965.0
강동구	758.6	779.5	789.6	913.1	1,060.8	1,178.3

출처: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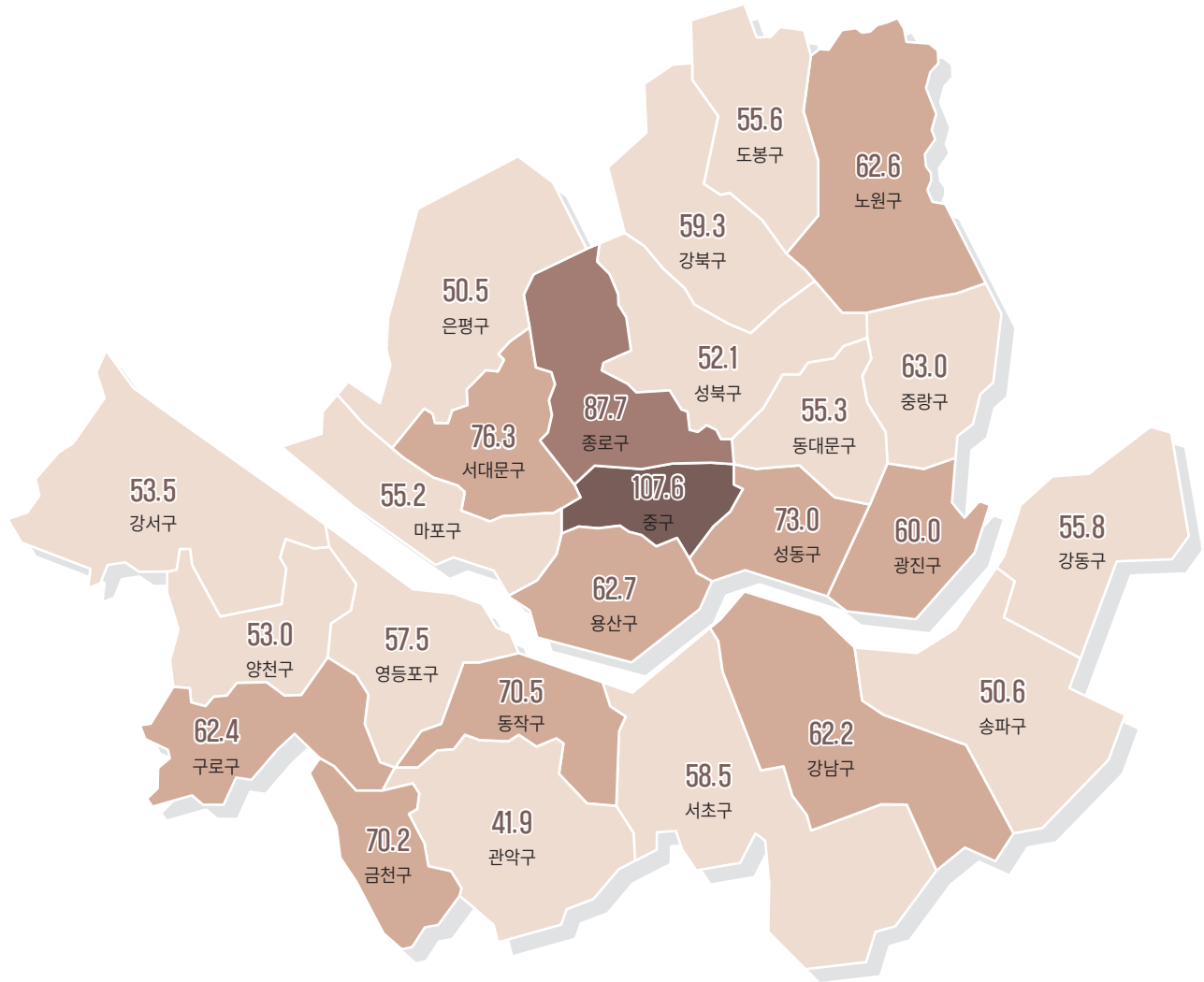
### 3) 보건예산

- ◆ 2023년 기준 서울시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은 59.1천원으로 2019년 이후로 증가하다 2023년 감소함.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은 중구 107.6천원, 종로구 87.7천원, 서대문구 76.3천원 순으로 많았으며 관악구 41.9천원, 은평구 50.5천원, 송파구 50.6천원 순으로 적었음.

표. 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추이(2018~2023)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43.5	37.2	39.6	46.8	69.3	59.1
종로구	58.6	51.2	58.4	64.1	88.0	87.7
중구	79.7	59.1	69.9	83.9	123.1	107.6
용산구	45.1	31.2	40.5	51.4	73.5	62.7
성동구	46.9	46.1	43.6	55.7	75.9	73.0
광진구	39.5	32.4	37.5	41.4	71.8	60.0
동대문구	42.7	35.1	40.1	46.2	66.5	55.3
중랑구	41.8	37.0	40.2	50.6	75.5	63.0
성북구	51.1	35.6	36.6	39.4	59.3	52.1
강북구	52.8	47.9	45.1	48.5	86.3	59.3
도봉구	35.6	35.9	39.0	45.9	67.7	55.6
노원구	48.0	39.1	42.6	47.6	74.5	62.6
은평구	43.4	30.9	34.6	41.1	63.3	50.5
서대문구	45.9	47.9	43.8	68.9	74.4	76.3
마포구	44.8	38.8	40.9	47.3	65.6	55.2
양천구	33.5	30.0	35.4	40.0	64.9	53.0
강서구	36.9	37.2	38.3	41.2	66.2	53.5
구로구	49.9	46.7	38.6	46.6	70.0	62.4
금천구	48.9	40.3	49.9	55.6	77.8	70.2
영등포구	44.7	37.1	39.6	47.9	71.3	57.5
동작구	37.9	31.5	34.5	42.1	62.4	70.5
관악구	33.2	28.8	27.3	31.8	55.7	41.9
서초구	47.1	37.3	44.7	53.8	74.0	58.5
강남구	38.4	33.6	42.4	53.5	71.2	62.2
송파구	39.4	36.0	35.9	41.8	61.0	50.6
강동구	48.9	36.9	36.9	42.8	65.4	55.8

출처: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 03

## 인구

### 1) 총인구

- ◆ 2024년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수는 9,331,828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 650,110명, 강남구 557,345명, 강서구 556,171명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중구 120,544명, 종로구 138,336명, 용산구 203,854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 전년 대비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용산구 4.36%, 강북구 1.57%, 노원구에서 1.4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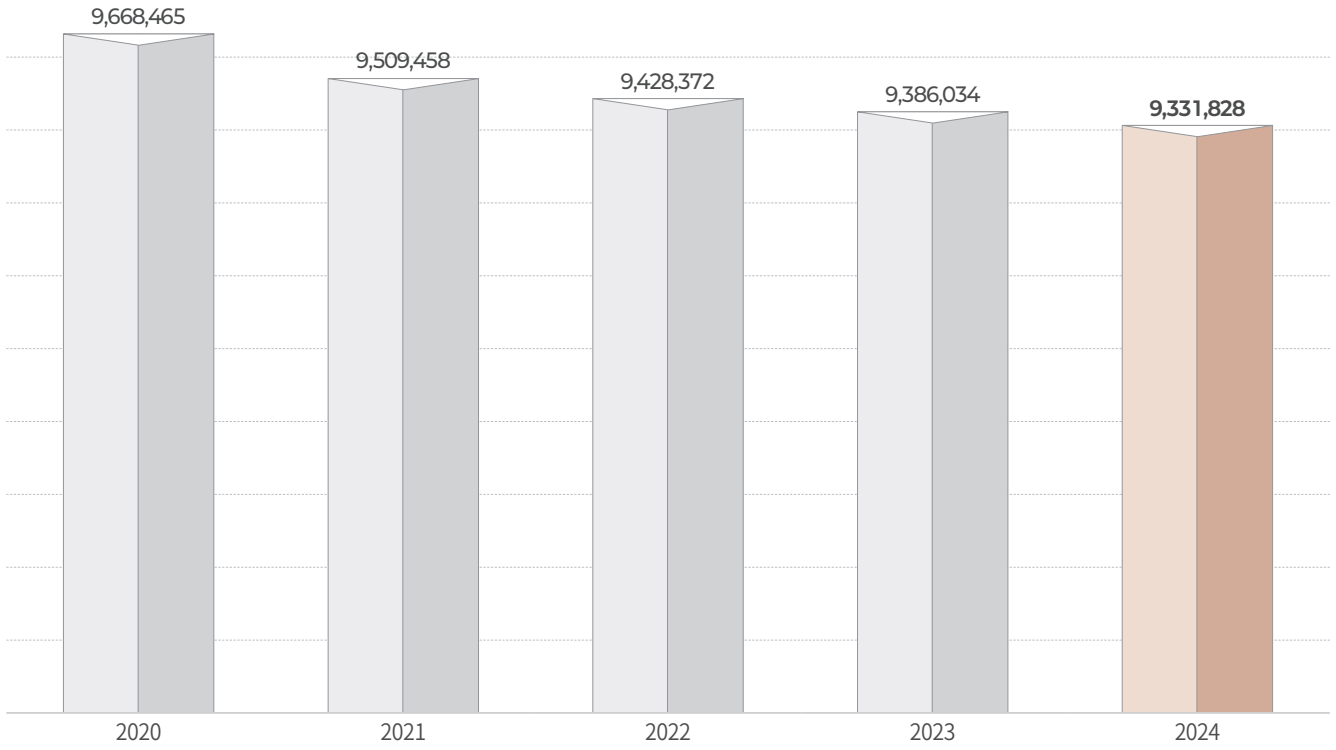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전국	51,829,023	51,638,809	51,439,038	51,325,329	51,217,221	-0.21
서울시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9,331,828	-0.58
종로구	149,384	144,683	141,379	139,417	138,336	-0.78
중구	125,240	122,499	120,437	121,312	120,544	-0.63
용산구	230,040	222,953	218,650	213,151	203,854	-4.36
성동구	293,556	285,990	281,000	277,361	273,669	-1.33
광진구	346,682	339,996	337,416	335,554	331,963	-1.07
동대문구	342,837	337,400	336,644	341,149	338,735	-0.71
종량구	394,702	387,350	385,318	382,155	379,274	-0.75
성북구	437,153	430,528	430,397	425,602	421,560	-0.95
강북구	308,055	299,182	293,660	288,113	283,597	-1.57
도봉구	325,257	317,366	311,694	306,948	303,228	-1.21
노원구	523,037	510,956	503,734	498,213	491,247	-1.40
은평구	479,835	473,307	466,746	466,770	460,919	-1.25
서대문구	312,173	304,819	306,337	306,231	302,853	-1.10
마포구	371,890	368,905	364,638	363,697	361,417	-0.63
양천구	454,251	447,302	440,881	436,028	430,976	-1.16
강서구	580,185	574,315	569,166	563,058	556,171	-1.22
구로구	404,408	396,754	395,315	392,405	388,169	-1.08
금천구	231,733	230,811	229,642	227,481	225,159	-1.02
영등포구	379,480	376,837	375,675	374,794	373,773	-0.27
동작구	391,220	385,483	380,596	378,769	375,799	-0.78
관악구	495,060	485,699	486,752	481,956	477,812	-0.86
서초구	425,126	412,279	404,325	407,664	408,376	0.17
강남구	539,231	533,042	529,102	544,873	557,345	2.29
송파구	667,960	658,338	658,801	654,166	650,110	-0.62
강동구	459,970	462,664	460,067	459,167	476,942	3.87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5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 2) 성별

- ◆ 2024년 기준, 서울시 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505,355명(48.3%), 여성 4,826,473명(51.7%)으로 나타남. 남성 인구의 비율은 감소, 여성 인구의 비율은 증가해 성비 역시 지속 감소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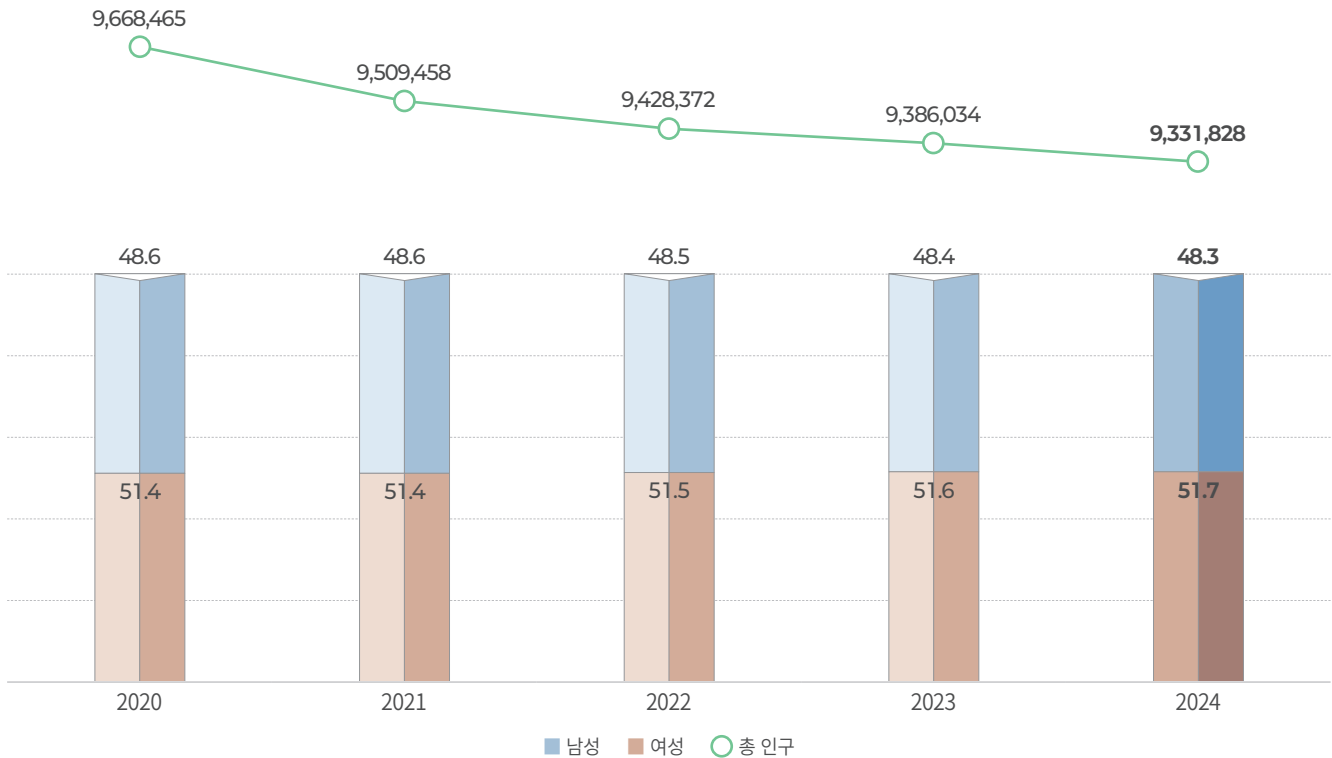
표. 6 서울시 성별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총인구	남성		여성		성비 <sup>1)</sup>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0	9,668,465	4,701,723	48.6	4,966,742	51.4	0.95
2021	9,509,458	4,618,040	48.6	4,891,418	51.4	0.94
2022	9,428,372	4,570,048	48.5	4,858,324	51.5	0.94
2023	9,386,034	4,540,031	48.4	4,846,003	51.6	0.94
2024	9,331,828	4,505,355	48.3	4,826,473	51.7	0.93

주: 1)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수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6 서울시 성별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 3)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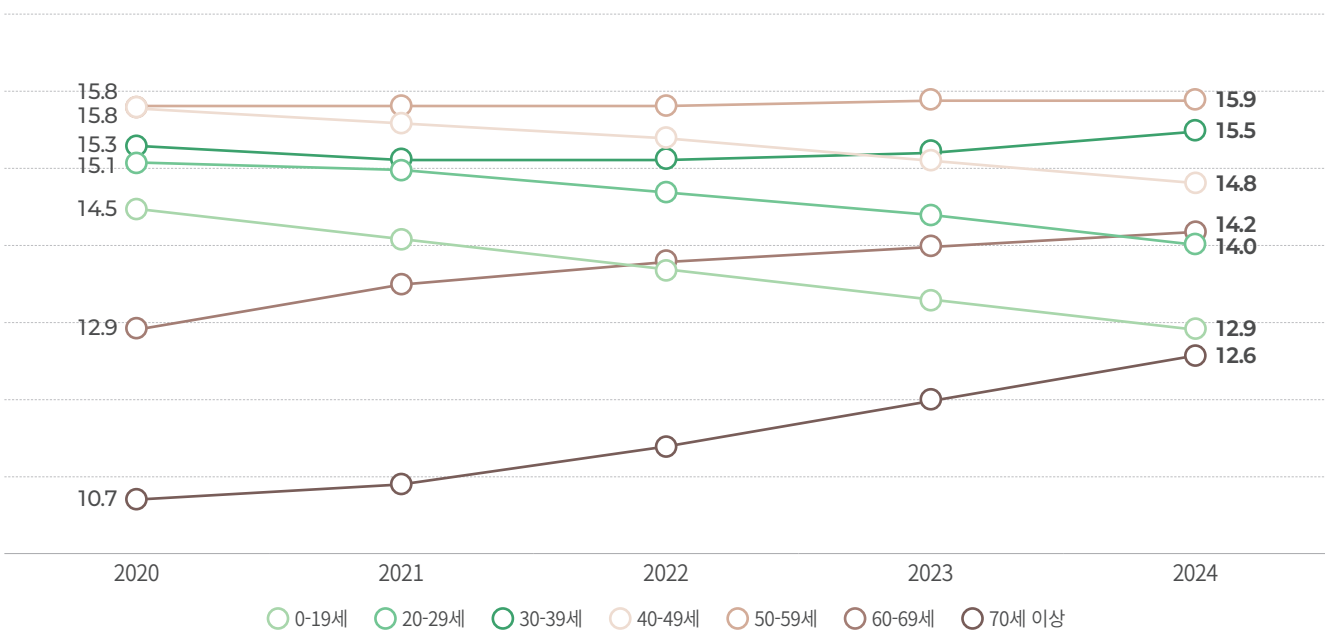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9세 1,486,068명(15.9%), 30-39세 1,442,665명(15.5%), 40-49세 1,383,950명(14.8%)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년 대비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 30-39세 및 60-100세 이상에서 증가, 0세-29세 및 40-59세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90-99세 9.37% 증가, 0-9세 5.80% 감소, 70-79세에서 4.78% 증가함.

표. 7 서울시 연령별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총 인구	9,668,465	9,509,458	9,428,372	9,386,034	9,331,828	-0.58
0-9세	623,745	583,683	545,317	513,562	483,780	-5.80
10-19세	781,866	756,136	749,118	733,211	720,767	-1.70
20-29세	1,460,411	1,422,277	1,389,483	1,355,811	1,308,260	-3.51
30-39세	1,475,106	1,439,279	1,425,808	1,427,405	1,442,665	1.07
40-49세	1,528,182	1,480,780	1,449,706	1,420,073	1,383,950	-2.54
50-59세	1,523,556	1,507,194	1,492,802	1,495,557	1,486,068	-0.63
60-69세	1,243,954	1,285,922	1,297,787	1,315,938	1,326,239	0.78
70-79세	704,076	695,800	713,496	738,469	773,771	4.78
80-89세	278,094	295,009	321,209	339,214	355,250	4.73
90-99세	42,683	41,735	42,354	45,346	49,594	9.37
100세 이상	6,792	1,643	1,292	1,448	1,484	2.49

출처: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그림. 7 서울시 연령별 인구 비율 추이(2020~2024) (단위: %)



## 4) 생애주기별

### 가)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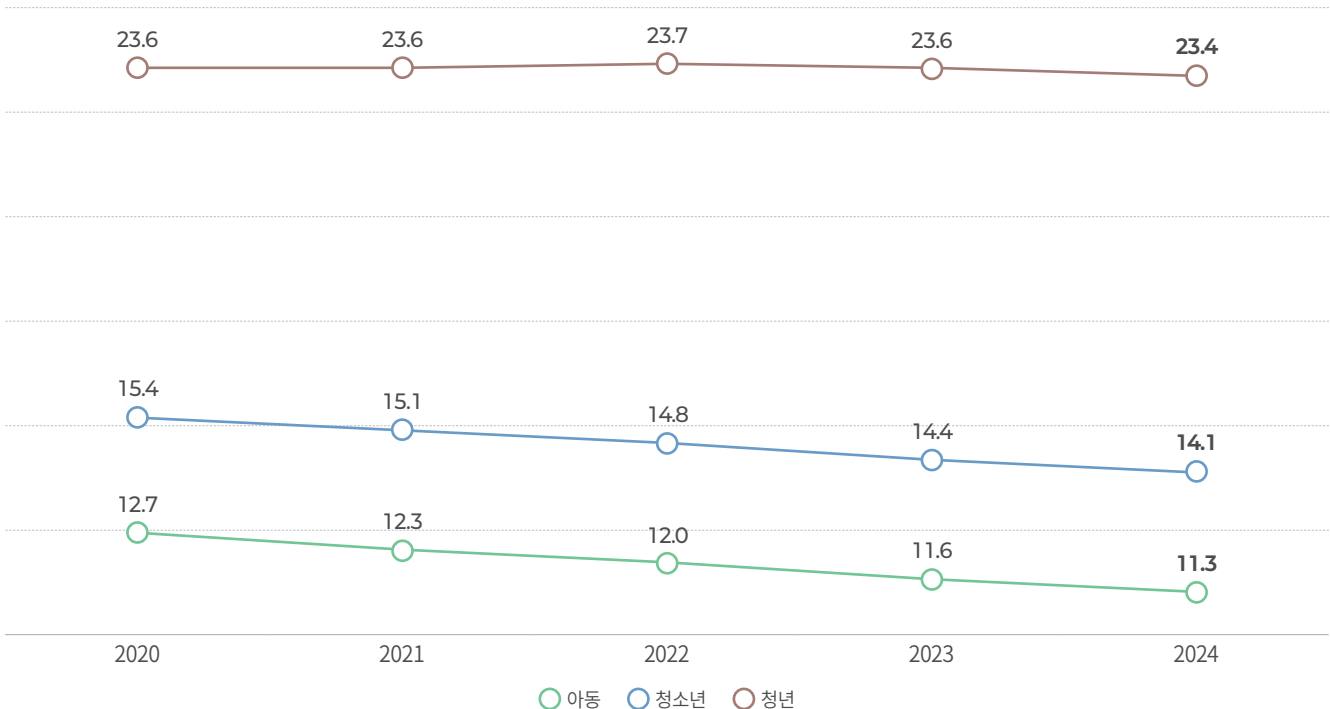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인구를 아동(18세 미만)인구,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구,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아동 인구는 1,056,861명(11.3%), 청소년 인구는 1,318,004명(14.1%), 청년 인구는 2,180,403명(23.4%)으로 나타남.
- ◆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인구 비율은 2022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함.

표. 8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0	9,668,465	1,227,792	12.7	1,484,657	15.4	2,282,199	23.6
2021	9,509,458	1,173,816	12.3	1,433,693	15.1	2,242,927	23.6
2022	9,428,372	1,129,765	12.0	1,394,312	14.8	2,234,407	23.7
2023	9,386,034	1,093,009	11.6	1,354,699	14.4	2,217,197	23.6
2024	9,331,828	1,056,861	11.3	1,318,004	14.1	2,180,403	23.4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현황

그림. 8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비율 추이(2020~2024) (단위: %)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의 비율은 서초구 15.5%(63,140명), 강남구 15.3%(85,131명), 양천구 14.4%(62,039명) 순으로 높았으며 청소년의 비율은 강남구 17.4%(97,231명), 서초구 17.3%(70,597명), 양천구 17.0%(73,264명) 순, 청년의 비율은 관악구 34.5%(164,789명), 광진구 27.6%(91,609명), 영등포구 26.6%(99,258명) 순으로 확인됨.

표. 9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331,828	1,056,861	11.3	1,318,004	14.1	2,180,403	23.4
종로구	138,336	12,818	9.3	18,841	13.6	33,388	24.1
중구	120,544	9,868	8.2	12,828	10.6	29,508	24.5
용산구	203,854	20,368	10.0	24,766	12.1	49,798	24.4
성동구	273,669	29,362	10.7	35,211	12.9	65,937	24.1
광진구	331,963	32,094	9.7	46,767	14.1	91,609	27.6
동대문구	338,735	34,412	10.2	49,505	14.6	85,925	25.4
종량구	379,274	36,119	9.5	43,749	11.5	82,503	21.8
성북구	421,560	48,918	11.6	68,095	16.2	97,024	23.0
강북구	283,597	24,824	8.8	35,922	12.7	57,690	20.3
도봉구	303,228	30,064	9.9	39,127	12.9	58,162	19.2
노원구	491,247	59,840	12.2	81,192	16.5	101,565	20.7
은평구	460,919	49,126	10.7	61,632	13.4	99,710	21.6
서대문구	302,853	33,453	11.0	44,532	14.7	73,524	24.3
마포구	361,417	39,925	11.0	50,972	14.1	95,795	26.5
양천구	430,976	62,039	14.4	73,264	17.0	81,693	19.0
강서구	556,171	61,579	11.1	72,519	13.0	133,372	24.0
구로구	388,169	43,068	11.1	48,869	12.6	83,959	21.6
금천구	225,159	18,735	8.3	24,353	10.8	57,955	25.7
영등포구	373,773	38,794	10.4	43,230	11.6	99,258	26.6
동작구	375,799	38,242	10.2	52,500	14.0	99,619	26.5
관악구	477,812	33,106	6.9	60,214	12.6	164,789	34.5
서초구	408,376	63,140	15.5	70,597	17.3	82,433	20.2
강남구	557,345	85,131	15.3	97,231	17.4	114,753	20.6
송파구	650,110	87,359	13.4	94,476	14.5	142,485	21.9
강동구	476,942	64,477	13.5	67,612	14.2	97,949	20.5

출처: 행정안전부, 지역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

## 나)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 지수

- ◆ 2024년 기준, 서울시 인구를 유소년(14세 이하)인구, 생산연령(15세 이상 64세 이하)인구, 고령(65세 이상)인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는 835,816명(9.0%), 생산연령인구는 6,682,364명(71.6%), 고령인구는 1,813,648명(19.4%)임.
- ◆ 유소년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지속 감소,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 증가해 2024년 기준 노령화 지수는 217.0으로 확인됨.

표. 10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유소년 (14세 이하)		생산연령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인구 (65세 이상)		노령화지수 <sup>1)</sup>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0	9,668,465	995,397	10.3	7,111,929	73.6	1,561,139	16.1	156.8
2021	9,509,458	951,562	10.0	6,960,449	73.2	1,597,447	16.8	167.9
2022	9,428,372	907,819	9.6	6,862,346	72.8	1,658,207	17.6	182.7
2023	9,386,034	868,576	9.3	6,783,878	72.3	1,733,580	18.5	199.6
2024	9,331,828	835,816	9.0	6,682,364	71.6	1,813,648	19.4	2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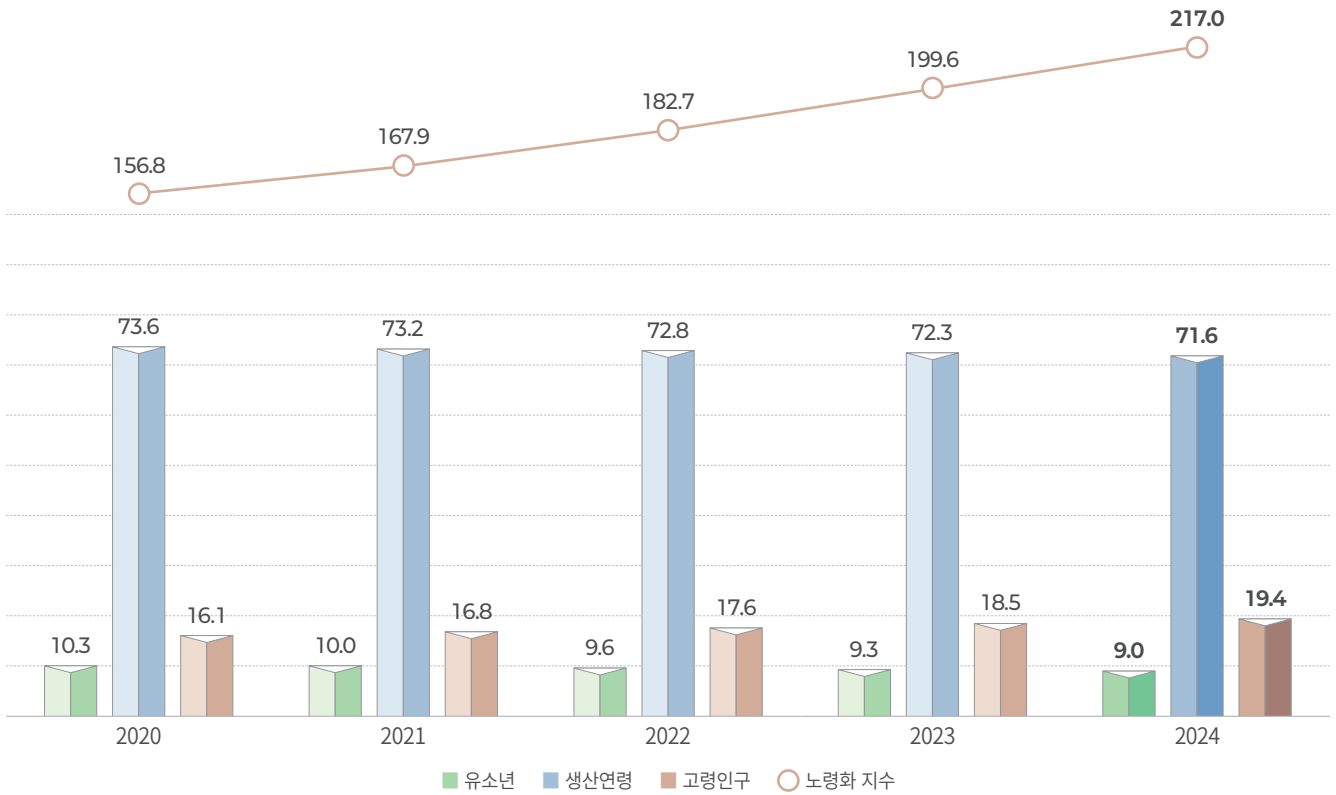
주: 1)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율

출처: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그림 9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지수 추이(2020~2024)

(단위: %)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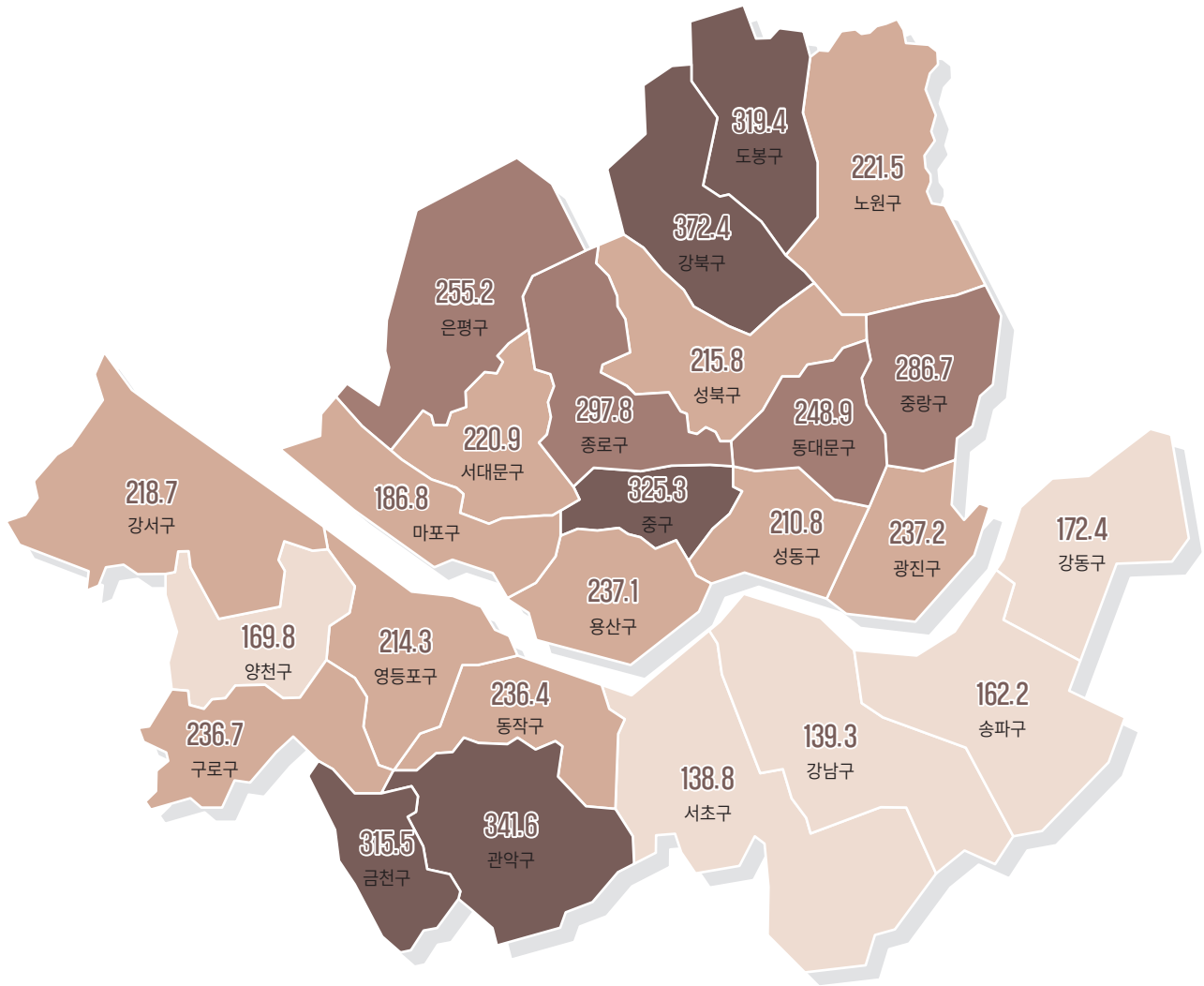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인구수 대비 유소년인구 비율은 서초구 12.1%(49,431명), 강남구 11.8%(65,556명), 양천구 11.0%(47,20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관악구 76.2%(363,873명), 마포구 74.7%(269,886명), 광진구 74.6%(247,616명) 순이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강북구 25.1%(71,227명), 도봉구 24.5%(74,149명), 중랑구 22.0%(83,299명) 순임.
- ◆ 이에 따른 노령화지수는 강북구 372.4, 관악구 341.6, 중구 32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 138.8, 강남구 139.3, 송파구 162.2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11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및 노령화 지수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유소년 (14세 이하)		생산연령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 (65세 이상)		노령화 지수 <sup>1)</sup>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331,828	835,816	9.0	6,682,364	71.6	1,813,648	19.4	217.0
종로구	138,336	9,931	7.2	98,831	71.4	29,574	21.4	297.8
중구	120,544	8,119	6.7	86,017	71.4	26,408	21.9	325.3
용산구	203,854	16,404	8.0	148,556	72.9	38,894	19.1	237.1
성동구	273,669	24,211	8.8	198,428	72.5	51,030	18.6	210.8
광진구	331,963	25,013	7.5	247,616	74.6	59,334	17.9	237.2
동대문구	338,735	27,853	8.2	241,568	71.3	69,314	20.5	248.9
중랑구	379,274	29,052	7.7	266,923	70.4	83,299	22.0	286.7
성북구	421,560	38,623	9.2	299,584	71.1	83,353	19.8	215.8
강북구	283,597	19,127	6.7	193,243	68.1	71,227	25.1	372.4
도봉구	303,228	23,215	7.7	205,864	67.9	74,149	24.5	319.4
노원구	491,247	45,350	9.2	345,430	70.3	100,467	20.5	221.5
은평구	460,919	38,324	8.3	324,807	70.5	97,788	21.2	255.2
서대문구	302,853	27,021	8.9	216,147	71.4	59,685	19.7	220.9
마포구	361,417	31,919	8.8	269,886	74.7	59,612	16.5	186.8
양천구	430,976	47,206	11.0	303,596	70.4	80,174	18.6	169.8
강서구	556,171	49,043	8.8	399,882	71.9	107,246	19.3	218.7
구로구	388,169	34,657	8.9	271,485	69.9	82,027	21.1	236.7
금천구	225,159	14,911	6.6	163,211	72.5	47,037	20.9	315.5
영등포구	373,773	31,997	8.6	273,208	73.1	68,568	18.3	214.3
동작구	375,799	30,790	8.2	272,226	72.4	72,783	19.4	236.4
관악구	477,812	25,801	5.4	363,873	76.2	88,138	18.4	341.6
서초구	408,376	49,431	12.1	290,339	71.1	68,606	16.8	138.8
강남구	557,345	65,556	11.8	400,498	71.9	91,291	16.4	139.3
송파구	650,110	70,250	10.8	465,903	71.7	113,957	17.5	162.2
강동구	476,942	52,012	10.9	335,243	70.3	89,687	18.8	172.4

주: 1)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율

출처: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 5)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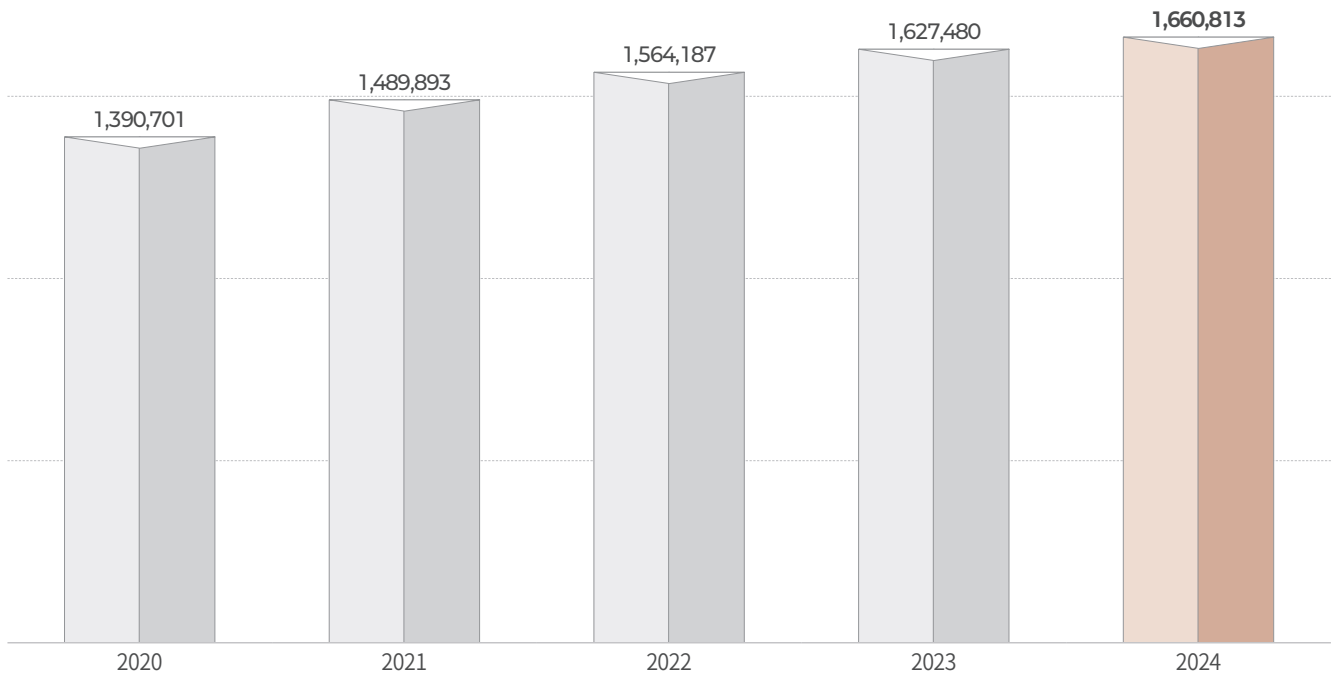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총 1,660,813가구로 전체 4,319,073가구 중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임.
- ◆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 20세 이상은 증가추세이며 특히 65세 이상에서 전년 대비 6.53% 증가함.

표. 12 서울시 연령별 1인가구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체 가구	1인가구			
		합계	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
2020	4,126,524	1,390,701	14,185	1,116,783	259,733
2021	4,191,171	1,489,893	10,687	1,193,822	285,384
2022	4,252,134	1,564,187	12,872	1,242,243	309,072
2023	4,298,420	1,627,480	12,508	1,280,624	334,348
2024	4,319,073	1,660,813	11,594	1,293,033	356,186
전년 대비 증감	0.48	2.05	-7.31	0.97	6.5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1 서울시 1인가구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153,605가구, 강서구 106,748가구, 송파구 89,720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중구 28,968가구, 종로구 29,779가구, 용산구 40,445가구 순으로 적었음.
-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에서는 성북구 1,457가구, 동대문구 1,261가구, 관악구 1,002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20-64세에서는 종로구 654,659가구, 중구 638,374가구, 양천구 61,227가구 순, 65세 이상에서는 중구 243,522가구, 종로구 112,664가구, 관악구 18,803가구 순으로 1인 가구가 많았음.

표. 13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2024)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 가구	1인가구			
		합계	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
서울시	4,319,073	1,660,813	11,594	1,293,033	356,186
종로구	70,241	29,779	475	654,659	112,664
중구	64,816	28,968	458	638,374	243,522
용산구	98,398	40,445	169	23,186	6,118
성동구	127,631	48,442	627	11,670	2,282
광진구	169,231	72,933	558	11,516	3,836
동대문구	172,439	72,355	1,261	22,323	6,187
종랑구	176,740	69,149	227	11,226	2,306
성북구	191,165	70,230	1,457	11,097	3,881
강북구	134,478	53,705	359	32,835	7,441
도봉구	131,159	43,347	163	16,070	2,362
노원구	207,675	67,182	748	16,765	5,079
은평구	200,904	70,568	199	38,168	9,647
서대문구	145,416	56,770	646	20,144	3,101
마포구	173,531	73,327	586	18,024	6,546
양천구	171,027	47,886	122	61,227	11,148
강서구	259,211	106,748	228	30,631	3,713
구로구	190,182	62,632	226	30,596	7,435
금천구	124,012	53,858	128	56,461	14,633
영등포구	192,656	79,698	156	29,794	5,108
동작구	181,275	75,148	856	26,667	9,525
관악구	277,394	153,605	1,002	50,119	18,803
서초구	160,651	49,443	210	26,433	6,779
강남구	229,978	79,274	344	23,686	12,024
송파구	271,703	89,720	244	52,946	15,827
강동구	197,160	65,601	145	26,086	4,57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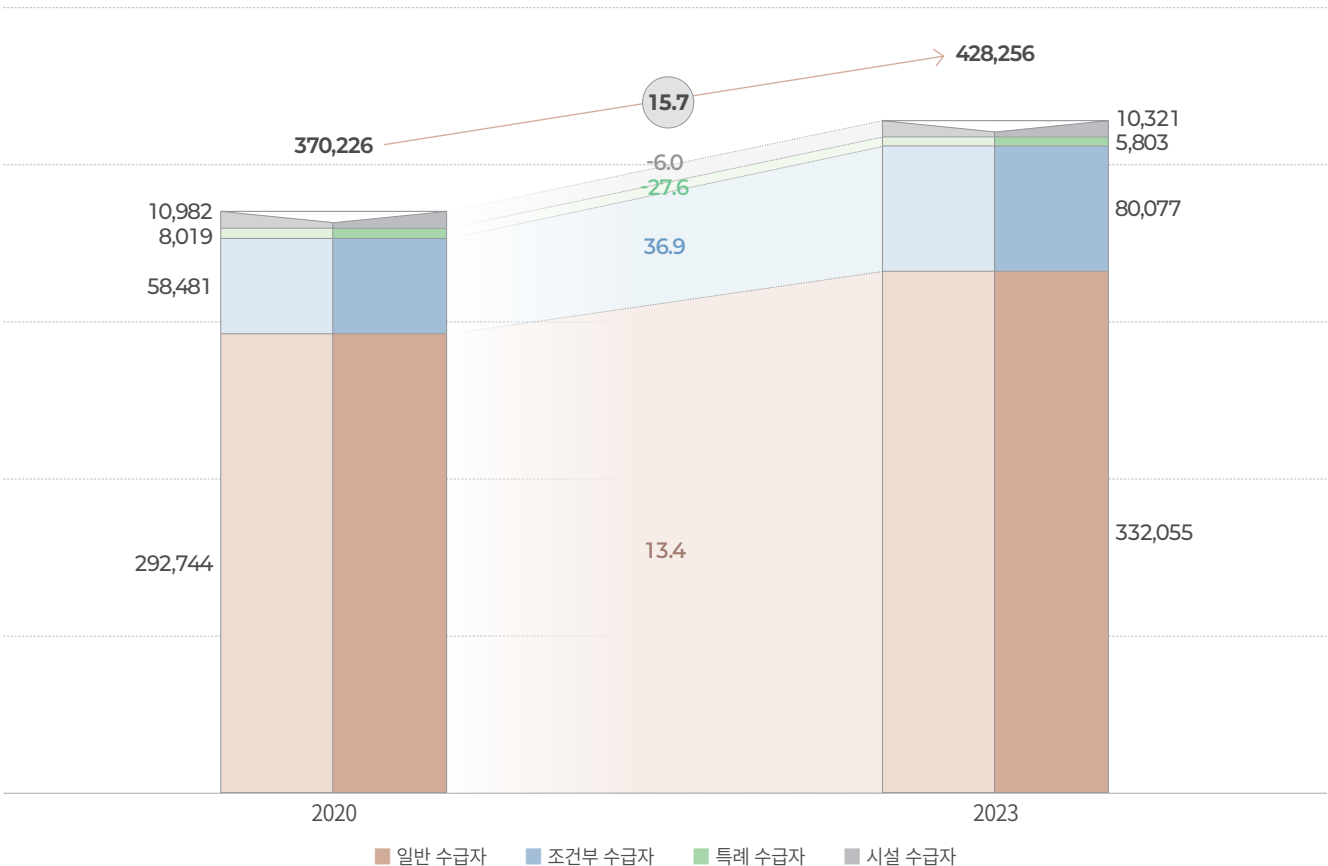
- ◆ 2023년 기준,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428,256명이며 매년 증가추세임. 수급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 수급자 332,055명(77.5%), 조건부 수급자 80,077명(18.7%), 특례 수급자 5,803명(1.4%), 시설 수급자 10,321명(2.4%)으로 나타남.
- ◆ 2022년 대비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는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수급자 및 조건부 수급자 각각 1.7%, 14.5% 증가, 특례 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각각 8.8%,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3)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2020	370,226	292,744	58,481	8,019	10,982
2021	403,311	318,724	66,245	7,558	10,784
2022	413,055	326,371	69,928	6,365	10,391
2023	428,256	332,055	80,077	5,803	10,321
전년 대비 증감	3.7	1.7	14.5	-8.8	-0.7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그림. 12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3) (단위: 명)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강서구 32,940명, 노원구 32,776명, 종량구 29,059명 순으로 많았으며, 종로구 5,799명, 중구 6,264명, 서초구 7,987명 순으로 적었음.

표. 15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3)

(단위: 명)

구분	합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서울시	428,256	332,055	80,077	5,803	10,321
본청 <sup>1)</sup>	653	-	-	-	653
종로구	5,799	4,274	847	169	509
중구	6,264	5,316	769	93	86
용산구	9,290	7,153	1,667	222	248
성동구	10,561	7,998	2,235	121	207
광진구	14,058	11,110	2,751	87	110
동대문구	16,524	13,208	2,678	459	179
종량구	29,059	24,390	3,902	202	565
성북구	17,914	13,222	4,128	196	368
강북구	24,097	18,498	4,891	414	294
도봉구	17,182	13,244	3,421	192	325
노원구	32,776	24,967	7,013	188	608
은평구	26,753	19,414	5,441	362	1,536
서대문구	12,286	9,797	2,131	92	266
마포구	11,338	8,760	2,180	175	223
양천구	18,821	15,640	2,811	111	259
강서구	32,940	26,386	5,474	600	480
구로구	15,680	12,431	2,315	517	417
금천구	14,066	10,410	3,243	75	338
영등포구	12,433	9,456	2,365	134	478
동작구	13,541	10,683	2,474	67	317
관악구	24,352	18,437	5,071	494	350
서초구	7,987	6,400	1,411	35	141
강남구	16,425	12,468	3,111	277	569
송파구	19,098	14,302	4,204	216	376
강동구	18,359	14,091	3,544	305	419

주: 1) 서울시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서 관할하는 수급자 수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7) 등록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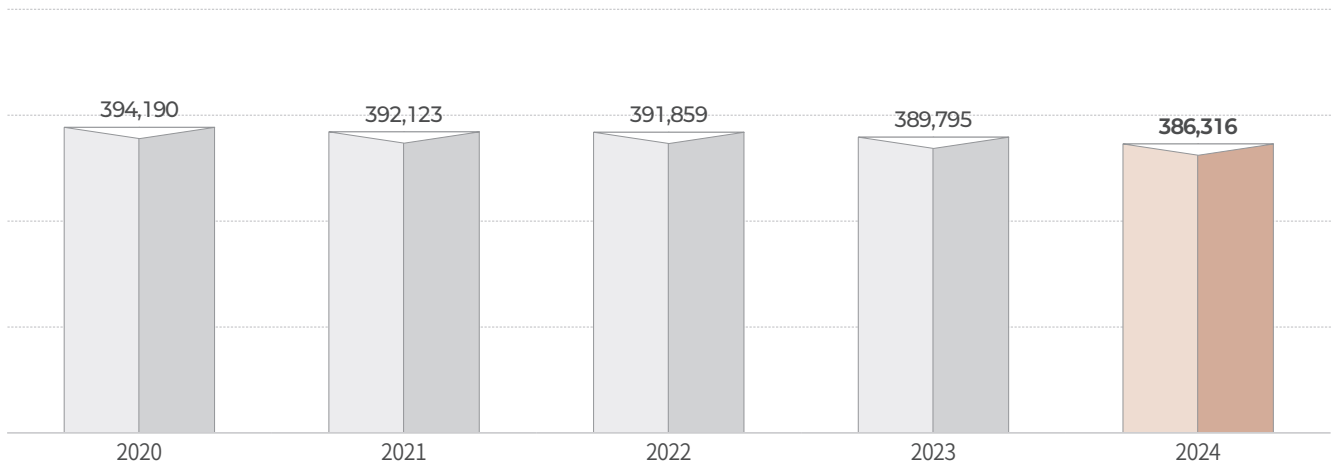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86,316명으로,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156,133명(40.4%), 언어장애 66,232명(17.1%), 청각장애 40,225명(10.4%), 시각장애 37,462명(9.7%) 순으로 많았음.
- ◆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언어, 뇌병변, 자폐성, 신장, 간, 안면, 장루·요루 장애에서 증가하였고, 정신장애는 증감을 반복함.

표. 16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4)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394,190	392,123	391,859	389,795	386,316
지체	172,606	167,986	164,464	160,403	156,133
시각	40,905	40,299	39,859	38,940	37,462
청각	41,624	41,220	40,991	40,706	40,225
언어	57,430	59,714	61,995	63,858	66,232
지적장애	3,414	3,416	3,421	3,308	3,220
뇌병변	27,084	27,330	27,634	28,025	28,114
자폐성	6,415	6,855	7,491	8,305	8,965
정신장애	16,525	16,600	16,546	16,551	16,314
신장장애	17,895	18,301	18,883	19,121	19,223
심장장애	1,040	1,008	998	942	887
호흡기	2,125	2,143	2,156	2,112	1,980
간	2,597	2,663	2,715	2,790	2,818
안면	378	381	385	393	395
장루·요루	2,901	2,959	3,087	3,122	3,159
뇌전증	1,251	1,248	1,234	1,219	1,189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그림. 13 서울시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4) (단위: 명)



- ◆ 2024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386,316명으로 19세 이하 14,500명(3.8%), 20세 이상 30세 미만 14,404명(3.7%), 30세 이상 40세 미만 18,080명(4.7%), 40세 이상 50세 미만 27,907명(7.2%), 50세 이상 60세 미만 52,298명(13.5%), 60세 이상 70세 미만 88,686명(23.0%), 70세 이상 80세 미만 90,923명(23.5%), 80세 이상 79,518명(20.6%)임.
- ◆ 정신장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33.0%(5,376명)이며 60세 이상 70세 미만 27.4%(4,475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18.5%(3,020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8.9%(1,45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7 서울시 장애유형에 따른 등록장애인 연령별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합계	386,316	14,500	14,404	18,080	27,907	52,298	88,686	90,923	79,518
지체	156,133	600	1,860	3,887	10,026	22,949	43,813	42,276	30,722
시각	40,225	371	1,046	1,967	3,514	6,211	9,315	9,761	8,040
청각	66,232	615	800	1,048	1,549	3,464	10,600	19,325	28,831
언어	3,220	417	95	97	249	509	777	724	352
지적장애	28,114	5,496	6,388	5,839	4,457	3,384	1,911	521	118
뇌병변	37,462	1,567	1,186	1,277	2,294	4,692	9,063	9,917	7,466
자폐성	8,965	5,167	2,124	1,410	234	27	3	-	-
정신장애	16,314	9	390	1,452	3,020	5,376	4,475	1,373	219
신장장애	19,223	35	184	726	1,850	4,109	5,628	4,327	2,364
심장장애	887	44	103	81	72	92	187	202	106
호흡기	1,980	11	17	25	57	188	638	749	295
간	2,818	73	78	77	185	592	1,095	628	90
안면	395	5	14	43	67	94	98	57	17
장루·요루	3,159	30	27	47	119	296	773	982	885
뇌전증	1,189	60	92	104	214	315	310	81	13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8) 다문화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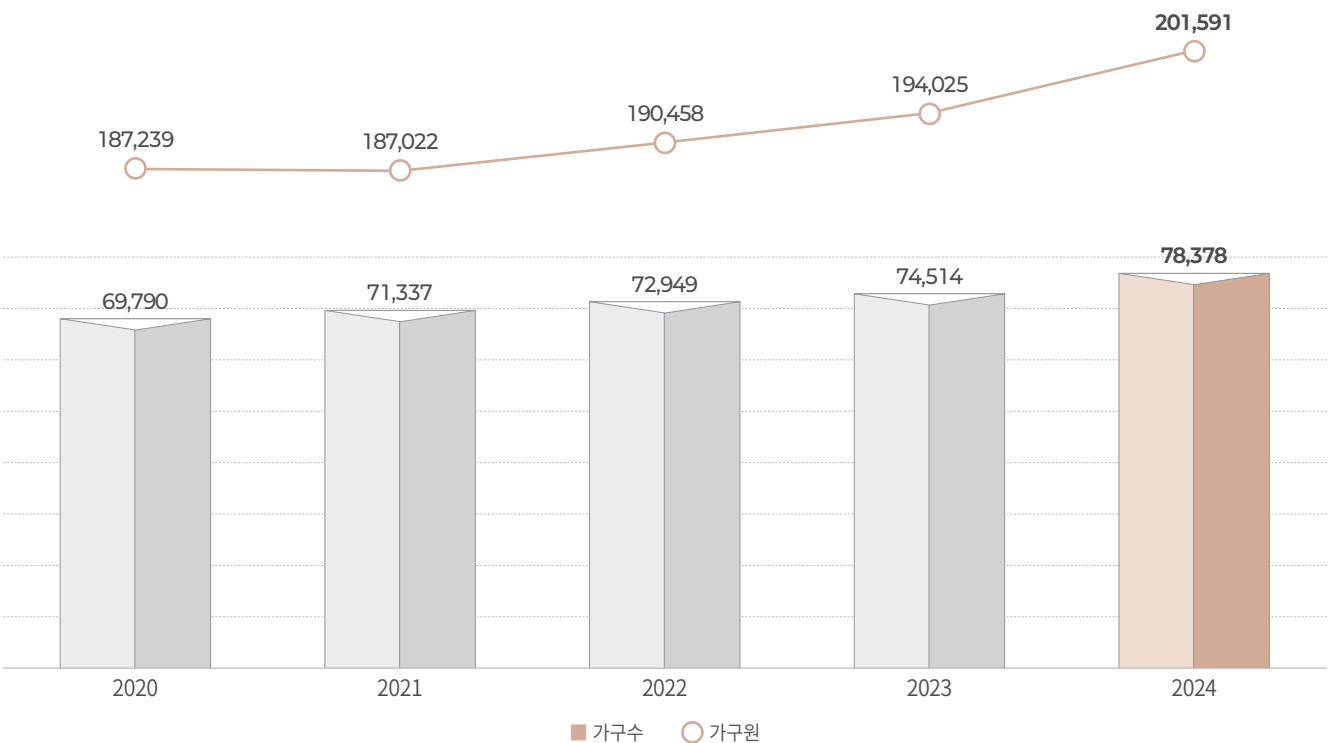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가구는 총 78,378가구로 전체 4,319,073가구 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임. 특히 서울시 전체가구가 전년 대비 0.48% 증가한 데 반해 다문화가구는 5.19% 증가함.

표. 18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체 가구	다문화가구	
		가구수	가구원
2020	4,126,524	69,790	187,239
2021	4,191,171	71,337	187,022
2022	4,252,134	72,949	190,458
2023	4,298,420	74,514	194,025
2024	4,319,073	78,378	201,591
전년 대비 증감	0.48	5.19	3.9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4 서울시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추이(2020~2024) (단위: 가구, 명)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 8,602가구 20,067명, 영등포구 7,118가구 16,917명, 금천구 5,172가구 11,979명 순으로 많았음.

표. 19 서울시 자치구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현황(2024) (단위: 가구, 명)

구분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원				
		합계	내국인(출생)	내국인(귀화·인지)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기타)
서울시	78,378	201,591	107,414	46,811	34,246	13,120
종로구	1,293	3,250	1,914	531	646	159
중구	1,448	3,583	1,957	707	718	201
용산구	2,166	5,749	3,568	697	1,291	193
성동구	2,213	5,736	3,401	1,035	1,095	205
광진구	2,905	7,014	3,774	1,715	1,199	326
동대문구	2,656	6,787	3,788	1,533	1,106	360
종랑구	2,799	7,350	4,353	1,494	1,240	263
성북구	2,474	6,793	4,302	1,148	1,106	237
강북구	2,162	5,831	3,627	1,118	883	203
도봉구	1,733	4,819	3,058	896	711	154
노원구	2,207	6,344	4,218	959	1,004	163
은평구	3,129	8,775	5,417	1,683	1,351	324
서대문구	2,253	6,103	3,726	1,070	1,063	244
마포구	2,457	6,526	3,995	1,026	1,284	221
양천구	2,820	7,603	4,415	1,746	1,131	311
강서구	4,093	10,790	6,188	2,476	1,688	438
구로구	8,602	20,067	6,657	7,553	3,270	2,587
금천구	5,172	11,979	4,186	4,310	2,074	1,409
영등포구	7,118	16,917	4,916	5,799	2,880	3,322
동작구	2,702	6,553	3,505	1,670	1,042	336
관악구	4,830	11,026	5,167	3,330	1,811	718
서초구	2,261	6,795	4,833	621	1,234	107
강남구	2,698	7,879	5,500	746	1,510	123
송파구	3,432	9,687	6,211	1,504	1,663	309
강동구	2,755	7,635	4,738	1,444	1,246	207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9) 내·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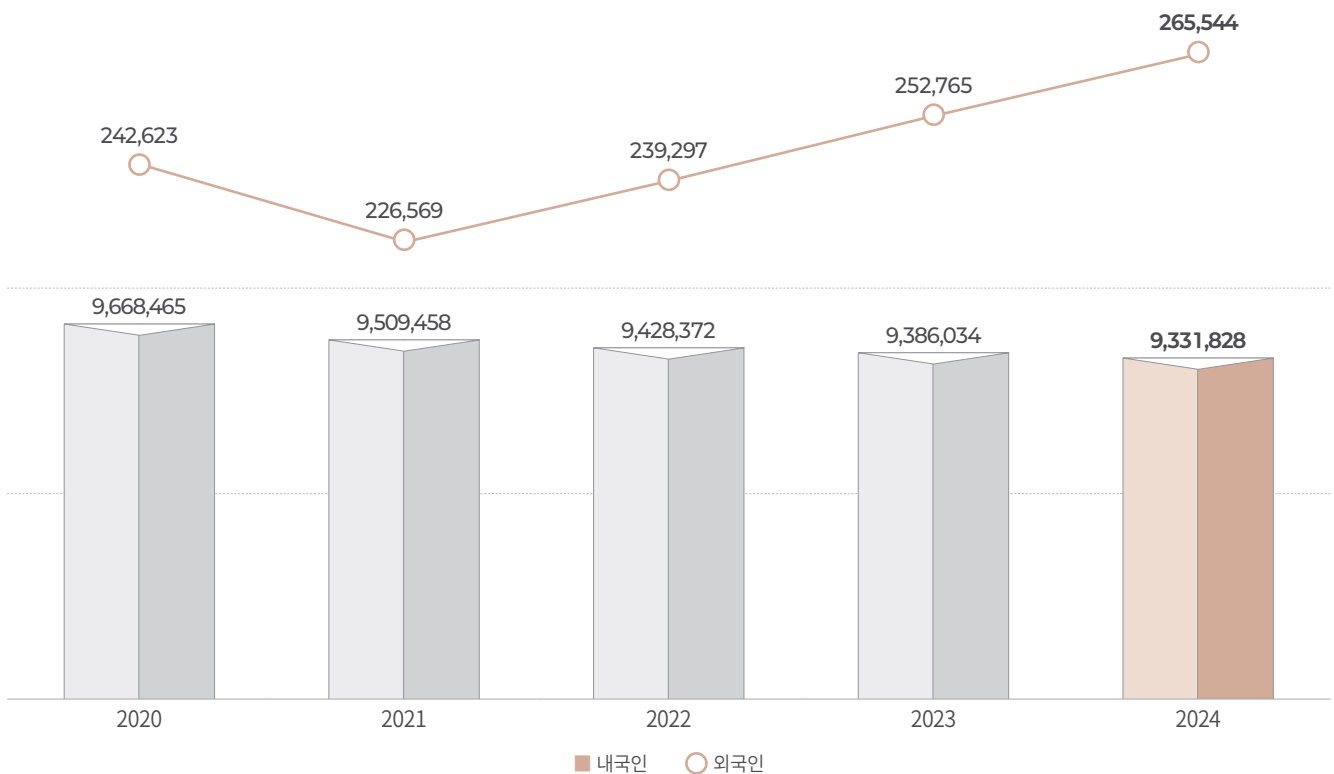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등록 외국인 수는 총 265,544명으로 서울시 인구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인구수 및 비율은 2021년 이후 증가추세임.

표. 20 서울시 내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0	9,911,088	9,668,465	97.6	242,623	2.4
2021	9,736,027	9,509,458	97.7	226,569	2.3
2022	9,667,669	9,428,372	97.5	239,297	2.5
2023	9,638,799	9,386,034	97.4	252,765	2.6
2024	9,597,372	9,331,828	97.2	265,544	2.8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그림. 15 서울시 내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 (단위: 명)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자치구 인구수 대비 외국인 비율은 중구 8.1%(10,670명), 종로구 7.5%(11,272명), 용산구 6.1%(13,340명) 순으로 높았으며 양천구 0.8%(3,375명), 강동구, 도봉구 및 송파구 0.9%(4,532명, 2,804명, 6,200명) 순으로 낮았음.

표. 21 서울시 자치구별 내외국인 인구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597,372	9,331,828	97.2	265,544	2.8
종로구	149,608	138,336	92.5	11,272	7.5
중구	131,214	120,544	91.9	10,670	8.1
용산구	217,194	203,854	93.9	13,340	6.1
성동구	281,289	273,669	97.3	7,620	2.7
광진구	348,652	331,963	95.2	16,689	4.8
동대문구	358,603	338,735	94.5	19,868	5.5
종량구	385,349	379,274	98.4	6,075	1.6
성북구	435,037	421,560	96.9	13,477	3.1
강북구	289,374	283,597	98.0	5,777	2.0
도봉구	306,032	303,228	99.1	2,804	0.9
노원구	496,552	491,247	98.9	5,305	1.1
은평구	465,350	460,919	99.0	4,431	1.0
서대문구	318,622	302,853	95.1	15,769	4.9
마포구	372,745	361,417	97.0	11,328	3.0
양천구	434,351	430,976	99.2	3,375	0.8
강서구	562,194	556,171	98.9	6,023	1.1
구로구	411,916	388,169	94.2	23,747	5.8
금천구	239,070	225,159	94.2	13,911	5.8
영등포구	397,173	373,773	94.1	23,400	5.9
동작구	387,352	375,799	97.0	11,553	3.0
관악구	495,620	477,812	96.4	17,808	3.6
서초구	413,076	408,376	98.9	4,700	1.1
강남구	563,215	557,345	99.0	5,870	1.0
송파구	656,310	650,110	99.1	6,200	0.9
강동구	481,474	476,942	99.1	4,532	0.9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03

##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① 한눈에 보기 48
- ② 자세히 보기 52
  - 가. 정신건강 자원 52
  - 나.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64
  - 다. 정신건강문제 70
  - 라. 정신질환치료 78
  - 마. 정신건강서비스 82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four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 beige color,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of the same color extend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ending just before the text.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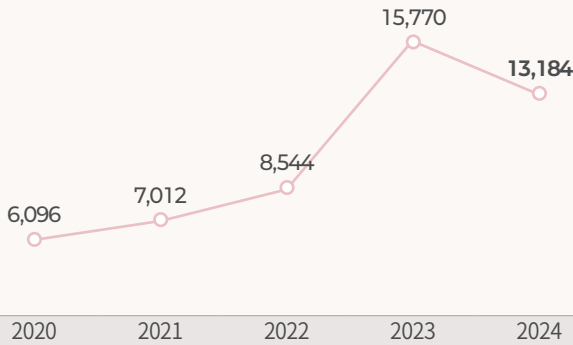
# 01

## 한눈에 보기

### 정신건강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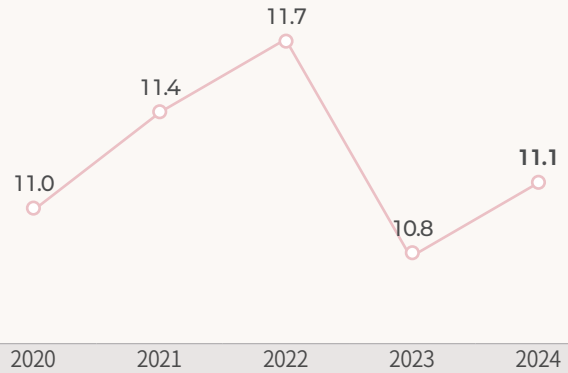
0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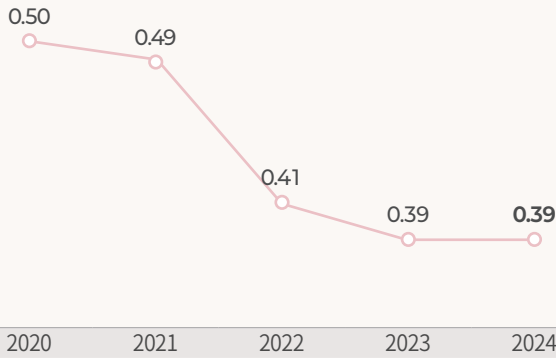
0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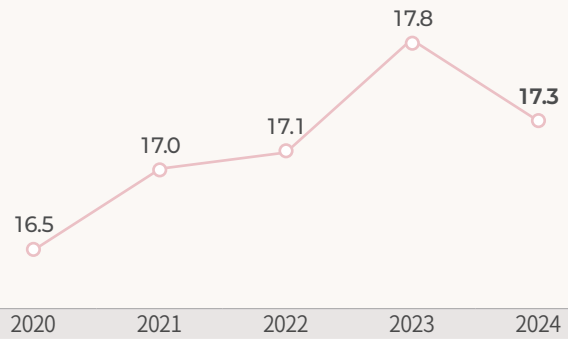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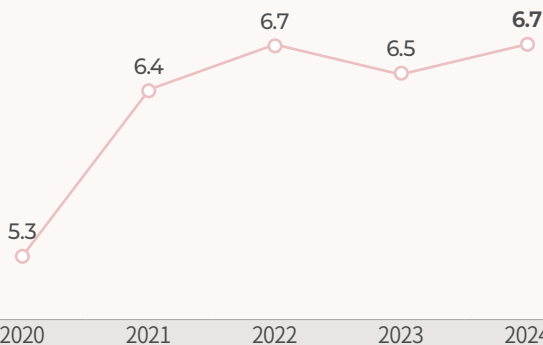
0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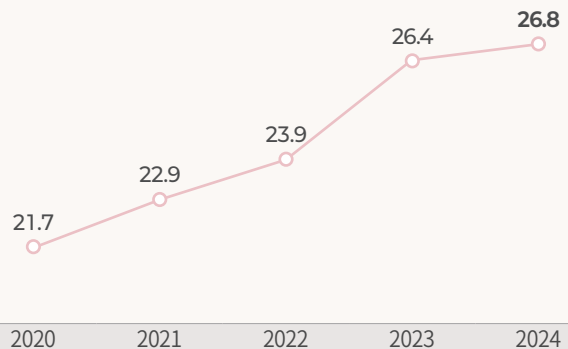
0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단위: 명)



0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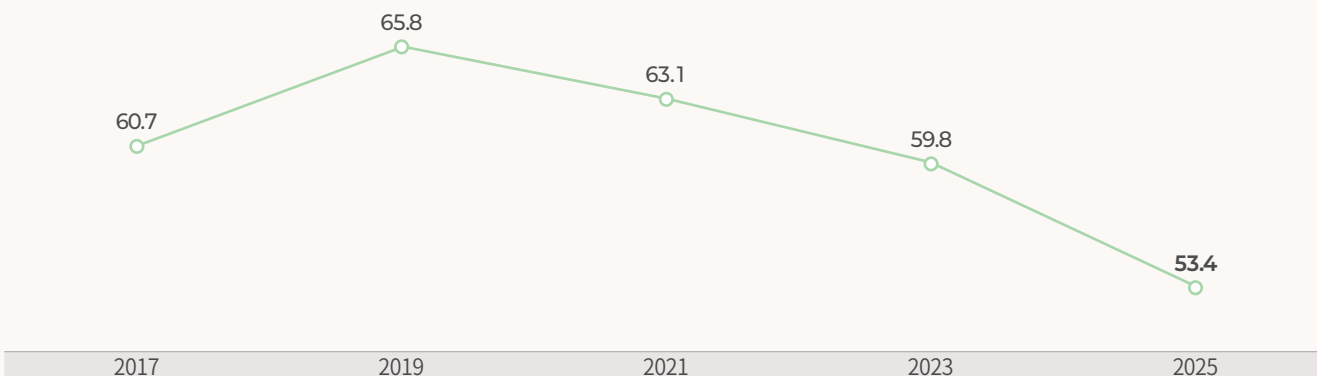
(단위: 명)



##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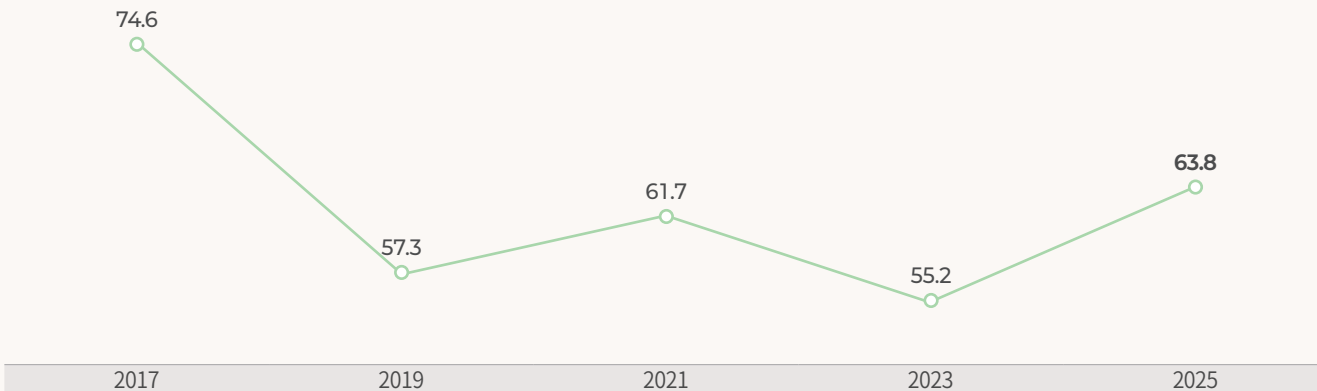
###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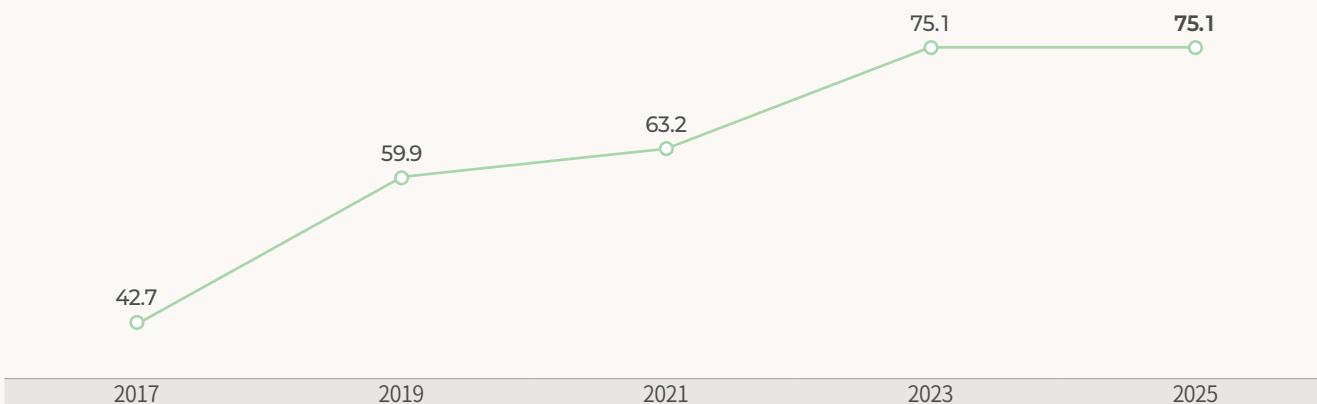
### 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단위: %)



### 0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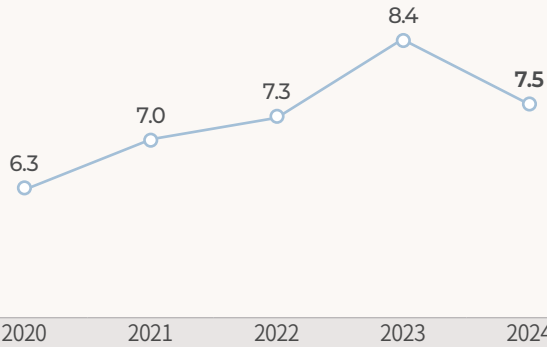
(단위: %)



## 정신건강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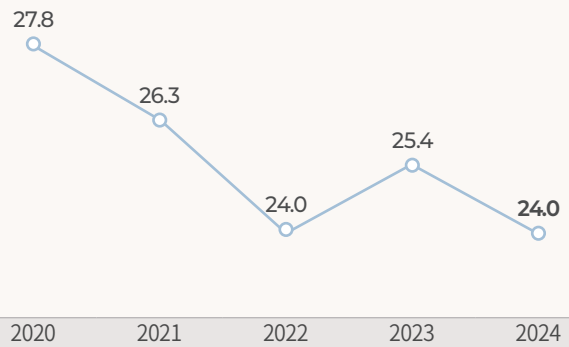
10 우울감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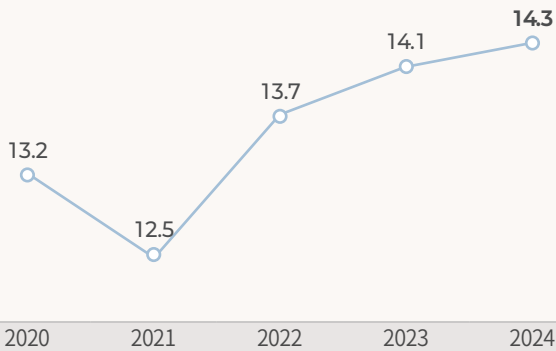
11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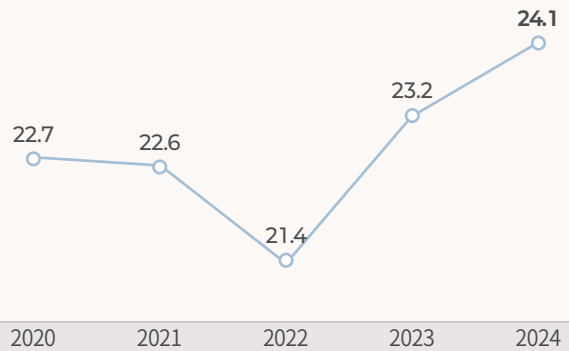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단위: %)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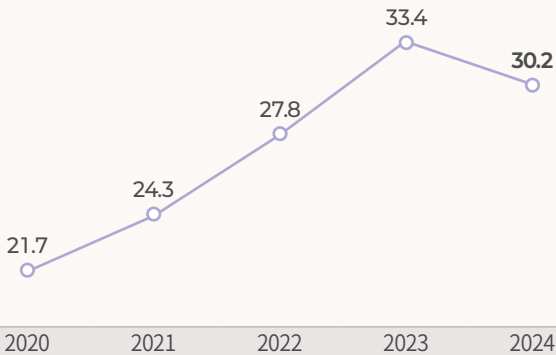
(단위: 명)



## 정신질환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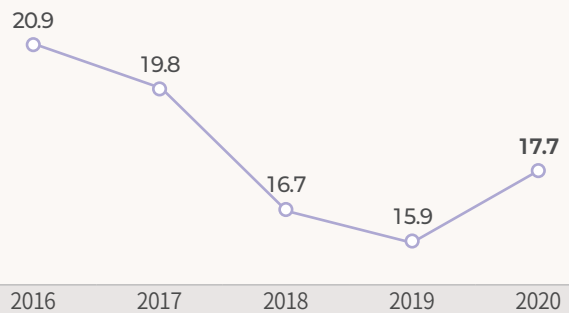
14 비자의 입원률

(단위: %)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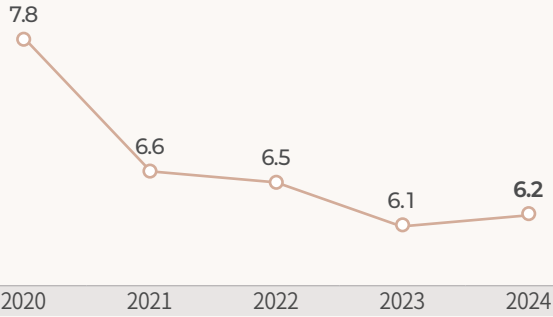
(단위: %)



## 정신건강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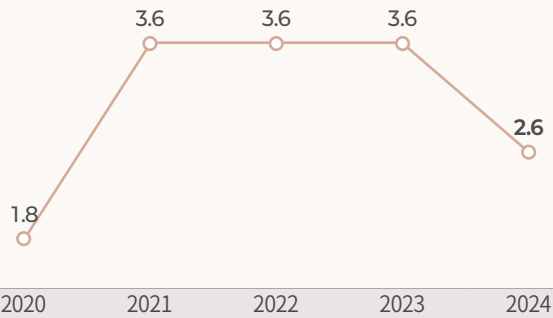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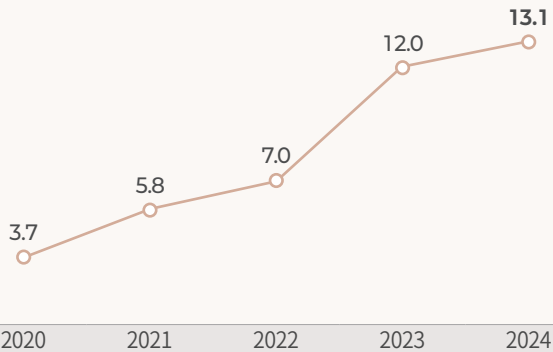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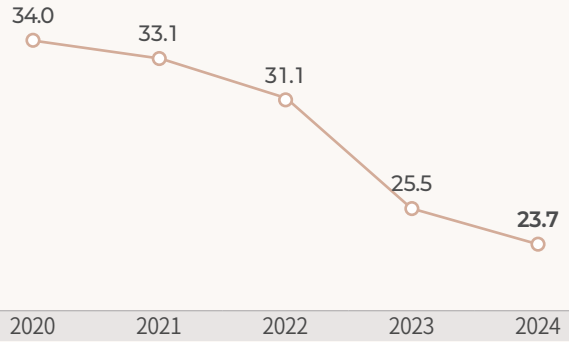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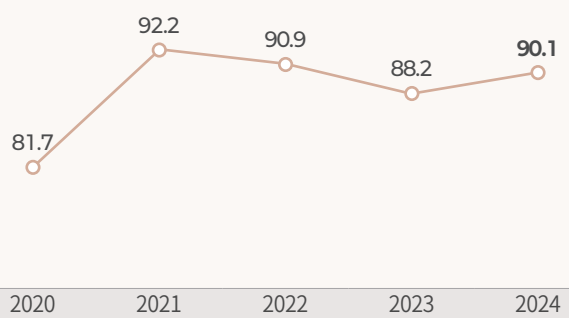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단위: 명)



19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단위: %)



# 02

## 자세히 보기

### 가

### 정신건강자원

#### Indicator 01

####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13,184 원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 지표목표

상향     하향

#####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 지표정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 산식설명



- 연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은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은 123,032백만원으로 2023년 146,017백만원에서 약 18.7% 감소함
- 2024년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13,184원으로 2023년 대비 2,586원(16.4%) 감소함
-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459원, 2016년 4,773원, 2023년 15,77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13,184원으로 감소함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산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그림.17: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Indicator  
02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11.1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의료급여 지출액 중 정신질환(F코드)에 대한 지출액 비중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질환(F코드) 의료급여 지출액 × 100
- 분모: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산식설명



-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중 정신질환(F코드)으로 지출된 의료급여 비중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 중 정신질환(F코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이며 2023년 대비 0.3%p 증가함
- 2024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은 1,857,354백만원으로 2023년 1,730,771백만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은 206,277백만원으로 2023년 187,735백만원 대비 9.9% 증가함
- 해당 지표는 정신건강 분야의 보장성 차원에서 상향지표로 해석하며, 비중 증가가 정신질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 및 재정적 보호 확대를 의미함

자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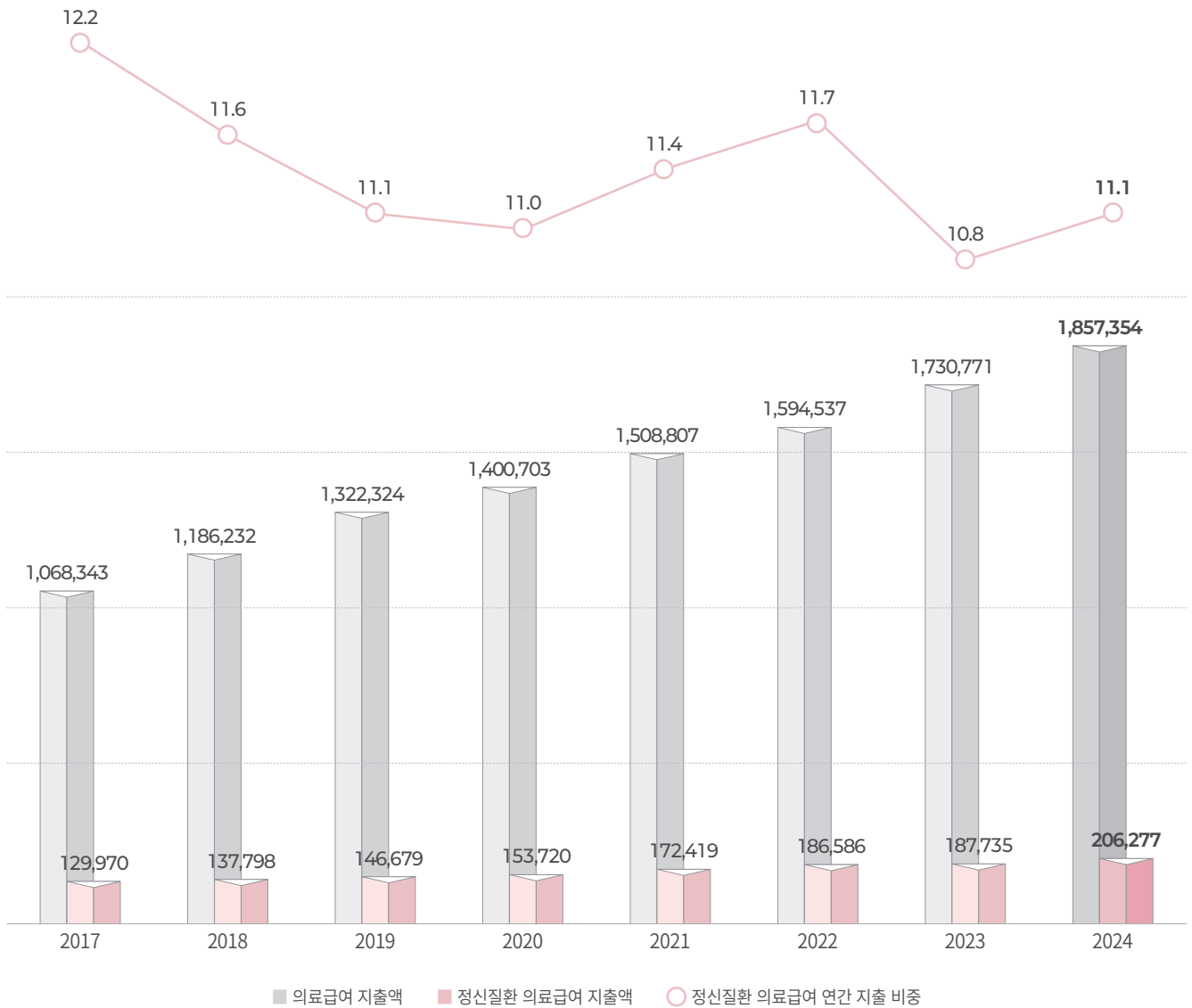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

그림. 18

서울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추이(2017~2024)

(단위: 백만원, %)



Indicator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0.39 개**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내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상수 × 1,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내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를 해당연도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정신병상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가능한 총 병상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을 의미하며,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됨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상수는 3,660개로 2023년 3,673개 대비 0.4% 감소함
- 2024년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는 0.39개로 2023년과 동일함
-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0.54개, 2020년 0.50개, 2024년 0.39개로 감소추세임
- 해당 지표는 정신건강 돌봄체계의 지역사회 전환 관점에서 하향지표로 해석하며, 병상수 감소는 입원 중심 치료 의존도의 완화를 의미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19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정신병상수 추이(2017~2024)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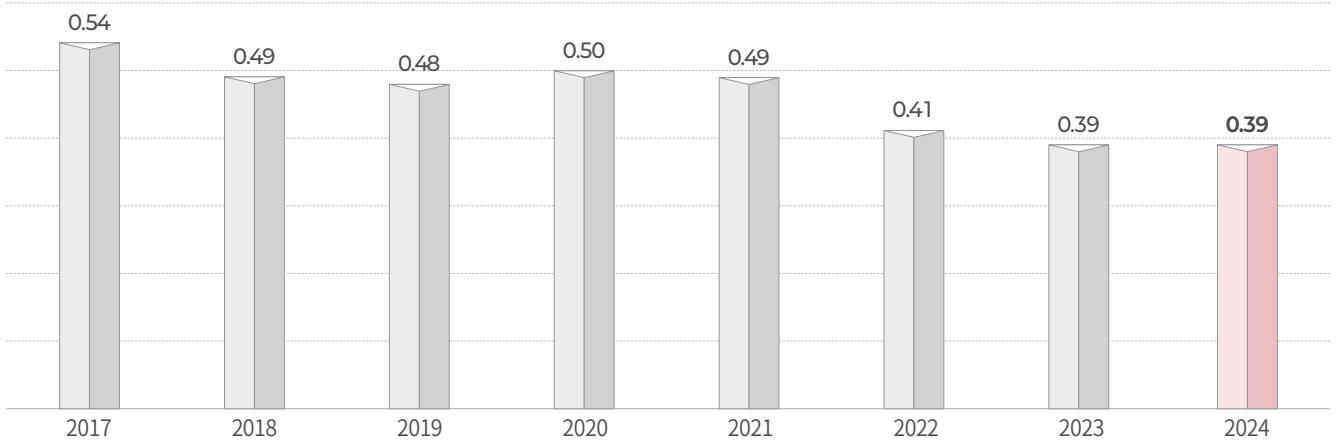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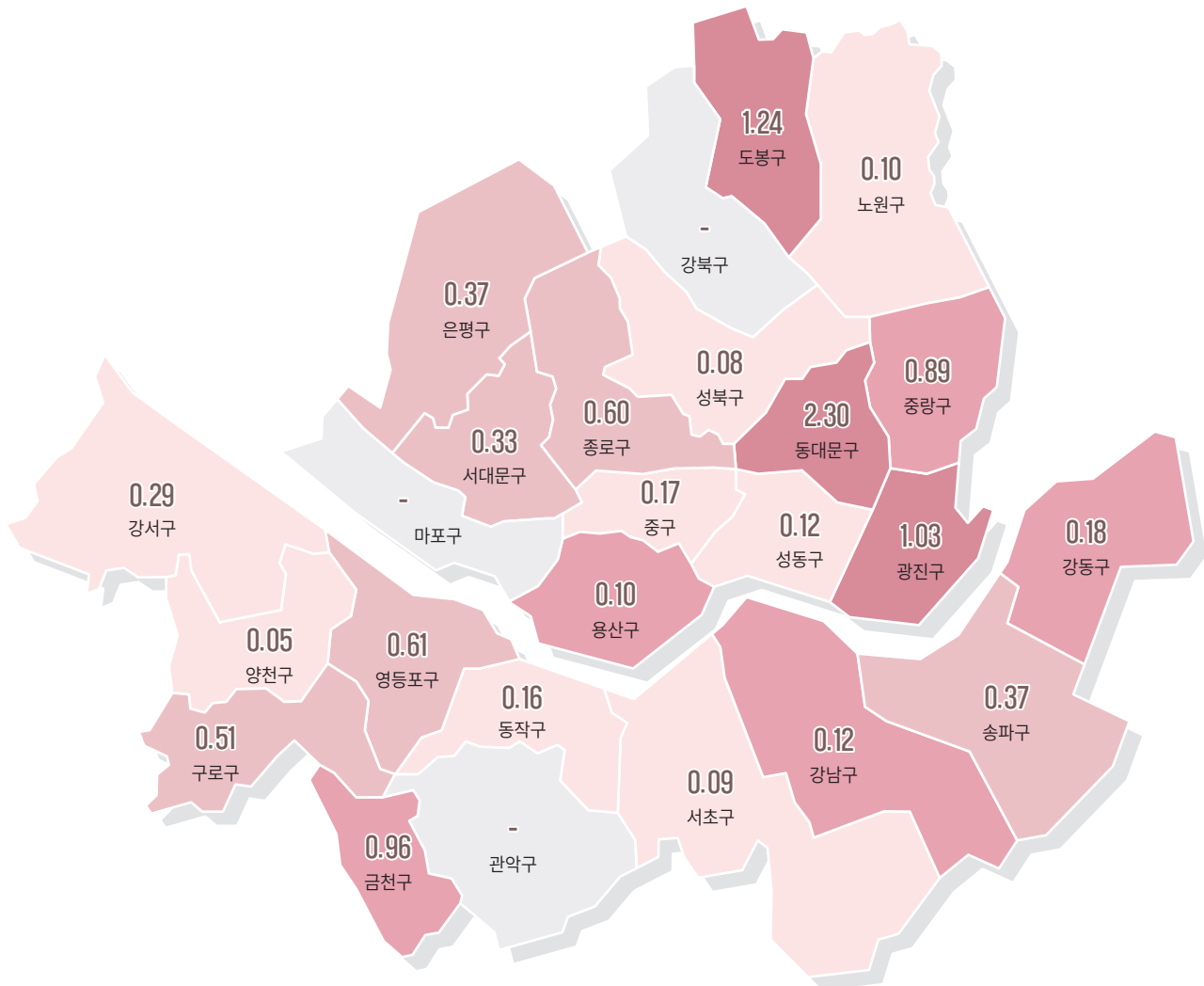


그림. 20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이용 가능한 정신병상수 현황(2024)

(단위: 개)



Indicator  
04

##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17.3 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제공 가능한 재활서비스 수용 인원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재활서비스 정원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대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재활서비스 정원은 정신재활시설 중 기관유형이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인 기관 정원에 해당함

지표현황



-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은 17.3명으로 2023년 17.8명 대비 0.5명 감소함
-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1개소이며 서비스 정원은 1,618명으로 2023년 대비 제공 기관 수는 1개소 감소하였으며, 정원은 50명 감소함
- 서울시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1개소는 주간재활시설 25개소(61.0%), 직업재활시설 7개소(17.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8개소(19.5%), 종합시설은 1개소(2.4%)로 분류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21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추이(2010~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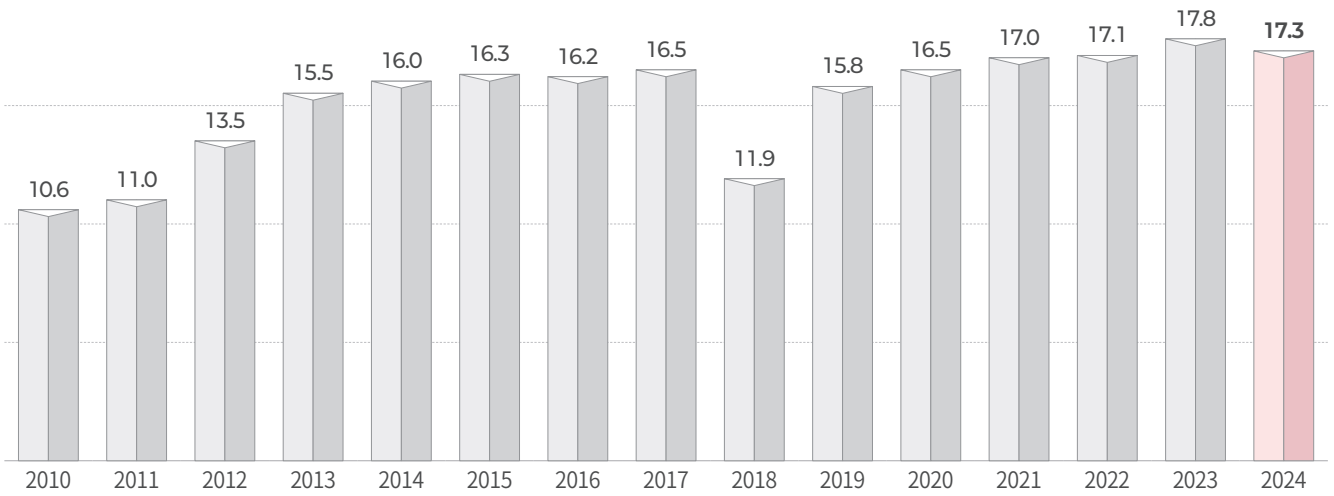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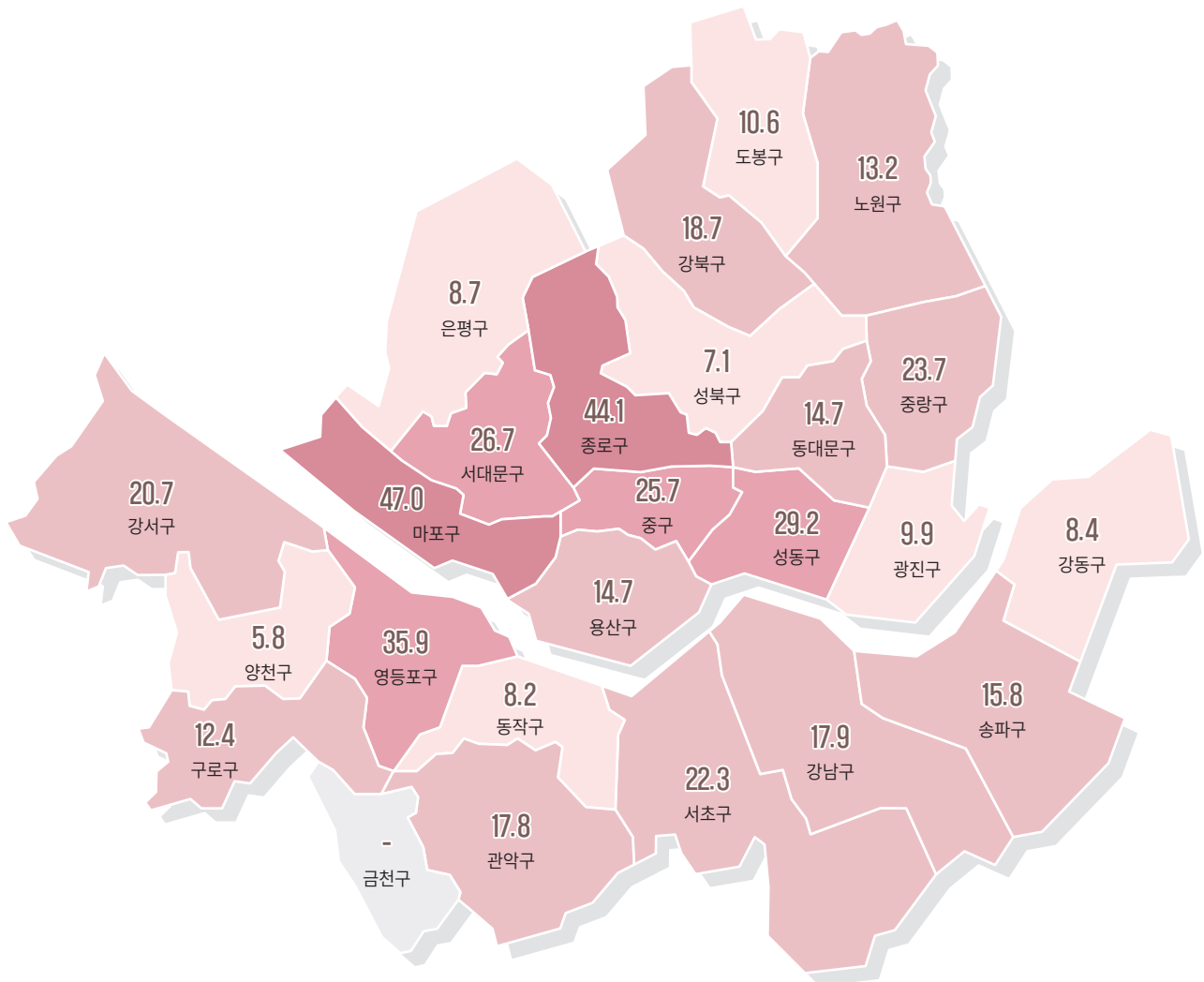


그림. 2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현황(2024)

(단위: 명)



- 01. 개요
-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05

##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6.7 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제공 가능한 거주서비스 수용 인원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거주서비스 정원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대상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거주서비스 정원은 정신재활시설 중 기관유형이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인 기관 및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정원에 해당함

지표현황



-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6.7명으로 2023년 6.5명 대비 0.2명 증가함
- 2024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거주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65개소이며 서비스 정원은 629명으로 2021년부터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기관유형이 포함됨
- 서울시 거주서비스 제공기관 65개소는 공동생활가정 51개소(78.5%),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6.5%), 중독자 재활시설 3개소(4.6%), 자립생활주택 4개소(6.2%), 지원주택 3개소(4.2%)로 분류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23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추이(2010~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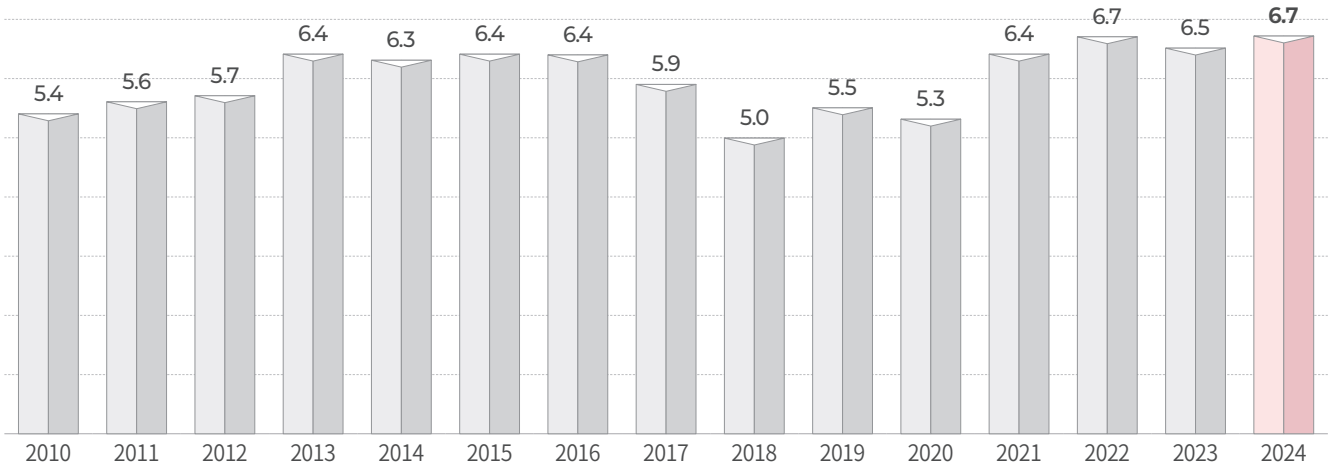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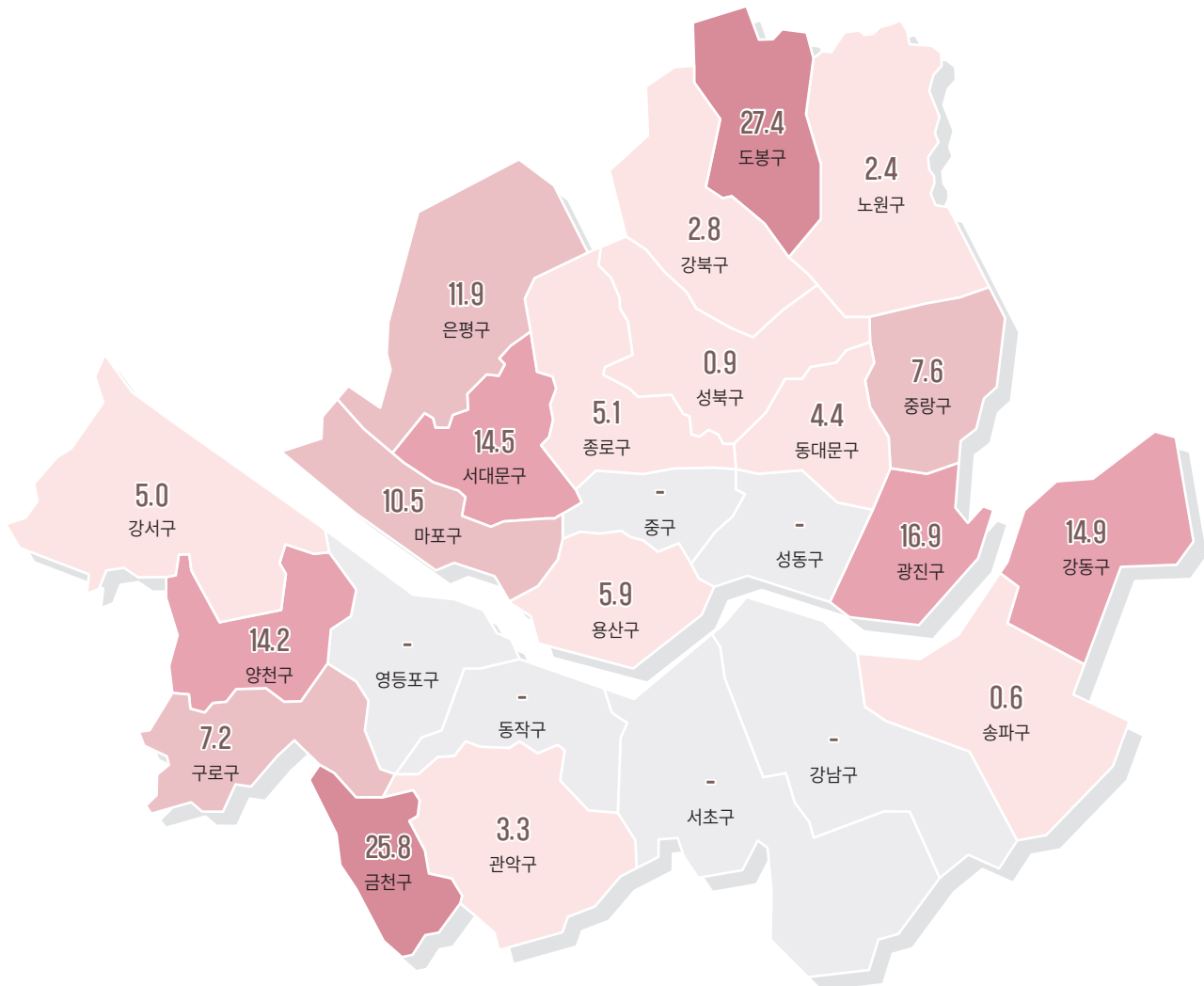


그림. 2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현황(2024)

(단위: 명)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06

##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26.8 명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 지표목표

상향    하향

###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인력 수

###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를 해당연도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함
-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을 포함함

### 지표현황



-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는 26.8명으로 2023년 26.4명 대비 0.4명 증가함
- 2024년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총 2,498명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2명(48.1%), 정신건강간호사 422명(16.9%), 정신건강사회복지사 631명(25.3%),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21명(8.8%),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2명(0.9%)임

###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25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0~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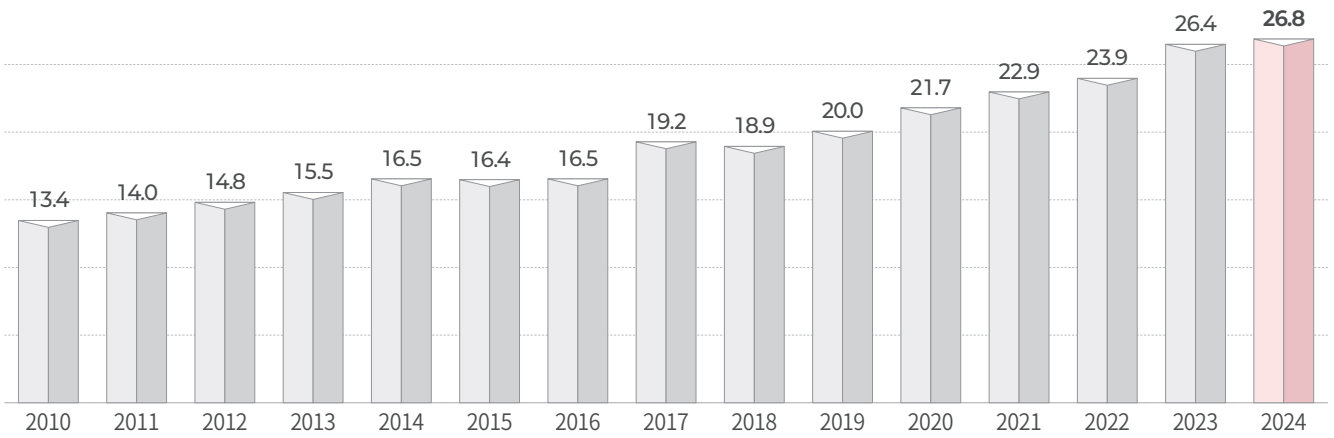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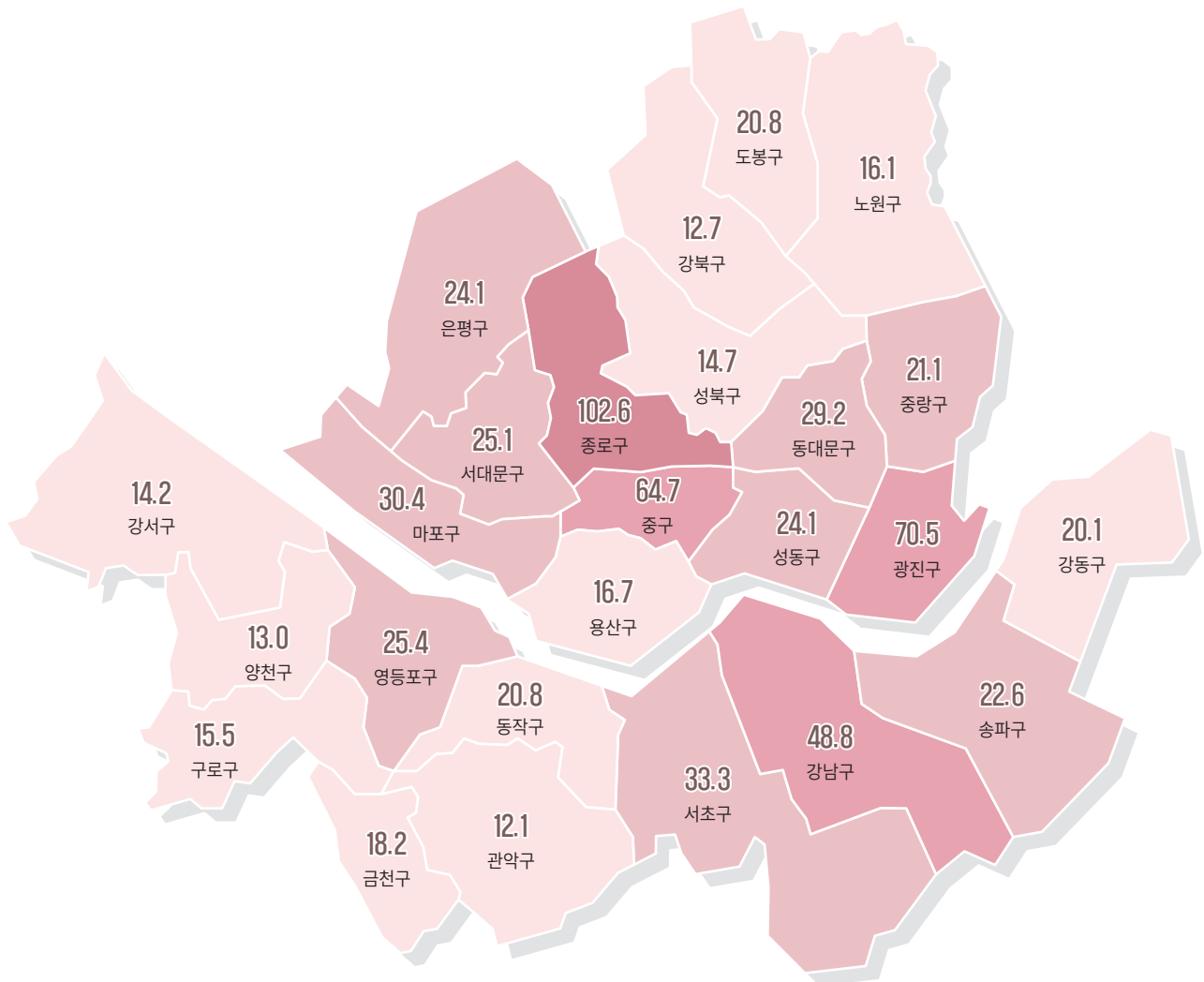


그림. 2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4)

(단위: 명)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53.4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대체로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

지표현황



- 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좋다+대체로 좋은 편이다)한 비율은 53.4%로 2023년 59.8% 대비 6.4%p 감소함
- 2025년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매우 나쁘다+대체로 나쁜 편이다)한 비율은 12.9%로 2023년 10.0% 대비 2.9%p 증가함
-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로는 심각한 스트레스(41.3%),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34.8%),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1.4%) 등이 있음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그림. 27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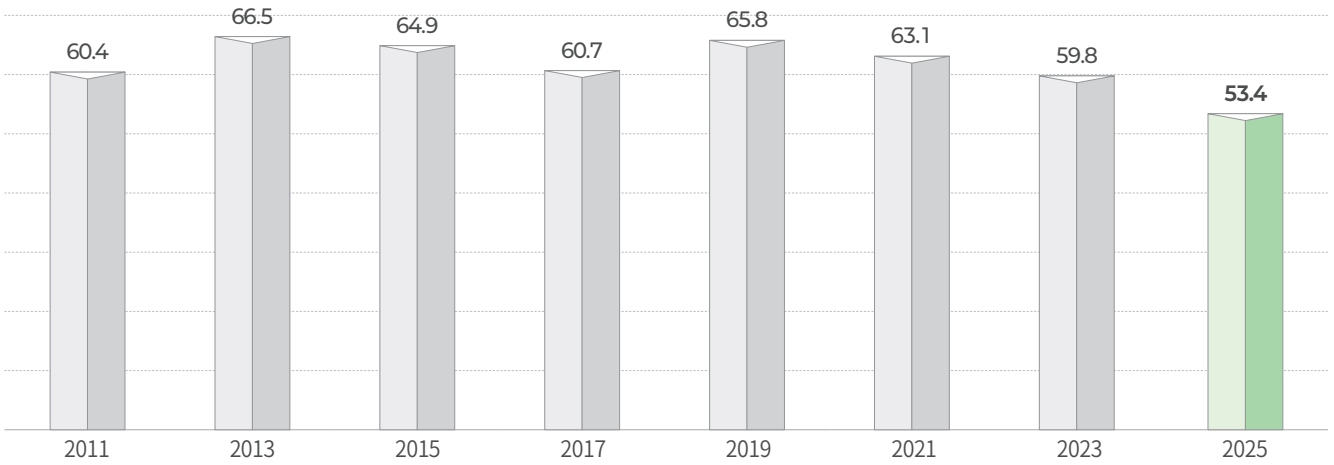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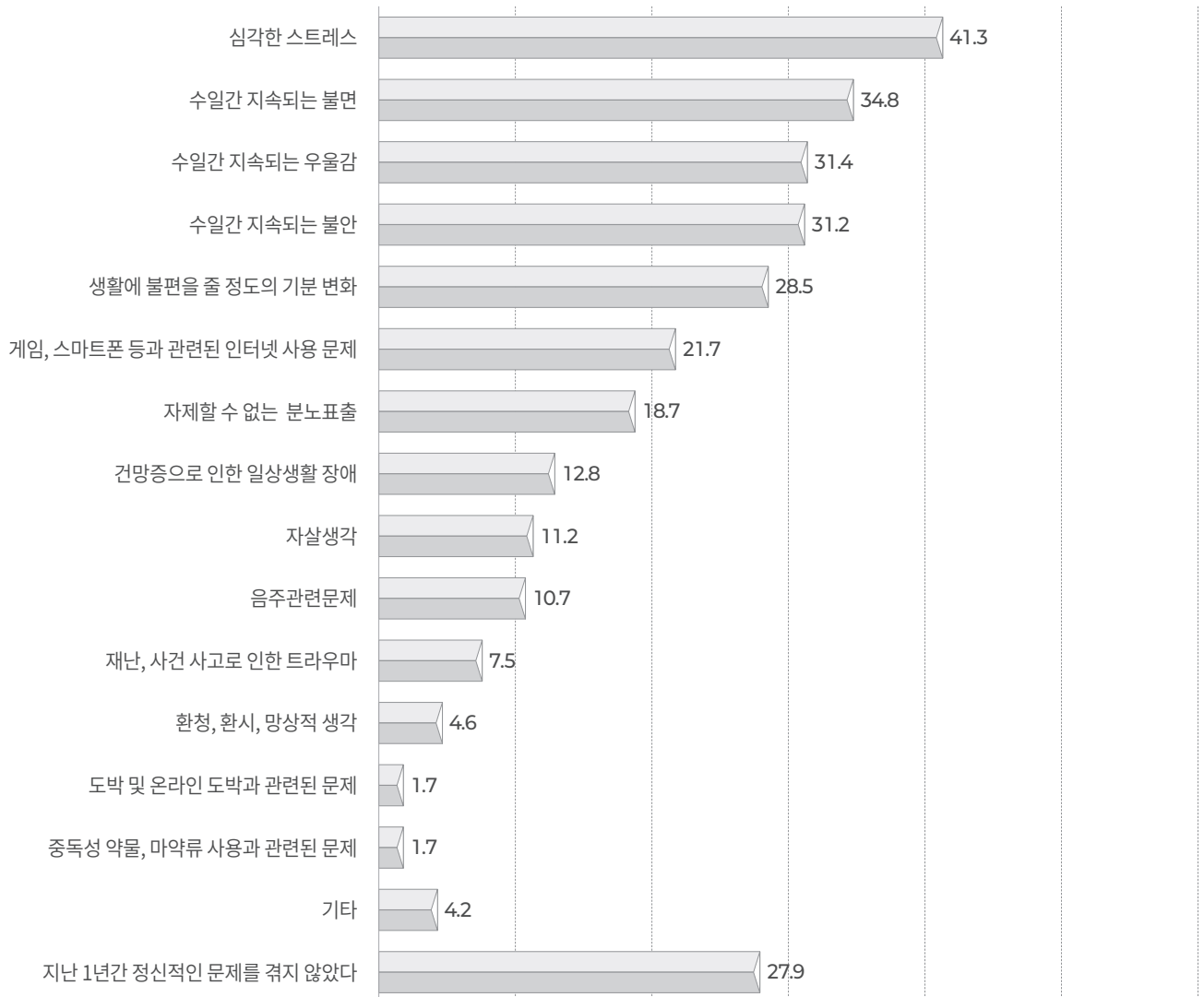


그림. 28 서울시민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 현황(2025)

(단위: %)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08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3.8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긍정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지표현황



-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런 편이다)한 비율은 63.8%로 2023년 55.2% 대비 8.6%p 증가함
- 2025년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한 비율은 36.2%로 2023년 44.8% 대비 8.6%p 감소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그림. 29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추이(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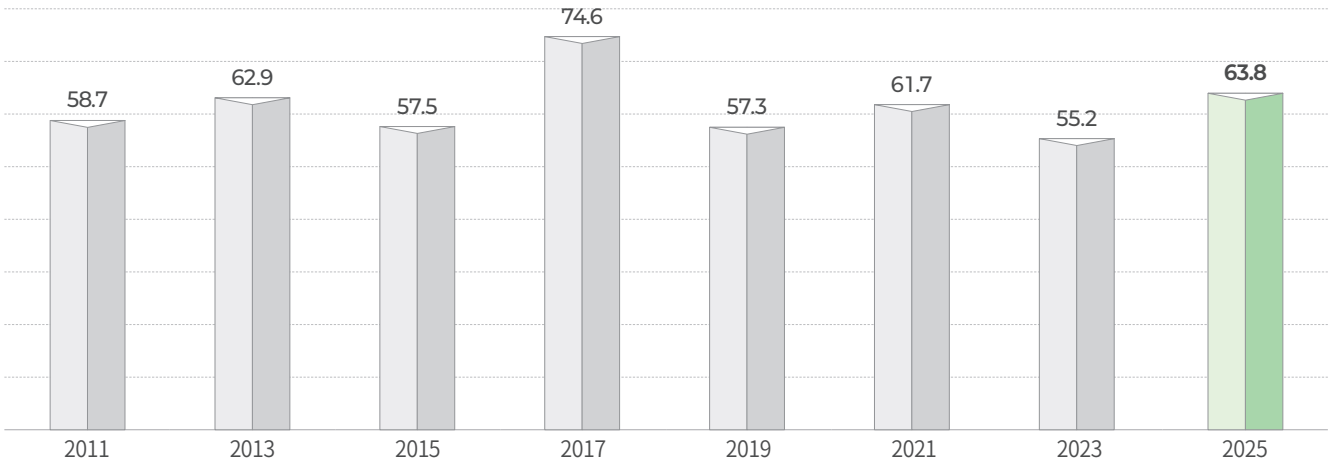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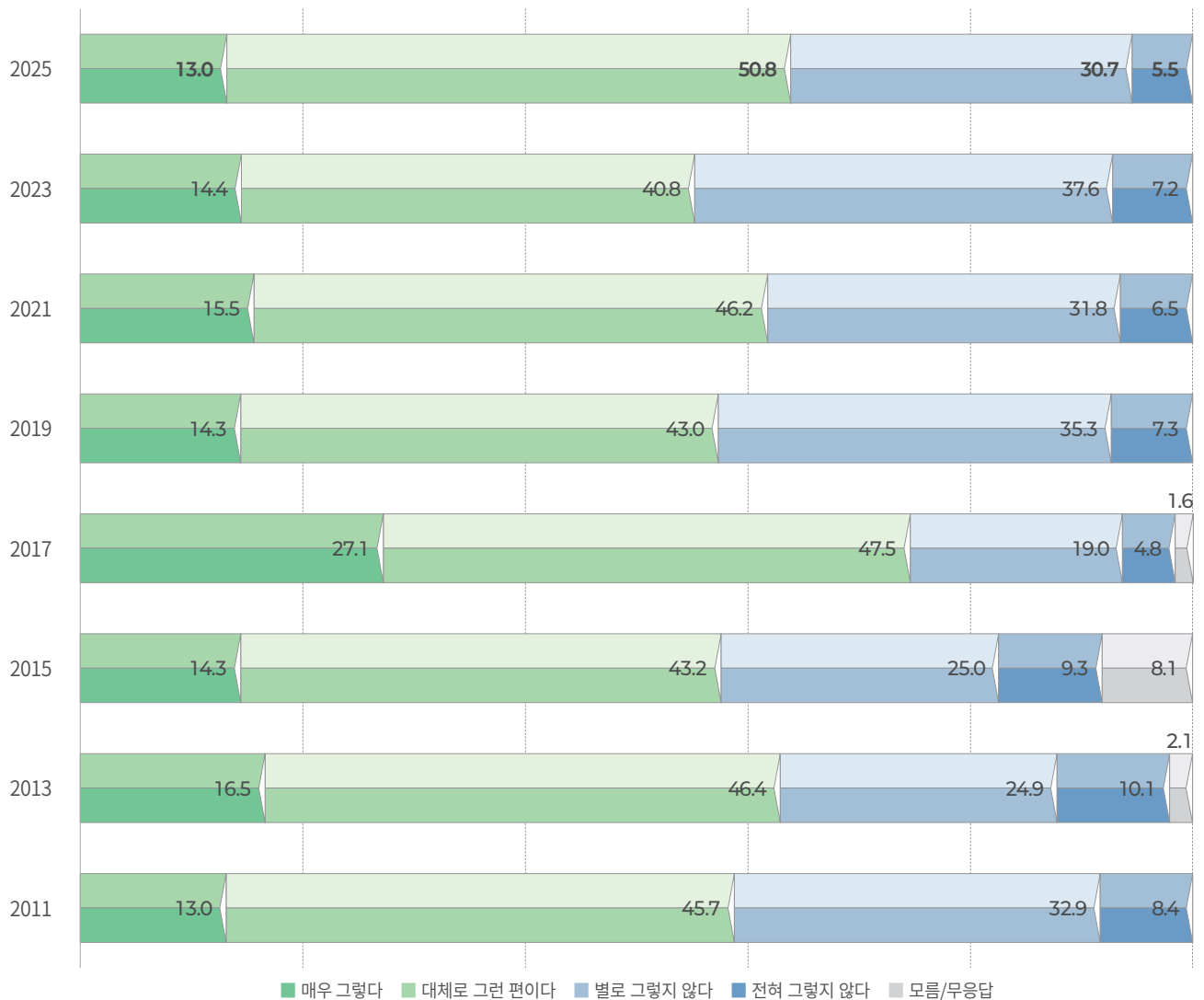


그림. 30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응답 분포 추이(2011~2025)

(단위: %)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09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75.1%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인지' 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지표현황



-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5.1%로 2023년과 동일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그림. 31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추이(2011~20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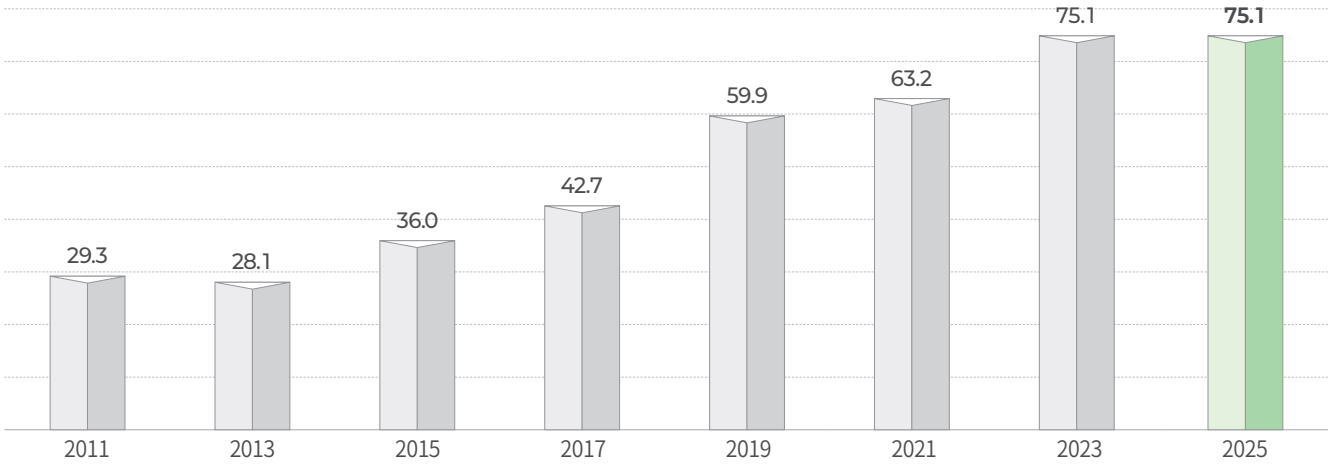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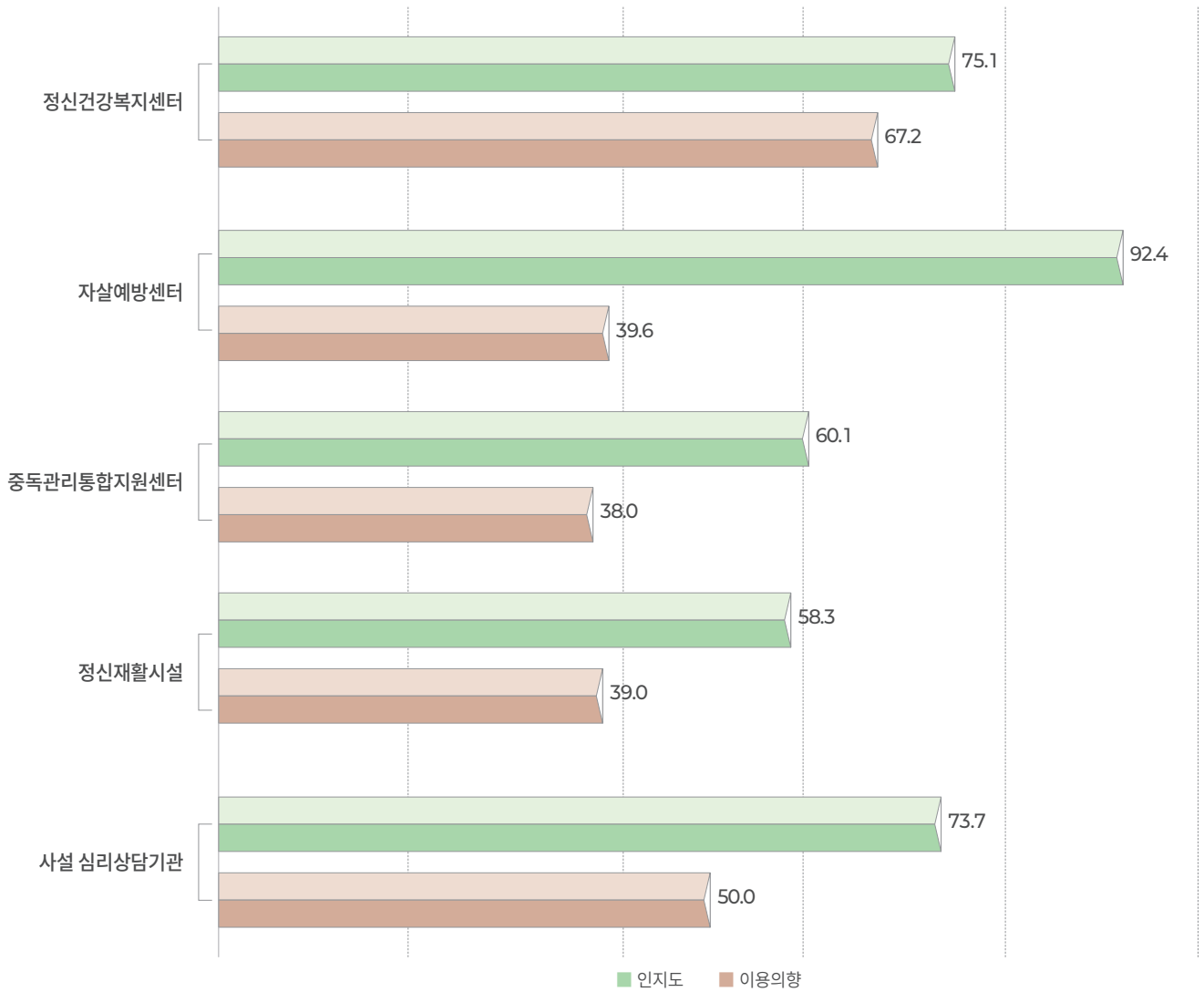


그림. 32 서울시민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현황(2025)

(단위: %)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10

우울감 경험률

7.5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측정산식



- 분자: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산식설명



-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의 우울감 경험 여부에 '예'로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7.5%로 2023년 8.4% 대비 0.9%p 감소하였음
- 2024년 전국 우울감 경험률은 시·군·구 중앙값 6.2%로, 서울시 대비 1.3%p 낮게 나타남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11.9%, 관악구 10.2%, 동작구 9.6% 순임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Indicator  
**11**

**스트레스 인지율**

**24.0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산식설명**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파악
-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24.0%로 2023년 25.4% 대비 1.4%p 감소하였음
- 2024년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은 시·군·구 중앙값 23.7%로, 서울시 대비 0.3%p 낮게 나타남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 29.6%, 강서구 28.8%, 마포구 28.0% 순임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5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2013~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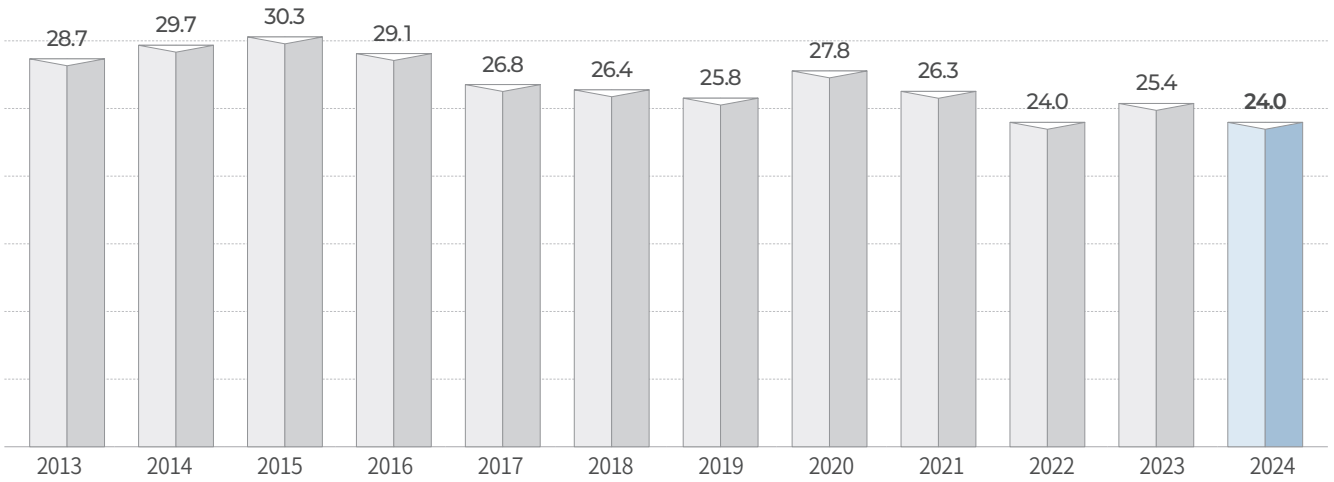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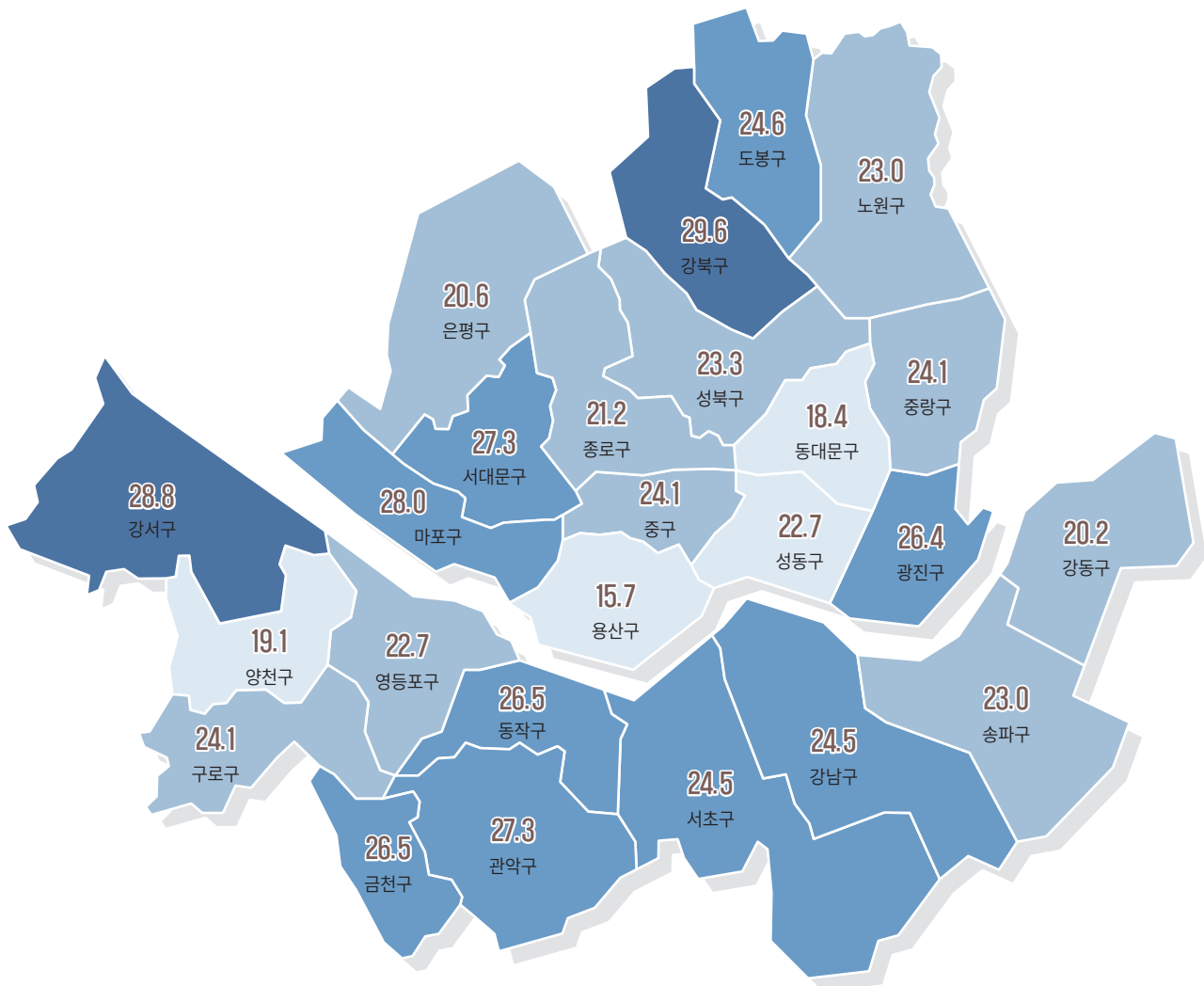


그림. 36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현황(2024)

(단위: %)



- 01. 개요
-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14.3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최근 1년 동안 고위험 수준으로 음주한 사람 수 × 1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수

**산식설명**



- 최근 1년간 서울시민 연간 음주자에 대한 고위험 음주율 정도 파악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주 2회 이상, 평균적으로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 마시는 사람 비율

**지표현황**



- 2024년 서울시민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4.3%로 2023년 14.1% 대비 0.2%p 증가하였음
- 2024년 전국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시·군·구 중앙값 16.6%로, 서울시 대비 2.3%p 높게 나타남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17.5%, 강북구 17.4%, 강서구 17.3% 순임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37 서울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추이(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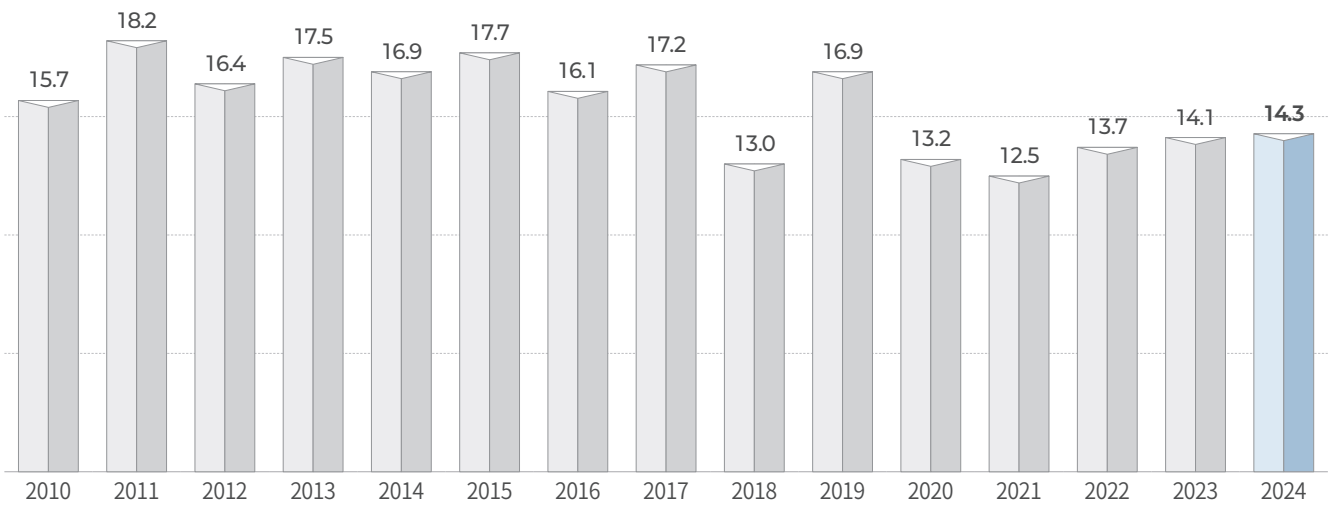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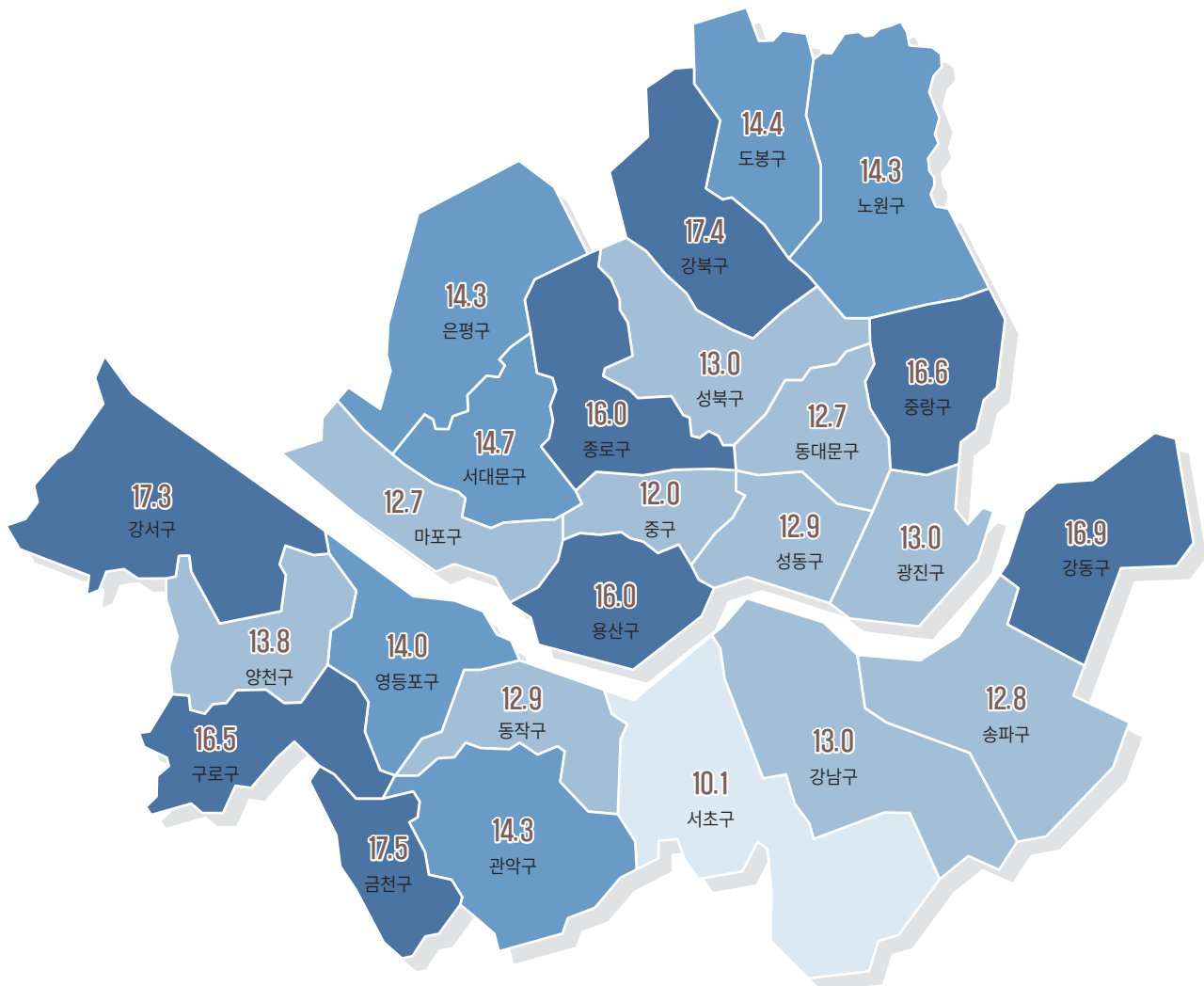


그림. 38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단위: %)



- 01. 개요
-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24.1** 명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자살 사망자 수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식설명**



- 당해연도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 파악
- 자살로 사망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연앙인구: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기준 인구

**지표현황**



- 2024년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수 358,569명 중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4.1%임
- 2024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는 2,234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약 15.0%에 해당하며 2023년 15.5% 대비 0.5%p 감소함
- 2024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전국 29.1명, 서울시 24.1명임

**자료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39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추이(2010~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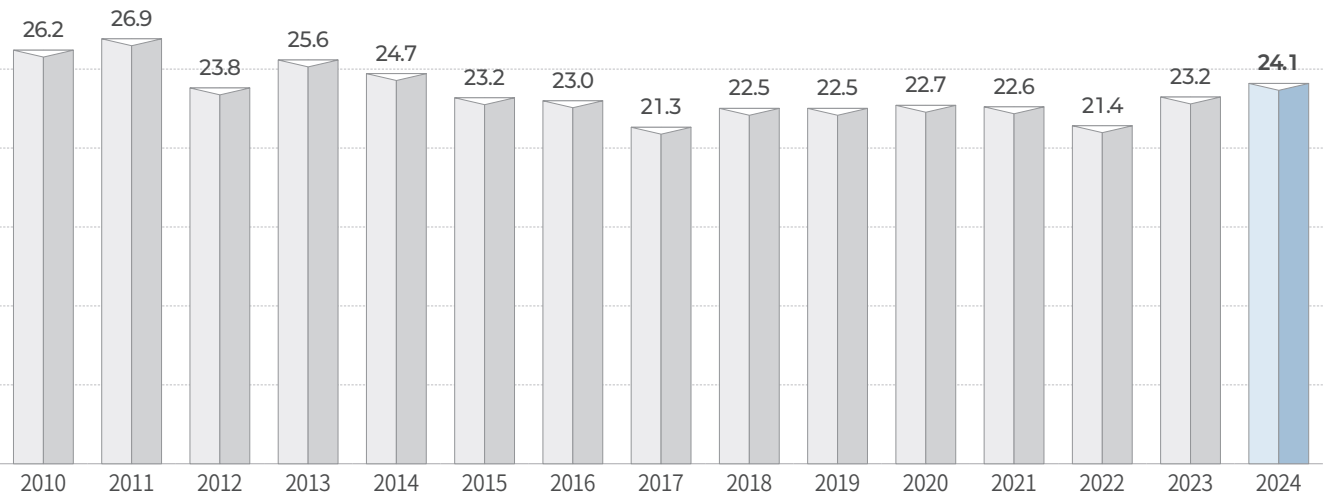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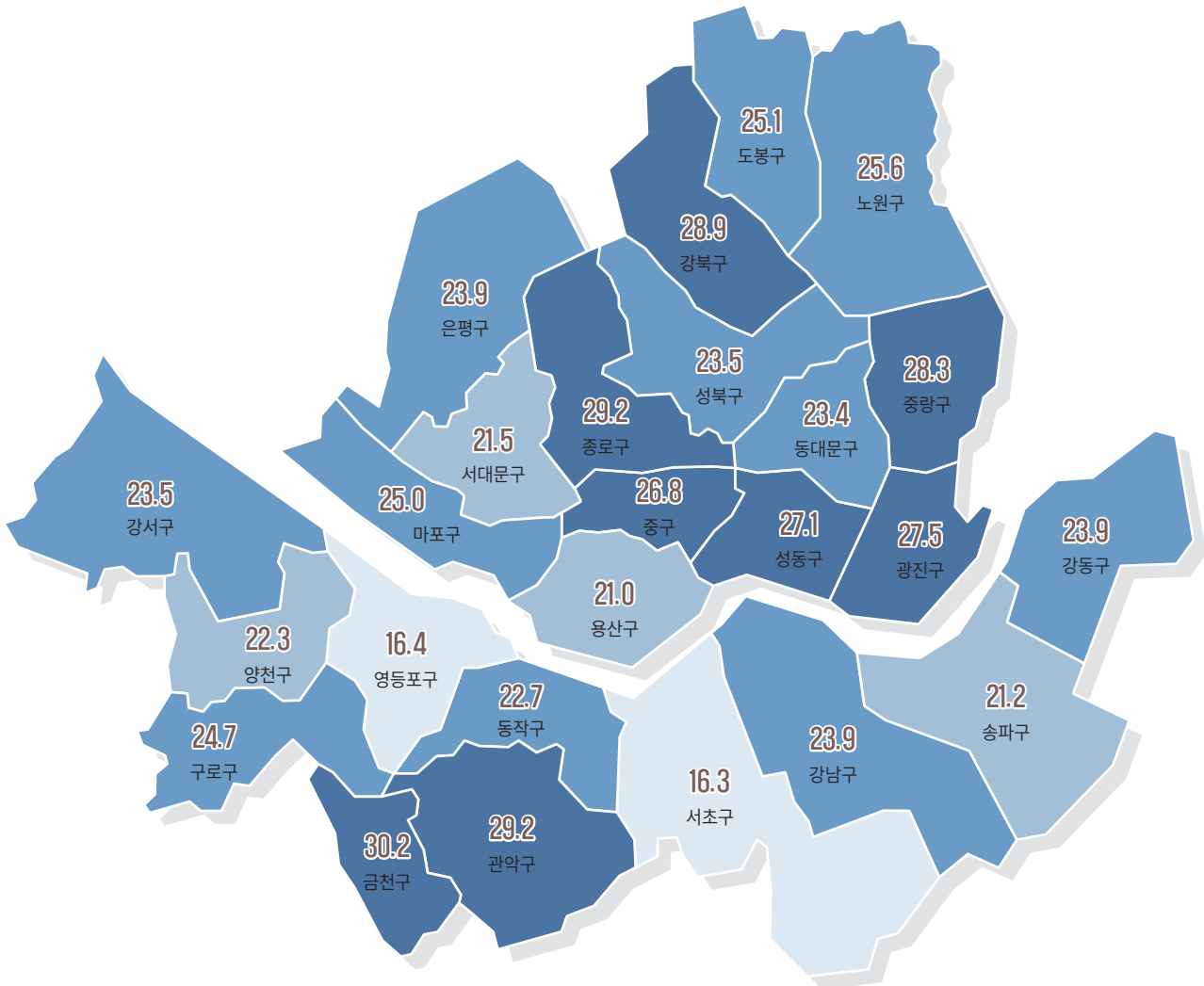


그림. 40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 현황(2024)

(단위: 명)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14

비자의 입원율

30.2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비자의 입원환자 수 × 100
- 분모: 자의 · 비자의 입원환자 수

산식설명



-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적 입원 형태로 입원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 비자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입원은 포함하지 않음

지표현황



- 2024년 비자의 입원율은 30.2%로 2023년 33.4% 대비 3.2%p 감소함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2,669명으로 자의적 입원(1,855명, 69.5%)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자의적 입원(803명, 30.1%), 응급입원(11명, 0.4%) 순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그림. 41 서울시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9~202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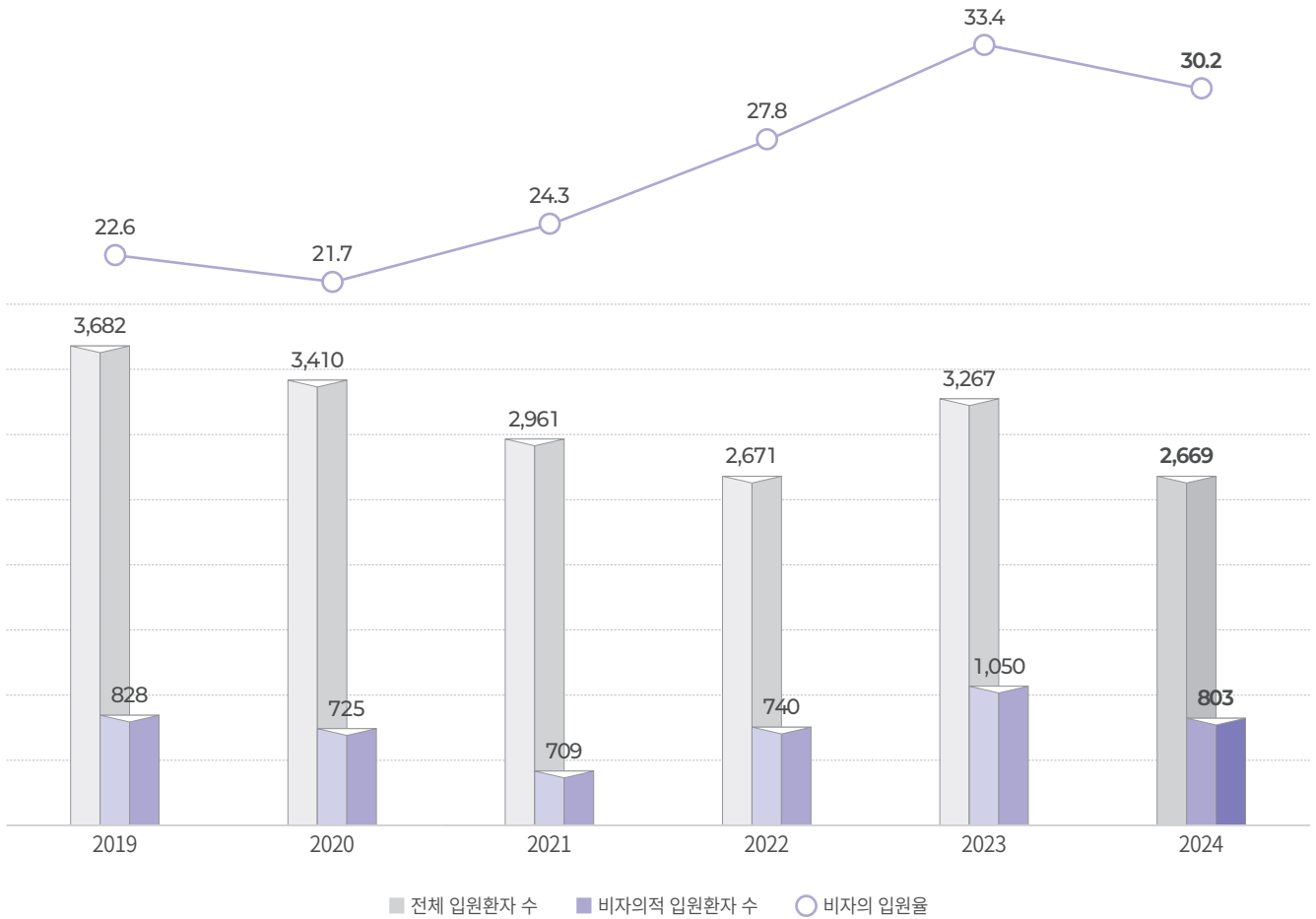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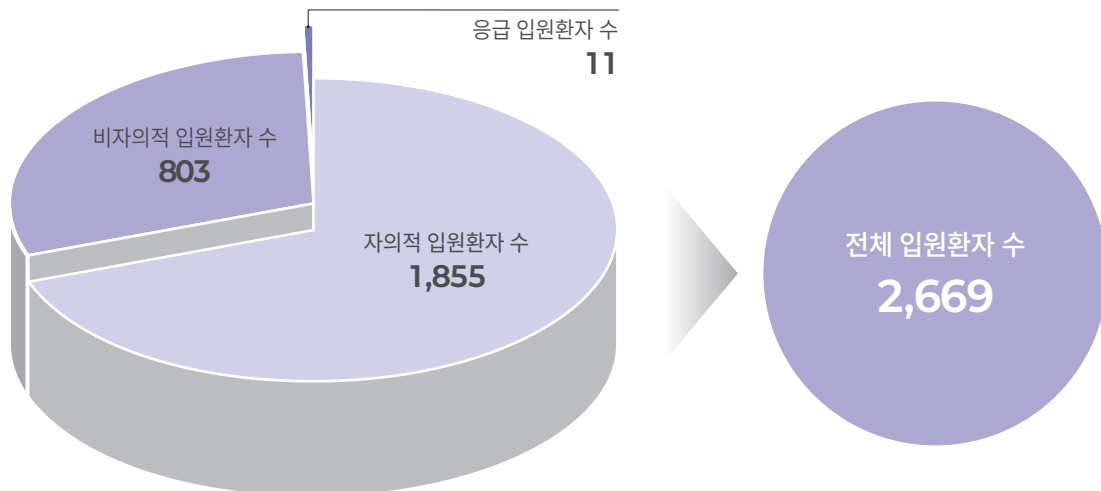


그림. 4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현황(2024)


(단위: 명)



<b>Indicator</b>  <b>15</b>	<b>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b>	<b>17.7 %</b>
-----------------------------------	--	---------------


<b>지표분류</b>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자원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put type="radio"/> 정신건강문제	<input checked="" type="radio"/> 정신질환치료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서비스
<b>지표목표</b>	<input type="radio"/> 상향	<input checked="" type="radio"/> 하향			
<b>지표속성</b>	<input type="radio"/> 투입지표	<input type="radio"/> 과정지표	<input checked="" type="radio"/> 산출지표	<input type="radio"/> 결과지표	

**지표정의**




- 중증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중 1개월(30일)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연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한 환자 수 × 100
- 분모: 연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

**산식설명**




- 입원환자별 해당연도 첫 번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비율을 산출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0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7.7%로 2019년 15.9% 대비 1.8%p 증가함
- 2020년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8.7%로 서울시 17.7%보다 1.0%p 높은 수치임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Indicator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6.2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분모: 서울시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수

산식설명



-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수에 해당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수 산정 시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0.9%를 적용함
- 해당 유병률(0.9%)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4~2019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가장 최근 유병률 현황을 반영함

지표현황



- 2024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은 6.2%로 2023년 6.1% 대비 0.1%p 증가함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등록회원 수는 9,010명이며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수는 5,208명으로 57.8%에 해당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45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추이(2010~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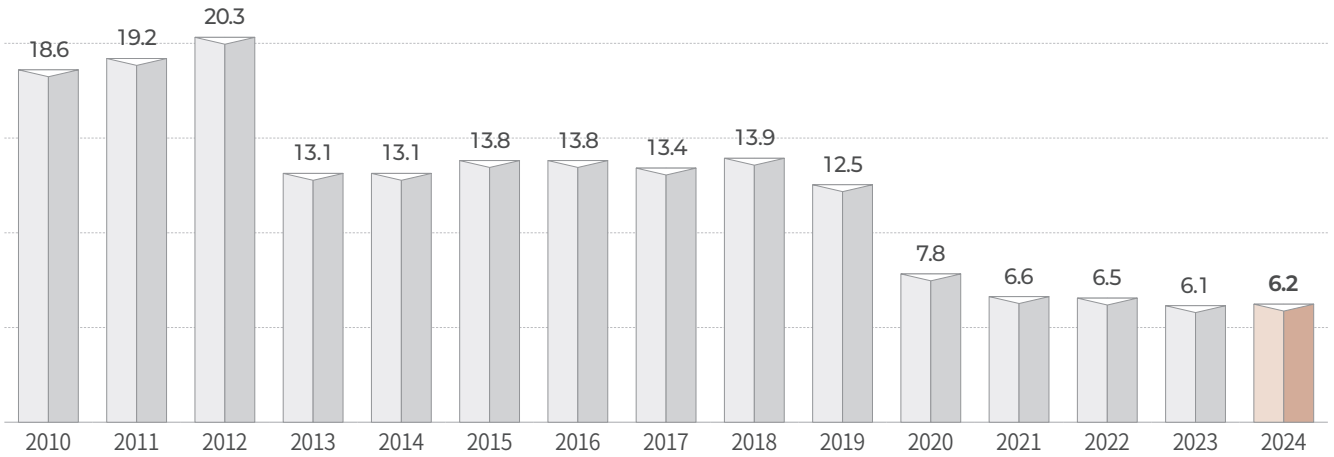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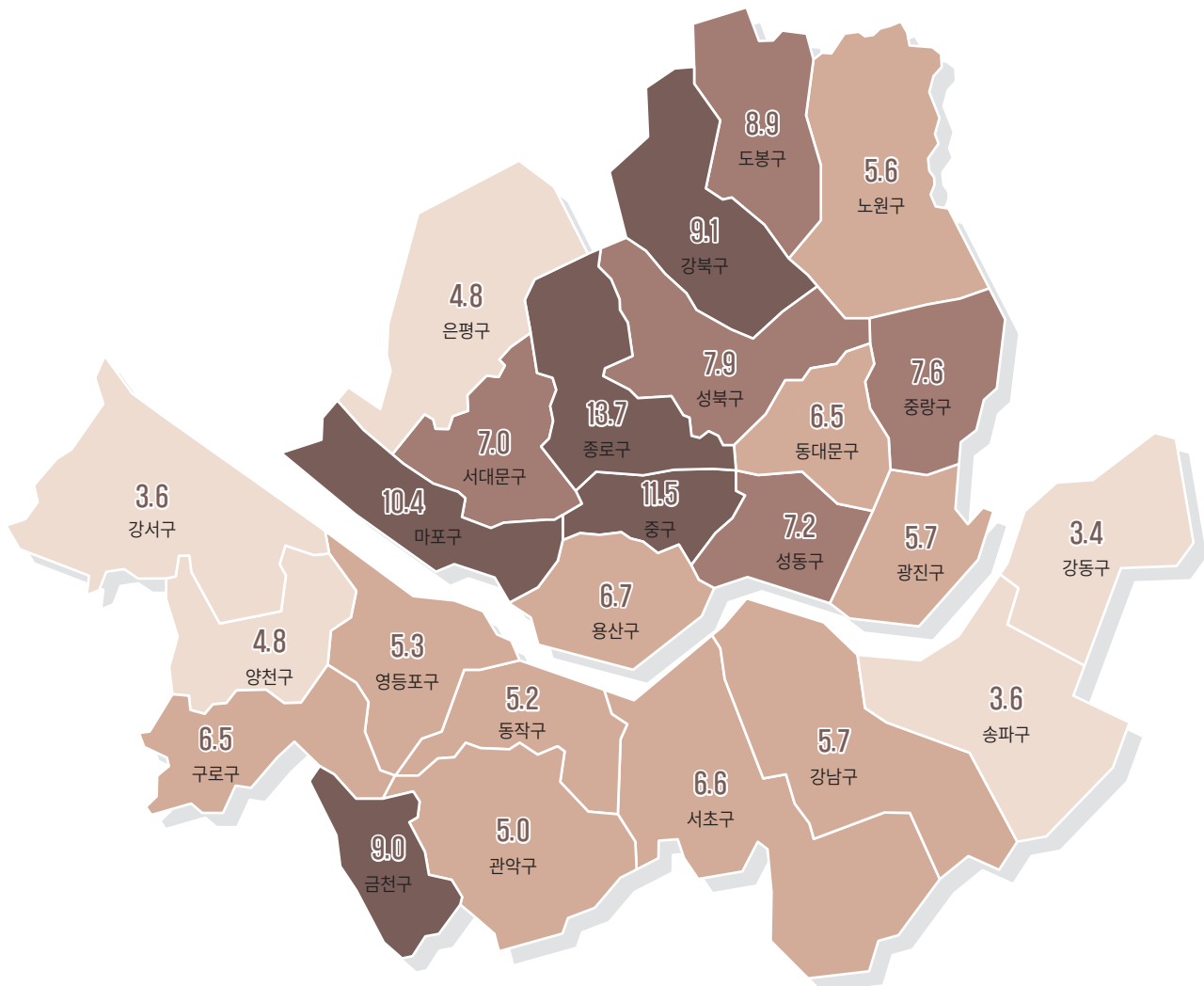


그림. 46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4)

(단위: %)



Indicator  
17

##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23.7 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 대비 등록 정신질환자 수

측정산식



- 분자: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자 수
- 분모: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 수

산식설명



-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자 수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자 수로 나눈 수치
- 지역사회 재활기관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포함됨
- 사례관리자는 회원이 1명 이상인 지역사회 재활기관의 상근 근무자를 의미함

지표현황



- 2024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23.7명으로 2023년 25.5명 대비 1.8명 감소함
- 2024년 전국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22.0명으로 서울시 23.7명보다 1.7명 적으며 울산(17.6명), 부산(17.7명), 전북(18.1명), 대전(18.5명) 순임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47 서울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추이(2019~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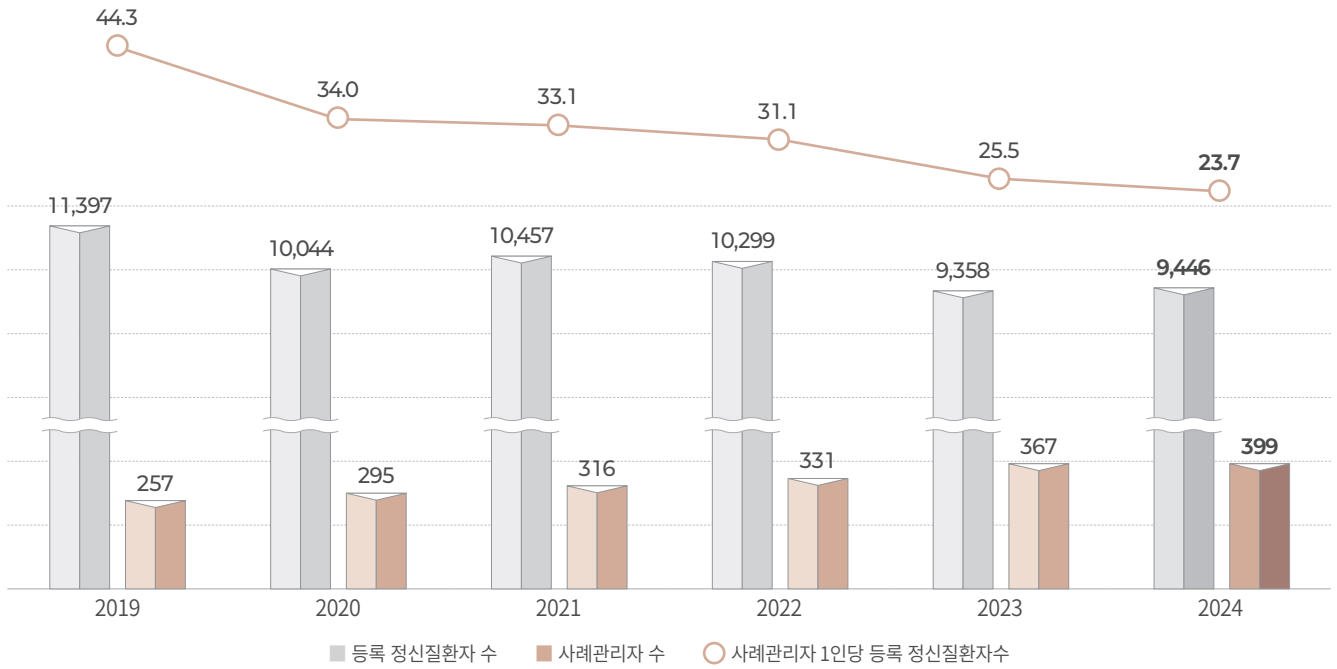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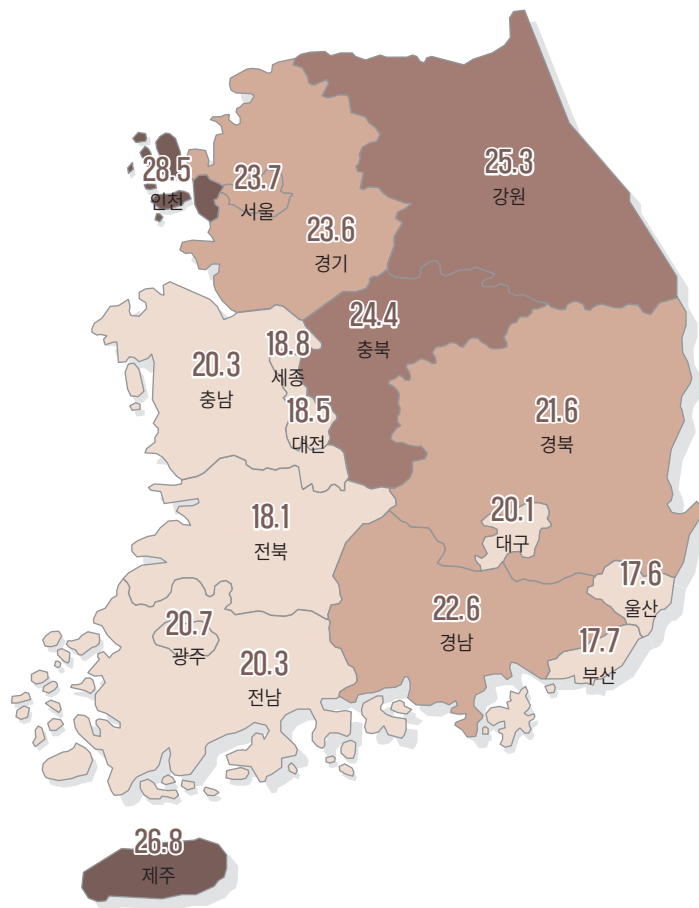


그림. 48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현황(2024)

(단위: 명)



Indicator  
18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2.6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2년 이내 6개월 이상 입원한 이력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산식설명



- 장기재원은 한 번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재원 경험률은 2.6%로 2023년 3.6% 대비 1.0%p 감소함
-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재원 경험률은 마포구 및 용산구(0.8%), 동대문구(0.9%) 순으로 낮게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49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추이(2013~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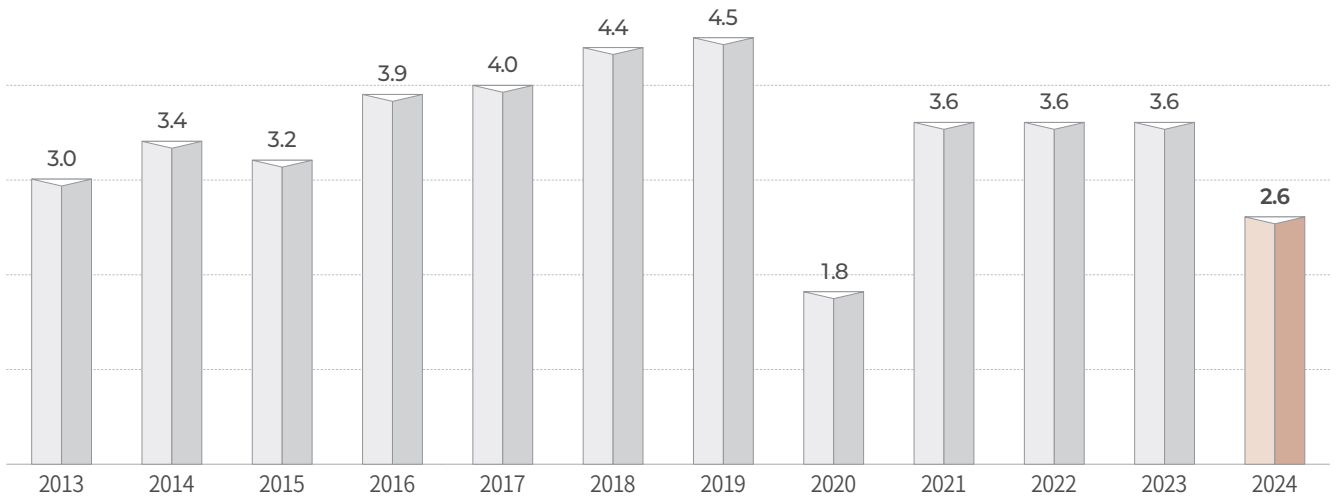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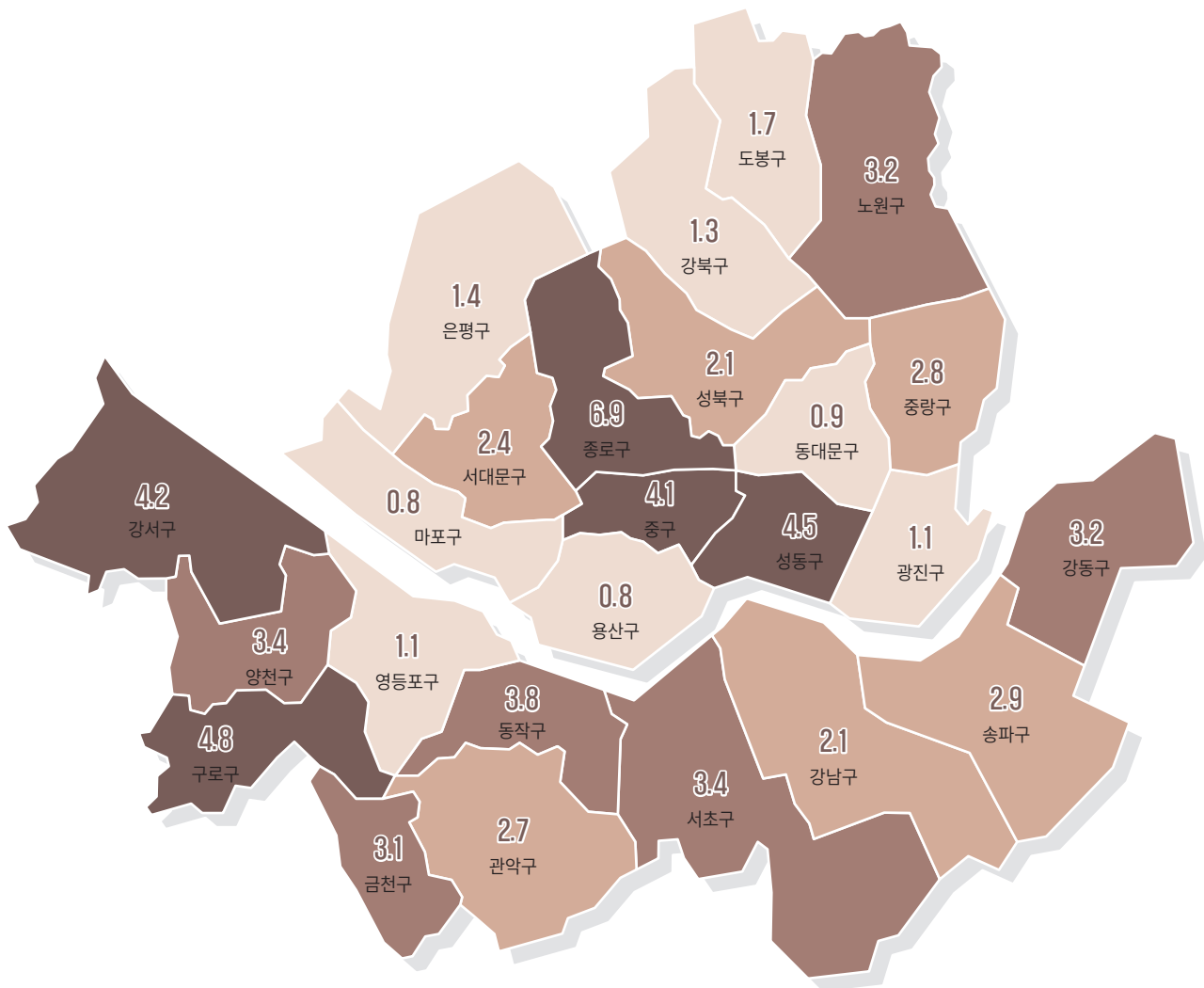


그림. 50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현황(2024)

(단위: %)



Indicator  
19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90.1%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입원한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연간 입원한 이력이 없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산식설명



- 등록대상자 중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한 정도를 파악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지율은 90.1%로 2023년 88.2%보다 1.9%p 증가함
-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강북구가 은평구가 96.5%, 용산구와 서대문구가 95.9%로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51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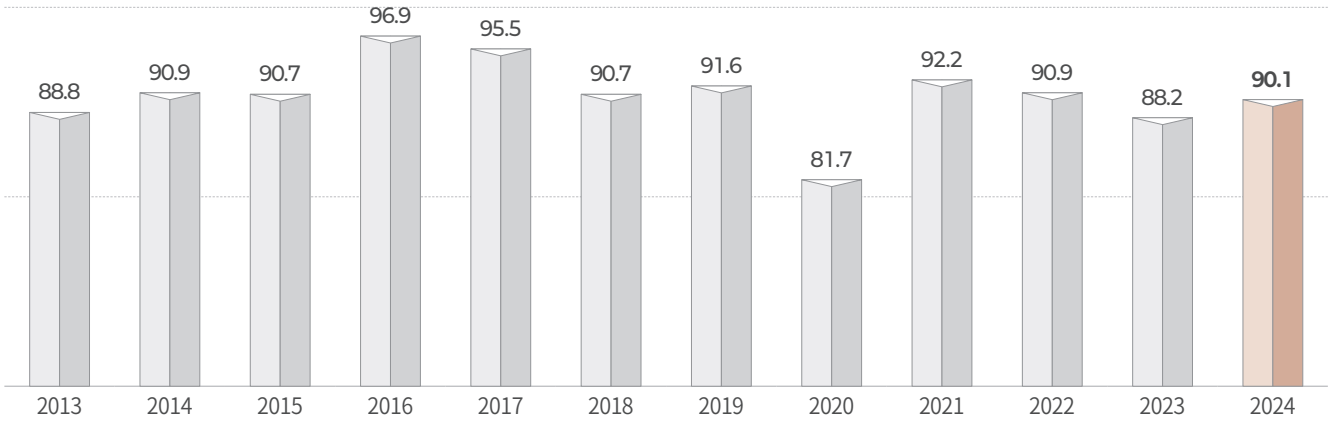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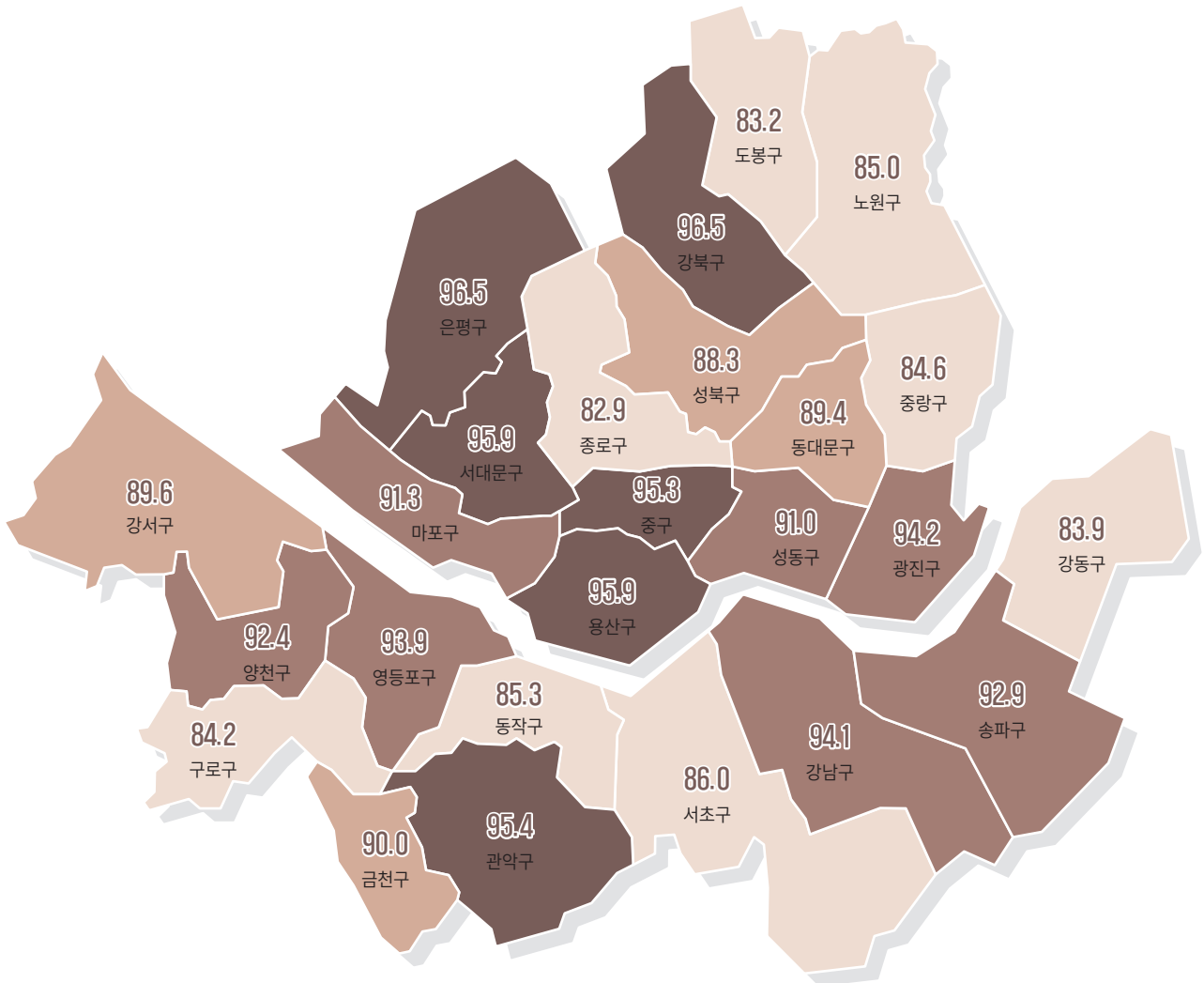


그림. 52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현황(2024)

(단위: %)



- 01. 개요
-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 06. 부록: 참고자료

Indicator  
20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13.1%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일주일 이상 취업한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일주일 이상 취업한 대상자 수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수

산식설명



- 해당 연도에 일주일 이상 취업한 등록 대상자를 기준으로 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경험 조사 항목 기준인 일주일 기간을 적용하여 취업률을 산출함

지표현황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은 13.1%로 2023년 12.0% 대비 1.1%p 증가함
-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중인 등록회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서비스직 28.8%(447명), 단순노무 16.1%(250명), 사무직 10.1%(157명), 기타 직종 7.0%(109명), 전문직 5.9%(91명) 순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53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추이(2021~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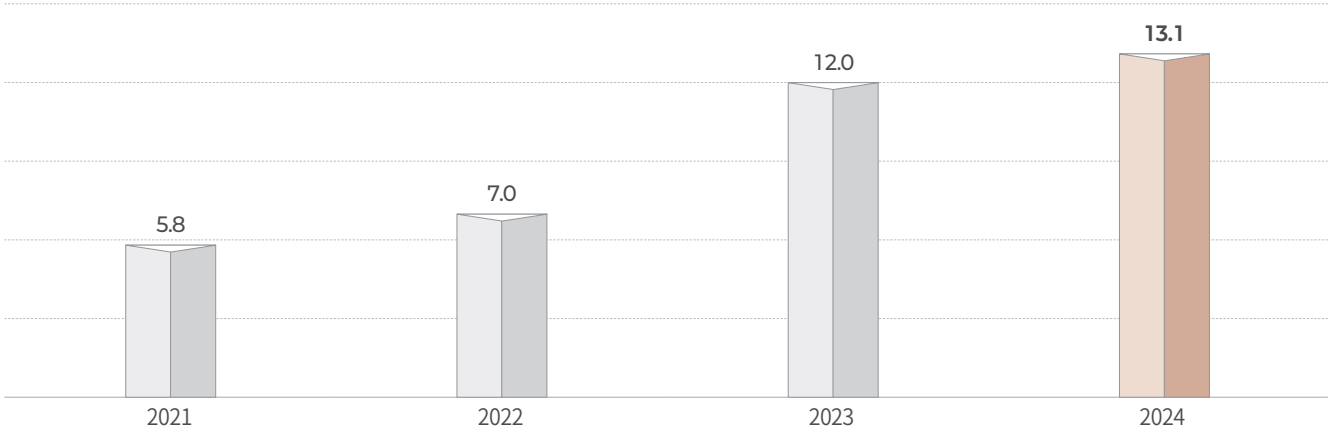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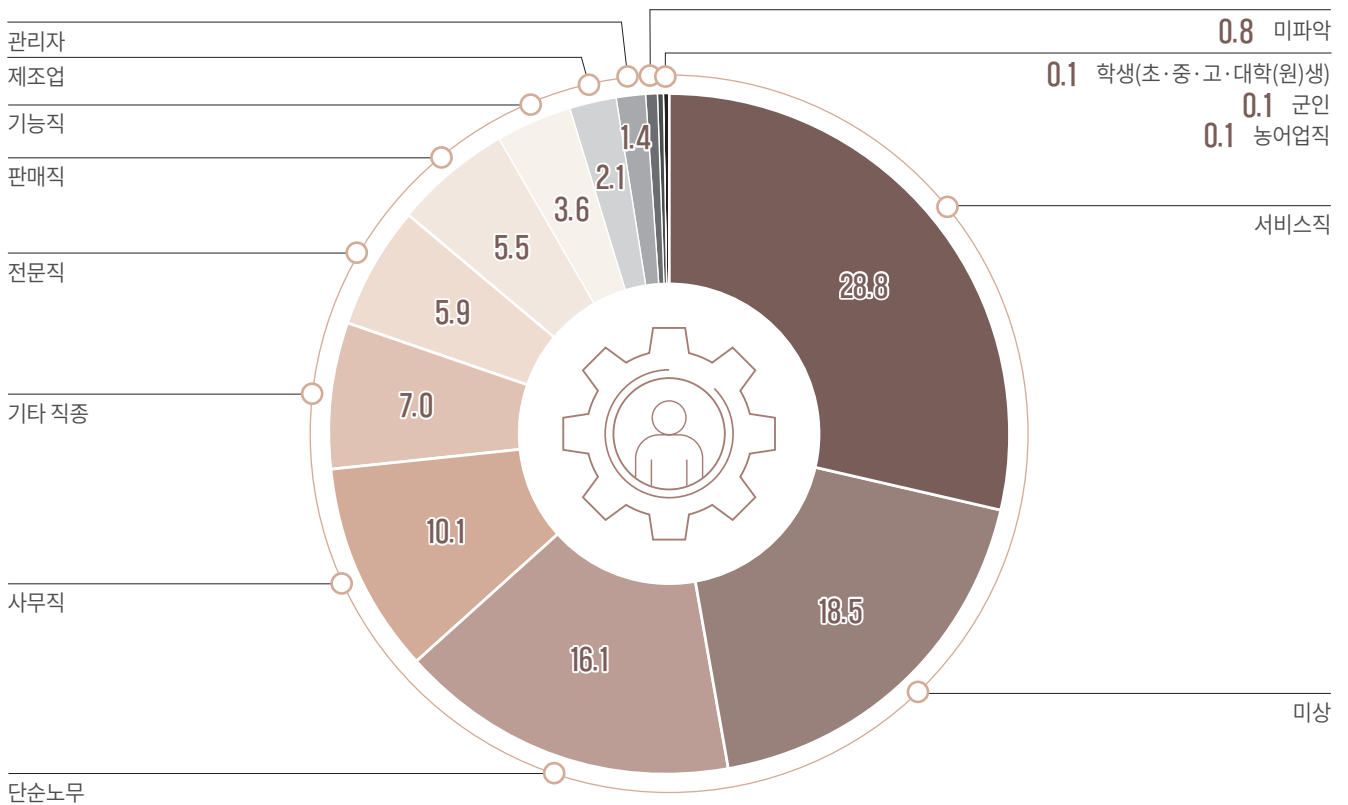


그림. 54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직업군 현황(2024)

(단위: %)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 04

##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 ① 정신건강자원 94
- ②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104
- ③ 정신건강문제 108
- ④ 정신질환치료 119
- ⑤ 정신건강서비스 123

The background features a series of four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 beige color,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of the same color extend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ending just before the text.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 01

## 정신건강자원

### 1) 정신건강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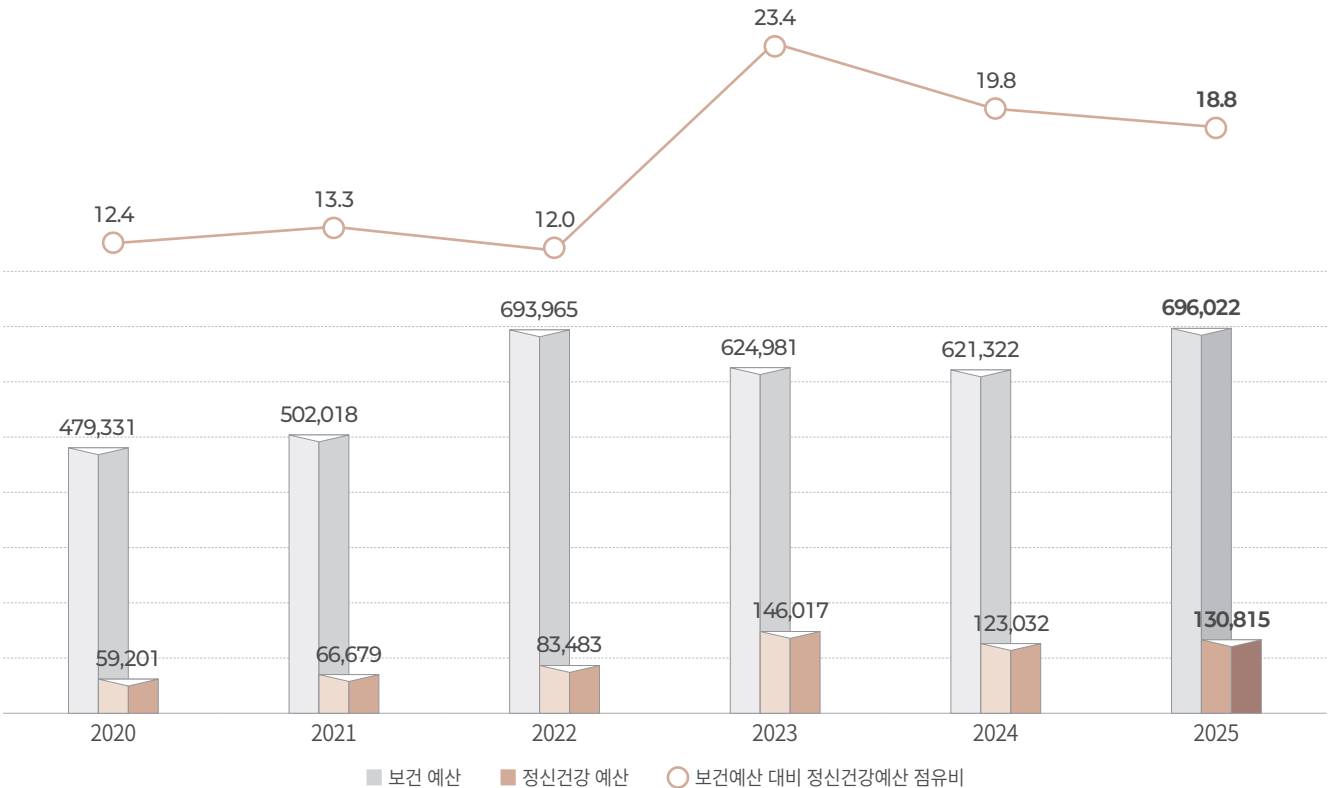
- ◆ 2025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8,114,465백만원, 보건 예산은 696,022백만원, 정신건강 예산은 130,815백만원이며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는 18.8%로 나타남.
- ◆ 서울시 예산은 2020년 이후 증가한 반면 보건 예산 및 정신건강 예산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는 2023년 23.4%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 18.8%로 감소세임.

표. 22 서울시 예산 및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5)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시 예산	39,535,913	40,156,242	44,219,049	47,190,512	45,740,518	48,114,465
보건 예산	479,331	502,018	693,965	624,981	621,322	696,022
정신건강 예산	59,201	66,679	83,483	146,017	123,032	130,815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	12.4	13.3	12.0	23.4	19.8	18.8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산서

그림. 55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5) (단위: 백만원, %)



## 2)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 ◆ 2024년 기준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12,420원으로 증가추세임.
- ◆ 2024년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을 살펴보면 종로구 26,221원, 마포구 17,815원, 도봉구 16,542원 순으로 많았으며, 송파구 4,770원, 성북구 5,621원, 양천구 5,725원 순으로 적었음.

표. 2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9~2024) (단위: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시	6,203	6,400	9,418	10,345	11,189	12,420
종로구	12,677	20,239	16,341	20,224	19,448	26,221
중구	9,944	12,056	12,468	14,840	15,944	13,864
용산구	4,031	6,201	4,425	6,842	7,430	7,263
성동구	9,298	10,176	11,598	12,974	12,305	14,022
광진구	11,127	8,523	9,143	10,690	11,376	12,783
동대문구	8,579	6,919	6,302	7,126	7,520	8,836
종량구	7,260	6,383	8,090	9,029	10,242	11,103
성북구	4,353	3,167	3,174	3,687	5,455	5,621
강북구	7,650	7,137	7,887	6,550	9,893	12,526
도봉구	8,545	8,657	9,916	12,090	13,117	16,542
노원구	5,176	5,530	5,922	6,932	7,269	9,330
은평구	4,305	5,133	7,467	6,685	8,245	10,589
서대문구	7,517	7,923	8,048	9,178	9,587	14,078
마포구	12,005	13,446	12,787	14,113	15,630	17,815
양천구	6,753	6,208	4,622	4,846	6,693	5,725
강서구	6,013	5,425	6,031	6,675	7,095	8,523
구로구	5,205	5,893	5,806	7,344	8,600	8,832
금천구	10,476	6,302	11,705	12,340	8,661	11,851
영등포구	6,490	7,232	10,322	8,442	12,953	13,274
동작구	2,926	3,307	4,098	4,117	4,388	7,108
관악구	4,496	6,985	5,594	9,140	7,392	9,112
서초구	5,146	5,676	8,322	6,382	6,636	7,342
강남구	2,950	2,923	4,970	3,988	5,196	6,912
송파구	3,035	3,578	4,655	7,365	7,757	4,770
강동구	4,577	4,724	5,462	9,325	7,418	8,471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3)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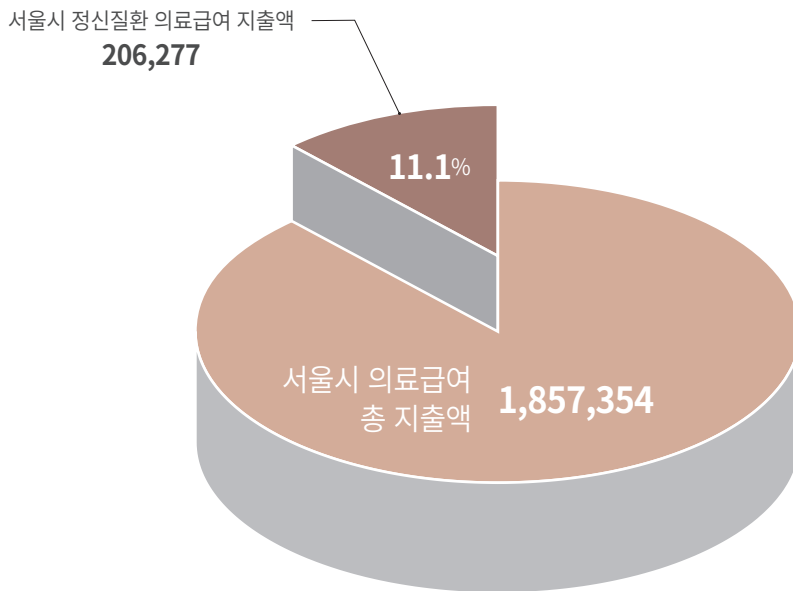
- ◆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액 모두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는 증감 반복함.
- ◆ 202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은 1,857,354백만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액은 206,277백만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는 11.1%로 나타남.

표. 24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추이(2019~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1,322,324	1,400,703	1,508,807	1,594,537	1,730,771	1,857,354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	146,680	153,720	172,419	186,586	187,735	206,277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	11.1	11.0	11.4	11.7	10.8	11.1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료급여 지출액

그림. 56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 현황(2024) (단위: 백만원)



## 4)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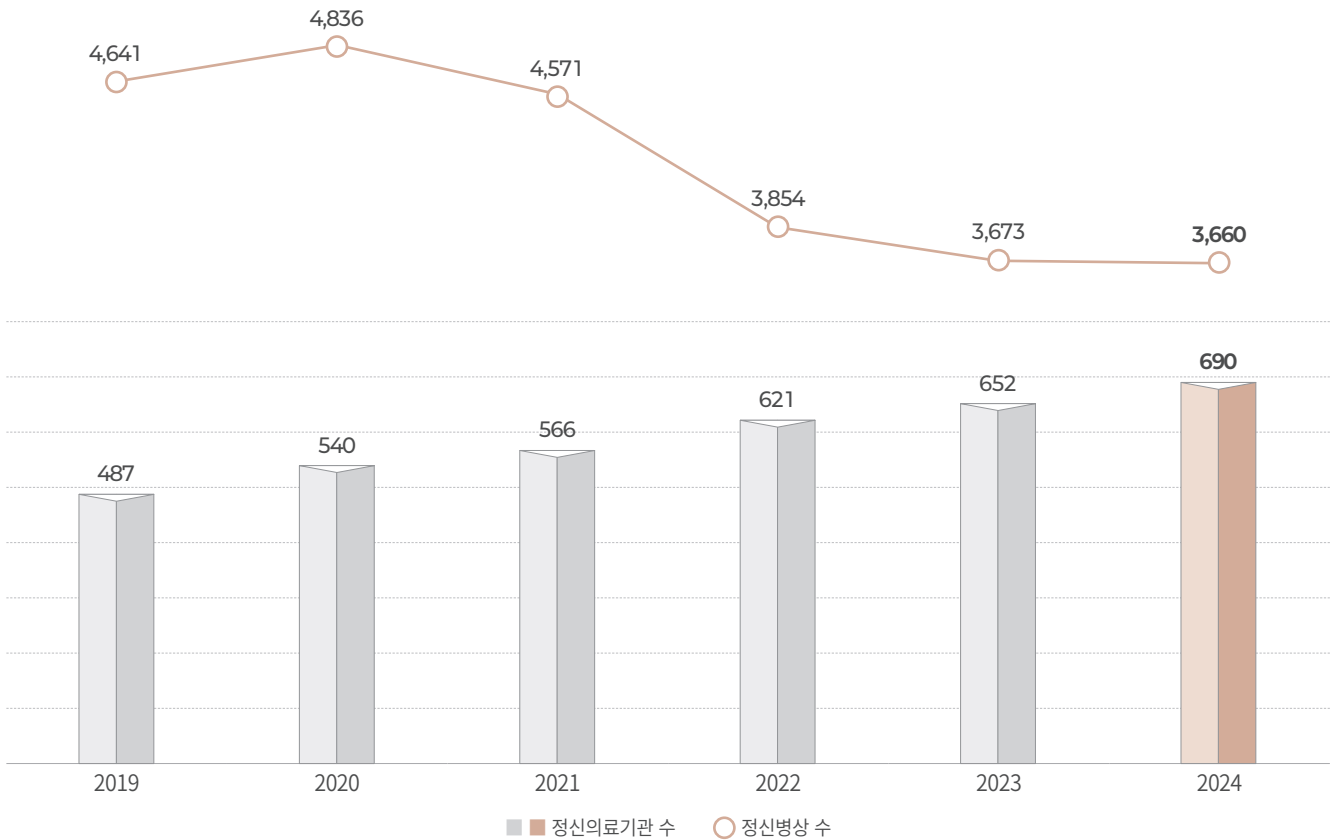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수는 총 690개소, 3,660개로 정신의료기관 수는 지속 증가추세이나 정신병상 수는 2020년 이후 감소추세임.

표. 25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수 추이(2019~2024) (단위: 개소,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정신의료기관 수	487	540	566	621	652	690
정신병상 수	4,641	4,836	4,571	3,854	3,673	3,66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그림. 5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병상 수 추이(2019~2024) (단위: 개소, 개)



- ◆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690개소의 기관 및 병상수를 설립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국공립병원 12개소 445개 병상, 사립정신병원 678개소 3,215개 병상임.
- ◆ 기관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종합병원 정신과는 39개소 715개 병상, 병원 정신과는 18개소 2,640병상, 정신과의원은 633개소 305병상으로 나타남.
-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강남구가 12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66개소, 송파구 54개소 순임. 정신병상수는 동대문구가 779개로 가장 많았으며, 도봉구 375개, 광진구 342개 순임.
- ◆ 강북구, 마포구, 관악구의 기관수는 각각 11개소, 38개소, 25개소이나 정신병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26 서울시 자치구별 설립구분 및 기관구분에 따른 정신병상 수 현황(2024) (단위: 개소, 개)

구분	합계		국공립병원		사립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서울시	690	3,660	12	445	678	3,215	39	715	18	2,640	633	305
종로구	26	83	2	63	24	20	3	83	-	-	23	-
중구	23	20	-	-	23	20	1	20	-	-	22	-
용산구	9	21	-	-	9	21	1	21	-	-	8	-
성동구	19	33	-	-	19	33	1	33	-	-	18	-
광진구	25	342	1	157	24	185	1	21	1	157	23	164
동대문구	23	779	1	-	22	779	4	28	3	751	16	-
종량구	17	338	2	30	15	308	2	30	2	259	13	49
성북구	18	34	-	-	18	34	1	34	1	-	16	-
강북구	11	-	1	-	10	-	-	-	1	-	10	-
도봉구	9	375	-	-	9	375	1	-	2	375	6	-
노원구	22	51	1	-	21	51	3	51	-	-	19	-
은평구	14	171	1	171	13	-	1	-	1	171	12	-
서대문구	11	99	-	-	11	99	1	56	-	-	10	43
마포구	38	-	-	-	38	-	-	-	-	-	38	-
양천구	16	20	-	-	16	20	1	20	-	-	15	-
강서구	28	163	-	-	28	163	1	-	1	163	26	-
구로구	14	197	-	-	14	197	1	30	1	167	12	-
금천구	12	216	-	-	12	216	-	-	2	216	10	-
영등포구	33	229	-	-	33	229	4	-	1	180	28	49
동작구	24	60	1	24	23	36	2	60	-	-	22	-
관악구	25	-	-	-	25	-	1	-	-	-	24	-
서초구	66	35	1	-	65	35	1	35	1	-	64	-
강남구	124	68	-	-	124	68	3	68	-	-	121	-
송파구	54	240	1	-	53	240	2	39	1	201	51	-
강동구	29	86	-	-	29	86	3	86	-	-	26	-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2024) 데이터 분석

## 5)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 ◆ 2024년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는 총 165개소에 해당함.
- ◆ 2023년 대비 2024년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 증가한 51개소, 종합시설은 1개소 감소한 1개소로 나타남.

표. 27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9~2024)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보건소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광역 자살 예방 센터	기초 자살 예방 센터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 요양 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지역 사회 전환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종합 시설	중독자 재활 시설	자립 생활 주택	지원 주택	
2019	163	25	1	25	1	1	4	25	55	9	4	6	1	3	-	-	3
2020	161	25	1	25	1	1	3	25	53	9	4	7	1	3	-	-	3
2021	165	25	1	25	1	1	3	25	50	8	4	7	2	3	4	3	3
2022	163	25	1	25	1	1	3	25	48	8	4	7	2	3	4	3	3
2023	163	25	1	25	1	1	3	25	48	8	4	7	2	3	4	3	3
2024	165	25	1	25	1	1	3	25	51	8	4	7	1	3	4	3	3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 ◆ 202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제외 도봉구가 11개소로 가장 많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9개소, 서대문구, 중랑구 8개 순임.
- ◆ 기관 수가 적은 순으로 살펴보면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 중구가 3개소로 가장 적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금천구, 성동구 4개, 강북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5개 순임.

표. 28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4)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보건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서울시	165	25	1	25	1	1	3	25	51	8	4	7	1	3	4	3	3
강남구	3	1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강동구	6	1	0	1	0	0	0	1	2	0	1	0	0	0	0	0	0
강북구	5	1	0	1	0	0	1	1	1	0	0	0	0	0	0	0	0
강서구	9	1	0	1	0	0	0	1	4	0	0	1	1	0	0	0	0
관악구	7	1	0	1	0	0	0	2	3	0	0	0	0	0	0	0	0
광진구	7	1	0	1	0	0	0	1	3	0	1	0	0	0	0	0	0
구로구	9	1	0	1	0	0	0	1	5	0	0	1	0	0	0	0	0
금천구	4	1	0	1	0	0	0	0	2	0	0	0	0	0	0	0	0
노원구	7	1	0	1	0	0	1	2	2	0	0	0	0	0	0	0	0
도봉구	11	1	0	1	0	0	1	1	5	0	1	0	0	1	0	0	0
동대문구	6	1	0	1	0	0	0	1	2	0	0	1	0	0	0	0	0
동작구	3	1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마포구	6	1	0	1	0	0	0	2	0	0	0	0	0	2	0	0	0
서대문구	8	1	0	1	0	0	0	1	4	1	0	0	0	0	0	0	0
서초구	5	1	0	1	0	0	0	2	0	1	0	0	0	0	0	0	0
성동구	4	1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성북구	5	1	0	1	0	1	0	1	1	0	0	0	0	0	0	0	0
송파구	5	1	0	1	0	0	0	1	1	1	0	0	0	0	0	0	0
양천구	9	1	0	1	0	0	0	1	6	0	0	0	0	0	0	0	0
영등포구	6	1	0	1	0	0	0	2	0	1	0	1	0	0	0	0	0
용산구	3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은평구	9	1	0	1	0	0	0	1	5	0	1	0	0	0	0	0	0
종로구	5	1	0	1	0	0	0	0	1	1	0	1	0	0	0	0	0
중구	3	1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중랑구	8	1	0	1	0	0	0	1	4	1	0	0	0	0	0	0	0
기타 <sup>1)</sup>	12	0	1	0	1	0	0	0	0	0	0	0	0	0	4	3	3

주: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됨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4)

## 6)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형(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과 입소형(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기관수는 41개소로 정원 1,618명, 인구 10만 명당 정원은 17.3명으로 나타났고,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기관수는 65개소로 정원 629명, 인구 10만 명당 정원은 6.7명으로 나타남.
-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의 인구 10만 명당 정원은 마포구에서 47.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종로구 44.1명, 영등포구 35.9명, 성동구 29.2명 순임.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도봉구에서 27.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금천구 25.8명, 광진구 16.9명, 강동구 14.9명 순임.

표. 2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 현황(2024)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신재활시설(이용형)			정신재활시설(입소형)		
	기관수	정원	인구 10만 명당 정원	기관수	정원	인구 10만 명당 정원
서울시	41	1,618	17.3	65	629	6.7
종로구	2	61	44.1	1	7	5.1
중구	1	31	25.7	-	-	-
용산구	1	30	14.7	1	12	5.9
성동구	2	80	29.2	-	-	-
광진구	1	33	9.9	4	56	16.9
동대문구	2	50	14.8	2	15	4.4
중랑구	2	90	23.7	5	29	7.6
성북구	1	30	7.1	1	4	0.9
강북구	1	53	18.7	1	8	2.8
도봉구	1	32	10.6	7	83	27.4
노원구	2	65	13.2	2	12	2.4
은평구	1	40	8.7	6	55	11.9
서대문구	2	81	26.7	5	44	14.5
마포구	2	170	47.0	2	38	10.5
양천구	1	25	5.8	7	61	14.2
강서구	3	115	20.7	4	28	5.0
구로구	2	48	12.4	5	28	7.2
금천구	-	-	-	4	58	25.8
영등포구	4	134	35.9	-	-	-
동작구	1	31	8.2	-	-	-
관악구	2	85	17.8	3	16	3.3
서초구	3	91	22.3	-	-	-
강남구	1	100	17.9	-	-	-
송파구	2	103	15.8	1	4	0.6
강동구	1	40	8.4	4	71	14.9

주: '-' 표시는 '없음'을 의미함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4)

## 7) 정신건강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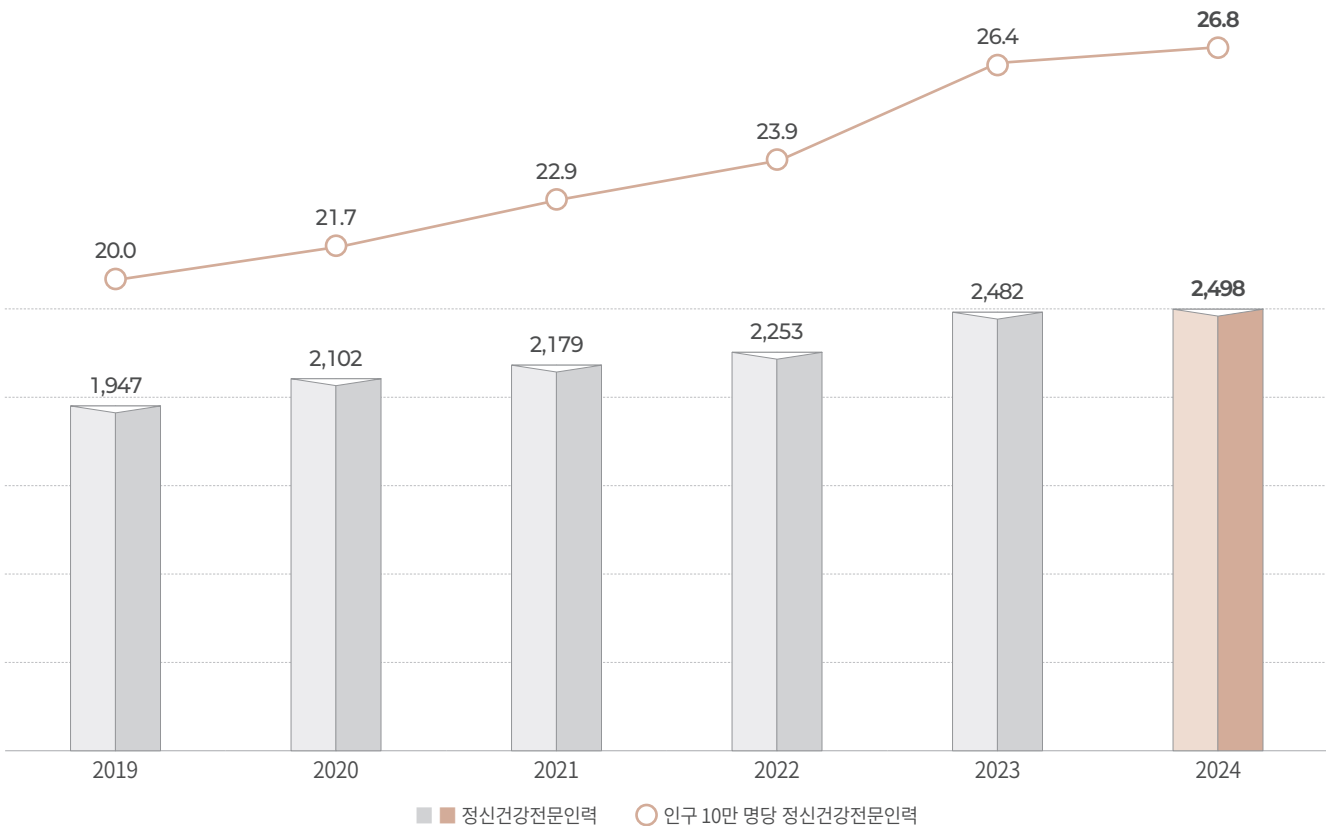
- ◆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4년 2,498명으로 전년 대비 0.6%(16명) 증가하였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증가하다 2024년 1,296명으로 전년 대비 2.0%(27명) 감소함.
- ◆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은 2024년 26.8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증가함.

표. 30 서울시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9~2024) (단위: 명)

구분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합계	정신과 전문의	소계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2019	1,947	863	1,086	386	531	167	-	20.0
2020	2,102	909	1,193	419	573	201	-	21.7
2021	2,179	976	1,203	428	582	179	14	22.9
2022	2,253	1,037	1,216	417	601	190	8	23.9
2023	2,482	1,159	1,323	456	639	217	11	26.4
2024	2,498	1,202	1,296	422	631	221	22	26.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그림. 58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 및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9~2024) (단위: 명)



- ◆ 202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272명, 광진구 234명, 송파구 147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용산구 34명, 강북구 36명, 금천구 41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 서울시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1,751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322명, 주간재활시설 133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61명 순으로 확인됨.

표. 31

##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합계	보건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기초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서울시	2,498	33	61	322	21	1	16	133	53	24	23	15	6	11	7	9	12	1,751
종로구	142	0	0	13	0	0	0	0	1	2	0	2	0	0	0	0	0	124
중구	78	3	0	18	0	0	0	0	0	2	0	0	0	0	0	0	0	55
용산구	34	1	0	8	0	0	0	0	0	0	0	2	0	0	0	0	0	23
성동구	66	1	0	18	0	0	0	7	0	0	0	3	0	0	0	0	0	37
광진구	234	3	0	19	0	0	0	3	5	0	6	0	0	0	0	0	0	198
동대문구	99	2	0	10	0	0	0	2	2	0	0	2	0	0	0	0	0	81
중랑구	80	1	0	17	0	0	0	8	4	2	0	0	0	0	0	0	0	48
성북구	62	0	0	12	0	1	0	6	1	0	0	0	0	0	0	0	0	42
강북구	36	1	0	13	0	0	5	4	0	0	0	0	0	0	0	0	0	13
도봉구	63	5	0	6	0	0	5	4	5	0	7	0	0	2	0	0	0	29
노원구	79	2	0	17	0	0	6	8	3	0	0	0	0	0	0	0	0	43
은평구	111	2	0	4	0	0	0	5	5	0	5	0	0	0	0	0	0	90
서대문구	76	1	0	8	0	0	0	3	4	3	0	0	0	0	0	0	0	57
마포구	110	0	0	17	0	0	0	20	0	0	0	0	0	9	0	0	0	64
양천구	56	1	0	16	0	0	0	3	7	0	0	0	0	0	0	0	0	29
강서구	79	1	0	17	0	0	0	3	3	0	0	2	6	0	0	0	0	47
구로구	60	1	0	11	0	0	0	2	5	0	0	3	0	0	0	0	0	38
금천구	41	0	0	13	0	0	0	0	2	0	0	0	0	0	0	0	0	26
영등포구	95	4	0	11	0	0	0	9	0	4	0	1	0	0	0	0	0	66
동작구	78	0	0	16	0	0	0	0	0	4	0	0	0	0	0	0	0	58
관악구	58	1	0	8	0	0	0	14	3	0	0	0	0	0	0	0	0	32
서초구	136	0	0	4	0	0	0	9	0	2	0	0	0	0	0	0	0	121
강남구	272	2	0	12	0	0	0	12	0	0	0	0	0	0	0	0	0	246
송파구	147	0	0	14	0	0	0	7	1	5	0	0	0	0	0	0	0	120
강동구	96	1	0	20	0	0	0	4	2	0	5	0	0	0	0	0	0	64
기타 <sup>1)</sup>	110	0	61	0	21	0	0	0	0	0	0	0	0	0	7	9	12	0

주: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됨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4)·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2024) 데이터 분석

# 02

##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 1)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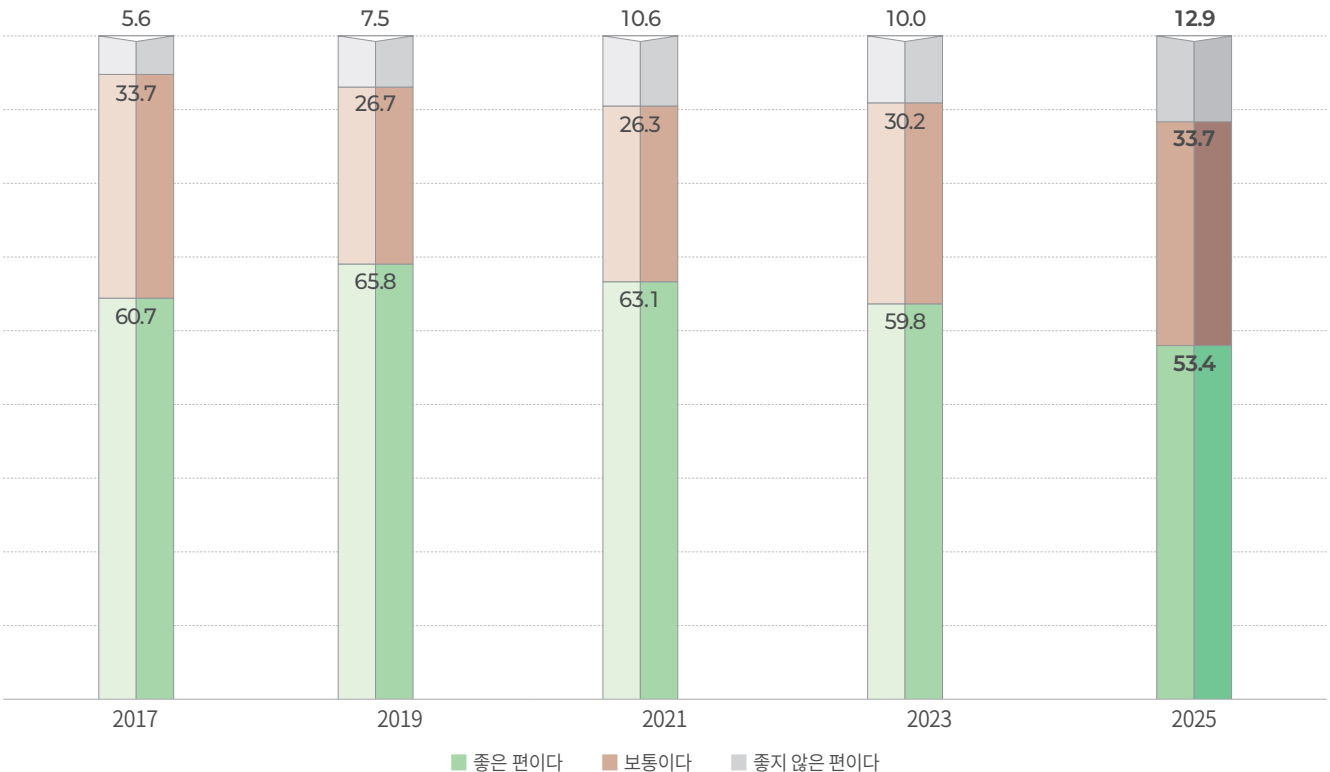
- ◆ 2025년 기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53.4%로 2017년에 비해 7.3%p 감소한 반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9%로, 같은 기간 7.3%p 증가함.

표. 32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5) (단위: %)

구분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2017	60.7	33.7	5.6
2019	65.8	26.7	7.5
2021	63.1	26.3	10.6
2023	59.8	30.2	10.0
2025	53.4	33.7	12.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그림. 59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5) (단위: %)



##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 ◆ 2025년 기준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나도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22.8%, 대체로 그렇다 52.8%로, 전체의 75.6%가 동의함.
- ◆ ‘정신질환은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43.7%, 대체로 그렇다 49.5%로, 전체의 93.2%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
- ◆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 27.3%, 대체로 그렇다 59.5%로, 전체의 86.8%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
-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13.0%, 대체로 그렇다 50.8%로, 전체의 63.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
- ◆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26.4%, 대체로 그렇다 60.0%로, 전체의 86.4%가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 서울시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5)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도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	22.8	52.8	19.7	4.7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43.7	49.5	5.2	1.6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27.3	59.5	11.8	1.4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13.0	50.8	30.7	5.5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26.4	60.0	11.6	2.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5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 3)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 ◆ 2025년 기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75.1%, 자살예방센터 92.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1%, 정신재활시설 58.3%, 사설 심리상담기관 73.7%로 나타남.
- ◆ 기관 유형별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67.2%, 자살예방센터 39.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8.0%, 정신재활시설 39.0%, 사설 심리상담기관 50.0%로 확인됨.
- ◆ 인지도 및 이용 의향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기관은 자살예방센터로 52.8%p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이는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7.9%p 차이를 보임.

표. 34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 추이(2017~2025) (단위: %)

구분	인지도					이용의향				
	2017	2019	2021	2023	2025	2017	2019	2021	2023	2025
정신건강복지센터	42.7	59.9	63.2	75.1	75.1	73.9	73.7	61.4	71.2	67.2
자살예방센터	-	-	95.7	93.5	92.4	-	-	40.5	45.0	39.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77.9	68.0	60.1	-	-	68.4	73.0	38.0
정신재활시설	-	-	60.4	60.6	58.3	-	-	41.3	44.1	39.0
사설 심리상담기관	-	-	-	-	73.7	-	-	-	-	50.0

주: '-' 표시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임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 4)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심각한 스트레스’ 41.3%,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4.8%,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1.4%,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31.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변화’ 28.5% 순으로 확인됨.

표. 35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9~2025) (단위: %)

구분	2019	2021	2023	2025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5.2	32.3	32.0	31.4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	24.7	27.1	27.8	28.5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7.8	19.3	18.6	18.7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4.9	29.1	27.3	31.2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0.4	35.8	32.3	34.8
심각한 스트레스	36.2	38.7	39.1	41.3
자살생각	9.2	12.3	11.5	11.2
건강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6.0	13.1	14.6	12.8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3.2	4.6	4.1	4.6
음주 관련 문제	5.9	6.5	10.0	10.9
중독성 약물,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문제	-	-	1.2	1.7
도박 및 온라인도박과 관련된 문제	-	-	1.6	1.7
게임, 스마트폰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 문제	-	-	20.2	21.7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문제	4.7	7.5	8.6	7.5
기타	0.2	7.0	8.1	4.2

주: ‘-’ 표시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임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 5) 정신건강 문제 대처 방법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기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45.6%, ‘가족·친구·지인에게 이야기함’ 41.8%,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음’ 18.8%,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7.3%, ‘기타’ 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대비 2025년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대처 방법은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으로, 12.7%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2019~2025) (단위: %)

구분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기타
2019	52.1	33.0	21.3	8.8	1.1
2021	47.9	53.9	20.3	6.9	2.8
2023	54.5	56.9	17.9	10.5	3.0
2025	41.8	45.6	18.8	7.3	1.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 03

## 정신건강문제

### 1) 우울감 경험률

- ◆ 2024년 기준 서울시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7.5%에 해당하며, 남성 6.0%, 여성 8.8%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금천구 11.9%, 관악구 10.2%, 동작구 9.6% 순으로 높았으며, 용산구 2.6%, 동대문구 3.0%, 중구 5.1% 순으로 낮았음.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7.5	6.0	8.8
종로구	8.9	8.1	9.7
중구	5.1	4.1	6.0
용산구	2.6	2.1	3.0
성동구	6.0	4.9	6.9
광진구	6.8	5.5	8.0
동대문구	3.0	1.7	4.3
종랑구	6.4	5.7	7.0
성북구	7.9	2.6	12.8
강북구	6.3	3.9	8.4
도봉구	9.3	8.1	10.5
노원구	6.0	4.0	7.8
은평구	6.6	5.8	7.3
서대문구	8.5	6.8	10.0
마포구	8.8	9.5	8.2
양천구	5.2	4.0	6.4
강서구	9.2	7.3	10.9
구로구	5.9	5.0	6.9
금천구	11.9	11.1	12.7
영등포구	6.5	6.1	7.0
동작구	9.6	7.2	11.8
관악구	10.2	8.0	12.5
서초구	7.9	6.1	9.4
강남구	8.4	5.5	10.9
송파구	7.8	7.1	8.4
강동구	8.5	8.2	8.9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했고, 1개 자치구는 유지, 8개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용산구로, 2023년 7.0%에서 2024년 2.6%로 62.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금천구는 2023년 7.6%에서 11.9%로 56.6%의 증가율을 보임.

표. 38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6.3	7.0	7.3	8.4	7.5	-10.7
종로구	5.0	5.1	8.7	7.2	8.9	23.6
중구	3.3	9.7	7.7	6.9	5.1	-26.1
용산구	2.4	6.4	3.6	7.0	2.6	-62.9
성동구	4.9	8.5	6.9	7.0	6.0	-14.3
광진구	8.0	7.9	8.4	10.2	6.8	-33.3
동대문구	4.5	3.4	3.2	4.8	3.0	-37.5
중랑구	7.7	4.6	6.2	7.7	6.4	-16.9
성북구	8.5	8.8	7.4	8.6	7.9	-8.1
강북구	6.7	5.5	4.5	8.4	6.3	-25.0
도봉구	5.5	7.0	7.5	11.3	9.3	-17.7
노원구	4.9	7.4	6.3	11.0	6.0	-45.5
은평구	7.6	8.2	3.7	7.0	6.6	-5.7
서대문구	3.9	11.5	10.2	10.9	8.5	-22.0
마포구	6.0	4.9	10.3	8.8	8.8	0.0
양천구	6.0	6.5	8.0	6.2	5.2	-16.1
강서구	7.1	8.2	7.2	9.1	9.2	1.1
구로구	6.1	4.8	7.2	7.6	5.9	-22.4
금천구	7.7	11.2	11.9	7.6	11.9	56.6
영등포구	5.4	7.2	7.6	5.6	6.5	16.1
동작구	5.5	6.2	6.0	7.4	9.6	29.7
관악구	4.8	4.3	8.1	8.9	10.2	14.6
서초구	6.6	5.5	7.1	7.7	7.9	2.6
강남구	9.2	7.3	7.3	7.9	8.4	6.3
송파구	7.6	9.1	9.6	10.3	7.8	-22.0
강동구	5.8	6.4	7.5	9.5	8.5	-10.5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2) 스트레스 인지율

- ◆ 2024년 기준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24.0%에 해당하며, 남성 22.8%, 여성 25.0%로 남성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강북구 29.6%, 강서구 28.8%, 마포구 28.0% 순으로 높았으며, 용산구 15.7%, 동대문구 18.4%, 양천구 19.1% 순으로 낮았음.

표. 39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현황(2024)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24.0	22.8	25.0
종로구	21.2	22.0	20.6
중구	24.1	24.4	23.8
용산구	15.7	16.4	15.2
성동구	22.7	21.5	23.8
광진구	26.4	23.4	29.2
동대문구	18.4	16.0	20.7
중랑구	24.1	24.9	23.3
성북구	23.3	21.8	24.7
강북구	29.6	28.3	30.9
도봉구	24.6	23.5	25.7
노원구	23.0	21.5	24.5
은평구	20.6	19.1	21.9
서대문구	27.3	25.3	29.1
마포구	28.0	27.6	28.4
양천구	19.1	19.4	18.8
강서구	28.8	29.6	28.0
구로구	24.1	22.1	26.0
금천구	26.5	25.1	28.0
영등포구	22.7	21.4	24.0
동작구	26.5	24.2	28.6
관악구	27.3	23.2	31.4
서초구	24.5	23.7	25.3
강남구	24.5	24.5	24.4
송파구	23.0	22.2	23.7
강동구	20.2	19.0	21.3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했고, 1개 자치구는 유지, 10개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용산구로, 2023년 22.5%에서 2024년 15.7%로 30.2%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마포구는 2023년 22.1%에서 28.0%로 26.7%의 증가율을 보임.

표. 40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27.8	26.3	24.0	25.4	24.0	-5.5
종로구	26.9	27.7	27.9	28.1	21.2	-24.6
중구	28.0	26.3	23.9	22.0	24.1	9.5
용산구	21.8	23.3	16.7	22.5	15.7	-30.2
성동구	30.2	28.3	25.8	25.0	22.7	-9.2
광진구	28.6	26.2	25.9	27.5	26.4	-4.0
동대문구	24.5	21.0	17.7	22.9	18.4	-19.7
중랑구	32.9	28.5	28.5	26.0	24.1	-7.3
성북구	31.7	28.7	26.0	28.0	23.3	-16.8
강북구	32.4	27.8	22.4	26.8	29.6	10.4
도봉구	26.1	29.3	26.5	24.2	24.6	1.7
노원구	22.5	22.4	18.4	28.5	23.0	-19.3
은평구	30.1	26.4	20.6	19.6	20.6	5.1
서대문구	20.2	26.6	23.4	28.6	27.3	-4.5
마포구	28.4	27.8	23.9	22.1	28.0	26.7
양천구	28.2	27.6	24.0	24.1	19.1	-20.7
강서구	29.9	28.1	21.9	24.8	28.8	16.1
구로구	25.8	21.8	24.5	23.5	24.1	2.6
금천구	29.9	29.3	24.2	23.7	26.5	11.8
영등포구	29.9	27.6	25.7	26.8	22.7	-15.3
동작구	25.1	25.7	22.5	26.5	26.5	0.0
관악구	30.7	23.0	29.8	26.3	27.3	3.8
서초구	27.5	25.4	26.2	23.3	24.5	5.2
강남구	30.1	30.3	26.3	29.0	24.5	-15.5
송파구	24.5	28.0	26.6	29.2	23.0	-21.2
강동구	26.3	21.5	20.1	21.8	20.2	-7.3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3)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 ◆ 2024년 기준 서울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4.3%에 해당하며, 남성 19.6%, 여성 8.2%로 여성보다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치구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금천구 17.5%, 강북구 17.4%, 강서구 17.3% 순으로 높았으며, 서초구 10.1%, 중구 12.0%, 동대문구 및 마포구 12.7% 순으로 낮았음.

표. 41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14.3	19.6	8.2
종로구	16.0	25.0	5.0
중구	12.0	17.6	5.0
용산구	16.0	20.0	11.3
성동구	12.9	19.0	6.1
광진구	13.0	17.1	8.4
동대문구	12.7	15.5	9.4
중랑구	16.6	22.5	9.9
성북구	13.0	18.0	7.5
강북구	17.4	21.1	12.8
도봉구	14.4	19.2	9.0
노원구	14.3	22.4	5.5
은평구	14.3	22.0	6.3
서대문구	14.7	20.5	8.1
마포구	12.7	18.3	7.3
양천구	13.8	22.1	4.5
강서구	17.3	25.1	9.4
구로구	16.5	22.8	9.4
금천구	17.5	23.1	10.7
영등포구	14.0	16.5	11.0
동작구	12.9	16.9	8.4
관악구	14.3	16.8	11.4
서초구	10.1	16.1	3.8
강남구	13.0	17.8	7.7
송파구	12.8	17.0	8.0
강동구	16.9	21.9	10.7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했고, 18개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마포구로, 2023년 10.1%에서 2024년 12.7%로 25.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강북구는 2023년 22.8%에서 2024년 17.4%로 23.7%의 감소율을 보임.

표. 42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13.2	12.5	13.7	14.1	14.3	1.4
종로구	9.9	9.2	9.6	14.4	16.0	11.1
중구	10.6	8.2	11.6	11.1	12.0	8.1
용산구	20.8	15.6	11.3	14.7	16.0	8.8
성동구	16.9	9.8	12.5	12.4	12.9	4.0
광진구	14.4	14.2	14.7	16.5	13.0	-21.2
동대문구	14.4	12.6	16.8	15.1	12.7	-15.9
중랑구	16.3	15.0	15.2	14.1	16.6	17.7
성북구	15.8	12.5	12.8	17.0	13.0	-23.5
강북구	18.1	19.8	22.3	22.8	17.4	-23.7
도봉구	14.1	12.0	13.8	13.5	14.4	6.7
노원구	10.1	9.1	12.4	13.6	14.3	5.1
은평구	11.1	12.9	13.1	15.1	14.3	-5.3
서대문구	10.4	12.1	11.3	12.9	14.7	14.0
마포구	14.1	12.3	12.4	10.1	12.7	25.7
양천구	9.8	15.2	12.6	13.2	13.8	4.5
강서구	12.2	12.8	17.3	15.3	17.3	13.1
구로구	14.8	11.6	15.6	15.7	16.5	5.1
금천구	13.8	18.2	18.2	14.5	17.5	20.7
영등포구	13.7	11.4	11.6	13.2	14.0	6.1
동작구	16.0	11.0	16.9	16.3	12.9	-20.9
관악구	13.4	15.5	13.8	13.5	14.3	5.9
서초구	10.5	10.0	12.0	8.9	10.1	13.5
강남구	13.8	8.1	11.5	11.2	13.0	16.1
송파구	10.8	13.9	11.7	13.6	12.8	-5.9
강동구	10.0	9.2	11.7	14.6	16.9	15.8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4) 자살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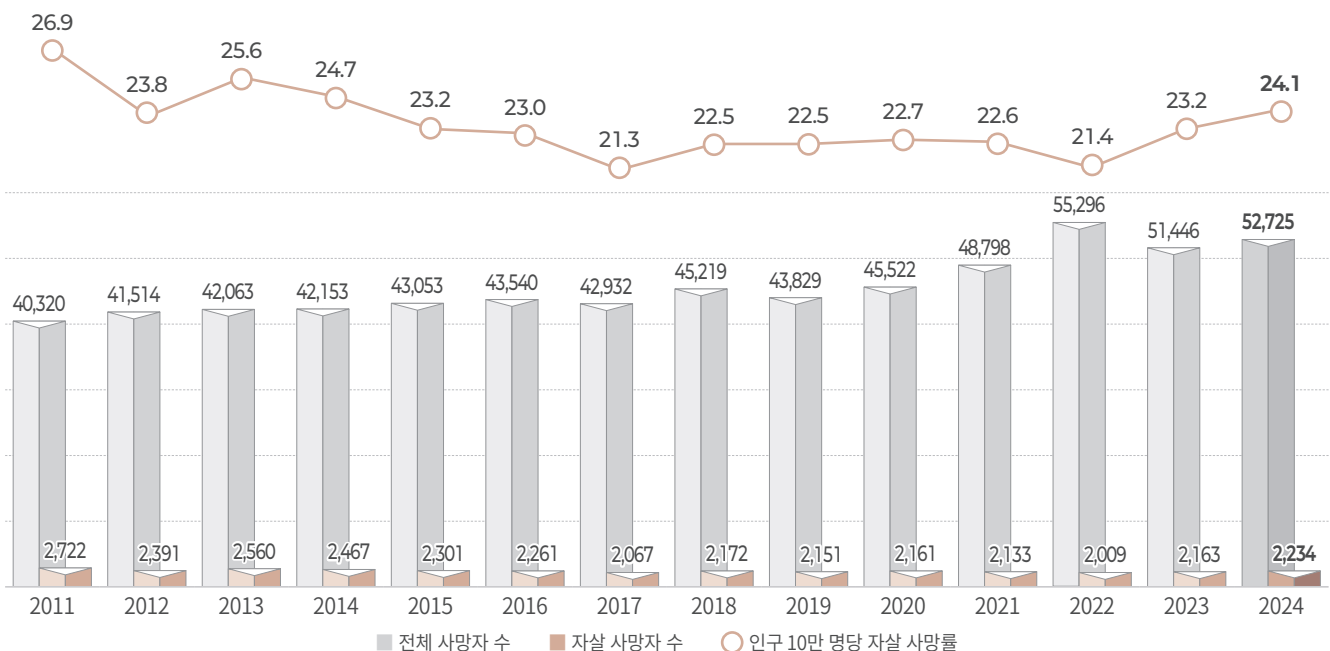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자살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수는 52,725명, 자살 사망자 수는 2,23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1명으로 나타남.
- ◆ 자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 2023년부터 증가하여 2024년 2,234명이며, 그에 따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역시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4년 24.1명으로 증가함.

표. 43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11~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011	40,320	2,722	26.9
2012	41,514	2,391	23.8
2013	42,063	2,560	25.6
2014	42,153	2,467	24.7
2015	43,053	2,301	23.2
2016	43,540	2,261	23.0
2017	42,932	2,067	21.3
2018	45,219	2,172	22.5
2019	43,829	2,151	22.5
2020	45,522	2,161	22.7
2021	48,798	2,133	22.6
2022	55,296	2,009	21.4
2023	51,446	2,163	23.2
2024	52,725	2,234	24.1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60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11~2024) (단위: 명)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감소했고, 1개 자치구는 유지, 14개 자치구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종로구로, 2023년 24.5명에서 2024년 29.2명으로 19.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성동구는 2023년 23.1명에서 2024년 27.1명으로 17.3%의 증가율을 보임.
- ◆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영등포구로 2023년 18.3명에서 2024년 16.4명으로 10.4%의 감소율을 보임.

표. 44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22.7	22.6	21.4	23.2	24.1	3.9
종로구	17.9	23.1	22.1	24.5	29.2	19.2
중구	16.5	21.6	25.2	29.4	26.8	-8.8
용산구	22.8	26.6	18.5	21.7	21.0	-3.2
성동구	24.0	21.7	26.0	23.1	27.1	17.3
광진구	19.8	20.4	17.9	27.2	27.5	1.1
동대문구	26.6	26.6	24.8	25.0	23.4	-6.4
종랑구	24.3	22.2	21.9	27.3	28.3	3.7
성북구	20.8	24.5	18.3	22.3	23.5	5.4
강북구	26.5	25.1	26.6	24.9	28.9	16.1
도봉구	25.5	23.9	27.9	27.7	25.1	-9.4
노원구	22.2	23.8	20.4	24.1	25.6	6.2
은평구	23.5	20.9	22.3	23.1	23.9	3.5
서대문구	24.3	26.1	23.2	22.1	21.5	-2.7
마포구	19.7	22.2	17.9	21.6	25.0	15.7
양천구	19.3	17.2	17.9	22.3	22.3	0.0
강서구	23.8	26.6	21.0	21.1	23.5	11.4
구로구	19.7	21.7	22.4	21.9	24.7	12.8
금천구	28.0	26.3	28.0	27.3	30.2	10.6
영등포구	21.3	20.1	18.8	18.3	16.4	-10.4
동작구	24.2	19.6	18.2	19.6	22.7	15.8
관악구	29.2	30.2	24.7	29.3	29.2	-0.3
서초구	18.1	18.5	17.1	16.7	16.3	-2.4
강남구	23.6	23.2	24.3	24.2	23.9	-1.2
송파구	20.4	17.4	17.8	19.0	21.2	11.6
강동구	21.7	20.0	22.5	25.2	23.9	-5.2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5)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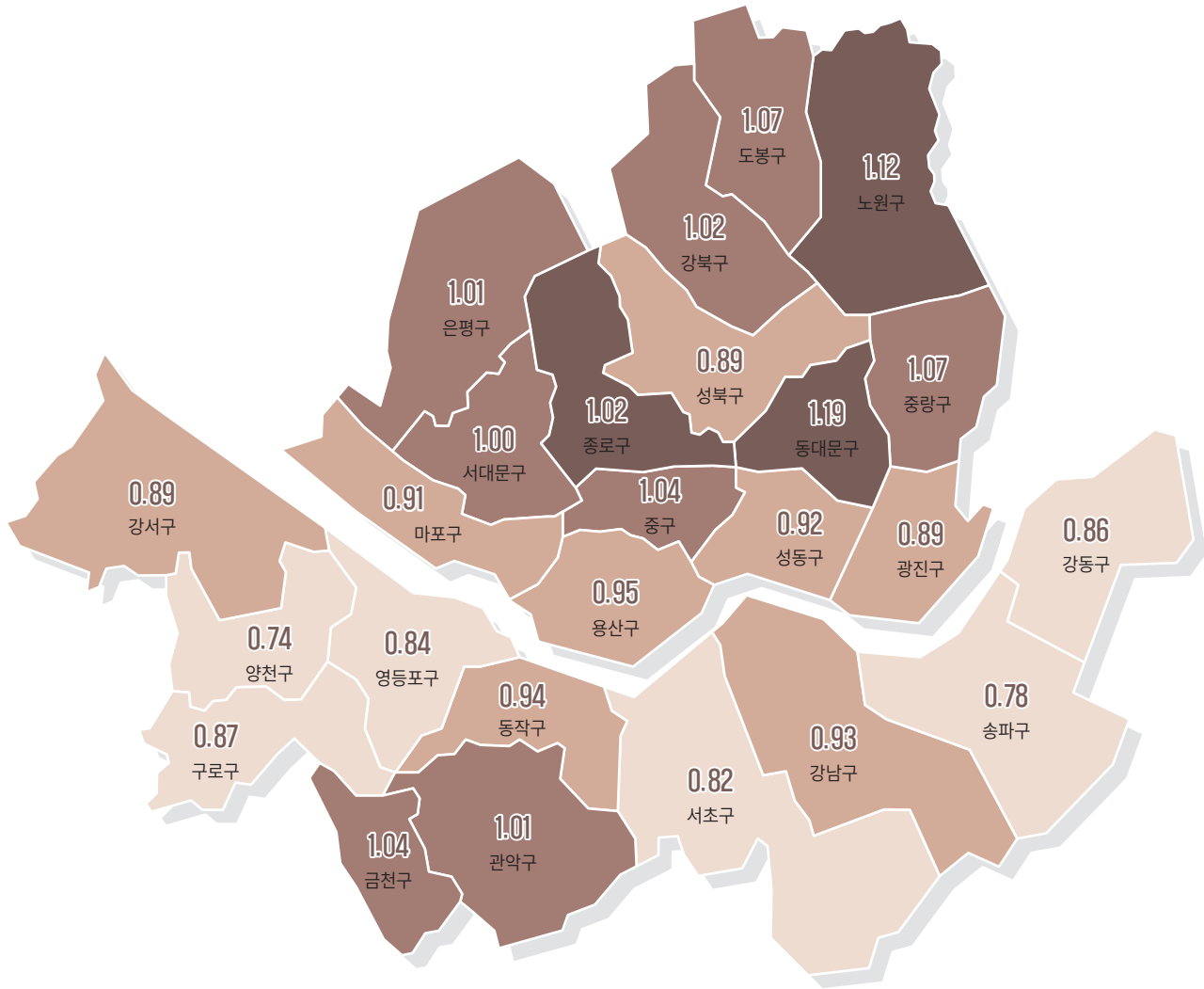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 기준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 1.19%, 노원구 1.12%, 중랑구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5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	0.72	0.73	0.76	0.79	0.83	0.87	0.90	0.94
종로구	0.82	0.84	0.86	0.87	0.96	0.98	1.04	1.02
중구	0.83	0.86	0.91	0.90	0.92	0.90	0.99	1.04
용산구	0.73	0.74	0.77	0.81	0.85	0.89	0.89	0.95
성동구	0.69	0.69	0.71	0.74	0.81	0.87	0.87	0.92
광진구	0.62	0.64	0.65	0.69	0.75	0.80	0.83	0.89
동대문구	0.81	0.83	0.84	0.89	1.01	1.12	1.18	1.19
중랑구	0.80	0.82	0.84	0.89	0.94	1.02	1.05	1.07
성북구	0.72	0.73	0.73	0.76	0.82	0.85	0.88	0.89
강북구	0.78	0.82	0.83	0.88	0.94	0.96	1.02	1.02
도봉구	0.77	0.80	0.85	0.90	0.96	0.99	1.02	1.07
노원구	0.79	0.82	0.85	0.89	0.95	1.00	1.04	1.12
은평구	0.81	0.82	0.85	0.89	0.90	0.93	0.96	1.01
서대문구	0.80	0.82	0.83	0.87	0.90	0.94	0.97	1.00
마포구	0.68	0.67	0.73	0.75	0.79	0.86	0.88	0.91
양천구	0.61	0.61	0.63	0.64	0.67	0.71	0.71	0.74
강서구	0.75	0.78	0.79	0.81	0.84	0.88	0.87	0.89
구로구	0.63	0.67	0.69	0.73	0.76	0.77	0.82	0.87
금천구	0.80	0.83	0.84	0.89	0.98	0.97	1.01	1.04
영등포구	0.66	0.68	0.73	0.71	0.75	0.79	0.78	0.84
동작구	0.75	0.77	0.78	0.80	0.80	0.85	0.88	0.94
관악구	0.74	0.74	0.76	0.79	0.83	0.86	0.92	1.01
서초구	0.60	0.60	0.62	0.65	0.71	0.73	0.77	0.82
강남구	0.71	0.72	0.76	0.78	0.83	0.82	0.88	0.93
송파구	0.61	0.62	0.65	0.69	0.71	0.74	0.78	0.78
강동구	0.67	0.68	0.72	0.71	0.75	0.78	0.80	0.86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6) 중증정신질환 분포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기점으로 남성의 비율은 감소, 여성의 비율은 증가해 2021년 기준 남성 40.6%, 여성 59.4%의 분포를 보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42.3	42.5	42.5	42.2	41.8	41.7	41.2	40.6
여성	57.7	57.5	57.5	57.8	58.2	58.3	58.8	59.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50세 이상 59세 이하'가 19.52%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이상 49세 이하' 17.00%, '20세 이상 29세 이하' 16.35%, '60세 이상 69세 이하' 15.89%, '30세 이상 39세 이하' 15.72%, '70세 이상 79세 이하' 7.86%, '80세 이상' 4.98%, '10세 이상 19세 이하' 2.61%, '9세 이하' 0.07% 순으로 나타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세 이하	0.04	0.03	0.03	0.03	0.05	0.07	0.05	0.07
10세 이상 19세 이하	2.47	2.31	2.32	2.32	2.65	2.73	2.44	2.61
20세 이상 29세 이하	10.94	11.03	11.71	12.21	12.96	14.13	15.47	16.35
30세 이상 39세 이하	16.73	16.17	15.66	15.35	15.06	15.01	15.25	15.72
40세 이상 49세 이하	22.91	22.28	21.70	20.82	19.57	18.52	17.74	17.00
50세 이상 59세 이하	22.11	22.02	21.54	21.28	21.09	20.51	19.98	19.52
60세 이상 69세 이하	12.94	13.80	14.14	14.58	14.92	15.19	15.57	15.89
70세 이상 79세 이하	8.17	8.34	8.40	8.64	8.83	8.74	8.36	7.86
80세 이상	3.70	4.01	4.49	4.77	4.87	5.11	5.14	4.9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04

## 정신질환치료

### 1) 정신질환 진료

- ◆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는 총 729,18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진단별로 살펴보면 조현병을 제외한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조울증에서 2020년 이래로 증가 추세임.
- ◆ 2020년 대비 2024년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조울증 수진자 수는 각각 41.1%, 18.3%, 22.1%, 33.9% 증가함.

표. 48 서울시 정신질환 진단별 진료 환자수 추이(2020~2024) (단위: 명)

구분	합계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조울증
2020	572,337	30,211	207,532	141,410	160,027	33,157
2021	619,559	29,992	231,759	144,768	176,276	36,764
2022	672,069	29,768	260,483	151,595	189,796	40,427
2023	699,206	29,517	275,918	158,628	192,092	43,051
2024	729,180	29,234	292,885	167,255	195,416	44,39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 2)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 ◆ 서울시 진단별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실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진자 수는 2024년 기준 708,175명,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166,467명으로 5개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치료 수진자 수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530.2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541.6명, 주요 우울장애 3,275.8명으로 나타남.

표. 49 서울시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추이(2020~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수진자 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진료 수진자 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2020	493,960	145,858	540.5	400.2	2,169.9
2021	567,052	157,161	544.7	458.8	2,562.8
2022	624,128	164,285	546.5	500.1	2,883.0
2023	667,516	165,323	542.1	529.5	3,083.5
2024	708,175	166,467	530.2	541.6	3,275.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3)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 ◆ 2023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832,153명, 내원일수 10,502,678일, 급여일수 147,714,486일, 진료비 1,022,741,615천원, 급여비 806,581,506천원으로 확인됨.
- ◆ 각 항목별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실인원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으며 내원일수는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급여일수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음. 진료비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으며, 급여비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0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3) (단위: 명, 일, 천원)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서울시	832,153	10,502,678	147,714,486	1,022,741,615	806,581,506
종로구	13,594	164,264	2,433,872	17,038,353	13,252,255
중구	11,885	161,860	2,152,069	15,762,970	12,527,516
용산구	20,357	260,236	3,528,392	26,266,394	20,760,398
성동구	24,811	300,192	4,340,368	30,282,238	23,701,878
광진구	29,105	332,333	5,009,534	33,731,552	26,276,589
동대문구	30,144	400,105	5,503,345	38,258,219	30,367,945
종랑구	33,640	461,816	6,210,399	44,218,312	35,722,151
성북구	34,445	427,158	6,289,229	41,789,941	32,671,853
강북구	26,380	384,329	4,863,829	34,346,274	27,871,723
도봉구	27,370	359,598	5,132,171	33,973,742	27,313,335
노원구	42,160	604,436	8,020,323	56,714,006	45,832,324
은평구	41,422	562,144	7,451,740	51,562,087	41,231,222
서대문구	29,352	394,936	5,211,886	36,470,187	28,558,574
마포구	33,776	415,710	5,991,843	40,562,500	31,467,287
양천구	35,602	431,449	6,371,488	43,273,579	33,994,833
강서구	47,768	655,548	8,379,561	60,812,683	49,160,226
구로구	32,921	423,930	5,897,872	39,586,351	31,031,919
금천구	20,219	280,353	3,637,311	26,451,188	21,232,934
영등포구	32,145	391,066	5,642,878	40,400,788	31,468,212
동작구	33,740	395,957	5,917,058	39,560,059	30,756,290
관악구	45,164	540,262	7,739,429	52,189,077	41,029,184
서초구	38,020	424,728	6,560,975	44,702,970	34,103,172
강남구	54,448	622,997	9,408,693	64,986,269	50,674,369
송파구	55,529	645,538	9,555,031	66,301,039	51,263,255
강동구	38,156	461,733	6,465,190	43,500,836	34,312,06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4)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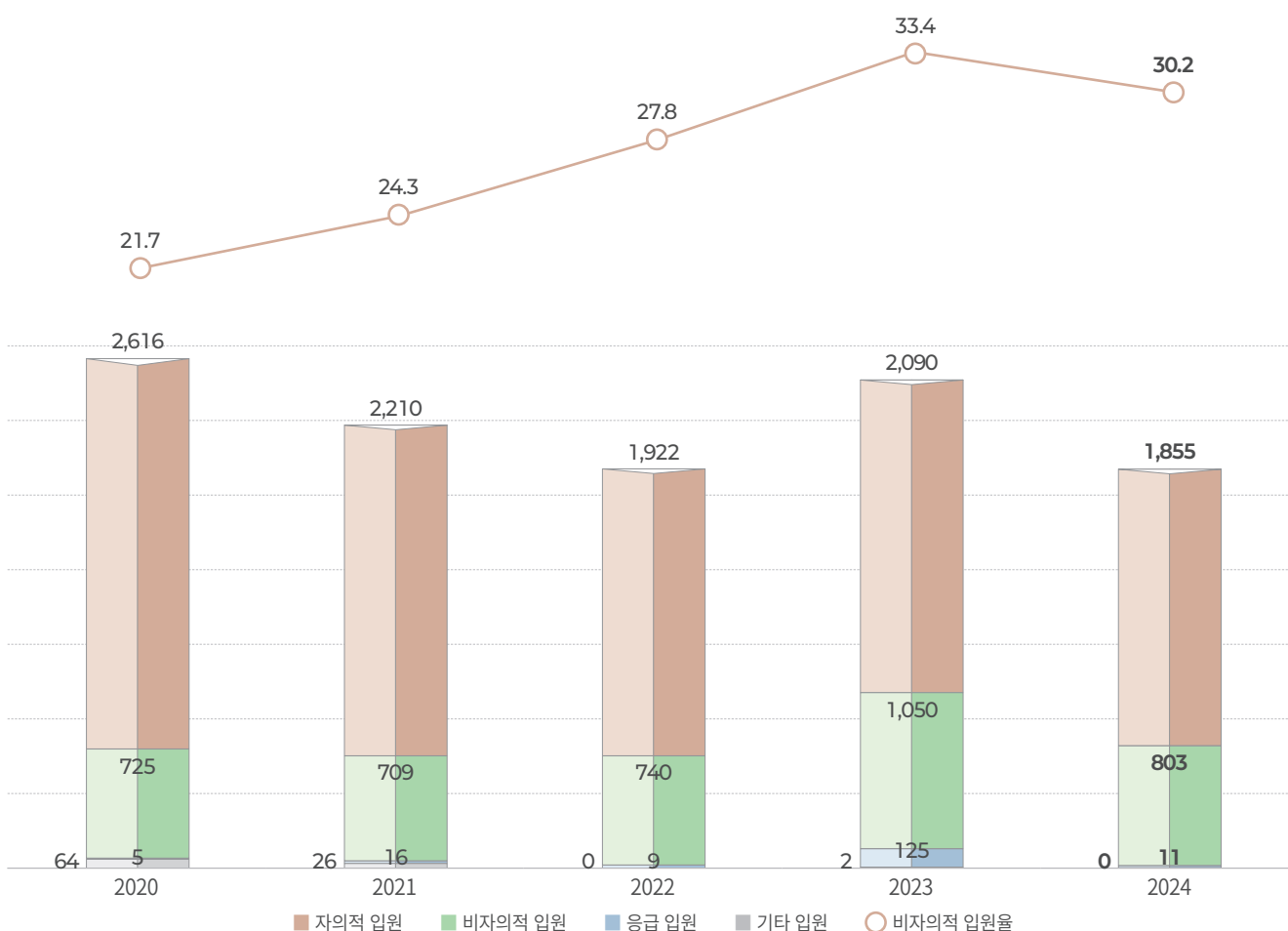
- ◆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2,669명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자의적 입원 및 비자의적 입원환자 수 역시 각각 11.2%, 2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입원환자 수 감소에 따라 비자의 입원율은 30.2%로 전년 대비 3.2%p 감소함.

표. 51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율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적 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입원	기타 입원	비자의 입원율
2020	3,410	2,616	725	5	64	21.7
2021	2,961	2,210	709	16	26	24.3
2022	2,671	1,922	740	9	0	27.8
2023	3,267	2,090	1,050	125	2	33.4
2024	2,669	1,855	803	11	-	30.2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그림. 62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적 입원 및 비자의 입원율 추이(2020~2024) (단위: 명, %)



## 5) 퇴원 후 외래 방문 및 재입원을

-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를 살펴보면,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5,020명, 66.6%로 감소 추세이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는 1,332명, 17.7%로 증감을 반복함.

표. 52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14~2020) (단위: 명, %)

구분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2014	6,742	70.6	1,723	18.1
2015	6,767	69.5	1,662	17.1
2016	6,723	69.1	2,036	20.9
2017	6,242	68.4	1,807	19.8
2018	6,143	69.3	1,482	16.7
2019	6,008	69.1	1,385	15.9
2020	5,020	66.6	1,332	17.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6)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

- ◆ 2024년 기준 서울시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중앙값은 21일로, 전년 대비 2일 증가하며 전체 감소 추세임.
- ◆ 서울시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1개월 미만은 증가 추세,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증감을 반복하며, 이외의 재원기간은 모두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추세임.

표. 53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1~2024) (단위: 일, %)

연도	중앙값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1	117	20.7	23.4	19.4	8.1	11.0	7.6	6.8	3.0
2012	87	26.9	24.4	17.1	5.9	10.0	4.8	8.2	2.7
2013	87	23.4	27.0	19.6	8.2	6.1	3.4	9.0	3.2
2014	77	26.6	29.9	22.8	8.1	8.1	2.2	1.8	0.7
2015	70	28.0	32.4	21.7	7.8	7.5	1.4	0.9	0.3
2016	80	35.2	32.4	2.7	12.1	11.2	3.1	2.3	1.0
2017	30	23.4	28.7	17.7	15.3	10.3	2.8	1.2	0.6
2018	25	54.9	27.3	9.3	4.7	2.6	0.5	0.5	0.2
2019	23	57.4	27.1	8.6	4.0	2.4	0.3	0.1	0.0
2020	21	58.2	24.2	8.0	5.0	3.4	0.9	0.3	0.0
2021	19	64.6	21.9	6.8	4.8	1.6	0.2	0.1	0.0
2022	21	58.5	22.4	7.8	6.4	4.4	0.3	0.1	0.0
2023	19	63.4	23.1	7.1	4.1	2.2	0.1	×	-
2024	21	59.3	23.9	8.5	4.3	3.4	0.6	×	×

주: '-' 표시는 '없음'을 의미함, '×' 표시는 개인 식별 문제로 미공개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05

## 정신건강서비스

###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 ◆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수는 2024년 11,508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9,01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47명, 정신재활시설 2,149명으로 나타남.
- ◆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감소추세이다 2024년 반등하였고, 정신재활시설은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이후 증가추세임.

표. 54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별 등록자 추이(2010~2024) (단위: 명)

연도	합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2010	19,308	17,124	597	1,587
2011	20,746	18,038	965	1,743
2012	21,846	19,035	889	1,922
2013	20,058	17,358	602	2,098
2014	19,618	16,831	598	2,189
2015	19,431	16,494	660	2,277
2016	14,472	12,463	512	1,497
2017	17,331	13,687	771	2,873
2018	14,888	11,908	658	2,322
2019	14,240	11,065	447	2,728
2020	11,197	9,377	306	1,514
2021	11,903	9,932	345	1,626
2022	11,951	9,782	346	1,823
2023	11,232	8,965	341	1,926
2024	11,506	9,010	347	2,14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 2)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 2024년 기준 서울시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는 83,986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208명으로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점유비는 6.2%로 확인됨.
- ◆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을 살펴보면 종로구 13.7%, 중구 11.5%, 마포구 10.4% 순으로 높았음.

표. 55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4) (단위: 명, %)

구분	추계중증정신질환자 <sup>1)</sup> 수	정신건강복지센터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서울시	83,986	5,208	6.2
종로구	1,245	170	13.7
중구	1,085	125	11.5
용산구	1,835	123	6.7
성동구	2,463	177	7.2
광진구	2,988	171	5.7
동대문구	3,049	198	6.5
종량구	3,413	260	7.6
성북구	3,794	298	7.9
강북구	2,552	231	9.1
도봉구	2,729	244	8.9
노원구	4,421	246	5.6
은평구	4,148	198	4.8
서대문구	2,726	192	7.0
마포구	3,253	339	10.4
양천구	3,879	185	4.8
강서구	5,006	182	3.6
구로구	3,494	228	6.5
금천구	2,026	182	9.0
영등포구	3,364	178	5.3
동작구	3,382	177	5.2
관악구	4,300	216	5.0
서초구	3,675	244	6.6
강남구	5,016	287	5.7
송파구	5,851	210	3.6
강동구	4,292	147	3.4

주: 1) 해당연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0.9%로 산정 / 해당 유병률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4~2019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가장 최근 유병률 현황을 반영함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이 증가했고, 1개 자치구는 유지, 13개 자치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 2023년 3.8%에서 5.7%로 5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노원구는 2023년 4.3%에서 5.6%로 30.2%의 증가율을 보임.
- ◆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2023년 7.4%에서 2024년 6.5%로 12.2%의 감소율을 보임.

표. 56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7.8	6.6	6.5	6.1	6.2	1.6
종로구	16.1	15.2	16.5	13.9	13.7	-1.4
중구	14.4	12.3	12.1	11.4	11.5	0.9
용산구	9.6	7.6	7.1	6.4	6.7	4.7
성동구	9.7	7.5	7.1	7.1	7.2	1.4
광진구	6.1	5.1	5.2	5.8	5.7	-1.7
동대문구	7.4	7.3	7.7	7.4	6.5	-12.2
중랑구	8.1	7.5	7.8	7.3	7.6	4.1
성북구	10.0	8.1	7.9	8.5	7.9	-7.1
강북구	10.4	8.3	8.9	8.6	9.1	5.8
도봉구	12.9	10.5	10.4	8.5	8.9	4.7
노원구	9.7	5.4	4.3	4.3	5.6	30.2
은평구	7.0	7.0	6.0	5.2	4.8	-7.7
서대문구	7.5	7.0	7.4	7.4	7.0	-5.4
마포구	10.1	7.3	7.4	11.2	10.4	-7.1
양천구	5.8	5.5	6.0	5.2	4.8	-7.7
강서구	8.8	7.1	4.3	3.8	3.6	-5.3
구로구	6.4	7.2	8.2	7.1	6.5	-8.5
금천구	10.1	8.9	10.0	9.5	9.0	-5.3
영등포구	7.9	6.3	6.8	5.4	5.3	-1.9
동작구	6.2	6.0	6.1	4.7	5.2	10.6
관악구	6.4	5.3	5.1	4.3	5.0	16.3
서초구	6.5	5.7	6.1	6.5	6.6	1.5
강남구	4.9	4.4	4.5	3.8	5.7	50.0
송파구	4.5	3.9	3.6	3.6	3.6	0.0
강동구	4.7	3.6	3.7	3.8	3.4	-10.5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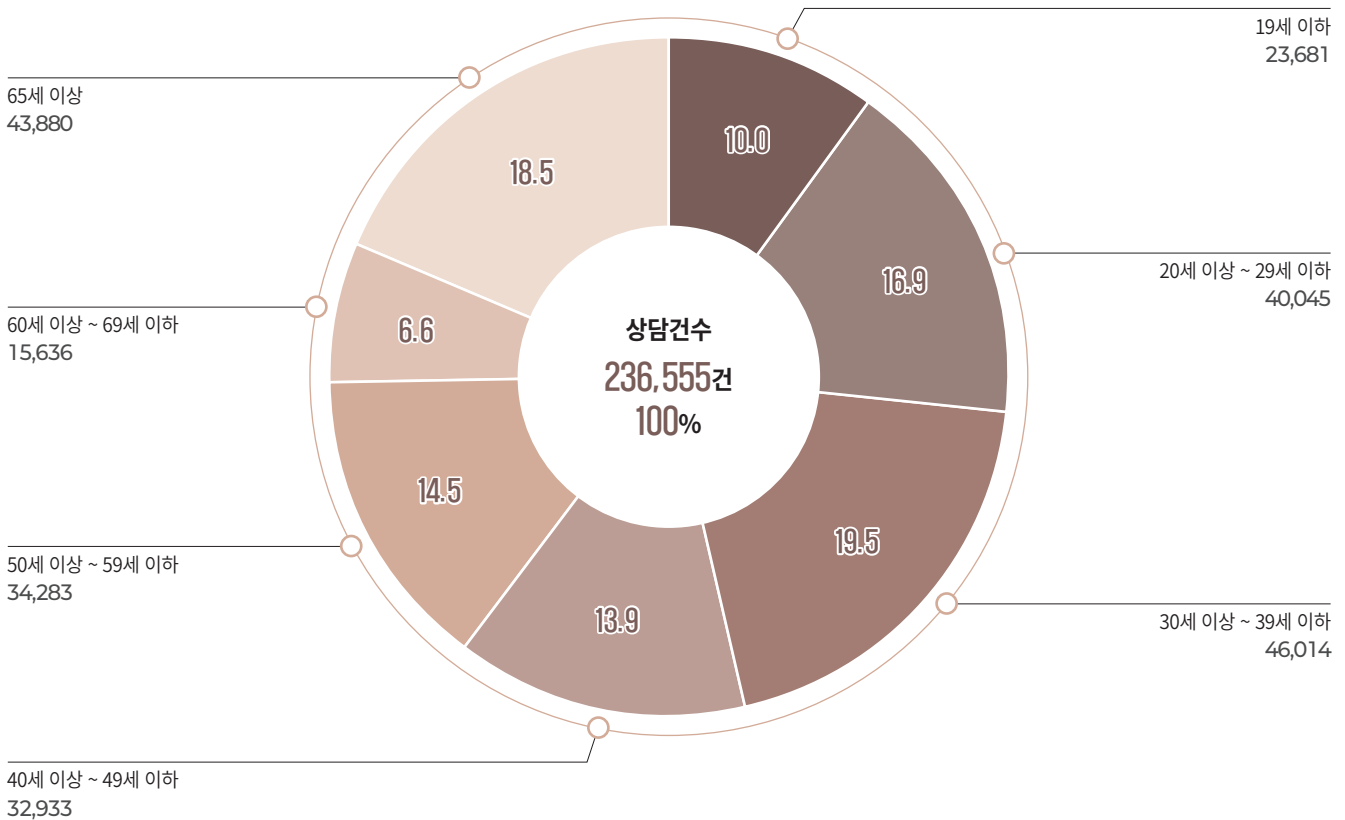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건수는 236,555건으로 ‘30세 이상 39세 이하’ 46,014건(19.5%), ‘65세 이상’ 43,880건(18.5%), ‘20세 이상 29세 이하’ 40,045건(16.9%) 순으로 많았음.

표. 57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4) (단위: 건, %)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세 이상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미상
상담건수	236,555	23,681	40,045	46,014	32,933	34,283	15,636	43,880	83
비율	100.0	10.0	16.9	19.5	13.9	14.5	6.6	18.5	0.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63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4)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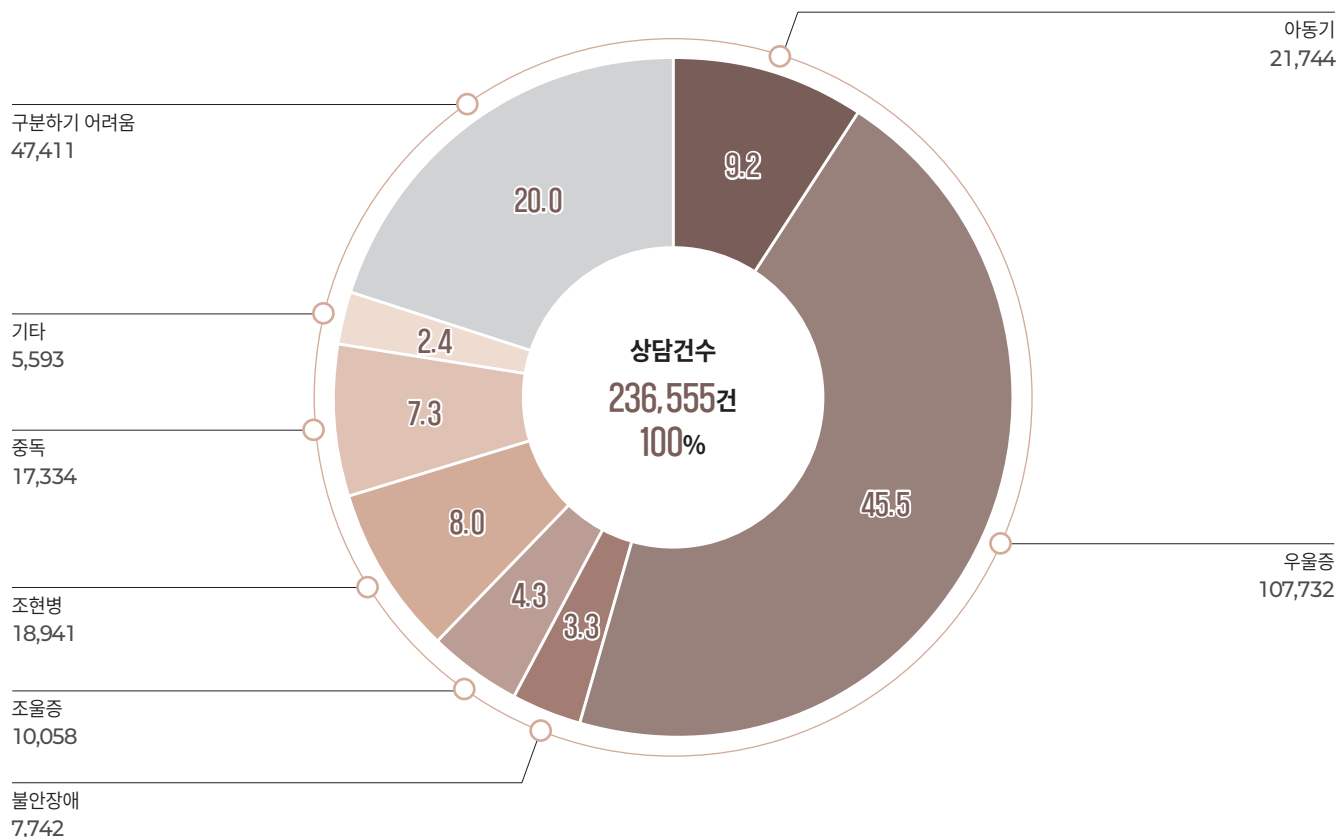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건수는 236,555건으로 ‘우울증’ 107,732건(45.5%), ‘구분하기 어려움’ 47,411건(20.0%), ‘아동기’ 21,744건(9.2%) 순으로 많았음.

표. 58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4) (단위: 건, %)

구분	합계	아동기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중독	기타	구분하기 어려움
상담건수	236,555	21,744	107,732	7,742	10,058	18,941	17,334	5,593	47,411
비율	100.0	9.2	45.5	3.3	4.3	8.0	7.3	2.4	20.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64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4) (단위: 건, %)



#### 4)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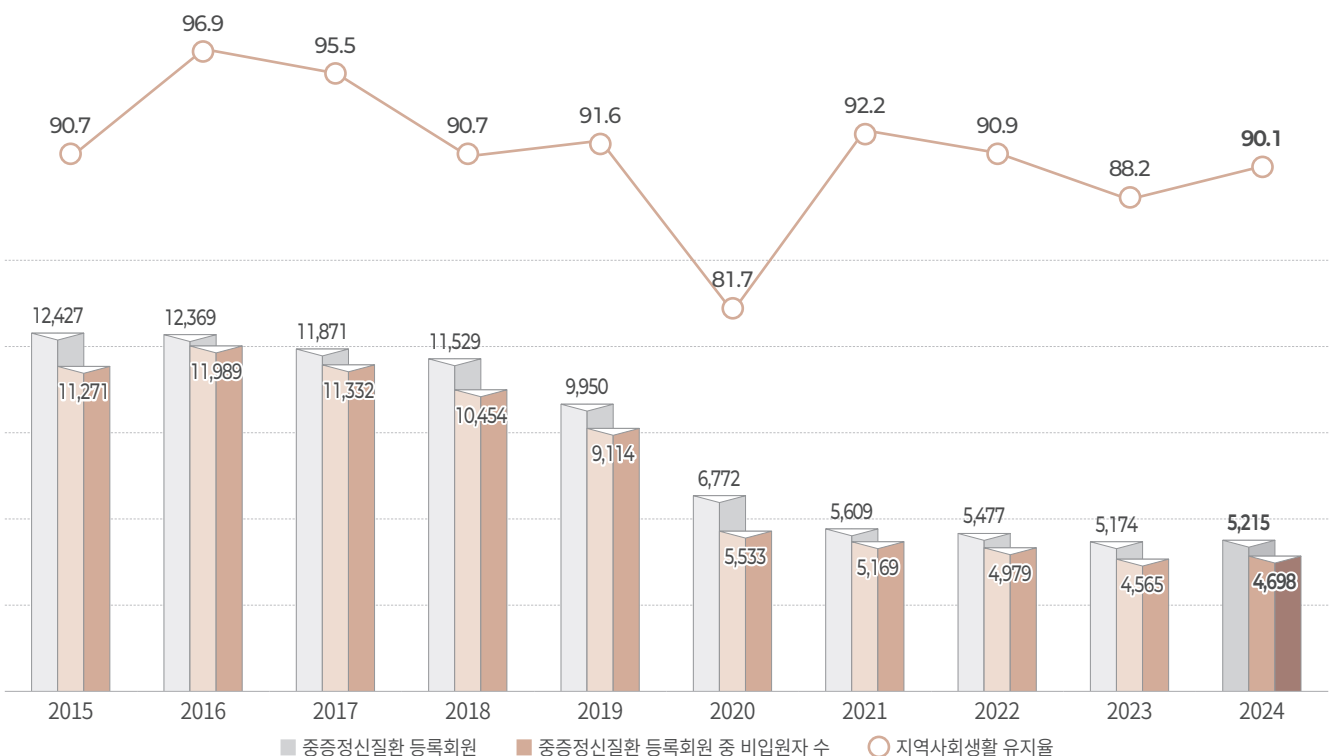
- ◆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등록회원 중 해당연도에 입원한 이력이 없는 등록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 2024년 기준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은 5,215명이며 그 중 비입원자 수는 4,698명으로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90.1%로 나타남.
- ◆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2023년 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59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5~2024) (단위: 명, %)

연도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중 비입원자 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2015	12,427	11,271	90.7
2016	12,369	11,989	96.9
2017	11,871	11,332	95.5
2018	11,529	10,454	90.7
2019	9,950	9,114	91.6
2020	6,772	5,533	81.7
2021	5,609	5,169	92.2
2022	5,477	4,979	90.9
2023	5,174	4,565	88.2
2024	5,215	4,698	90.1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65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5~2024) (단위: 명, %)



- ◆ 자치구별 추이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이 증가했고, 6개 자치구는 감소함.
- ◆ 전년대비 증감 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금천구로, 2023년 77.8%에서 2024년 90.0%로 15.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대문구는 2023년 86.3%에서 95.9%로 11.1%의 증가율을 보임.
- ◆ 감소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도봉구로 2023년 90.2%에서 2024년 83.2%로 7.8%의 감소율을 보임.

표. 60 서울시 자치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증감
서울시	81.7	92.2	90.9	88.2	90.1	2.2
종로구	83.8	85.9	85.2	81.7	82.9	1.5
중구	60.5	93.4	94.7	91.9	95.3	3.7
용산구	75.3	92.1	98.6	90.2	95.9	6.3
성동구	88.7	89.6	89.9	83.6	91.0	8.9
광진구	81.0	91.0	89.9	88.0	94.2	7.0
동대문구	62.0	92.8	90.6	90.5	89.4	-1.2
중랑구	82.9	89.2	91.1	84.4	84.6	0.2
성북구	67.0	87.8	87.9	87.2	88.3	1.3
강북구	79.4	95.1	92.8	91.5	96.5	5.5
도봉구	80.4	92.4	89.4	90.2	83.2	-7.8
노원구	77.7	91.1	89.3	83.7	85.0	1.6
은평구	87.2	97.0	92.9	96.3	96.5	0.2
서대문구	81.0	90.1	92.6	86.3	95.9	11.1
마포구	91.7	87.6	90.9	95.1	91.3	-4.0
양천구	94.1	96.4	95.8	85.9	92.4	7.6
강서구	84.6	95.9	92.3	89.0	89.6	0.7
구로구	81.5	87.9	87.3	83.7	84.2	0.6
금천구	65.4	91.8	82.0	77.8	90.0	15.7
영등포구	80.8	96.2	93.0	91.3	93.9	2.8
동작구	79.8	90.4	88.6	91.1	85.3	-6.4
관악구	96.5	95.7	96.9	94.0	95.4	1.5
서초구	89.5	93.8	89.6	81.9	86.0	5.0
강남구	91.2	93.8	93.0	88.8	94.1	6.0
송파구	88.9	95.2	94.4	93.3	92.9	-0.4
강동구	82.5	88.7	87.5	86.0	83.9	-2.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 05

## 국내외 정신건강현황

- ① 정신건강자원 132
- ②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148
- ③ 정신건강문제 158
- ④ 정신질환치료 182
- ⑤ 정신건강서비스 191

The background features four overlapping circles of varying shades of light brown, centered on the page. A horizontal line of the same color extends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ending just before the text.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 01

## 정신건강자원

### 가

### 국내

#### 1) 정신건강 예산

- ◆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총액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 추세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73,250,996천원으로 확인됨.
- ◆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역시 매년 증가 추세로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5,273,202천원으로 나타남.
- ◆ 시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신건강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국 예산 대비 시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2.9%(108,187,147천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울 15.9%(75,273,202천원), 부산 6.4%(30,459,039천원), 전북 6.1%(28,998,651천원) 순임.

표. 61 시도별 정신건강 예산 추이(2020~2024)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301,087,723	369,411,443	409,606,725	450,401,100	473,250,996
서울	53,647,039	58,981,416	64,425,801	72,920,882	75,273,202
부산	21,308,849	24,205,167	26,788,626	28,769,318	30,459,039
대구	10,602,255	12,256,595	14,878,918	17,149,064	17,349,984
인천	12,662,483	17,599,138	18,986,808	22,135,544	23,379,118
광주	12,369,203	13,794,092	14,712,833	16,405,649	17,929,623
대전	12,740,140	14,142,584	15,077,208	16,672,296	17,026,489
울산	5,321,698	6,497,177	8,566,189	9,675,092	10,223,550
세종	1,237,214	1,512,042	2,701,373	4,084,572	4,543,044
경기	71,020,437	84,485,223	91,876,022	100,935,956	108,187,147
강원	11,770,854	15,121,734	18,406,908	20,127,531	19,892,913
충북	12,552,301	14,572,199	18,518,507	20,925,901	20,883,068
충남	15,871,633	22,915,551	24,384,487	21,975,046	23,008,710
전북	17,222,524	21,594,236	24,877,903	27,551,008	28,998,651
전남	10,633,527	14,935,002	15,623,803	16,638,547	17,843,480
경북	16,325,614	22,220,924	23,802,671	24,518,190	26,660,324
경남	11,739,401	18,978,244	20,125,702	21,578,400	22,560,118
제주	4,062,551	5,600,120	5,852,966	8,338,104	9,032,537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2)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 ◆ 2024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9,145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역시 매년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8,013원으로 확인됨.
- ◆ 2024년 기준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전북이 16,490원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제주 13,388원, 강원 13,104원 순임.

표. 62 시도별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추이(2020~2024) (단위: 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국	5,815	7,139	7,934	8,710	9,145
서울	5,587	6,208	6,845	7,757	8,013
부산	6,373	7,275	8,119	8,760	9,330
대구	4,382	5,133	6,296	7,267	7,371
인천	4,291	5,984	6,413	7,357	7,667
광주	8,314	9,391	10,054	11,212	12,318
대전	8,492	9,563	10,246	11,312	11,559
울산	4,669	5,782	7,698	8,745	9,270
세종	3,546	4,129	7,058	10,547	11,674
경기	5,298	6,207	6,716	7,324	7,805
강원	7,769	9,946	12,063	13,194	13,104
충북	7,693	8,927	11,335	12,860	12,815
충남	7,200	10,528	11,185	9,969	10,347
전북	9,609	12,036	13,975	15,580	16,490
전남	6,027	8,377	8,834	9,413	10,156
경북	6,148	8,414	9,057	9,389	10,265
경남	3,504	5,721	6,119	6,606	6,944
제주	6,062	8,319	8,662	12,324	13,38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3)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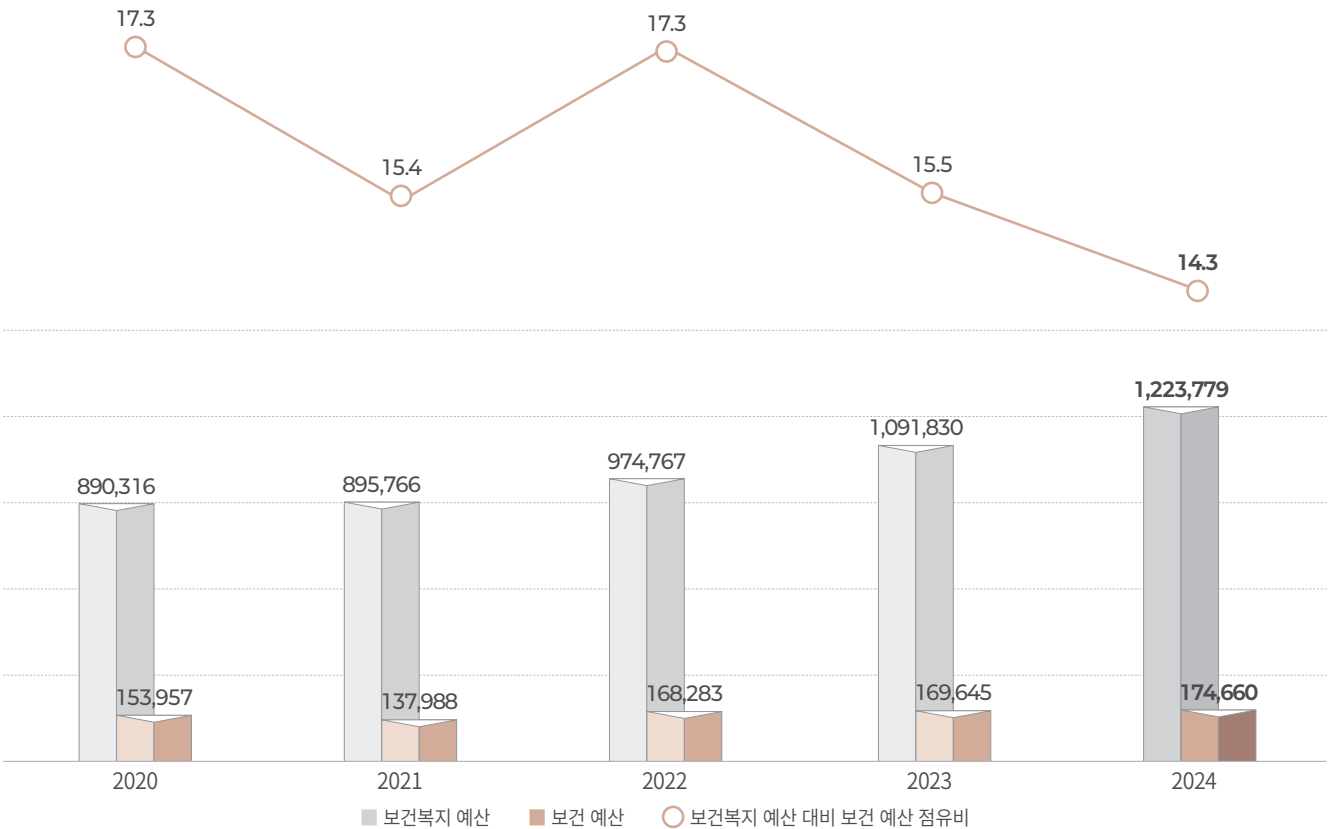
- ◆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보건 예산은 2021년 감소, 다시 2024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임.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양상임.
- ◆ 2024년 기준 보건복지 예산은 1,223,77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보건 예산은 174,66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음.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24년 14.3%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63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 예산	890,316	895,766	974,767	1,091,830	1,223,779
보건 예산	153,957	137,988	168,283	169,645	174,660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17.3	15.4	17.3	15.5	14.3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그림. 66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20~2024) (단위: 백만원, %)



## 4) 정신건강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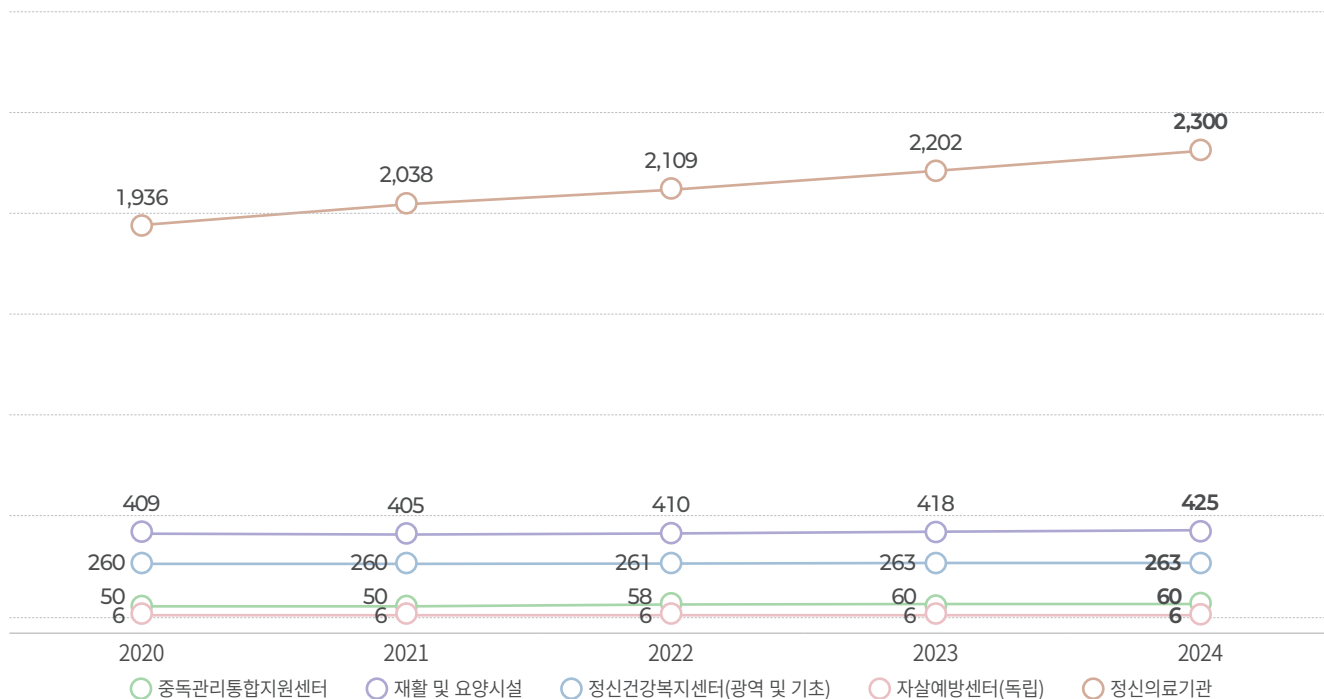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17개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60개소, 자살예방센터(독립)가 6개소, 정신재활시설이 366개소, 정신요양시설이 59개소, 정신의료기관이 2,300개소 설치되어 있음.
-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독립), 정신요양시설은 변동 없으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은 증가추세임.

표. 64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0~2024) (단위: 개소)

구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독립)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2020	16	244	50	6	350	59	1,936
2021	16	244	50	6	346	59	2,038
2022	17	244	58	6	351	59	2,109
2023	17	246	60	6	359	59	2,202
2024	17	246	60	6	366	59	2,30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67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20~2024) (단위: 개소)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살예방센터(독립)는 세종 제외, 정신요양시설은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표. 65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4) (단위: 개소)

구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독립)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전국	17	246	6	60	366	59	2,300
서울	1	25	2	3	102	3	692
부산	1	16	-	3	18	3	192
대구	1	9	-	2	16	3	114
인천	1	11	1	5	14	2	95
광주	1	5	-	5	11	4	65
대전	1	5	-	5	31	4	92
울산	1	5	-	2	3	1	33
세종	1	1	-	-	3	1	17
경기	1	37	3	10	68	6	495
강원	1	18	-	4	3	-	47
충북	1	14	-	2	11	4	56
충남	1	17	-	2	21	10	65
전북	1	14	-	4	24	4	75
전남	1	23	-	2	3	4	58
경북	1	24	-	2	18	5	71
경남	1	20	-	6	6	4	100
제주	1	2	-	3	6	1	33

주: '-' 표시는 '없음'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자 정원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242개소의 정원은 2,393명,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140개소의 정원은 4,909명, 정신요양시설 59개소의 정원은 12,239명임.

표. 66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2024)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신재활시설(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이용형)		정신요양시설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전국	242	2,393	140	4,909	59	12,239
서울	61	479	41	1,582	3	700
부산	6	47	13	435	3	720
대구	8	111	9	345	3	667
인천	10	55	4	130	2	289
광주	4	37	7	163	4	655
대전	25	235	7	228	4	734
울산	-	-	3	90	1	150
세종	2	25	1	20	1	155
경기	51	392	20	737	6	1,848
강원	3	38	1	29	-	-
충북	7	129	4	170	4	878
충남	22	289	2	60	10	1,416
전북	18	202	12	456	4	821
전남	3	48	1	26	4	844
경북	15	235	5	154	5	1,149
경남	5	57	5	120	4	963
제주	2	14	5	164	1	25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6)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 ◆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는 증가, 병상수는 증감을 반복하여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수는 2,300개소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으며, 병상수는 68,672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음.
- ◆ 기관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기관 수는 의원 정신과가 1,774개소(77.1%)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병원 259개소(11.3%), 종합병원 정신과 216개소(9.4%), 병원 정신과 41개소(1.8%) 순임.
- ◆ 반면, 병상 수는 정신병원이 60,145개(87.6%)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정신과 4,624개(6.7%), 병원 정신과 2,720개(4.0%), 의원 정신과 946개(1.4%) 순으로 나타남.

표. 67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22~2024) (단위: 개소, 개)

구분		기관수	병상수
2022		2,109	71,564
2023		2,202	67,634
2024		2,300	68,672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16	4,624
	병원 정신과	41	2,720
	정신병원	259	60,145
	요양병원 정신과	5	55
	한방병원 정신과	3	182
	의원 정신과	1,774	946
	한의원 정신과	2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수는 서울이 69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495개소), 부산(192개소), 대구(114개소) 순으로 나타남. 반면 병상수는 경기도가 13,305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9,015개), 경북(7,567개), 부산(5,096개) 순으로 확인됨.

표. 68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4) (단위: 개소, 개)

구분	기관수	병상수	구분	기관수	병상수
전국	2,300	68,672	경기	495	13,305
서울	692	3,714	강원	47	1,944
부산	192	5,096	충북	56	3,335
대구	114	4,156	충남	65	4,069
인천	95	3,898	전북	75	2,986
광주	65	2,070	전남	58	4,232
대전	92	1,416	경북	71	7,567
울산	33	1,355	경남	100	9,015
세종	17	177	제주	33	337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7) 정신건강인력

- ◆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상근인력은 증가하다 2023년 다소 감소 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증가추세로 2024년 10,931명임.
- ◆ 상근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비율은 2022년까지 감소했다가 반등하여 2024년 34.2%임.

표. 69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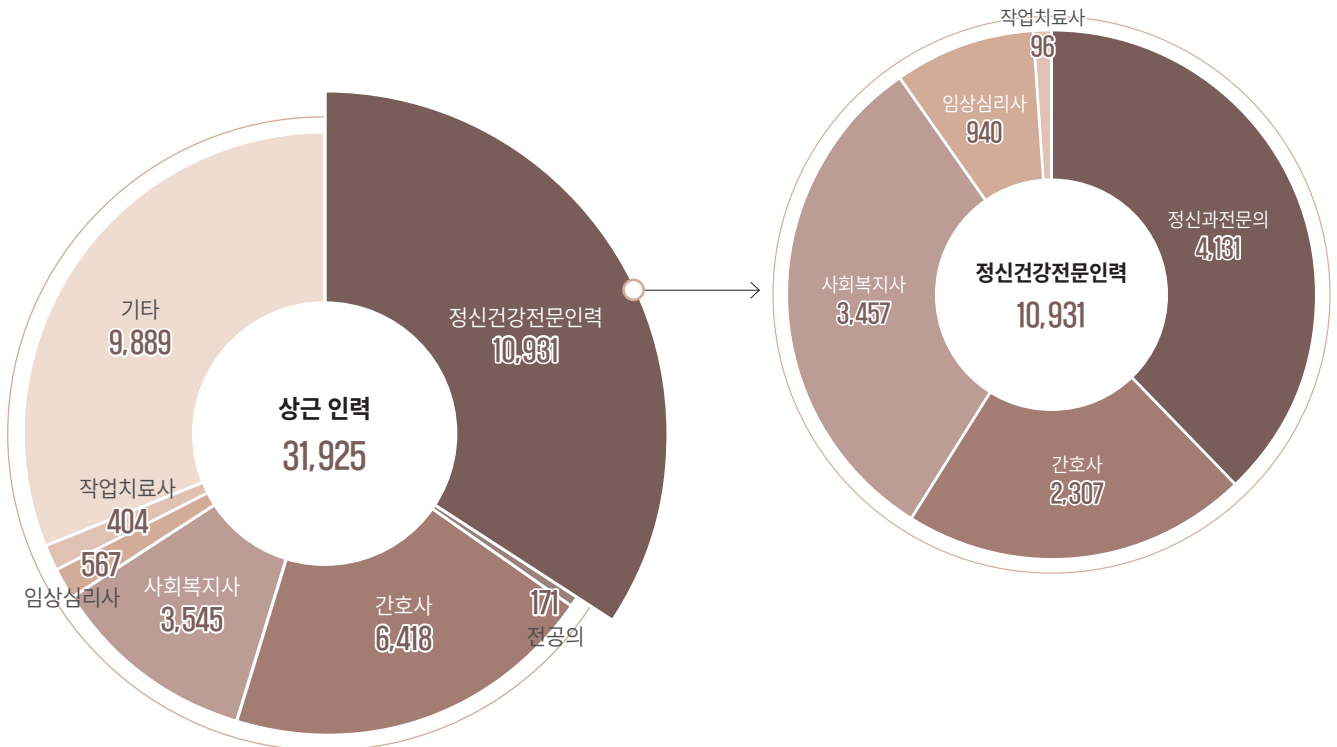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상근인력 합계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전공의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작업 치료사	기타
			정신과 전문의	소계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작업 치료사						
2020	25,561	9,578	3,649	5,929	2,241	2,904	784	-	512	6,077	2,720	316	-	6,358
2021	26,454	9,802	3,791	6,011	2,177	3,029	805	-	527	6,156	3,124	431	-	6,414
2022	31,384	10,058	3,841	6,217	2,144	3,152	864	57	545	7,037	3,386	469	366	9,523
2023	31,241	10,500	4,004	6,496	2,262	3,229	922	83	553	6,189	3,543	492	383	9,581
2024	31,925	10,931	4,131	6,800	2,307	3,457	940	96	171	6,418	3,545	567	404	9,889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68 국내 정신건강인력 현황(2024)

(단위: 명)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을 보면, 상근인력 수 및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았음.
- ◆ 상근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인력의 비율은 서울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39.2% 광주 37.5%, 경기 3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았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순으로 많았음.

표. 70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상근 인력 합계	소계	정신건강전문인력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독립)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기초		
전국	31,925	10,931	7,240	211	776	397	2,086	176	45
서울	5,319	2,420	1,756	9	266	59	298	12	20
부산	2,363	816	525	13	54	19	195	10	-
대구	1,634	566	388	5	49	19	99	6	-
인천	1,683	468	304	×	23	17	108	9	5
광주	1,108	415	219	35	24	29	81	27	-
대전	1,003	360	210	14	44	32	50	10	-
울산	534	177	105	×	7	13	49	×	-
세종	186	73	37	×	×	20	13	-	-
경기	6,652	2,472	1,510	19	128	66	682	47	20
강원	1,016	277	183	-	5	11	70	8	-
충북	1,137	300	190	9	19	13	65	×	-
충남	1,777	519	404	28	26	10	45	6	-
전북	1,407	476	262	29	71	21	83	10	-
전남	1,449	416	302	15	9	16	72	×	-
경북	1,912	446	302	14	24	14	89	×	-
경남	2,359	595	460	12	16	19	72	16	-
제주	386	135	83	×	10	19	15	5	-

주: '-' 표시는 '없음'을 의미함, '×' 표시는 개인 식별 문제로 미공개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1) 보건 지출

- ◆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1인당 보건지출은 4,569.5 USD로, OECD 38개국 평균(4,986.3 USD)보다 416.8 USD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12,555.3 USD), 스위스(8,049.1 USD), 독일(8,010.9 USD) 순으로 많았으며 멕시코(1,181.0 USD), 콜롬비아(1,639.9 USD), 코스타리카(1,658.1 USD) 순으로 적었음.

표. 71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보건 지출 현황(2022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USD)

구분	보건 지출	구분	보건 지출
미국	12,555.3	대한민국	4,569.5
스위스	8,049.1	체코	4,512.2
독일	8,010.9	스페인	4,431.9
노르웨이	7,771.2	이탈리아	4,290.7
오스트리아	7,275.4	포르투갈	4,162.1
네덜란드	6,729.1	슬로베니아	4,113.8
프랑스	6,629.6	리투아니아	3,587.3
벨기에	6,600.0	라트비아	3,445.3
스웨덴	6,437.7	이스라엘	3,444.4
룩셈부르크	6,436.1	에스토니아	3,102.5
호주	6,372.0	그리스	3,015.3
캐나다	6,319.0	폴란드	2,973.0
덴마크	6,279.8	헝가리	2,840.1
뉴질랜드	6,060.9	슬로바키아	2,755.9
아일랜드	6,046.5	칠레	2,699.4
핀란드	5,598.9	튀르키예	1,827.5
영국	5,492.6	코스타리카	1,658.1
아이슬란드	5,314.1	콜롬비아	1,639.9
일본	5,250.6	멕시코	1,181.0

출처: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 2) 정신건강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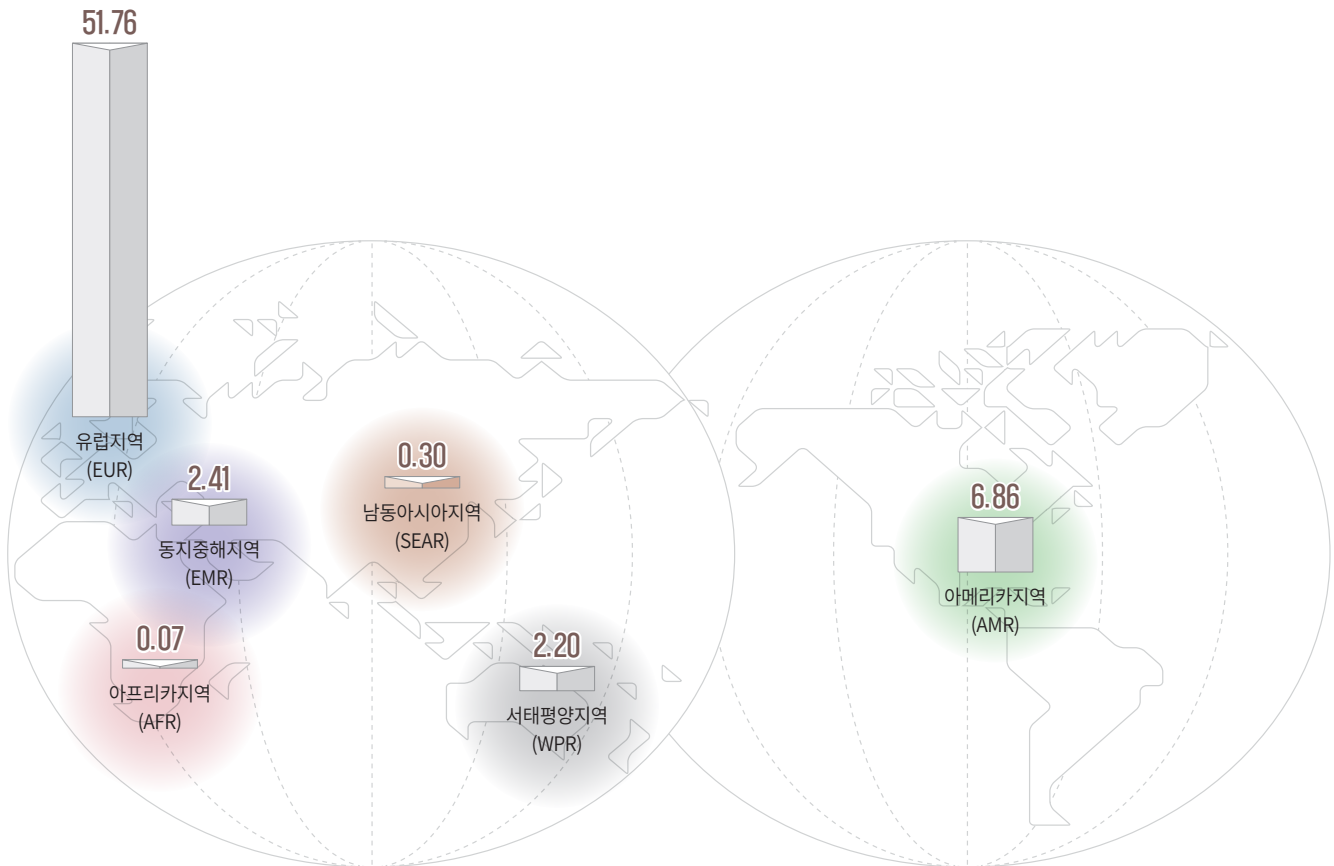
- ◆ 2024년 WHO 75개국의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은 2.69 USD, 정신건강 지출 비중 중앙값은 2.1%로 나타남.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이 51.76 USD 로 가장 많았으며, 아메리카 지역(6.86 USD), 동지중해지역(2.41 USD), 서태평양 지역(2.20 USD), 남동아시아 지역(0.30 USD), 아프리카 지역(0.07 USD) 순임.

표. 72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 및 비중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 USD, %)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유럽지역 (EUR)	동지중해지역 (EM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75	15	19	5	18	7	11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	2.69	0.07	6.86	0.30	51.76	2.41	2.20
정신건강 지출 비중 중앙값	2.1	0.6	2.1	1.1	4.5	1.8	1.3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그림. 69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중앙값 현황(2024) (단위: USD)



### 3) 정신건강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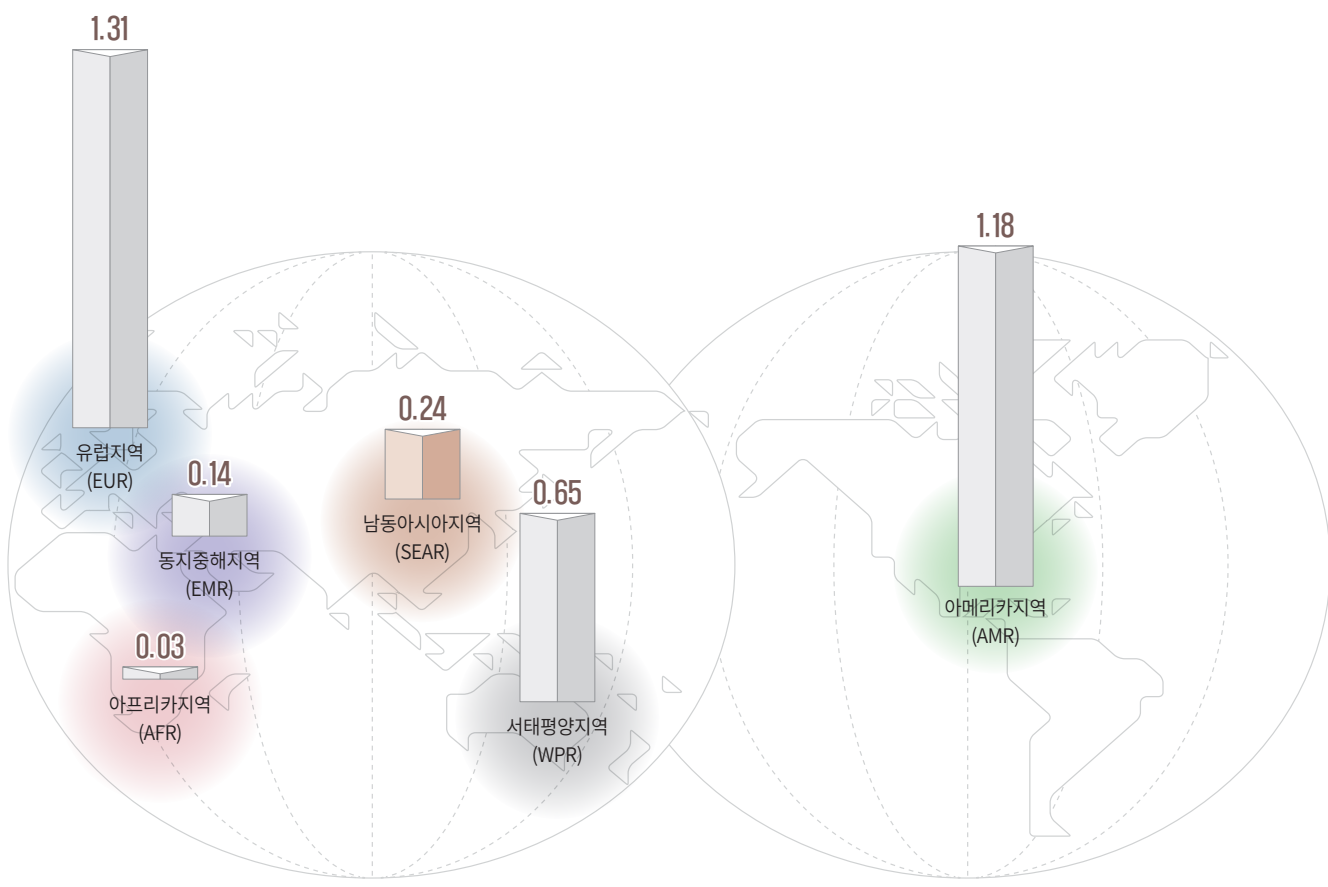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시설의 중앙값은 0.52개소로 나타남.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이 1.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메리카 지역(1.18개소), 서태평양 지역(0.65개소), 남동아시아 지역(0.24개소), 동지중해 지역(0.14개소), 아프리카 지역(0.03개소) 순으로 많았음.

표. 7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 개소)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유럽지역 (EUR)	동지중해지역 (EM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109	24	26	6	19	17	17
시설 수 중앙값	0.52	0.03	1.18	0.24	1.31	0.14	0.65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그림. 70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소)



#### 4)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주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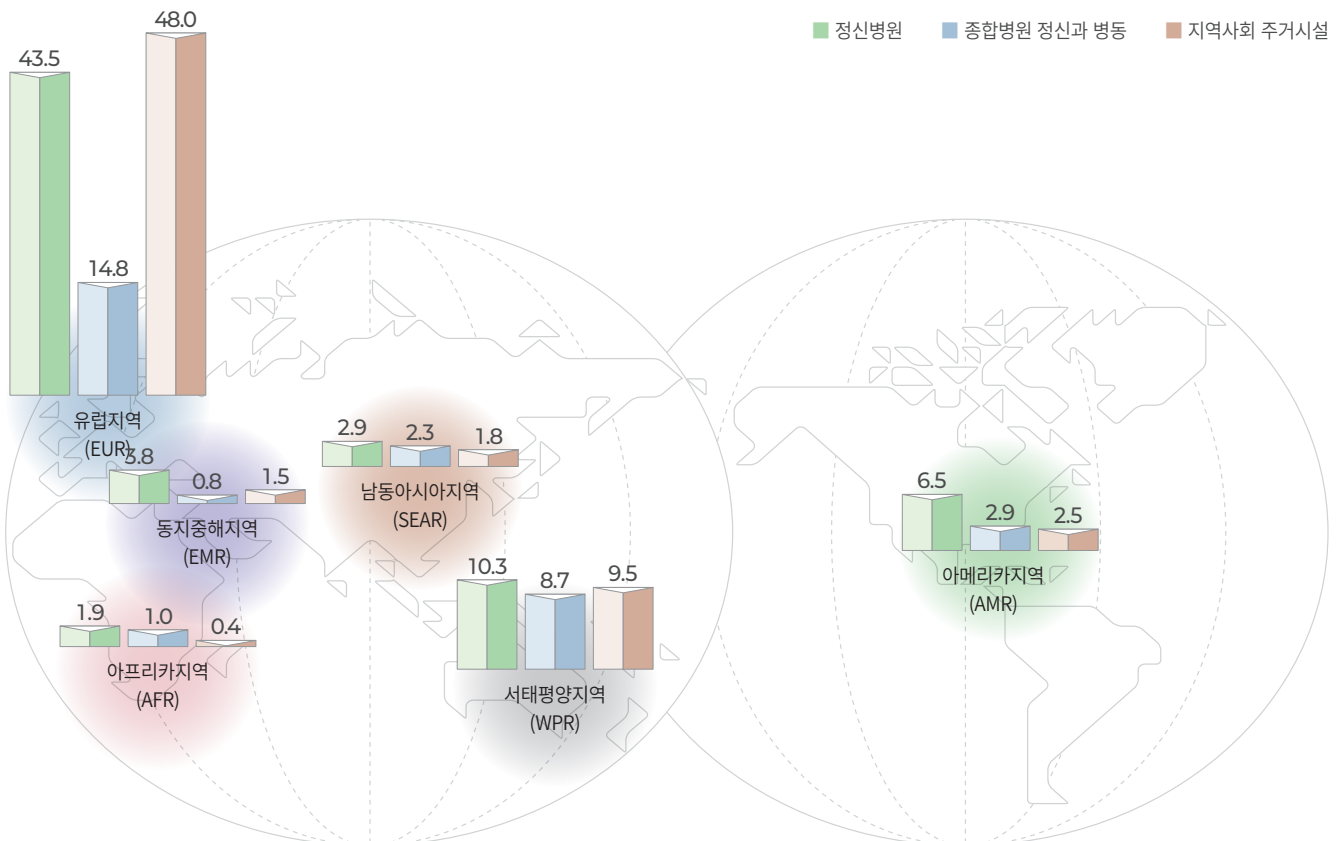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은 정신병원 6.2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2.9개, 지역사회 주거시설 4.1개임.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정신병원 43.5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14.8개, 지역사회 주거시설 48.0개로 확인됨.
- ◆ 남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은 정신병원 2.9개,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2.3개, 지역사회 주거시설 1.8개로 나타남.

표. 74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유럽지역 (EUR)	동지중해지역 (EM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123	29	28	6	23	19	18
정신병원	6.2	1.9	6.5	2.9	43.5	3.8	10.3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	2.9	1.0	2.9	2.3	14.8	0.8	8.7
지역사회 주거시설	4.1	0.4	2.5	1.8	48.0	1.5	9.5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그림. 71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



- ◆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수는 153.7개로, 일본이 245.3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민국(45.4개), 뉴질랜드(44.0개), 싱가포르(41.9개) 순임.

표. 75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개)

구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수
일본	245.3
OECD 평균	153.7
대한민국	45.4
뉴질랜드	44.0
싱가포르	41.9
호주	37.6
중국	35.3
몽골	20.2
피지	13.2
스리랑카	12.2
말레이시아	11.2
베트남	8.7
태국	7.9
필리핀	6.7
인도네시아	6.3
브루나이	6.0
미얀마	3.3
솔로몬제도	3.0
네팔	1.8
파푸아뉴기니	1.0
방글라데시	0.5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5) 정신건강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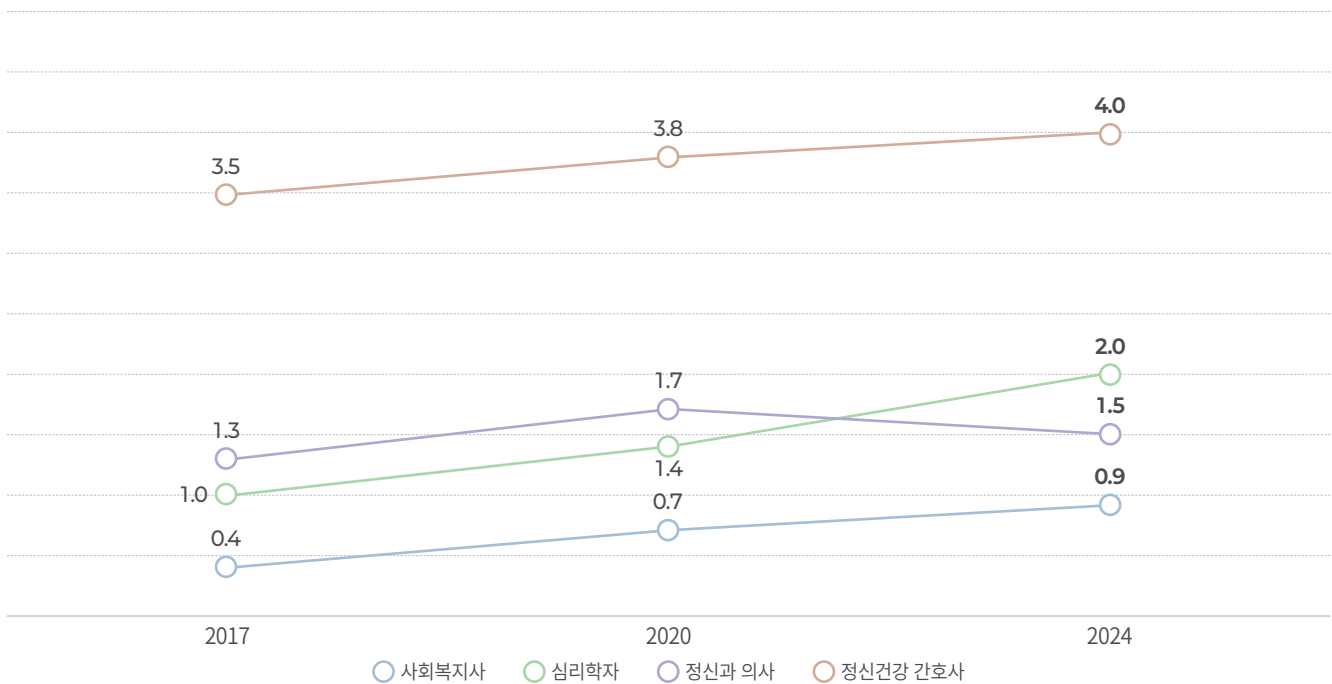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WHO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은 정신과 의사 1.5명, 정신건강 간호사 4.0명, 심리학자 2.0명, 사회복지사 0.9명, 작업치료사 0.2명, 기타 전문 정신건강 종사자 0.8명으로 나타남.
- ◆ WHO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은 대부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정신과 의사의 중앙값이 감소한 것은 고소득국가의 응답률 저조로 인함)

표. 76 WHO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추이(2017~2024) (단위: 명)

구분	총 근로자 수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2017	9.1	1.3	3.5	1.0	0.4
2020	13.1	1.7	3.8	1.4	0.7
2024	13.5	1.5	4.0	2.0	0.9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그림. 72 WHO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추이(2017~202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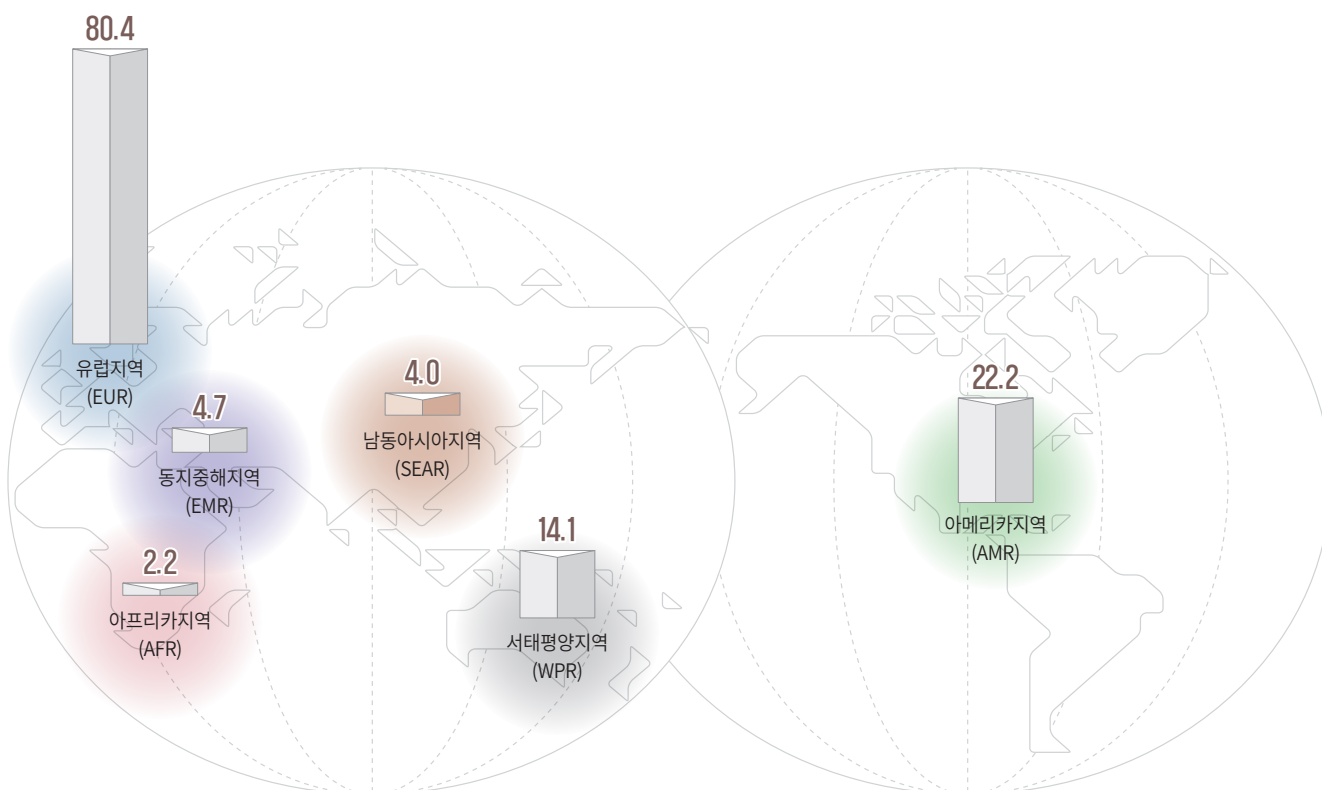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 인력의 중앙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 지역으로, 정신과 의사 9.9명, 정신건강 간호사 28.4명, 심리학자 9.3명, 사회복지사 3.6명, 작업치료사 4.4명, 기타 전문 정신건강 종사자 1.9명으로 나타남.
- ◆ 남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 인력 중앙값은 정신과 의사 0.5명, 정신건강 간호사 0.4명, 심리학자 0.2명, 사회복지사 0.3명, 작업치료사 0.3명, 기타 전문 정신건강 종사자 0.2명으로 확인됨.

표. 77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직종별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현황(2024) (단위: 개, 명)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유럽지역 (EUR)	동지중해지역 (EM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132	33	28	7	27	19	18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13.5	2.2	22.2	4.0	80.4	4.7	14.1
정신과 의사	1.5	0.1	1.7	0.5	9.9	1.3	2.2
정신건강 간호사	4.1	0.6	3.6	0.4	28.4	3.2	12.9
심리학자	2	0.2	6.4	0.2	9.3	1	0.4
사회복지사	0.9	0.1	1.7	0.3	3.6	0.4	0.2
작업치료사	0.2	0	0.2	0.3	4.4	0.1	0
기타 전문 정신건강 종사자	0.8	0.1	1.5	0.2	1.9	0.2	1.9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그림. 7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중앙값 현황(2024) (단위: 명)



# 02

##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가

국내

### 1) 정신건강 상태

- ◆ 2024년 기준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5.2%로 2022년 49.7% 대비 5.5%p 증가함.
- ◆ 평소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매우 나쁘다+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2022년 12.3% 대비 2.9%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78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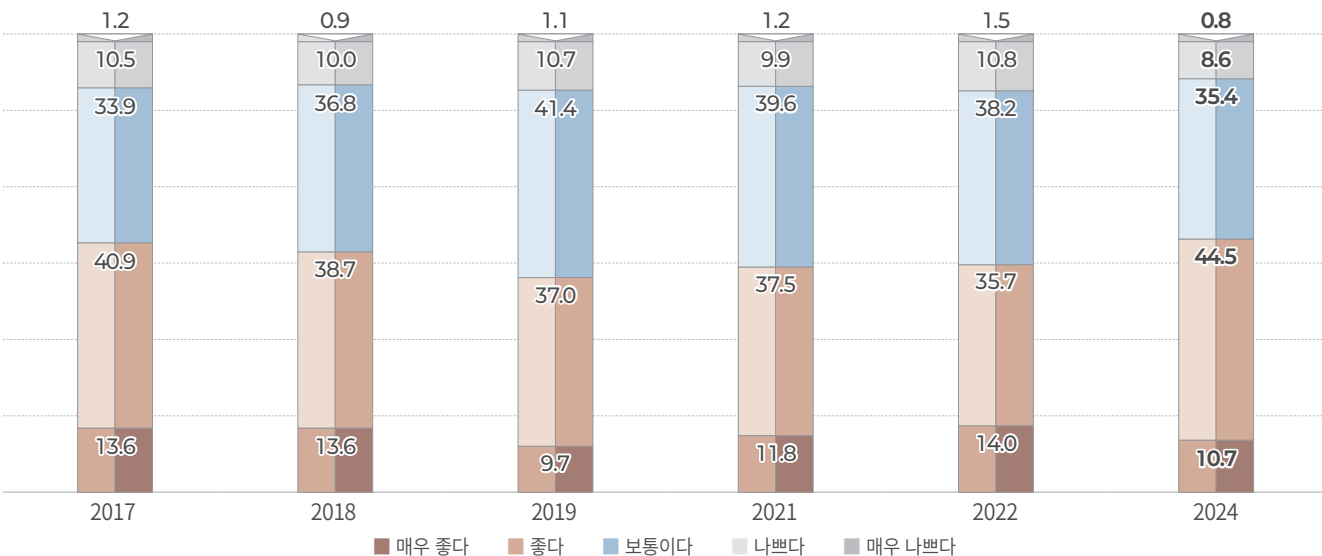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017	13.6	40.9	33.9	10.5	1.2
2018	13.6	38.7	36.8	10.0	0.9
2019	9.7	37.0	41.4	10.7	1.1
2021	11.8	37.5	39.6	9.9	1.2
2022	14.0	35.7	38.2	10.8	1.5
2024	10.7	44.5	35.4	8.6	0.8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74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4)

(단위: %)



- ◆ 2024년 기준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좋다(매우 좋다+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주(66.7%), 인천(59.5%), 충남(58.2%)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46.7%), 대전(47.7%), 광주(49.4%)순으로 낮게 나타남.
- ◆ 반면, ‘나쁘다(나쁘다+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충북(13.5%), 강원(12.4%), 울산(11.9%)순으로 높았으며, 전북(5.3%), 인천(6.3%), 제주(6.7%)순으로 낮았음.
- ◆ 리커트척도로 살펴보는 평소 정신건강 상태 평균은 전국 3.56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 지역 3.40 ~ 3.67점으로 차이는 미비하였음.

표. 79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2024) (단위: %, 점)

구분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평균 (5점 만점)
	매우 좋다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전국	55.2	10.7	44.5	35.4	9.4	8.6	0.8	3.56
서울	55.5	9.7	45.8	35.1	9.4	8.3	1.1	3.55
부산	55.4	10.9	44.6	34.7	9.8	9.8	0.0	3.56
대구	57.6	12.5	45.1	34.7	7.6	7.6	0.0	3.63
인천	59.5	13.9	45.6	34.2	6.3	6.3	0.0	3.67
광주	49.4	14.8	34.6	43.2	7.4	6.2	1.2	3.56
대전	47.7	9.1	38.6	40.9	11.4	11.4	0.0	3.45
울산	53.7	7.5	46.3	34.3	11.9	10.4	1.5	3.48
경기	55.4	10.6	44.8	35.4	9.2	8.2	1.0	3.56
강원	53.6	12.4	41.2	34.0	12.4	9.3	3.1	3.51
충북	55.2	12.5	42.7	31.3	13.5	12.5	1.0	3.53
충남	58.2	13.1	45.1	32.0	9.8	7.4	2.5	3.59
전북	57.9	9.5	48.4	36.8	5.3	5.3	0.0	3.62
전남	53.5	9.9	43.6	39.6	6.9	6.9	0.0	3.56
경북	50.7	11.1	39.6	38.9	10.4	9.7	0.7	3.51
경남	54.5	9.4	45.0	33.7	11.9	11.9	0.0	3.52
제주	66.7	6.7	60.0	26.7	6.7	6.7	0.0	3.67
세종	46.7	3.3	43.3	43.3	10.0	10.0	0.0	3.40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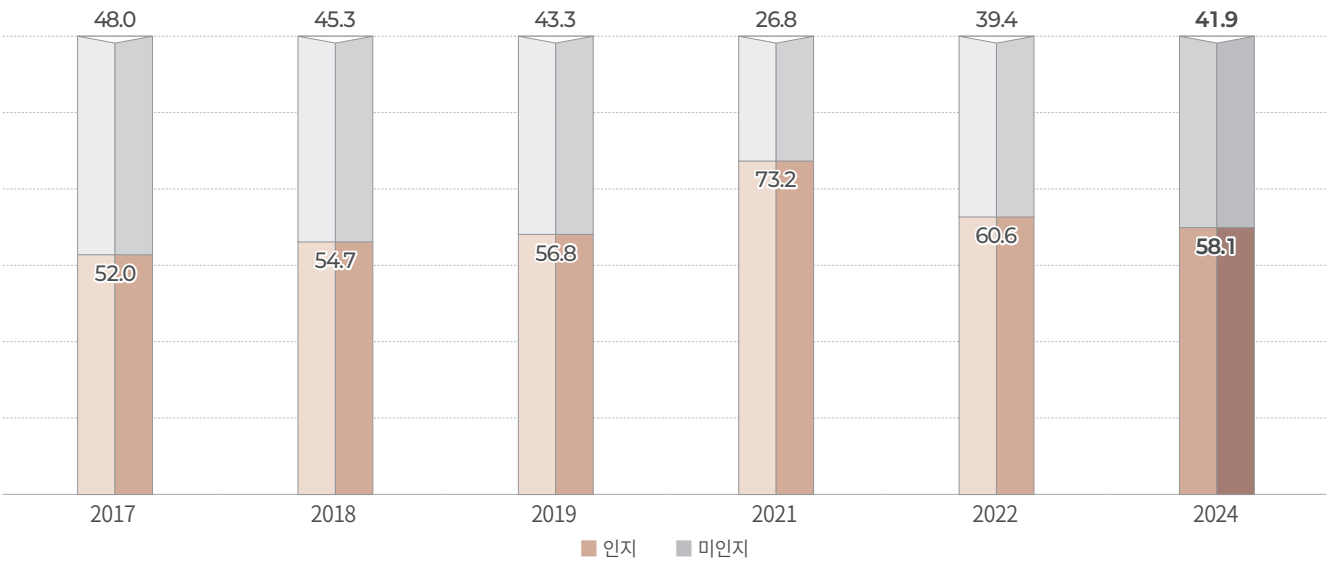
-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인지도율은 2017년 52.0%에서 2021년 73.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4년에는 58.1%로 나타남.

표. 80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4) (단위: %)

구분	인지	미인지
2017	52.0	48.0
2018	54.7	45.3
2019	56.8	43.3
2021	73.2	26.8
2022	60.6	39.4
2024	58.1	41.9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75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4) (단위: %)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북(73.7%)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69.7%), 울산(6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낮은 순으로 살펴보면 대전(47.7%), 서울(52.4%), 부산(52.8%)으로 확인됨.

표. 81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현황(2024) (단위: %)

구분	인지	미인지
서울	52.4	47.6
부산	52.8	47.2
대구	55.6	44.4
인천	62.0	38.0
광주	65.4	34.6
대전	47.7	52.3
울산	65.7	34.3
경기	55.6	44.4
강원	64.9	35.1
충북	58.3	41.7
충남	69.7	30.3
전북	73.7	26.3
전남	64.4	35.6
경북	61.1	38.9
경남	61.9	38.1
제주	60.0	40.0
세종	60.0	40.0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3)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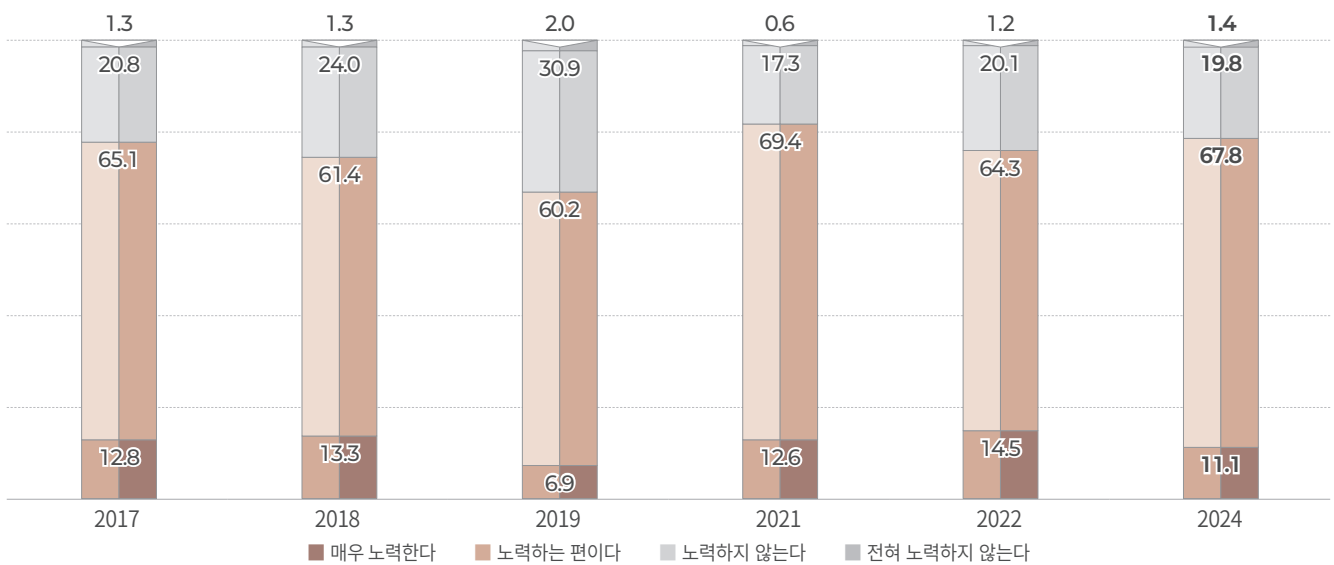
- ◆ 2024년 기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노력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2022년 대비 3.4%p 감소하였으며 ‘노력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8%로 3.5%p 증가함.
- ◆ 반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2022년 대비 0.2%p 증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로 0.3%p 감소함.

표. 82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7~2024) (단위: %)

구분	매우 노력한다	노력하는 편이다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2017	12.8	65.1	20.8	1.3
2018	13.3	61.4	24.0	1.3
2019	6.9	60.2	30.9	2.0
2021	12.6	69.4	17.3	0.6
2022	14.5	64.3	20.1	1.2
2024	11.1	67.8	19.8	1.4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76 국민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7~2024) (단위: %)



- ◆ 2024년 기준 지역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살펴본 결과, ‘노력한다(매우 노력한다+노력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울산(89.6%), 전북(82.1%), 충남(82.0%)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68.9%), 충북(71.9%), 부산(74.6%) 순으로 낮았음.
- ◆ 서울의 ‘노력한다’ 응답 비율은 81.3%로 전국 시도 중 5번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83 지역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현황(2024) (단위: %)

구분	노력한다			보통이다	노력하지 않는다		
	매우 노력한다	노력하는 편이다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전국	78.8	11.1	67.8	21.2	19.8	1.4	0.8
서울	81.3	13.3	67.9	18.7	17.7	1.1	1.1
부산	74.6	9.3	65.3	25.4	24.4	1.0	0.0
대구	79.9	11.1	68.8	20.1	18.1	2.1	0.0
인천	79.7	12.7	67.1	20.3	18.4	1.9	0.0
광주	76.5	11.1	65.4	23.5	22.2	1.2	1.2
대전	77.3	6.8	70.5	22.7	21.6	1.1	0.0
울산	89.6	7.5	82.1	10.4	7.5	3.0	1.5
경기	77.6	10.1	67.5	22.4	20.7	1.7	1.0
강원	80.4	16.5	63.9	19.6	18.6	1.0	3.1
충북	71.9	10.4	61.5	28.1	27.1	1.0	1.0
충남	82.0	13.1	68.9	18.0	15.6	2.5	2.5
전북	82.1	8.4	73.7	17.9	17.9	0.0	0.0
전남	75.2	12.9	62.4	24.8	22.8	2.0	0.0
경북	81.9	11.8	70.1	18.1	17.4	0.7	0.7
경남	78.7	8.9	69.8	21.3	19.8	1.5	0.0
제주	68.9	8.9	60.0	31.1	31.1	0.0	0.0
세종	76.7	10.0	66.7	23.3	23.3	0.0	0.0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4)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 2024년 기준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다음과 같음.

표. 84		국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4)	(단위: %)		
구분		동의	보통	비동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면 호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89.9	8.6	1.4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8.5	16.8	4.7	
	음주는 정신질환 증상을 악화시킨다	87.1	9.6	3.3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90.5	7.4	2.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73.2	22.4	4.3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7.6	11.0	1.3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79.4	17.9	2.6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64.0	29.4	6.6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21.8	35.5	42.7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41.0	38.1	20.9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20.4	33.4	46.2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50.7	31.2	18.1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43.7	30.8	25.5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64.6	25.9	9.5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69.4	20.5	10.2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17.5	27.5	55.0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도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다	61.4	25.5	13.1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내며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있다	37.6	46.0	16.4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34.9	48.4	16.7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38.7	43.0	18.2	
	나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	24.9	39.1	36.0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5)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 ◆ 2024년 기준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40.2%,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38.1%,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34.1%,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4년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기타 중독문제’로 12.0%p 증가하였으며 심각한 스트레스’ 10.3%p 증가,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10.2%p 순으로 증가함.

표. 85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6~2024)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4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8.6	31.8	29.1	30.3	30.6	30.0	40.2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복	30.9	31.0	29.1	30.2	25.0	23.6	30.5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2.4	13.3	11.7	13.7	11.9	12.6	16.7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4.1	26.5	25.0	27.9	28.0	27.6	34.1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24.4	27.7	24.1	24.9	27.1	26.8	32.2
심각한 스트레스	37.6	39.9	38.6	37.6	35.2	36.0	46.3
자살생각	9.7	9.0	9.0	9.5	9.1	8.8	14.6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9.6	21.3	19.5	22.5	17.7	19.9	28.3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9.2	5.3	6.4	7.1	6.3	6.1	6.7
알코올 문제	7.4	6.1	5.8	8.9	9.0	8.9	10.9
약물중독 문제	-	-	-	2.4	3.0	2.8	2.4
도박중독 문제	3.6	3.2	3.8	1.8	3.1	2.9	3.1
기타 중독문제	14.8	14.0	12.4	7.0	6.5	6.4	18.4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	-	-	-	30.8	29.7	38.1
조절되지 않는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	-	-	-	14.6	11.3	16.5

주: ‘-’ 표시는 해당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임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2024년 기준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중독 문제’ 및 ‘도박중독 문제’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86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현황(2024) (단위: %)

구분	서울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강원/제주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8.7	39.8	42.0	38.2	41.9	39.0	41.5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복	29.9	30.1	33.5	31.3	30.3	28.9	26.8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6.2	17.4	14.9	17.0	20.6	13.7	13.4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33.5	34.0	35.7	34.0	32.1	33.3	35.2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2.1	31.6	31.8	29.5	35.4	33.9	35.2
심각한 스트레스	45.9	47.3	46.1	42.0	47.3	46.7	41.5
자살생각	11.7	13.9	17.3	14.2	15.2	13.4	15.5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26.8	28.1	28.4	30.2	28.2	27.1	28.9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5.6	6.3	7.6	6.3	6.1	8.0	7.7
알코올 문제	10.5	10.8	8.9	11.8	11.6	12.2	12.7
약물중독 문제	3.4	2.7	1.5	2.1	2.2	2.7	2.1
도박중독 문제	3.4	2.9	3.9	3.1	3.6	3.3	1.4
기타 중독문제	19.6	18.6	18.0	18.1	20.2	18.2	16.2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40.0	39.6	35.9	37.2	36.8	36.9	36.6
조절되지 않는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17.8	17.3	15.8	14.6	14.8	16.7	16.2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1) 삶의 만족도

◆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핀란드가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스라엘 7.7점, 덴마크 7.6점, 아이슬란드 7.5점 순으로 나타남. 대한민국은 6.1점으로 OECD 평균인 6.7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87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현황(2021~2022) (단위: 점)

구분	삶의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
핀란드	7.8	멕시코	6.5
이스라엘	7.7	칠레	6.4
덴마크	7.6	이탈리아	6.4
아이슬란드	7.5	스페인	6.4
스웨덴	7.4	폴란드	6.4
네덜란드	7.4	라트비아	6.3
노르웨이	7.4	슬로바키아	6.3
룩셈부르크	7.2	일본	6.2
스위스	7.1	포르투갈	6.1
오스트레일리아	7.1	헝가리	6.1
오스트리아	7.1	<b>대한민국</b>	<b>6.1</b>
뉴질랜드	7.1	그리스	6.0
리투아니아	7.0	콜롬비아	5.6
벨기에	6.9	터키	4.8
캐나다	6.9	루마니아	6.45
아일랜드	6.9	사우디아라비아	6.4
미국	6.9	브라질	6.15
체코	6.8	아르헨티나	6.1
영국	6.8	크로아티아	5.95
코스타리카	6.8	중국	5.9
슬로베니아	6.8	페루	5.8
<b>OECD 평균</b>	<b>6.7</b>	남아프리카	5.6
독일	6.7	인도네시아	5.5
프랑스	6.7	불가리아	5.4
에스토니아	6.5	인도	3.75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 03

## 정신건강문제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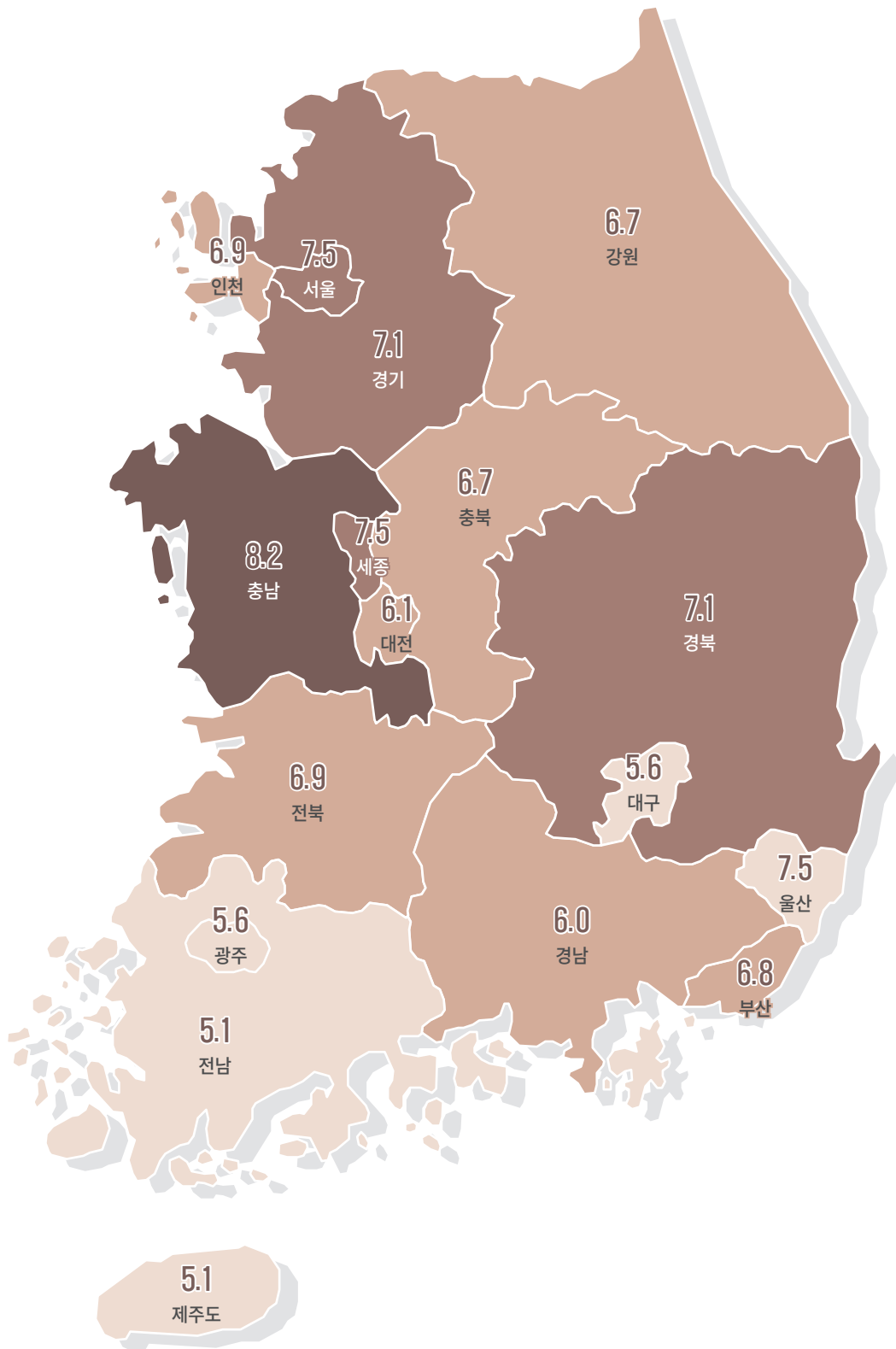
### 국내

#### 1) 우울감 경험률

- ◆ 2024년 기준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충남 지역에서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세종 및 울산 7.5%, 경기 및 경북 지역 7.1% 순임.
-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7.5	6.0	8.8
부산	6.8	4.9	8.5
대구	5.6	4.5	6.7
인천	6.9	5.5	8.2
광주	5.6	4.1	7.2
대전	6.1	4.8	7.3
울산	7.5	5.0	10.2
세종	7.5	4.8	10.2
경기	7.1	5.6	8.6
강원	6.7	4.5	8.8
충북	6.7	5.0	8.6
충남	8.2	6.1	10.3
전북	6.9	4.7	9.1
전남	5.1	4.0	6.2
경북	7.1	4.8	9.4
경남	6.0	4.2	7.8
제주	5.1	4.7	5.4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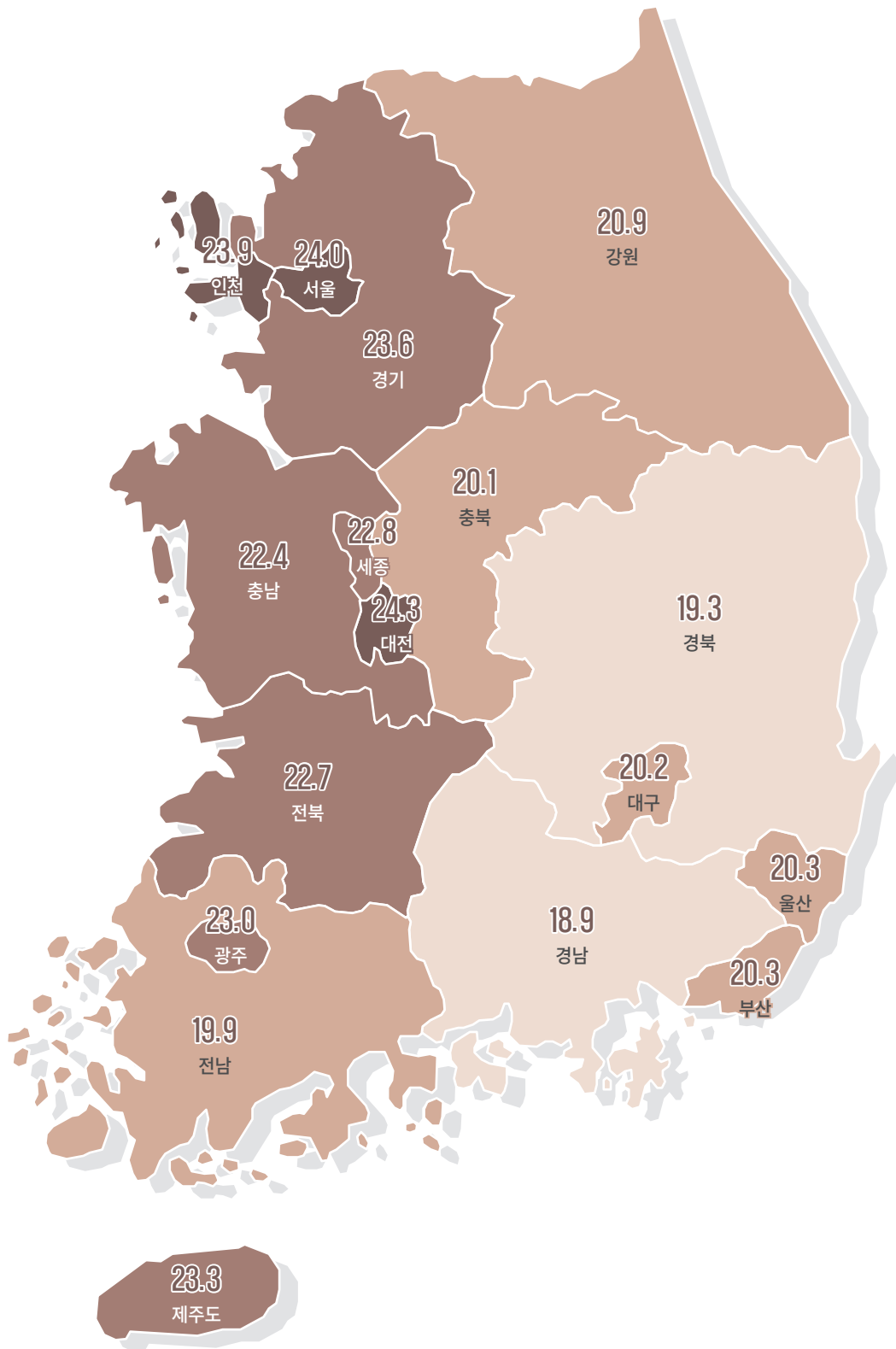


## 2) 스트레스 인지율

- ◆ 2024년 기준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대전 지역에서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 24.0%, 인천 지역 23.9%, 경기 지역 23.6% 순임.
- ◆ 성별로 살펴보면, 대전 및 대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24.0	22.8	25.0
부산	20.3	19.2	21.2
대구	20.2	20.5	19.9
인천	23.9	23.2	24.6
광주	23.0	22.0	23.9
대전	24.3	24.8	23.8
울산	20.3	18.1	22.6
세종	22.8	20.0	25.6
경기	23.6	23.2	24.0
강원	20.9	19.7	22.1
충북	20.1	19.5	20.8
충남	22.4	21.2	23.5
전북	22.7	20.5	24.8
전남	19.9	18.9	20.9
경북	19.3	18.3	20.4
경남	18.9	18.0	19.9
제주	23.3	22.3	24.3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01. 개요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4. 서울시 정신건강현황

05. 국내의 정신건강현황

06. 부록: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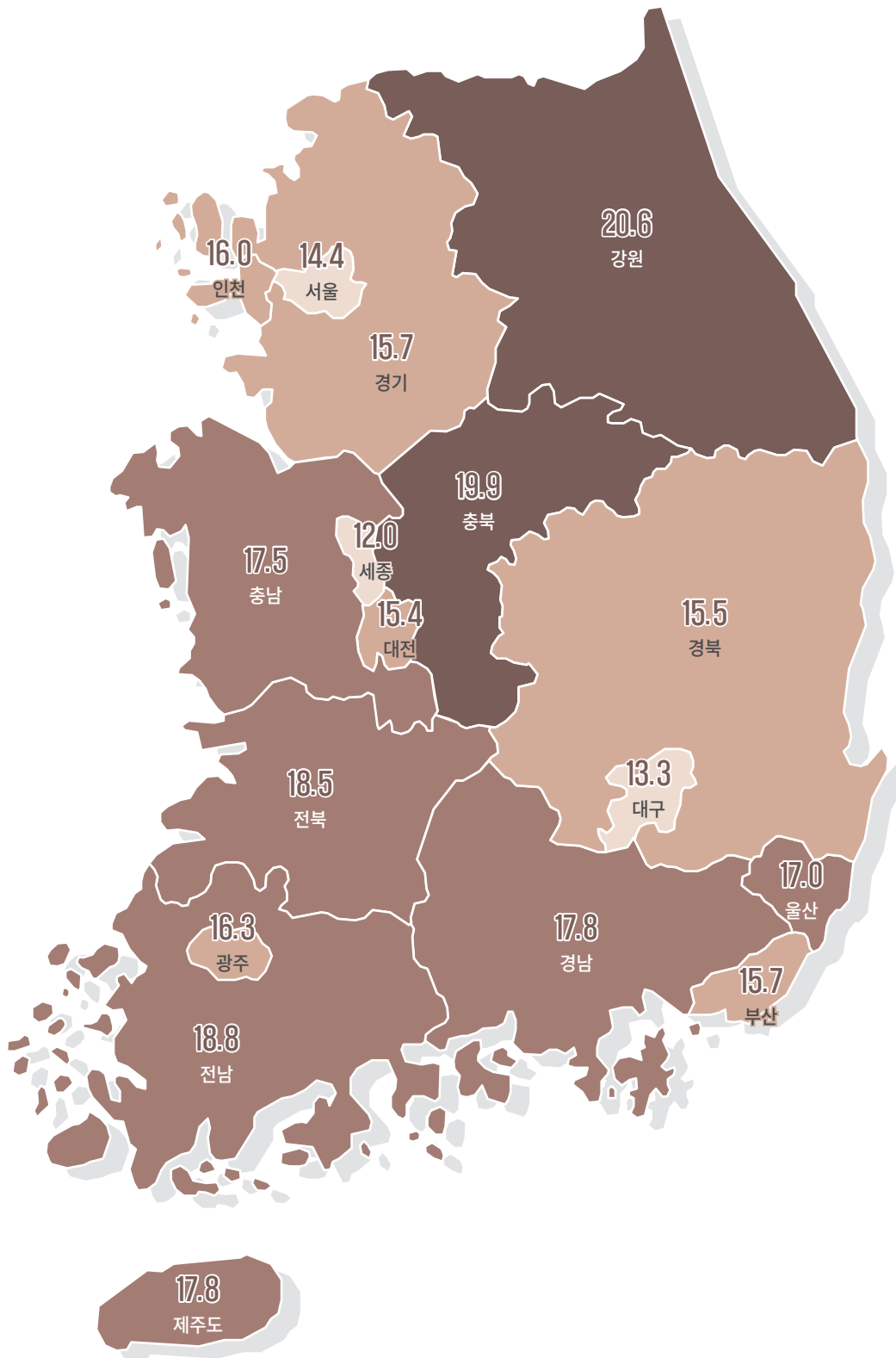
### 3)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 ◆ 2024년 기준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지역 19.9%, 전남지역 18.8% 순임.
-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확인됨.

표. 90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현황(2024)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14.4	19.6	8.2
부산	15.7	23.2	7.1
대구	13.3	19.6	5.8
인천	16.0	22.4	8.9
광주	16.3	23.8	7.9
대전	15.4	20.4	9.1
울산	17.0	25.1	7.5
세종	12.0	19.2	5.0
경기	15.7	22.7	8.0
강원	20.6	28.1	10.2
충북	19.9	26.5	11.3
충남	17.5	24.6	9.4
전북	18.5	25.5	10.0
전남	18.8	27.5	8.3
경북	15.5	23.0	7.0
경남	17.8	25.8	8.3
제주	17.8	27.9	8.8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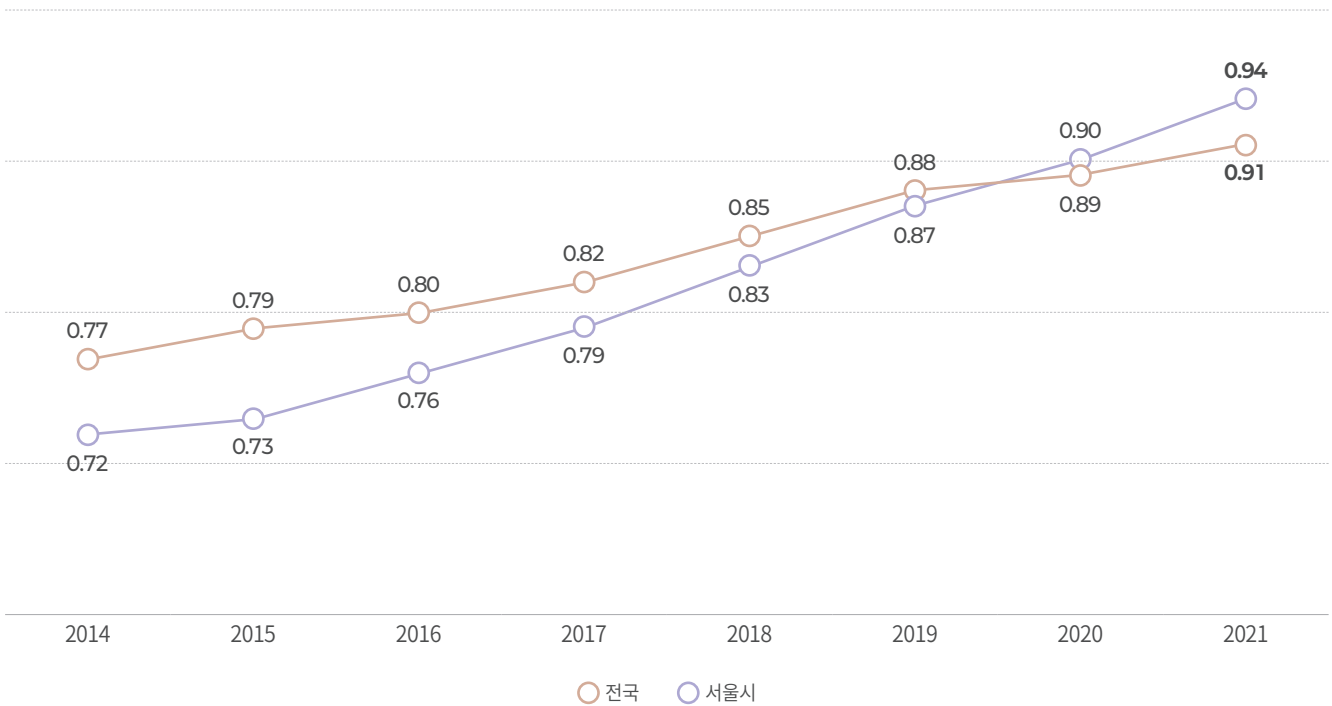
#### 4)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시 모두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 기준 전국은 0.91%, 서울시는 0.94%로 나타남.

표. 91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0.77	0.79	0.80	0.82	0.85	0.88	0.89	0.91
서울시	0.72	0.73	0.76	0.79	0.83	0.87	0.90	0.9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그림. 80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단위: %)



## 5) 중증정신질환 분포

- ◆ 국내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남성 41.8%, 여성 58.2%로 확인됨.

표. 92 국내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43.0	43.1	43.1	42.8	42.7	42.5	42.2	41.8
여성	57.0	56.9	56.9	57.2	57.3	57.5	57.8	58.2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0세 이상 59세 이하'(22.02%), '60세 이상 69세 이하'(18.31%), '40세 이상 49세 이하'(17.24%), '30세 이상 39세 이하'(12.88%), '20세 이상 29세 이하'(12.31%), '70세 이상 79세 이하'(8.85%), '80세 이상'(5.79%), '10세 이상 19세 이하'(2.53%), '9세 이하'(0.07%) 순임.

표. 93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세 이하	0.04	0.03	0.04	0.05	0.05	0.05	0.05	0.07
10세 이상 19세 이하	2.17	2.05	2.10	2.10	2.38	2.49	2.33	2.53
20세 이상 29세 이하	8.79	8.86	9.25	9.72	10.38	10.99	11.71	12.31
30세 이상 39세 이하	14.52	13.95	13.53	13.18	13.02	12.82	12.75	12.88
40세 이상 49세 이하	23.52	22.64	21.82	20.99	19.68	18.77	18.05	17.24
50세 이상 59세 이하	23.85	23.70	23.55	23.33	23.28	22.96	22.45	22.02
60세 이상 69세 이하	13.63	14.64	15.28	15.76	16.22	16.90	17.70	18.31
70세 이상 79세 이하	9.50	9.59	9.50	9.54	9.54	9.38	9.19	8.85
80세 이상	3.98	4.53	4.94	5.32	5.47	5.64	5.78	5.7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6) 정신장애 유병률

-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평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니코틴 사용장애(9.5%), 불안장애(9.3%), 우울장애(7.7%) 순으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남성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경우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음.
-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1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불안장애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니코틴 사용장애(2.7%), 알코올 사용장애(2.6%), 우울장애(1.7%) 순임. 성별 1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평생 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에서 남성의 유병률이 높았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음.

표. 94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유병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평생 유병률			1년 유병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알코올 사용장애	11.6	17.6	5.4	2.6	3.4	1.8
알코올의존	6.2	9.5	3.0	1.5	2.0	1.0
알코올남용	5.3	8.2	2.4	1.1	1.4	0.8
니코틴 사용장애	9.5	17.7	1.1	2.7	4.9	0.5
니코틴의존	8.1	15.0	1.1	2.4	4.2	0.5
니코틴금단	4.7	8.9	0.5	1.0	1.7	0.1
우울장애	7.7	5.7	9.8	1.7	1.1	2.4
주요우울장애	7.7	5.7	9.8	1.7	1.1	2.4
기분부전장애	0.5	0.3	0.6	0.2	0.1	0.2
불안장애	9.3	5.4	13.4	3.1	1.6	4.7
강박장애	0.2	0.1	0.4	0.1	0.0	0.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1.5	1.3	1.6	0.3	0.2	0.3
공황장애	0.4	0.5	0.4	0.1	0.2	0.0
광장공포증	0.3	0.2	0.4	0.2	0.1	0.3
사회공포증	0.6	0.2	1.0	0.2	0.1	0.4
범불안장애	1.7	1.2	2.1	0.4	0.4	0.4
특정공포증	6.3	2.6	10.0	2.1	0.7	3.6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 2021년 기준 우울장애 유병률의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병률은 1.7%이며 남성 1.1%, 여성 2.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군 '70세 이상 79세 미만'에서, 결혼상태 '이혼/별거/사별'에서, 교육수준 '중졸 이하'에서, 취업상태 '무직/학생/주부'에서, 거주지역 '동'에서,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미만'에서 높게 나타남.
- ◆ 2021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병률은 2.6%이며 남성 3.4%, 여성 1.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군 '18세 이상 29세 미만'에서, 결혼상태 '미혼'에서, 교육수준 '고졸, 대졸 이상'에서, 취업상태 '정규직'에서, 거주지역 '동'에서,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95 국내 정신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현황(2021) (단위: %)

구분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7	1.1	2.4	2.6	3.4	1.8
<b>연령군(만)</b>						
18~29세	1.4	1.3	1.6	4.5	5.4	3.4
30~39세	1.5	0.5	2.5	2.9	2.7	3.2
40~49세	1.5	0.7	2.3	2.7	3.3	2.1
50~59세	1.8	1.3	2.4	2.6	4.1	1.0
60~69세	1.8	2.1	1.6	1.5	2.7	0.3
70~79세	3.1	0.3	5.4	0.3	-	0.5
<b>결혼상태</b>						
기혼/사실혼/동거	1.6	1.0	2.3	2.2	3.0	1.4
이혼/별거/사별	3.5	1.9	4.4	1.7	4.4	0.3
미혼	1.3	1.1	1.6	4.0	4.0	3.9
<b>교육</b>						
중졸 이하	2.1	0.9	2.8	1.0	2.5	-
고졸	2.0	1.5	2.4	2.9	3.5	2.3
대졸 이상	1.4	0.8	2.2	2.9	3.5	2.1
<b>취업상태</b>						
정규직	0.6	0.5	0.9	2.8	3.4	1.7
비정규직	2.0	1.3	2.7	2.0	2.6	1.4
무직/학생/주부	3.5	3.0	3.8	2.7	4.1	2.1
<b>거주지역</b>						
동	1.9	1.0	2.8	2.6	3.4	1.9
읍면	1.2	1.5	0.9	2.5	3.6	1.4
<b>소득수준</b>						
기준중위소득 미만	2.0	1.5	2.6	1.9	2.7	1.2
기준중위소득 이상	1.5	0.8	2.2	3.1	4.0	2.1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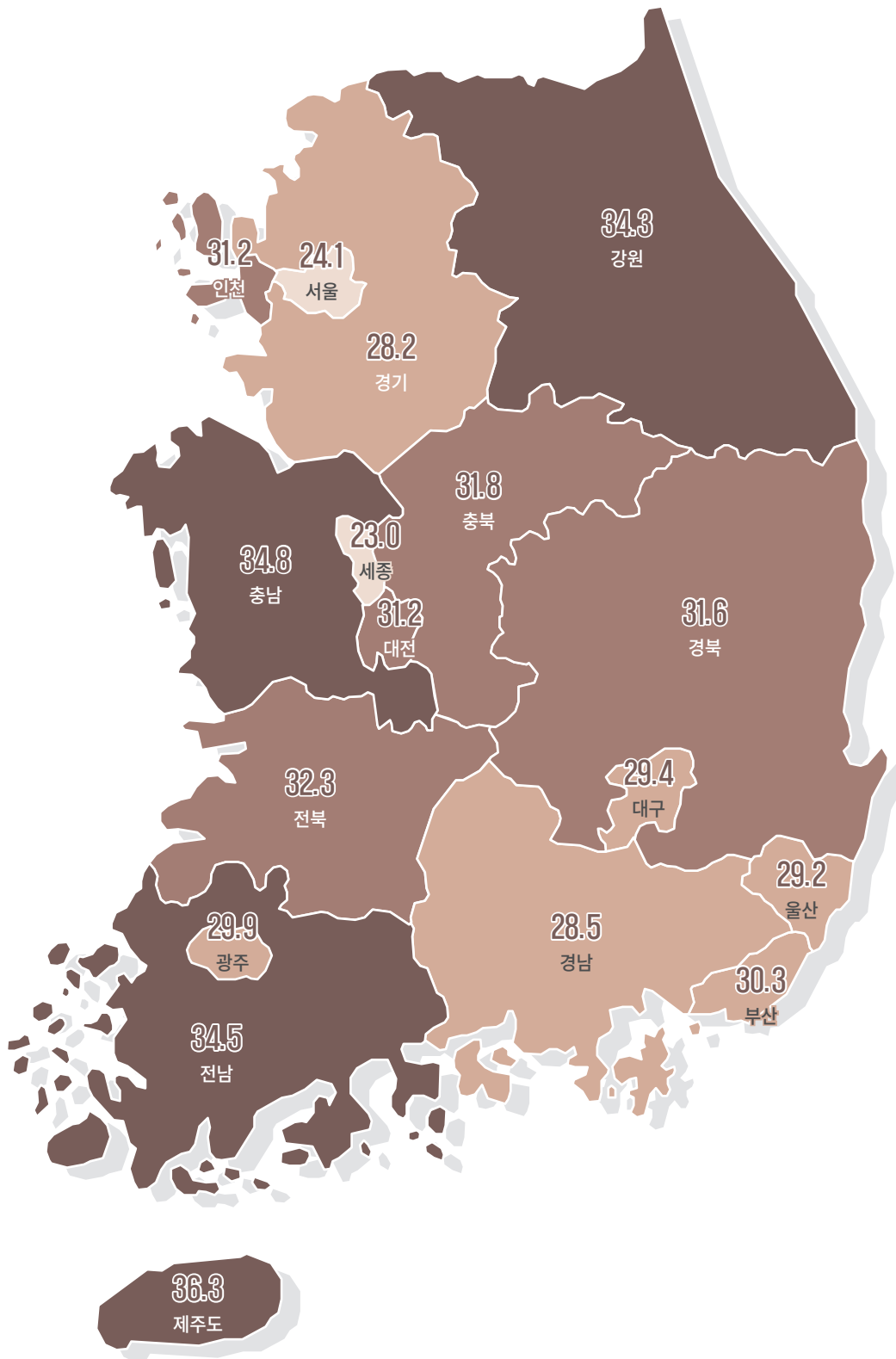
## 7) 자살 사망률

- ◆ 2024년 기준 전국 전체 사망자 수는 358,569명이며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9.1명으로 확인됨. 서울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4.1명으로 전국 대비 5.0명 적은 수치임.
- ◆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제주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4.8명, 전남 34.5명 순으로 확인됨.

표. 96 시도별 자살 사망률 현황(2024)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구분	전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자살 사망률
전국	358,569	14,872	29.1
서울	52,725	2,234	24.1
부산	26,816	989	30.3
대구	16,775	695	29.4
인천	18,827	935	31.2
광주	9,136	421	29.9
대전	8,842	448	31.2
울산	6,343	321	29.2
세종	1,646	89	23.0
경기	76,479	3,829	28.2
강원	14,413	521	34.3
충북	13,489	505	31.8
충남	18,811	740	34.8
전북	17,110	562	32.3
전남	20,108	618	34.5
경북	25,298	801	31.6
경남	26,849	921	28.5
제주	4,902	243	36.3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8) 자살 관련 행동

- ◆ 2021년 기준 자살 관련 행동 비율을 살펴보면, 평생 자살사고율, 자살계획률, 자살시도율은 각각 10.7%, 2.5%, 1.7%로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 ◆ 1년 자살사고율, 자살계획률, 자살시도율을 살펴보면 각각 1.3%, 0.5%, 0.1%로 나타났으며 1개월 자살사고율, 자살계획률, 자살시도율은 각각 0.5%, 0.3%, 0.0%로 나타남.

표. 97		국내 자살 관련 행동 현황(2021)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b>평생</b>					
자살사고		10.7	9.4	12.0	
자살계획		2.5	2.1	2.8	
자살시도		1.7	1.6	1.9	
<b>1년</b>					
자살사고		1.3	1.0	1.7	
자살계획		0.5	0.3	0.7	
자살시도		0.1	0.1	0.1	
<b>1개월</b>					
자살사고		0.5	0.2	0.9	
자살계획		0.3	0.1	0.5	
자살시도		0.0	0.0	-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1) 우울증 유병률

### 1) 우울감 경험률

- ◆ GBD 연구에 따른 2021년 기준 주요 국가별 우울증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살펴보면, 그리스에서 6.3%로 가장 높았으며 아프가니스탄 5.9%, 포르투갈 5.8%, 스페인 5.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낮은 순서로 보면 브루나이 1.9%, 싱가포르 2.2%, 대한민국 2.4%, 콜롬비아 2.5% 순임.

표. 98 국가별 우울증 연령 표준화 유병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유병률	구분	유병률
브루나이	1.9	덴마크	4.2
싱가포르	2.2	독일	4.2
대한민국	2.4	벨기에	4.3
콜롬비아	2.5	아랍에미리트	4.3
일본	2.6	인도	4.4
베트남	2.7	멕시코	4.4
폴란드	2.7	브라질	4.4
대만	2.7	노르웨이	4.4
인도네시아	2.8	네덜란드	4.4
중국	2.9	이탈리아	4.5
태국	3.1	카타르	4.5
아르헨티나	3.2	파키스탄	4.6
몰디브	3.3	이집트	4.6
캄보디아	3.4	스위스	4.7
필리핀	3.4	프랑스	4.8
헝가리	3.4	가나	4.9
자메이카	3.5	호주	4.9
체코	3.5	우크라이나	4.9
크로아티아	3.5	이스라엘	5.0
오스트리아	3.6	스웨덴	5.1
우즈베키스탄	3.7	아일랜드	5.2
말레이시아	3.7	핀란드	5.2
뉴질랜드	3.8	영국	5.2
우루과이	3.8	스페인	5.5
룩셈부르크	3.9	포르투갈	5.8
카자흐스탄	4.0	아프가니스탄	5.9
캐나다	4.1	그리스	6.3

출처: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 2) 불안장애 유병률

- ◆ GBD 연구에 따른 2021년 기준 주요 국가별 불안장애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살펴보면, 포르투갈에서 9.7%로 가장 높았으며 브라질 9.0%,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 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낮은 순서로 보면 우즈베키스탄 2.3%, 카자흐스탄 2.5%, 베트남 2.6%, 싱가포르 3.1% 순이며 대한민국은 3.5%로 나타남.

표. 99 국가별 불안장애 연령 표준화 유병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유병률	구분	유병률
우즈베키스탄	2.3	자메이카	5.2
카자흐스탄	2.5	아랍에미리트	5.2
베트남	2.6	말레이시아	5.2
싱가포르	3.1	이집트	5.2
일본	3.2	영국	5.6
가나	3.2	콜롬비아	5.6
브루나이	3.3	스웨덴	5.9
<b>대한민국</b>	<b>3.5</b>	스페인	6.0
중국	3.5	아프가니스탄	6.0
인도	3.5	벨기에	6.1
파키스탄	3.7	덴마크	6.2
태국	3.8	호주	6.2
대만	3.8	룩셈부르크	6.3
몰디브	3.9	아르헨티나	6.3
우크라이나	4.0	우루과이	6.6
폴란드	4.1	이탈리아	6.8
체코	4.1	오스트리아	7.1
인도네시아 공화국	4.2	그리스	7.2
헝가리	4.3	뉴질랜드	7.4
크로아티아	4.3	노르웨이	7.5
이스라엘	4.4	스위스	7.6
멕시코	4.5	독일	7.6
캄보디아	4.7	프랑스	7.7
핀란드	4.8	아일랜드	7.9
필리핀	4.8	네덜란드	7.9
캐나다	4.9	브라질	9.0
카타르	4.9	포르투갈	9.7

출처: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 3) 알코올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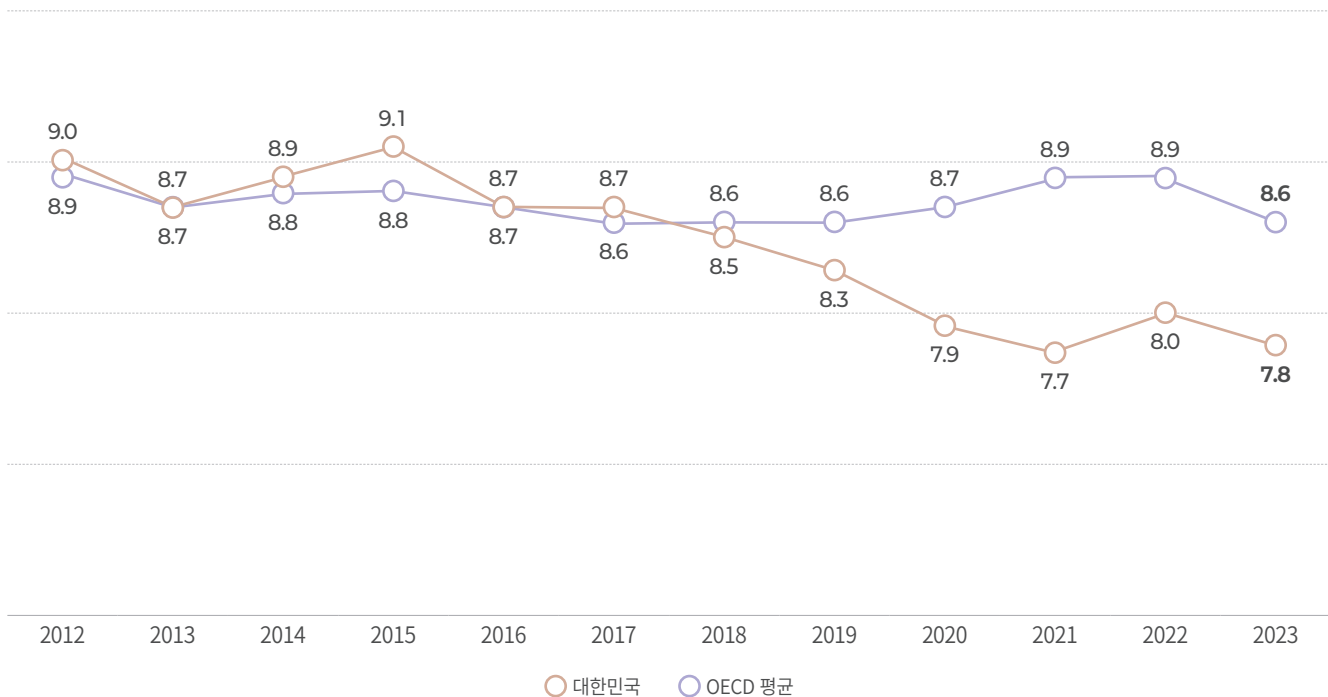
◆ OECD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OECD 평균 8.6ℓ이고 대한민국은 7.8ℓ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OECD 평균은 증감을 반복하며 대한민국은 전체 감소추세임.

표. 100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2~2023) (단위: ℓ)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OECD 평균	8.9	8.7	8.8	8.8	8.7	8.6	8.6	8.6	8.7	8.9	8.9	8.6
대한민국	9.0	8.7	8.9	9.1	8.7	8.7	8.5	8.3	7.9	7.7	8.0	7.8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2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2~2023) (단위: ℓ)



- ◆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라트비아가 11.7ℓ, 오스트리아 11.3ℓ, 체코 11.2ℓ, 스페인 11.1ℓ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적은 순으로 살펴보면, 튀르키예 1.7ℓ, 이스라엘 3.1ℓ, 코스타리카 3.4ℓ 순임.
- ◆ 대한민국의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8ℓ로 확인됨.

표. 101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ℓ)

구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구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호주	10.5	일본	6.7
오스트리아	11.3	<b>대한민국</b>	<b>7.8</b>
벨기에	9.2	라트비아	11.7
캐나다	8.1	리투아니아	11.0
칠레	7.1	룩셈부르크	11.0
콜롬비아	4.1	멕시코	6.0
코스타리카	3.4	네덜란드	7.8
체코	11.2	뉴질랜드	8.2
덴마크	7.5	노르웨이	6.4
에스토니아	10.9	폴란드	10.0
핀란드	7.4	포르투갈	10.4
프랑스	10.4	슬로바키아	9.7
독일	10.6	슬로베니아	9.7
그리스	6.3	스페인	11.1
헝가리	10.3	스웨덴	7.4
아이슬란드	7.7	스위스	8.0
아일랜드	9.9	튀르키예	1.7
이스라엘	3.1	영국	9.3
이탈리아	7.7	미국	9.5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4) 정신장애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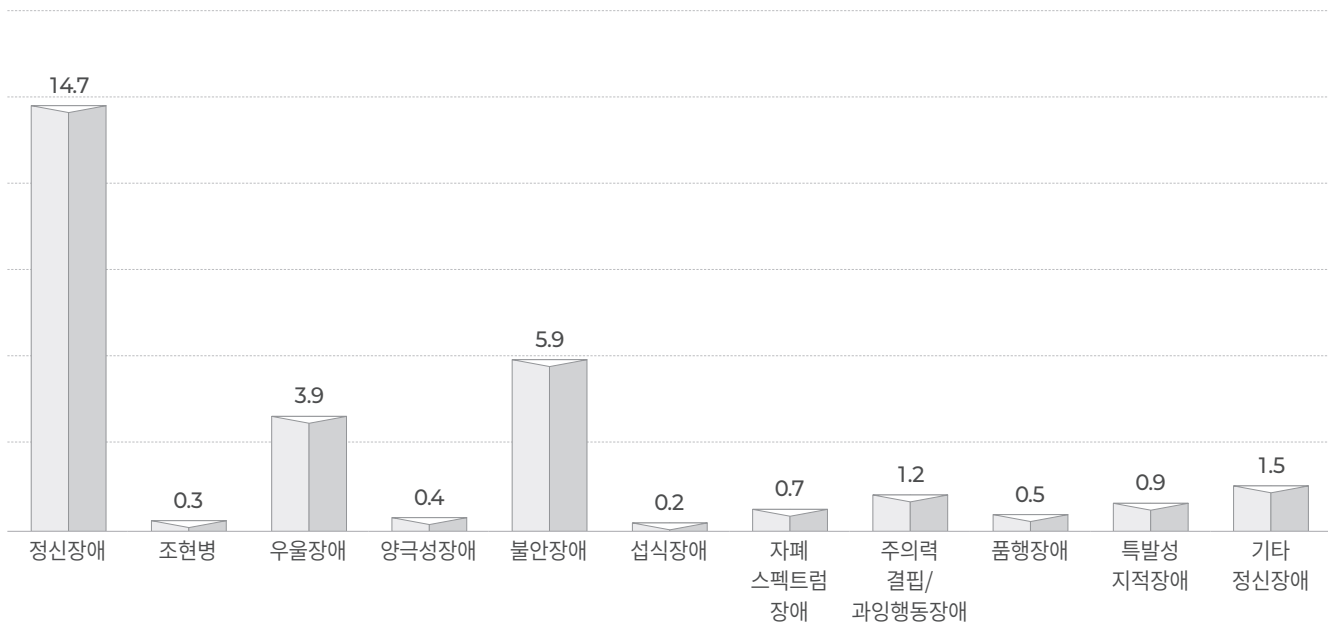
- ◆ GBD 연구에 따른 2023년 정신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유병률은 14.7%로 나타났으며, 불안장애 5.9%, 우울장애 3.9%, 기타 정신장애 1.5%,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1.2% 순임.
- ◆ 성별로 살펴보면, 불안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는 여성이, 기타 정신장애,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특발성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품행장애는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102 GBD 연구에 따른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23)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정신장애	14.7	14.0	15.4
조현병	0.3	0.3	0.3
우울장애	3.9	3.1	4.7
양극성장애	0.4	0.4	0.4
불안장애	5.9	4.6	7.2
섭식장애	0.2	0.1	0.3
자폐 스펙트럼 장애	0.7	1.0	0.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2	1.7	0.6
품행장애	0.5	0.7	0.4
특발성 지적장애	0.9	1.0	0.8
기타 정신장애	1.5	1.9	1.2

출처: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그림. 83 GBD 연구에 따른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23) (단위: %)



## 5) 정신장애 사망

- ◆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OECD 평균보다 대한민국은 더 낮은 수치를 보이며 OECD 평균 수치는 증가추세이며, 대한민국 수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 2022년 기준,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2.3명이며 대한민국은 7.1명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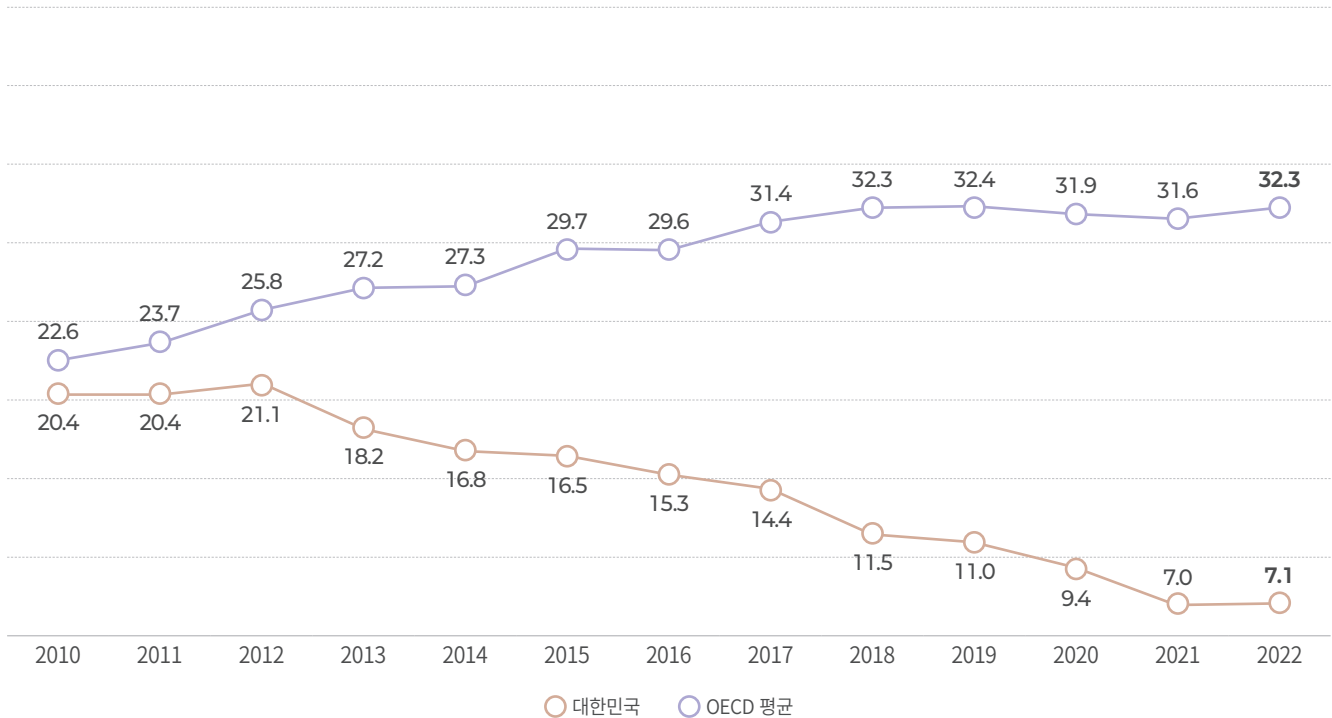
표. 103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2)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OECD 평균*	22.6	23.7	25.8	27.2	27.3	29.7	29.6	31.4	32.3	32.4	31.9	31.6	32.3
대한민국	20.4	20.4	21.1	18.2	16.8	16.5	15.3	14.4	11.5	11.0	9.4	7.0	7.1

주: 1) 공표된 수치가 아니며 OECD 국가 데이터 업데이트 시 이전 보고서와 차이 발생할 수 있음  
 2) OECD 평균의 경우 국가별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수치를 활용하여 산출함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4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2) (단위: 명)



-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영국이 66.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캐나다 64.8명, 네덜란드 64.5명, 덴마크 53.0명 순으로 나타남. 적은 순으로 살펴보면 튀르키예 0.9명, 콜롬비아 5.1명, 대한민국 7.0명, 멕시코 7.3명 순임.

표. 104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정신장애 사망자 수	구분	정신장애 사망자 수
호주	45.6	일본	9.1
오스트리아	32.3	대한민국	7.0
벨기에	36.4	라트비아	33.9
캐나다	64.8	리투아니아	13.5
칠레	21.6	룩셈부르크	44.4
콜롬비아	5.1	멕시코	7.3
코스타리카	23.2	네덜란드	64.5
체코	18.2	뉴질랜드	43.2
덴마크	53.0	노르웨이	51.4
에스토니아	13.3	폴란드	12.3
핀란드	41.0	포르투갈	35.8
프랑스	26.1	슬로바키아	10.1
독일	49.5	슬로베니아	17.0
그리스	16.4	스페인	28.6
헝가리	41.8	스웨덴	45.9
아이슬란드	33.2	스위스	48.0
아일랜드	45.7	튀르키예	0.9
이스라엘	35.4	영국	66.7
이탈리아	26.6	미국	42.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6) 양극성 장애 환자의 초과 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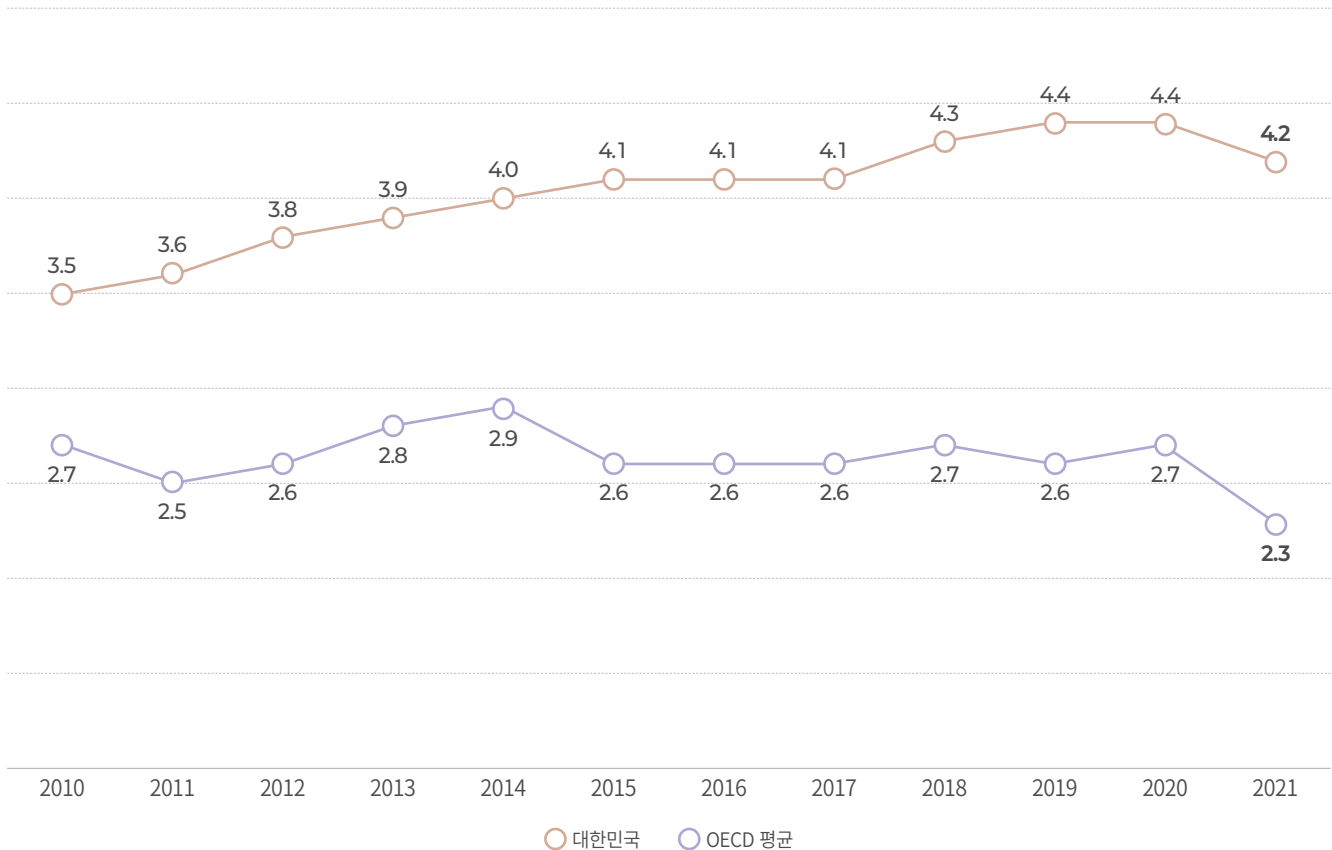
- ◆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증가하다 감소해 2021년 기준 OECD 평균 2.3, 대한민국 4.2로 나타남.

**표. 105 OECD 및 대한민국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단위: 비, ratio)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OECD 평균	2.7	2.5	2.6	2.8	2.9	2.6	2.6	2.6	2.7	2.6	2.7	2.3
대한민국	3.5	3.6	3.8	3.9	4.0	4.1	4.1	4.1	4.3	4.4	4.4	4.2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그림. 85 OECD 및 대한민국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단위: 비, ratio)



## 7)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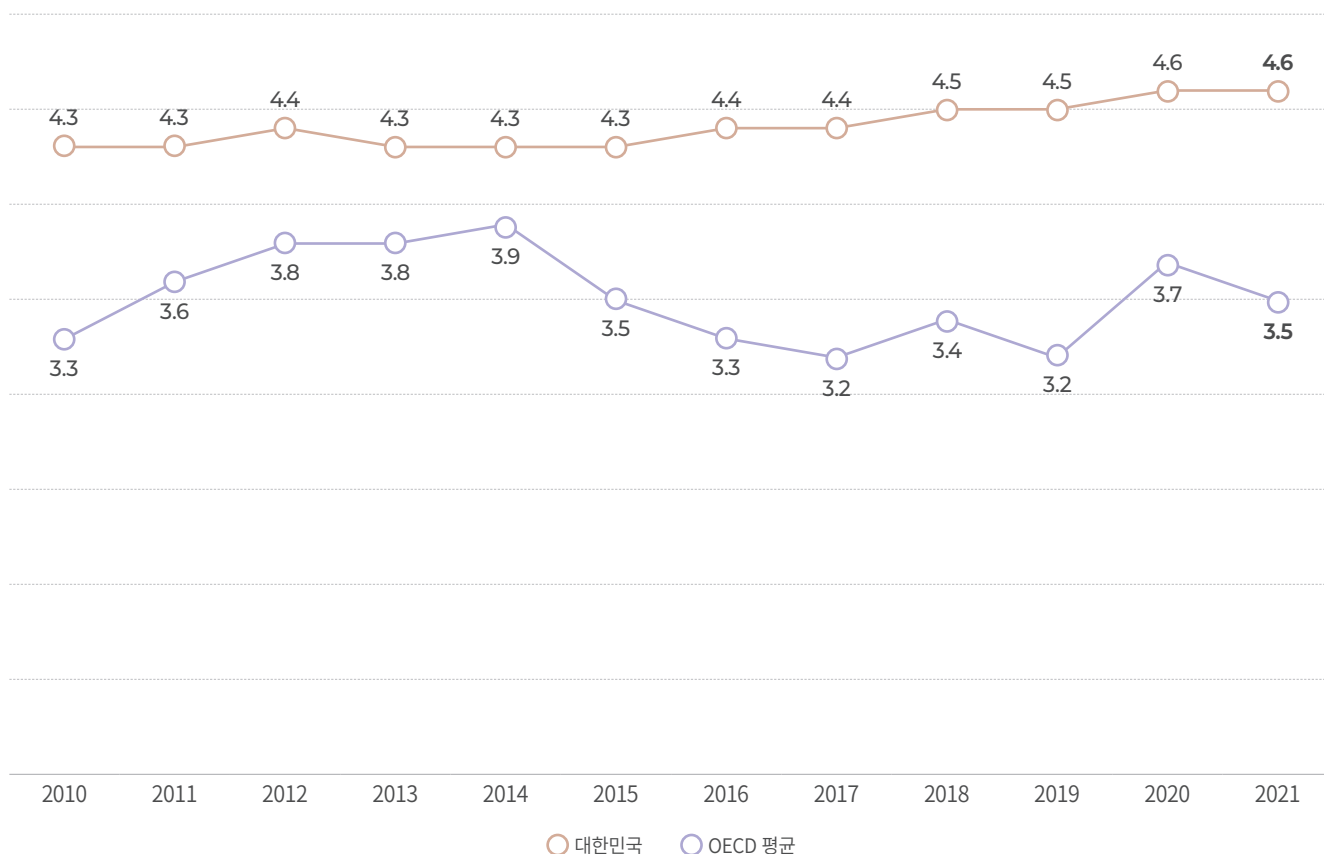
- ◆ OECD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OECD 평균 3.5, 대한민국 4.6으로 OECD 평균은 완만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대한민국은 2014년 기점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이를 보임.

표. 106 OECD 및 대한민국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단위: 비, ratio)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OECD 평균	3.3	3.6	3.8	3.8	3.9	3.5	3.3	3.2	3.4	3.2	3.7	3.5
대한민국	4.3	4.3	4.4	4.3	4.3	4.3	4.4	4.4	4.5	4.5	4.6	4.6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6 OECD 및 대한민국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21) (단위: 비, ratio)



## 8)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 ◆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동지중해지역, 유럽지역, 남동아시아지역의 자살 사망은 감소, 아프리카지역, 아메리카지역, 서태평양지역의 자살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임.
- ◆ 2021년 기준 전체 지역 자살 사망은 8.9명이며 아프리카지역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아시아 및 유럽지역 10.1명, 아메리카지역 9.2명, 서태평양지역 7.5명, 동지중해지역 4.0명 순으로 확인됨.

표. 107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3~2021) (단위: 명)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2013	10.0	12.8	8.2	6.8	13.3	11.3	8.4
2019	9.0	11.2	9.1	6.4	10.5	10.2	7.2
2021	8.9	11.5	9.2	4.0	10.1	10.1	7.5

출처: WHO, Suicide worldwide in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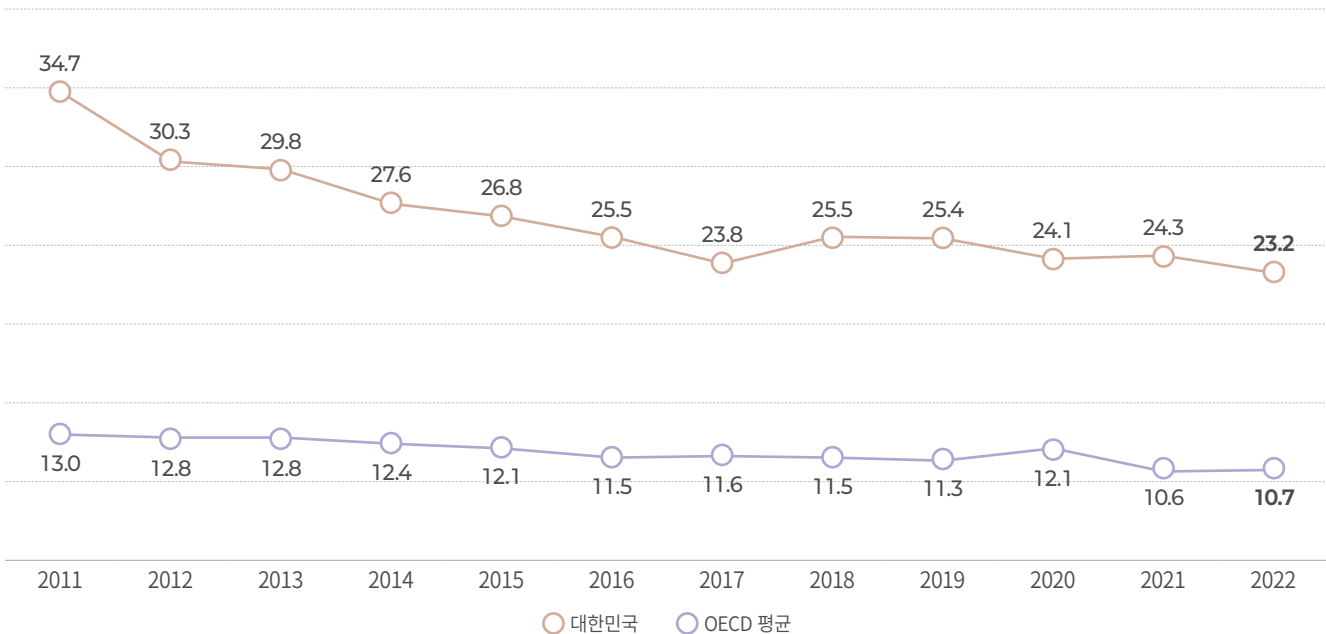
- ◆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 10.7명, 대한민국 23.2명으로 OECD 평균 및 대한민국 자살 사망 추이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표. 108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1~2022)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OECD 평균	13.0	12.8	12.8	12.4	12.1	11.5	11.6	11.5	11.3	12.1	10.6	10.7
대한민국	34.7	30.3	29.8	27.6	26.8	25.5	23.8	25.5	25.4	24.1	24.3	23.2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7 OECD 및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1~2022) (단위: 명)



-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23.2명으로 OECD 평균인 10.7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슬로베니아 17.5명, 리투아니아 17.1명, 일본 15.9명 순임. 적은 순서로 보면 이스라엘 4.4명, 그리스 4.5명, 튀르키예 4.9명, 이탈리아 5.7명 순으로 확인됨.

표. 109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현황(2022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자살 사망자 수	구분	자살 사망자 수
호주	12.8	대한민국	23.2
오스트리아	12.6	라트비아	11.4
벨기에	13.7	리투아니아	17.1
캐나다	9.1	룩셈부르크	7.6
칠레	10.7	멕시코	6.4
콜롬비아	6.2	네덜란드	10.4
코스타리카	8.8	뉴질랜드	12.1
체코	11.7	노르웨이	11.8
덴마크	9.3	폴란드	11.7
에스토니아	13.7	포르투갈	8.4
핀란드	13.2	슬로바키아	6.8
프랑스	13.1	슬로베니아	17.5
독일	9.7	스페인	7.9
그리스	4.5	스웨덴	11.8
헝가리	15.7	스위스	10.1
아이슬란드	9.0	튀르키예	4.9
아일랜드	8.5	영국	8.8
이스라엘	4.4	미국	14.6
이탈리아	5.7	OECD 평균	10.7
일본	15.9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04

## 정신질환치료

가

국내

### 1) 정신질환 진료

- ◆ 2024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진료 실인원 수는 3,283,8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비율이 매년 가장 높았으며,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30~39세의 비율이 1.4%p 증가, 50~59세, 70세 이상 비율이 1.5%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110 국내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20~2024) (단위: %)

구분	합계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0	100.0	0.1	3.3	12.8	12.8	15.0	17.2	17.5	21.3
2021	100.0	0.2	3.7	13.7	13.2	15.0	16.4	17.6	20.2
2022	100.0	0.2	4.0	14.0	13.8	15.1	15.9	17.2	19.8
2023	100.0	0.2	1.2	13.5	14.1	15.4	15.8	17.1	19.8
2024	100.0	0.2	4.4	13.3	14.2	15.3	15.7	17.0	19.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 2)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수진자

- ◆ 2024년 기준 전체 수진자 수는 2,828,076명이며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693,266명으로 나타남.
- ◆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 수진자 수를 살펴보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497.2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319.6명, 주요 우울 장애 2,325.6명이며 2020년 대비 '주요 우울 장애' 수진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111 국내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20~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수진자 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진료 수진자 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2020	2,124,345	625,603	507.2	260.1	1,719.0
2021	2,349,029	651,813	505.6	280.8	1,911.6
2022	2,521,619	675,065	505.1	302.3	2,079.6
2023	2,678,825	685,522	502.2	315.2	2,189.0
2024	2,828,076	693,266	497.2	319.6	2,325.6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3)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진료실인원 4,676,699명, 내원일수 84,519,869일, 급여일수 874,944,361일, 진료비 7,668,135,863천원, 급여비 6,191,670,528천원으로 나타남.
- ◆ 항목별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2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4) (단위: 명, 일, 천원)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전국	4,676,699	84,519,869	874,944,361	7,668,135,863	6,191,670,528
서울	871,303	10,969,092	159,016,157	1,108,562,339	876,376,731
부산	341,564	9,369,310	69,220,639	783,039,058	641,482,363
대구	233,570	4,840,318	43,765,647	425,080,526	350,834,519
인천	250,875	3,769,602	46,049,985	349,885,201	284,497,048
광주	115,762	2,923,912	21,112,185	258,656,909	210,871,550
대전	138,007	2,194,659	25,295,415	184,816,639	149,825,064
울산	85,543	2,014,908	16,371,003	169,553,447	135,163,841
세종	31,939	430,831	5,686,420	40,475,492	31,780,067
경기	1,127,975	14,897,773	207,524,469	1,446,924,066	1,147,142,704
강원	139,676	1,974,263	26,115,184	172,764,692	140,281,489
충북	151,496	2,428,347	27,901,297	209,204,127	170,269,559
충남	208,153	3,704,657	39,222,213	332,691,245	267,079,861
전북	185,875	4,550,467	35,300,439	400,481,098	327,979,394
전남	184,737	5,161,548	34,854,118	463,069,664	376,412,668
경북	253,199	6,661,845	49,406,403	582,774,586	478,226,160
경남	295,003	7,866,697	56,578,345	669,737,751	547,439,308
제주	62,022	761,640	11,524,442	70,419,025	56,008,20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4)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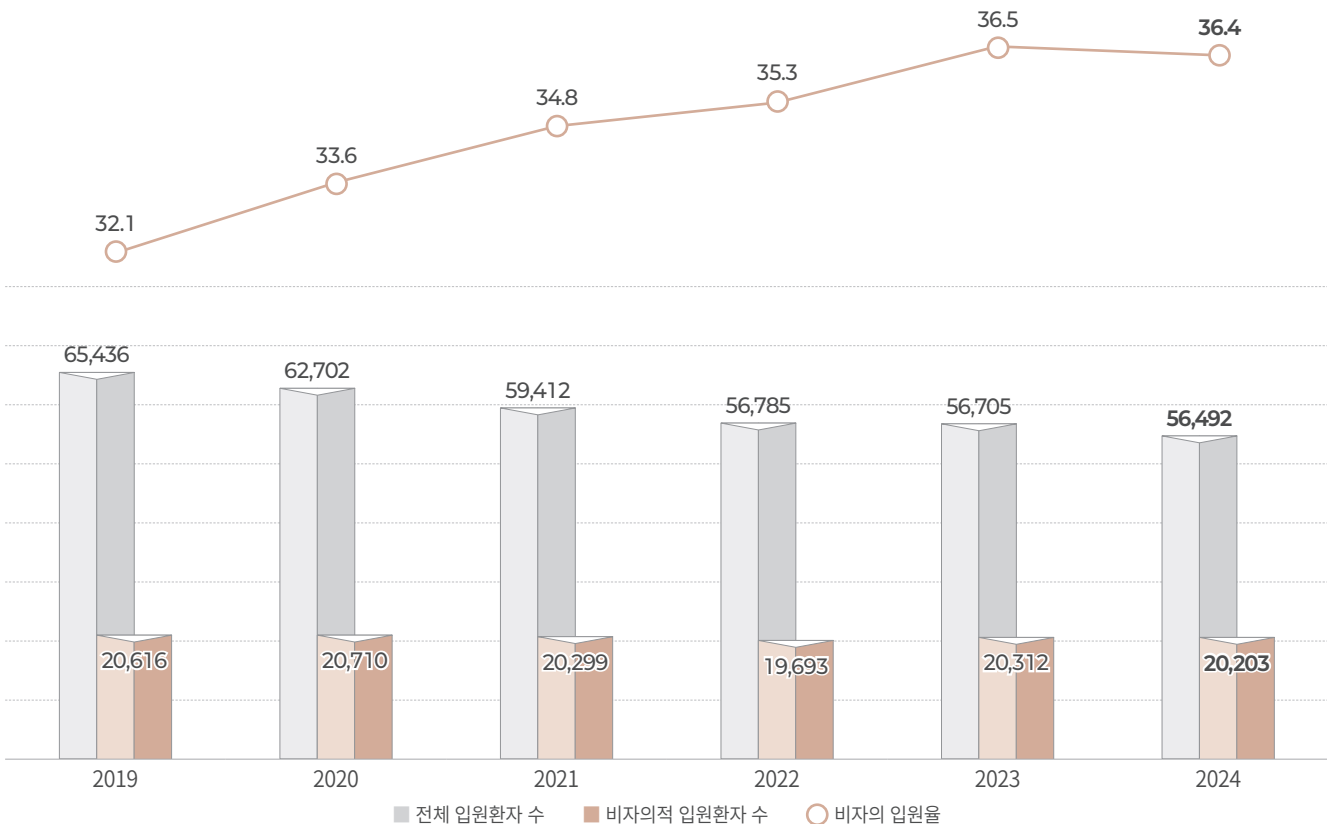
- ◆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 및 자의적 입원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비자의적 입원환자는 감소 추세이나 변화는 다소 미비함.
- ◆ 비자의 입원율은 응급 입원, 기타 입원을 제외한 비자의적 입원환자 수의 분율을 의미하며 2024년 36.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3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9~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 입원환자 수	자의적 입원환자 수	비자의적 입원환자 수	응급 입원	기타 입원	비자의 입원율
2019	65,436	43,665	20,616	107	1,048	32.1
2020	62,702	40,873	20,710	25	1,094	33.6
2021	59,412	38,115	20,299	66	932	34.8
2022	56,785	36,171	19,693	83	838	35.3
2023	56,705	35,359	20,312	225	809	36.5
2024	56,492	35,240	20,203	224	825	36.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88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9~2024) (단위: 명, %)



## 5)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재입원을

-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환자 수는 2022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 퇴원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114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20~2024) (단위: 명, %)

구분	퇴원 환자 수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2020	42,636	27,978	65.6	6,627	15.8
2021	39,927	25,289	63.3	7,099	17.8
2022	44,111	27,942	63.3	9,347	21.2
2023	43,203	28,551	66.1	6,941	16.1
2024	41,613	26,754	64.3	7,088	17.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6) 정신의료기관 자원 기간

- ◆ 2024년 기준 국내 입원환자의 입원일 중앙값은 30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 반등하였으며, 자원기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은 증가, 3개월 이상은 감소하고 있음.
- ◆ 2024년 기준 입원 환자 비율은 1개월 미만 45.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4.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7.7%, 1년 이상 3년 미만 7.7%, 3년 이상 5년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0.9%, 10년 이상 0.4%로 나타남.

표. 115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자원기간 분포 추이(2013~2024) (단위: 일, %)

구분	중앙값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3	262	11.9	16.6	15.6	13.0	18.6	7.6	7.9	8.8
2014	197	13.8	18.5	16.4	14.1	21.1	7.6	6.1	2.5
2015	207	13.8	18.0	15.9	14.5	21.2	7.6	6.5	2.4
2016	226	13.0	17.3	15.8	15.2	21.6	7.9	6.8	2.5
2017	199	12.0	17.4	14.1	19.7	21.2	7.6	5.9	2.2
2018	32	42.2	26.2	12.7	8.5	7.6	1.7	1.0	0.2
2019	31	43.8	25.7	12.9	7.9	7.1	1.6	0.8	0.2
2020	31	42.9	25.0	12.4	8.9	7.7	2.0	0.9	0.2
2021	28	46.5	25.2	12.1	7.6	5.6	1.7	1.1	0.3
2022	29	43.8	23.7	11.7	9.5	8.0	1.6	1.2	0.4
2023	29	47.0	24.2	11.4	7.5	8.1	0.9	0.7	0.2
2024	30	45.4	24.0	11.9	7.7	7.7	2.0	0.9	0.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1)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

-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28.2일,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15.9일,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44.9일, ‘기분장애’ 23.0일로 나타남.
- ◆ 진단별로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대한민국이 185.4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리스 70.4일, 스페인 54.3일 순으로 확인됨.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대한민국 99.9일, 그리스 34.7일, 헝가리 31.5일 순이며,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의 경우 대한민국 229.8일, 그리스 102.5일, 스페인 88.9일 순, ‘기분장애’는 대한민국 48.1일, 영국 38.4일, 독일 36.0일 순임.

표. 116 OECD 국가별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일)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서) 장애
호주	15.8	8.3	29.2	17.3
오스트리아	26.9	18.8	35.3	25.5
벨기에	9.6	6.1	11.4	16.8
캐나다	21.0	7.0	36.6	18.4
칠레	22.4	15.5	58.3	15.8
코스타리카	14.9	11.4	17.7	13.6
체코	39.1	31.4	67.0	34.8
덴마크	17.7	3.0	29.3	24.3
에스토니아	18.4	10.5	34.5	16.7
핀란드	19.0	4.8	39.3	16.2
프랑스	23.8	11.7	38.2	26.5
독일	27.5	15.3	35.9	36.0
그리스	70.4	34.7	102.5	35.5
헝가리	28.9	31.5	36.7	27.0
아이슬란드	10.6	6.6	17.2	10.4
아일랜드	13.7	6.5	27.7	16.3
이스라엘	44.1	5.4	63.6	30.4
이탈리아	14.1	13.5	15.5	15.4
대한민국	185.4	99.9	229.8	48.1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서) 장애
라트비아	20.5	4.4	40.3	22.6
리투아니아	20.8	9.6	38.5	18.3
룩셈부르크	26.8	22.8	49.4	21.9
멕시코	23.9	4.5	51.3	12.6
네덜란드	7.9	4.2	29.4	18.7
뉴질랜드	34.7	6.7	49.4	23.3
노르웨이	16.8	14.5	22.4	17.7
폴란드	19.9	18.1	38.6	28.7
포르투갈	22.3	17.7	28.8	21.2
슬로바키아	29.0	26.7	40.2	26.9
슬로베니아	25.7	21.8	39.8	32.6
스페인	54.3	30.2	88.9	31.8
스웨덴	14.9	4.1	45.2	15.9
스위스	27.1	19.6	36.9	32.3
튀르키예	13.3	14.4	15.8	13.3
영국	26.0	6.6	64.3	38.4
미국	6.4	4.2	10.1	6.4
평균	28.2	15.9	44.9	23.0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2)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수

-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613.4일,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107.4일,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113.7일, ‘기분장애’ 121.0일로 나타남.
- ◆ 진단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 환자의 퇴원 수는 독일이 1,529.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노르웨이 1,412.6명, 라트비아 1,409.7명 순으로 나타남.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라트비아 507.9명, 룩셈부르크 270.7명, 독일 270.4명 순,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는 라트비아 311.2명, 리투아니아 250.8명, 노르웨이 247.7명 순, ‘기분장애’는 독일 429.0명, 스위스 375.3명, 오스트리아 284.0명 순으로 많았음.
- ◆ 대한민국은 4개 진단 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423.7명, 58.9명, 70.8명, 67.1명으로 확인됨.

표. 117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현황(2023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서) 장애
호주	963.8	115.5	180.7	205.4
오스트리아	1,031.2	166.7	119.8	284.0
벨기에	240.2	74.4	13.4	29.9
캐나다	644.7	83.0	134.1	120.4
칠레	199.8	8.5	30.3	64.8
콜롬비아	277.4	3.9	1.6	68.6
코스타리카	83.5	1.8	14.3	18.3
체코	612.3	118.6	92.3	48.2
덴마크	889.0	176.8	246.8	145.6
에스토니아	723.7	93.0	151.3	129.2
핀란드	1,067.2	211.8	227.2	224.1
프랑스	979.9	152	191.6	265.0
독일	1,529.3	270.4	139.9	429.0
그리스	329.8	9.8	122.2	81.0
헝가리	738.0	82.7	156.0	144.0
아이슬란드	881.1	127.1	130.2	213.7
아일랜드	165.5	63.2	6.8	7.6
이스라엘	308.5	7.1	149.4	50.7
이탈리아	248.1	12.2	55.8	71.4
일본	277.0	23.2	93.6	67.6
<b>대한민국</b>	<b>423.7</b>	<b>58.9</b>	<b>70.8</b>	<b>67.1</b>
라트비아	1,409.7	507.9	311.2	87.5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정서) 장애
리투아니아	1,086.0	231.2	250.8	191.9
룩셈부르크	1,099.0	270.7	133.3	236.0
멕시코	37.6	4.0	5.8	10.8
네덜란드	42.3	6.2	1.8	1.1
뉴질랜드	480.6	54.8	122.8	85.9
노르웨이	1,412.6	239.4	247.7	231.7
폴란드	109.0	38.6	12.7	10.3
포르투갈	145.8	10.8	42.9	45.4
슬로바키아	763.2	203.5	136.9	105.3
슬로베니아	577.4	107.8	126	65.7
스페인	261.1	16.1	75	55.0
스웨덴	894.0	156.4	124.9	143.2
스위스	1,286.5	189.6	182.2	375.3
튀르키예	189.1	7.1	63.5	57.0
영국	286.4	69.9	42.7	38.2
평균	613.4	107.4	113.7	121.0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3) 정신장애 진단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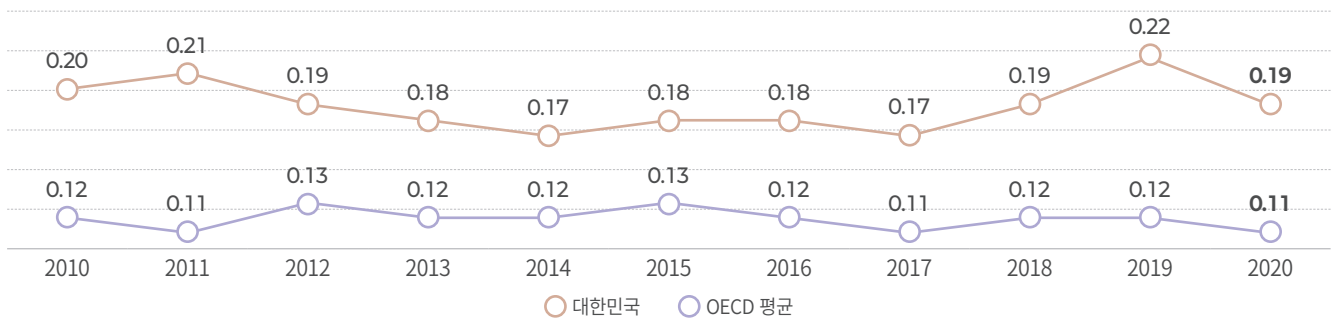
◆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0.11%, 대한민국은 0.19%로 나타남.

표. 118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OECD 평균	0.12	0.11	0.13	0.12	0.12	0.13	0.12	0.11	0.12	0.12	0.11
대한민국	0.20	0.21	0.19	0.18	0.17	0.18	0.18	0.17	0.19	0.22	0.19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9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단위: %)



### 4) 정신장애 진단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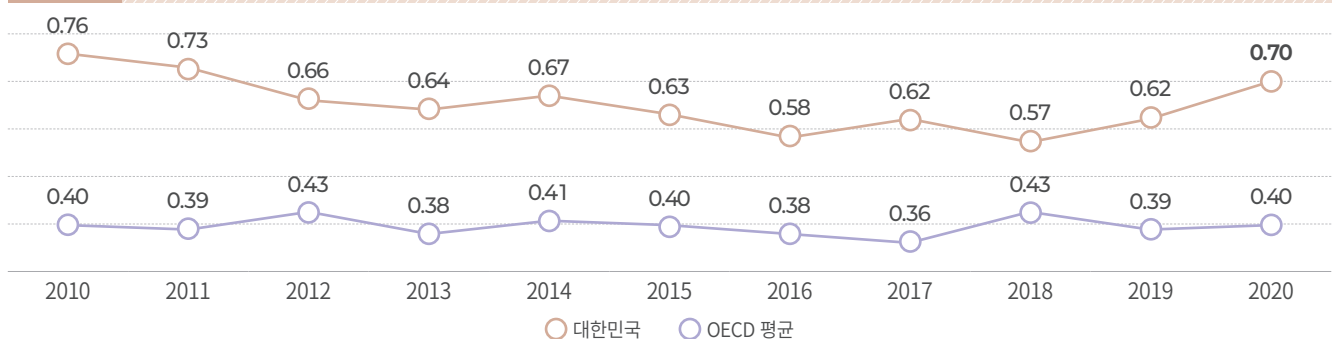
◆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0.40%, 대한민국은 0.70%로 나타남.

표. 119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OECD 평균	0.40	0.39	0.43	0.38	0.41	0.40	0.38	0.36	0.43	0.39	0.40
대한민국	0.76	0.73	0.66	0.64	0.67	0.63	0.58	0.62	0.57	0.62	0.70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90 OECD 및 대한민국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20) (단위: %)



## 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장애 진단자는 4.4%의 이용률을, 1년 정신장애 진단자는 7.2%의 이용률을 보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장애 진단자는 4.0%의 방문율을,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는 7.0%의 방문율을 보임.
- ◆ 진단별로 살펴보면 평생 및 1년 우울장애 진단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생 불안장애 진단 및 1년 우울장애 진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음.

표. 120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2021)

(단위: %)

구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전체	4.4	7.2	4.0	7.0
알코올 사용장애	3.4	2.6	3.2	2.6
니코틴 사용장애	2.0	1.1	2.0	1.1
우울장애	12.5	28.2	11.9	27.4
불안장애	6.2	9.1	53.5	9.1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 2)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 ◆ 2021년 기준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대비 상담 경험률은 4.8%이며 평생 정신장애 진단 대상자 대비 상담 경험률은 13.0%임.
- ◆ 전체 응답자 및 평생 정신장애 진단 대상자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상담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 ‘종교인’, ‘한의사/한약사/침술사’ 순으로 확인됨.

표. 121 국내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전체 응답자 상담 경험률	평생 정신장애 진단 대상자 상담 경험률
전체	4.8	13.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7	10.1
기타 정신건강전문가	0.3	0.7
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0.5	1.3
한의사, 한약사, 침술사	0.1	0.4
종교인	0.2	0.4
약사	0.0	0.1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이용·입소자

- ◆ 2024년 기준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수는, 전체 92,347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78,965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530명, 정신재활시설 6,852명으로 확인됨.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경기도가 22,6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010명, 인천 5,925명 순이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경기 1,724명, 광주 1,031명, 인천 567명 순,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2,080명, 경기 1,059명, 전북 641명 순임.

표. 122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전국	92,347	78,965	6,530	6,852
서울	11,406	9,010	316	2,080
부산	5,675	4,833	377	465
대구	3,446	2,834	177	435
인천	6,666	5,925	567	174
광주	2,704	1,475	1,031	198
대전	2,060	1,300	295	465
울산	1,450	1,205	170	75
세종	388	357	-	31
경기	25,399	22,616	1,724	1,059
강원	5,200	4,746	398	56
충북	4,933	4,594	88	251
충남	3,585	3,203	132	250
전북	3,243	2,371	231	641
전남	3,814	3,593	148	73
경북	4,966	4,509	171	286
경남	5,544	4,902	482	160
제주	1,868	1,492	223	153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4) 정신재활프로그램 이용자

- ◆ 2024년 기준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6,927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8,97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042명, 정신재활시설 4,915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경기 5,771명, 서울 2,157명, 인천 1,205명 순으로 많았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 739명, 광주 506명, 인천 220명 순, 정신재활시설은 서울 1,649명, 경기 712명, 전북 458명 순으로 나타남.

표. 123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2024) (단위: 명)

구분	전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전국	26,927	18,970	3,042	4,915
서울	3,948	2,157	142	1,649
부산	1,524	934	155	435
대구	1,326	876	98	352
인천	1,558	1,205	220	133
광주	1,107	431	506	170
대전	1,048	668	128	252
울산	392	183	134	75
세종	83	72	-	11
경기	7,222	5,771	739	712
강원	1,312	1,125	162	25
충북	1,351	1,147	45	159
충남	918	788	96	34
전북	1,287	735	94	458
전남	922	816	76	30
경북	1,057	784	115	158
경남	1,258	944	194	120
제주	614	334	138	142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5)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 ◆ 2024년 기준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울산에서 17.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부산 17.7명, 전북 18.1명, 대전 18.5명 순임.
- ◆ 서울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23.7명으로 전국 22.5명보다 1.2명 많았으며, 전체 시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표. 124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4) (단위: 명)

구분	등록 정신질환자 수	사례관리자 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전국	86,121	3,834	22.5
서울	9,446	399	23.7
부산	5,210	295	17.7
대구	3,011	150	20.1
인천	6,492	228	28.5
광주	2,506	121	20.7
대전	1,595	86	18.5
울산	1,375	78	17.6
세종	357	19	18.8
경기	24,846	1,052	23.6
강원	5,144	203	25.3
충북	4,682	192	24.4
충남	3,335	164	20.3
전북	2,602	144	18.1
전남	3,741	184	20.3
경북	4,680	217	21.6
경남	5,384	238	22.6
제주	1,715	64	26.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 2024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46개소 중 244개소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 및 아동 청소년 사업 242개소, 자살예방 237개소, 재난관리 사업 234개소, 알코올/중독사업 94개소,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7개소, 노숙인 정신보건 사업은 3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5 시도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2024) (단위: 개소)

구분	개소수	중증 정신질환	아동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	재난관리 사업	노숙인 정신보건	공동모금회 지원	기타
전국	246	242	242	237	244	94	234	3	7	42
서울	25	25	25	24	25	22	25	-	-	3
부산	16	16	16	16	16	1	16	2	-	3
대구	9	9	9	9	9	1	9	1	1	-
인천	11	11	11	11	11	4	11	-	-	1
광주	5	5	5	5	5	-	5	-	1	2
대전	5	5	5	5	5	-	5	-	-	-
울산	5	5	5	5	5	-	5	-	-	-
세종	1	1	1	1	1	1	1	-	-	1
경기	37	34	33	31	35	13	31	-	3	13
강원	18	18	18	18	18	10	18	-	-	6
충북	14	14	14	14	14	4	13	-	1	1
충남	17	16	17	16	17	3	15	-	-	5
전북	14	14	14	14	14	8	13	-	1	2
전남	23	23	23	22	23	11	21	-	-	-
경북	24	24	24	24	24	5	24	-	-	3
경남	20	20	20	20	20	10	20	-	-	2
제주	2	2	2	2	2	1	2	-	-	-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 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 ◆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대한민국은 12.1%로 확인됨.

표. 126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대한민국	일본	남아공	호주	스페인	뉴질랜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비율	12.1	20.0	25.2	34.9	35.5	38.9	39.5	43.1	46.5

주: 대한민국은 평생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조사한 서비스 이용률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 2)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 ◆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복수로 운영하는 비율은 응답국 중 전체 63%이며 남동아시아지역이 100%로 가장 높았고, 유럽지역 80%, 아메리카지역 67%, 서태평양지역 60%, 동지중해지역 55%, 아프리카지역 22% 순임.

표. 127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복수 운영 국가 비율 현황(2024) (단위: %)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유럽지역 (EUR)	동지중해지역 (EMR)	서태평양지역 (WPR)
비율	63	22	67	100	80	55	60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 ◆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유아 발달’ 프로그램이 86%, ‘자살예방’ 프로그램 80%, ‘학교 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 78%, ‘직장 관련 정신건강’ 프로그램 72%, ‘정신건강인식/낙인 방지’ 프로그램 70%, ‘주산기 및 산모건강’ 프로그램 69% 순으로 나타남.

표. 128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주요 기능 현황(2024) (단위: %)

구분	정신건강인식 /낙인 방지 (Mental health awareness/ anti-stigma)	자살예방 (Suicide prevention)	유아 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학교 기반 정신건강 (School-based mental health)	주산기 및 산모건강 (Perinatal and maternal health)	직장 관련 정신건강 (Work-related mental health)
비율	70	80	86	78	69	72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2024

# 06

## 부록: 참고자료

---

기관명	자료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서울특별시 예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보건복지통계연보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WHO	Mental Health Atlas
	Suicide worldwide in 2021
OECD	Health at a Glance
	Health statistics
	Society at a Glance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GBD)

2024

#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초 판 2011년 3월  
8 판 2025년 11월  
발 행 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 획 자 데이터정보운영팀  
전 화 02-3444-9934  
팩 스 02-3444-9961  
홈 페이지 <https://seoulmentalhealth.kr/>  
제 작 업 체 (주)디자인위드  
도서목록번호 가2025-11  
비 매 품

ISBN(ISSN) (Print): 2951-2220

ISBN(ISSN) (Online-PDF): 3022-1471

본 저작물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서울시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정신건강복지센터

